



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시리즈
통권 제2호

Reform-minded Centrism

중도개혁주의

— 철학 · 정책 · 비전 —



재단법인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The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저자소개

이 양 호

1978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정치학석사
1989년 프랑스 소르본느(Sorbonne)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년 프랑스 시앙스포(I.E.P. de Paris) 소련동구권학 DEA학위
1991~1992년 월간 『민주광장』 발행인 겸 편집인
1993~1997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1993~1996년 국회정책연구위원회(교섭단체 민주당 소속)
2001~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
2006~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2007~현재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교육연수실장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의 국가와 사회』, 도서출판 동방, 1997
『China 2050 Project』, 여성신문사, 2005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외 다수

앨 프롬(AI From)

1979~1980년 카터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책 부보좌관
1981~1985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총회 사무처장
1985~현재 미국 민주당리더십협회(DLC)설립자이자 현CEO
미국 민주당리더십협회가 발간하는 저널『신민주당』, 『청사진』과
주요 신문에 다수의 글 기고

브루스 리드(Bruce R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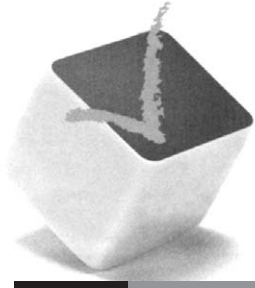
1992~2000년 백악관 수석정책보좌관
1998~2005년 『청사진』 책임편집인
2006~현재 미국 민주당리더십협회회장
『계획: 미국을 위한 큰 아이디어』공저, Public Affairs, 2006

빌 클린턴(Bill Clinton)

1993~2001년 미국 42대 대통령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97~2007년 영국총리



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시리즈
통권 제2호

Reform-minded Centrism

중도개혁주의

-철학 · 정책 · 비전-



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시리즈
통권 제2호

Reform-minded Centrism
중도개혁주의
- 철학 · 정책 · 비전 -

인쇄일 | 2007년 11월 15일

발행일 | 2007년 11월 15일

발행처 | 재단법인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14층 Tel. 02-3775-0652
Fax. 02-784-1279
<http://www.minjoins.com>

발행인 | 박상천

편집인 | 황태연

저 자 | 이양호 / 앨 프롬 / 브루스 리드 / 빌 클린턴 / 토니 블레어

번 역 | 이진복


기획·편집 | 이상환 / 김현배 / 김영동 / 김민수 / 박민호

[본서 내용의 무단 전재 · 복제를 금함] | 비매품 |



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시리즈
통권 제2호

Reform-minded Centrism
중도개혁주의
- 철학 · 정책 · 비전 -

 재단법인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민주당 The National Strategy Institute



Contents

발간사

제1장

중도개혁주의(Reform-minded centrism)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온다

1. 서언 : 중도개혁주의를 탄생시킨 역사의 수레바퀴	11
2. 중도개혁주의를 둘러싼 찬반 논쟁	16
3.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국가와 사회	23
4.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경제정책	31
5. 중도개혁주의에서 보는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36
6. 결론 : 중도개혁주의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	44

제2장

미국 민주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민주당리더십협회 클리블랜드 총회에서 기조연설(빌 클린턴)	48
------------------------------------	----

2.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	57
3.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	87
4. 제3의 길(민주당리더십협회)	92
5. 문제는 가치와 경제(앨 프롬)	94
6. 올바른 싸움(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98
7.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106

제3장

영국 노동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토니 블레어)	116
2.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에(1997년 노동당 선거강령)	137
3. 새로운 영국(토니 블레어)	195

부록

영어원문 자료	199
---------	-----

발간사

제2호 《중도개혁주의》는 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논문과 미국과 영국의 중도 개혁주의 주요문서들을 국역한 글들을 실었다. 이는 창간호에서 다하지 못한 《중도개혁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영문(英文)국제자료집(2007년 8월 간행)의 국역을 완수한 것이기도 하다.

이양호 박사의 논문, 〈중도개혁주의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온다〉는 중도개혁주의에 대한 학계의 논쟁들을 정리하고 분석한 글이다. 중도개혁주의에 대한 찬반 논리를 설명하고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국가와 사회관계, 경제와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중도개혁주의가 보는 사회구조변화와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민주당의 주요문서들을 실었다. 〈민주당리더십협회 클리블랜드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에서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제3의 길’의 기본 가치들인 기회(opportunity), 책임(responsibility), 공동체(community)를 최초로 선언했다. 클린턴은 이 연설을 “내가 했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연설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회상하면서, “17년 정치생활에서 배운 것과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정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연설은 그의 ‘선거운동의 청사진’이 되었다.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은 처음으로 구좌파와 신우파를 넘어서는 ‘제3의 길(a third way)’을 기회와 책임의 장에서 명문화했다. 기존 민주당의 협소한 이익집단에 초점을 맞춘 백화점식 선거강령이 아니라 기회, 책임, 공동체의 보편가치에 기초한 혁신적 선거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는 미국 건국의 이상을 재활성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들에게 기회와 동반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리더십협회의 〈제3의 길〉은 중도개혁주의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대중적 정의이다. 앨 프롬(Al From)의〈문제는 가치와 경제야 It's Values And The Economy〉는 가치와 경제가 모두, 선거에서 중요하며 중도개혁주의는 가치 이슈에서 양극화 입장을 지양하고 경제

이슈에서 성장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Bruce Reed)의 〈올바른 싸움〉은 2004년 대선을 맞이하여 민주당은 단순히 부시에게 네거티브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비전과 어젠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잊혀진 중산층과의 10개항의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 프롬과 리드의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는 ‘테러와의 전쟁시대’를 맞이하여 기회, 책임, 공동체의 중도개혁주의 가치에서 ‘공동체’를 ‘안보(security)’로 바꿔야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 노동당의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들을 실었다.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당대표 수락연설인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은 중도개혁주의의 유럽 상륙을 알리는 자료다. 여기서 블레어는 중도개혁주의에 기초한 노동당과 영국의 현대화를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영국 노동당 선거강령인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에〉는 ‘신중도와 중도좌파 정치(new centre and centre-left politics)’ 프로그램으로 18년간의 신우파 보수당 통치를 종식하고 중도개혁주의로의 정치지형의 변화를 이끈 역사적 문건이다. 〈새로운 영국〉은 총리가 된 블레어가 영국 현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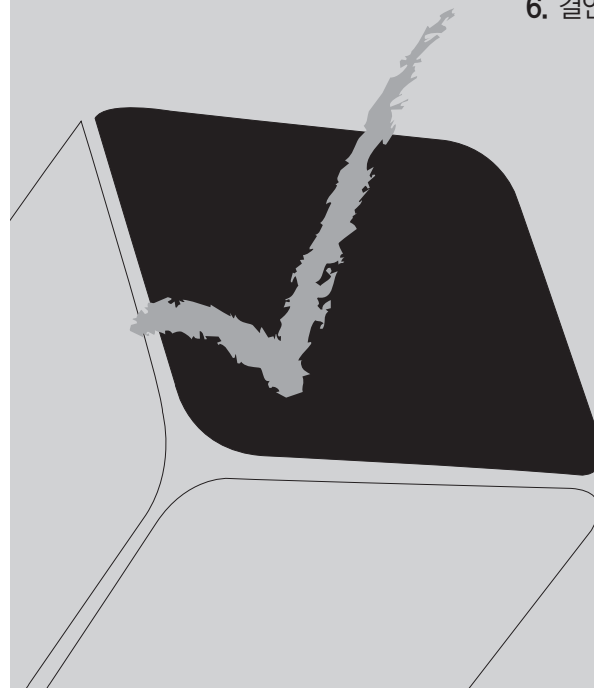
통합민주당의 출범과 함께 중도개혁주의가 다시 중심을 잡고 있는 이때, 제2호 《중도개혁주의》가 창간호와 더불어, 중도개혁주의의 확산과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7년 11월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소장 황태연 배

제1장 | 중도개혁주의

(Reform-minded centrism)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온다

1. 서언 : 중도개혁주의를 탄생시킨 역사의 수레바퀴
2. 중도개혁주의를 둘러싼 찬반 논쟁
3.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국가와 사회
4.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경제정책
5. 중도개혁주의에서 보는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6. 결론 : 중도개혁주의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



중도개혁주의 (Reform-minded centrism)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온다*

이양호

1 서언 : 중도개혁주의를 탄생시킨 역사의 수레바퀴

중도개혁주의는 한국의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이념이며 정책방향이다. 최근 새로운 민주당이 통합되면서 중도개혁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중도개혁주의는 기본적으로 좌우의 대립,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어 (beyond) 새로운 제3의 길을 찾는 것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유럽 대륙에서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물론 제3의 길 개념이 모호하다거나 영미식의 사회민주주의라거나 하는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도개혁주의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본 논문은 국가전략연구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

중도개혁주의는 과거 인류사회가 겪었던 좌파적 이념과 우파적 이념의 대립 속에서 좌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실용적 정치노선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적인 자유방임주의의 관점은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이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전체 공동체가 부유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케인즈적 관점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펌프질(pump-priming)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좌파적 입장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평균주의자들(levellers) 그리고 땅파는 자들(diggers), 프랑스에서는 쌍귀로프(sans-culottes)들이 나타나고 프랑스 혁명에서 급진주의적 변혁에 참여한다.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던 파리코뮌이 나타났지만 이들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었다.

1848년 혁명은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감자기근(potato famine)"이 불어 닥쳐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적 이상이 다시 불 붙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에서의 1880년대 농민반란, 중국에서의 태평천국의 난, 베트남에서의 타이슨 반란(Tayson Rebellion), 미국에서의 셰이(Daniel Shay)의 반란 등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 사건들이다. 결국 맑스주의가 나타나고 베른스타인(Bernstein)적인 수정주의가 나타난다. 레닌에 의해 만들어진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사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로 변질되고 과거 좋은 의미로 쓰여졌던 독재(dictatorship)라는 말이 점차 나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혁명에서 테러를 통해 시민성(civility)을 높이는 명목으로 테러가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에서의 스탈린주의는 전체주의적 독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실 독재라는 말은 로마시대에는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한 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제1세계가 나타나고 제2세계가 나타나고 제3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1세계는 서구와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를 말하고 제2세계는 사회주의 국가를 지칭하였다. 제3세계라는 말은 1950년대 프랑스의 인류학자 발랑디에(George Balandier)가 사용하고 파농(Frantz Fanon)이 제시한 개념

으로 제1, 2 세계에 속하지 않는 못사는 국가들을 의미했다. 이들 국가들은 비동맹노선을 추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이러한 제3세계 개념과 비슷한 제3의 길이라는 표현도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맑스주의자들(Austro Marxists)이 볼셰비즘과 자본주의 사이의 새로운 길을 표현하기 위해 제3의 길을 사용한 바 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에 식(Ota Sik) 등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제3의 길로 표현하기도 했다.¹⁾ 물론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즘도 제3의 길을 이야기 했었다. 파시즘을 추종하는 지식인들에게는 파시즘이 유럽에서의 정신혁명으로 간주되고 자유주의나 맑스주의와 구별되는 제3의 길이라고 말해졌다. 대중사회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환경에 적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솔리니는 에마뉴엘리(Emanuelli) 같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경제사회적 정신적 질서를 구축하려 했고 끊임없이 진보하는 독트린으로서 앞을 내다보는 가능성의 체제(forward-looking regime of possibility)라고 정당화했다.²⁾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특히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만들어지고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다시 좌우를 뛰어넘는 제3의 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급진적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충격요법(shock therapy)을 통해 사유화를 추진하였고 많은 동구권 국가들은 토지를 공산 정권 이전의 소유자들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재조정하여 사유화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국가에서도 개혁 개방을 통해 과거 추구하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동일시하고 있을 정도로 변하였다.

제3의 길은 라탐(Mark Latham)이 지적하듯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충돌이라는 지난 2세기간의 이데올로기적 긴장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사회주의의 근본적 가치인 박애(fraternity)와 평등(equality)이 자

1) 김호균, 《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 서울: 백의, 2001, p.18.

2) Ruth Ben-Ghiat, "Italian Fascism and the Aesthetics of the Third Wa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31, no.2, Special issue, April 1996, pp.293-234.

유시장경제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책임(responsibility), 인센티브(incentives), 분권(devolution)의 가치를 강조하는 21세기형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³⁾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정보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산업의 여파로 새로운 노동계층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과거 추구하던 복지사회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모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산업경제가 21세기를 맞아 지식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탈자본주의사회(Post-Capitalist Society)>(1993)에서 후기자본주의사회의 중력 중심은 지난 250년 전에 지배했던 중력중심과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생산수단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고 자연자원(토지)도 노동도 아니며 그것은 지식이며 지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⁴⁾

21세기에 들어 중도개혁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다름아닌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이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1992년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기된 중도개혁주의는 민주당리더십협회(DLC: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와 그 산하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가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운동은 <새로운 진보 선언(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에서 제기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블레어(Tony Blair)와 쉬뢰더(Gerhard Schröder)가 정권을 잡게 된다. 1998년 유럽연합 15개 국가 중 13개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제3의 길"은 1997년 블레어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이 런던에서 만나 다음해 뉴

욕에서 회담을 가지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1999년 클린턴과 민주당리더십협회가 주최한 회의에 토니 블레어, 독일 수상 쉬뢰더, 네덜란드 Wim Kok, 이탈리아 마씨모 달레마(Massimo D'Alema)가 참석하고 <제3의 길: 21세기를 위한 진보 거버넌스(The Third Way: Progressive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를 채택한다.

본고는 중도개혁주의가 현재 한국 정치의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중도개혁주의가 한국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중도개혁주의에 관한 학자들의 논쟁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중도개혁주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중도개혁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리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국가와 사회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경제와 경제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개혁주의가 보는 사회구조변화와 사회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3) Mark Latham, "The Third Way: An Outline," Anthony Giddens, 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 Cambridge: Polity, 2001, p.26.

4) http://www.radicalmiddle.com/writers_n_pols.htm.

2 중도개혁주의를 둘러싼 찬반 논쟁

중도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되면서도 개념 규정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도개혁주의는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셰필드 대학 정치경제연구센터의 겐블(Andrew Gamble)과 켈리(Gavin Kelly)는 몇 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제3의 길이 양자간의 중간적 대안(alternative)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사회조직체제간의 중간적 대안, 시장과 국가의 자원 배분 원칙간의 중간적 대안, 미국과 유럽간의 자본주의 모형의 중간, 구좌파와 신우파의 이데올로기간의 중간적 대안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는 사회주의 원칙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공해주는 수정된 사회민주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새롭게 서로 다른 사상들을 결합시켜 정치적 연속성의 급격한 붕괴를 합리화시키는 논리라고 지적한다.⁵⁾

영국이나 미국에서 표현되는 "제3의 길"은 단순히 좌와 우사이의 타협(compromise)이 아니다. 제3의 길은 블레어의 말을 빌리면 "구좌파와 신우파를 뛰어넘어(Beyond Old Left and New Right)"를 의미한다. 여기서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좌파는 케인즈적 평등적 사회민주주의자(Keynesian, egalitarian social democrats)를 의미한다. 구좌파가 혼합경제의 테두리내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했고 너무 분배에 치중해 부의 창출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크로스랜드(Tory Crosland)의 사회민주주의로부터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대안적 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의 국가사회주의(social statism)에 이르는 좌파를 일컫는다. 신우파는 대처의 보수주의(Thatcherite conservatism)를 의미한다. 모든 문제에 시장주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국가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적 성격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보수당정부에 영향을 미친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일컫는다.⁶⁾

미국에서는 급진중도(radical middle)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radical middle이라는 용어는 1968년 조지 월리스(George Wallace)의 지지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가 1992년에 페로(Ross Perot)가 다시 사용한 말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민주당리더십협회가 사용하고 있다. radical middle과 비슷한 표현으로 "sensible center"라는 개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이다. "sensible center"는 1964년 만들어진 리펀회(Ripon society)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골드워터(Goldwater)의 보수주의로부터 공화당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⁷⁾ radical middle과 비슷한 표현으로 radical center가 있다. 린드(Michael Lind)에 의하면 "radical center"라는 말은 1970년대 사회학자인 워런(Donald Warren)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에는 소외된 민주당과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조지 알라스를 지지하기 위해 뉴딜연합(New Deal coalition)에서 탈퇴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중서부, 남부, 서부 지역 출신들로서 백

5) <http://www.netnexus.org/library/papers/3way.html>.

6) Stephen Driver and Luke Martell, "Left, Right and the third way," *Policy & Politics*, vol.28, no.2, p.149.

7) http://www.radicalmiddle.com/writers_n_pols.htm.

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경제문제에서는 자유주의적이며 급진적(radical)이었지만 도덕과 윤리에서는 보수적이었다.⁸⁾ 할스테드(Ted Halstead)와 린드(Michael Lind)에 의하면 radical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라틴어의 radix 즉, 뿌리(root)라는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⁹⁾

기든스(Anthony Giddens)에 의하면 "제3의 길"은 오랜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적 지배를 받아온 국가 즉, 미국에서는 레이건주의(Reaganism), 영국에서는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부터 벗어난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시장자유주의와 도덕적 권위주의에 너무 많이 경도되었던 국가들이다. 제3의 길이 나타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적인 정치철학이었던 두 개의 길(two ways)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통적 사회주의 사상은 급진적이든 개혁적이든 간에 계획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경제는 비합리적이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2의 길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또는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는 대부분의 우파에 의해 포기되었다고 기든스는 지적한다. 세계화(globalization),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 출현, 일상생활의 심층적 변화라는 세가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제3의 길이라고 지적한다. 1944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이후 추구되어온 관세장벽 철폐로 GATT이후 관세장벽이 약 40%에서 7% 정도까지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1999년 WTO가 만들어지면서 세계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가 도래하면서 전통적 좌파 정치의 주요 초점이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숙련 노동자들 특히 "상징 노동자들(symbolic workers)"들이 지식경제에서 요구되고 비숙련노동자들은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기든스는 평가한다. 인터넷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상생활의 심층적 변화로 인해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부활하고 있다고 말한다. 개인주의는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에서의 구조적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¹⁰⁾

8) *Ibid.*9) *Ibid.*10) Anthony Giddens, "Introduction," Anthony Giddens, 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 Cambridge: Polity, 2001, pp.1-4.

물론 블레어와 그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든스간에도 관점의 차이는 있다. 드라이버(Stephen Driver)와 마텔(Luke Martell)에 의하면 둘 다 세계화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블레어는 기든스가 강조하는 세계지배기구(institutions of global governance)를 강조하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기든스는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성장하는 것은 경제적 이기주의(economic egoism) 때문이 아니고 대처리즘 때문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레어는 개인주의의 성장의 원인을 우파의 경제적 이기주의, 좌파의 경제적 이기주의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서 찾는다.

기든스의 해결책은 적극적 개인주의인데 반해 블레어의 해결책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적 방법이다. 기든스는 후기 전통주의자(post-traditionalists), 블레어는 사회 도덕주의자(social moralists)로서 제3의 길에 차이가 있다. 기든스는 후기 물질주의적 태도에 관심이 많고 생활의 질 문제를 강조하여 생활정치(life politics), 하위정치(sub-politic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블레어는 생활의 질문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으며 급진적 사회운동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다고 평가된다.¹¹⁾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가치를 분석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제3의 길 싱크탱크인 넥서스(NEXUS)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아래로부터의(bottom-up) 접근방법 또는 실제적 접근방법(practical approach)이다. 제3의 길은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정책들을 분석하여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와 원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위로부터의(top-down) 접근방법 또는 원칙적 접근방법(principled approach)이 있다.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를 제시한 후 원칙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¹²⁾

11) Driver and Martell, *op.cit.*, p.157.12) "The Third Way: summary of the Nexus on-line discussion," <http://www.netnexus.org/library/papers/3way.html>.

실제적 접근방법은 작은 아이디어들이 누적되어 모이게 되면 하나의 큰 사상(Big Idea)으로 정립된다고 보는 관점이 대표적이다. 화이트(Stuart White)같은 학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작은 아이디어들 즉, 보장은 하지만 직접제공은 직접하는 않는 국가의 역할,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상호주의(mutualism)의 인정, 새로운 공공 지원(public finance), 공용중심의 사회정책, "자산을 기초로 한 평등주의(Asset-based egalitarianism)" 등이 모여 제3의 길이라는 하나의 사상체계가 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개인학습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를 예로 들면서 국가가 직접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노동권리(Right to work)도 언급하면서 국가가 장기 실업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고용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 중심적 사회정책을 예로 들기도 한다. 고용이 점차 지식 기반으로 변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계속 기술 습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통해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고 공동체(community), 설명책임(accountability),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¹³⁾

이에 반해 원칙적 접근방법은 먼저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를 설정한 후 정책을 제시한다. 마르강(David Marquand) 같은 학자는 정책을 지도하는 네 개의 본질적 개념과 원칙이 있다고 말한다. 웰빙(well-being), 연대(solidarity), 정의(justice), 자유(freedom)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민주적 가치와 책임도 제시된다. 특히 "분할 책임(partitioned responsibility)" 개념은 헬퍼(David Helpm)와 화이트(Stuart White)가 제시한 개념이다. 국가, 공동체, 개인간에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빈곤의 문제도 원칙 접근방법에서 제시되는 정책들이다.¹⁴⁾

그러나 중도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제3의 길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첫째, 제3의 길이란 단지 구호에 불과하고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다. 둘째,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재탕(warmed-over neoliberalism)"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대처리즘이나 레이건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화하는 용어들이라는 것이다. 셋째, 제3의 길은 너무 탄력적(elastic)이라는 비판이다. 서로 성향이 상이한 정치지도자들이 제3의 길을 추구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넷째, 제3의 길은 모호하다(vague)는 비판이다. 이 용어가 정착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실험적 차원(experiment)에서 시행되고 있어 정책의 유연성은 있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¹⁵⁾

실제로 제3의 길은 유럽 대륙의 기존 사회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많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클린턴과 블레어의 제3의 길을 영미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단지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유럽의 라퐁텐(Oskar Lafontaine)과 조스팽(Lionel Jospin)은 제3의 길을 경멸할 정도다. 제3의 길은 단지 "내용이 없이 텅빈(vacuous)" 개념으로 중도좌파 정당들이 우파로 전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제3의 길은 국가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중간이라고 간주되지만 비판자들은 정치, 민주주의, 사회문제에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신자유주의와도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라크로와(Jean-Guy Lacroix)와 마스코토(Jacques Mascotto)는 기든스와 프랑스 학자 투렌느(Alain Touraine)의 제3의 길이 사실상 "깨지기 쉬운 사상(pensée molle)"이며 시민사회와 시민의 소외를 가져오고 사회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¹⁶⁾

미국 클린턴의 경우는 어떤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좌파는 클린턴을 기회주의자로 비판하였다. 도시근교거주자들과 독립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당의

13) *Ibid.*14) *Ibid.*15) Timothy J. Power, "Blairism Brazilian Style? Cardoso and the "Third Way" in Brazi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6, No. 4. (Winter, 2001-2002), pp. 611-615.16) Jean-Guy Lacroix et Jacques Mascotto, "La pensée molle de Touraine et Giddens," *Possibles*, vol.24, no.2-3, printemps-été, 2000.

핵심 가치와 선거구를 포기하였다는 비판이다. 당의 의회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우파는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치와 단호한 글로벌 리더십으로 당을 다시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편 모두 당이 중도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다시 민주당의 실질적 어젠더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건전재정(fiscal discipline)을 벗어 던지고 정부지출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케인즈적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마샬은 평가한다. 무역 경제 세계화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지만 속도를 완화시키고 신민주주의자들의 이단적인 실험 즉 선택과 경쟁을 이용해 공공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2000년 선거에서 신민주주의자들은 역설(paradox)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클린턴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고어가 승계하면서 미국의 "제3의 길"은 잠시 머리를 잃게 되었다고 평가한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도개혁주의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에 직면해 좌우를 뛰어넘는 21세기형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국가와 사회

중도개혁주의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중도개혁주의인 제3의 길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와 상당히 다르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사회경제 활동 개입을 허용하고 집단주의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는데 반해 신자유주의는 최소정부를 지향하며 자율적 시민사회를 추구한다. 그러나 제3의 길은 중도개혁을 지향하며 국가의 사회투자를 주장한다.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국가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의 복지국가와는 다르다. 생 마르탱(Denis Saint-Martin)은 복지국가가 과거를 지향하며 경제침체, 전쟁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반해 사회투자 국가는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지식경제의 도래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와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신사회민주주의자들의 개인, 국가에 대한 개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티에(Jérôme Gauthier)는 기든스의 모델은 두번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의 모델은 첫번째에 가깝

17) Will Marshall, "The Third Way After Clinton," *Democrazia Repubblicana*, May 10, 2001, http://www.ppionline.org/ppi_ci.cfm?knlgArealD=128&subseclD=187&contentID=3361.

〈표1〉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비교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대처리즘(Thatcherism) 또는 신자유주의	제3의 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사회경제활동 개입 - 집단주의 - 케인즈적 수요와 코포라티즘 - 제한적 시장 역할 - 완전고용 - 강한 평등주의 -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을 보호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Etat-providence) - 단선적 근대화 - 약한 경제 의식 - 국제주의 - 양극화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정부 - 자율적 시민사회 - 시장 근본주의 - 강한 권위주의와 경제 개인주의 - 자유로운 노동시장 - 불평등의 인정 - 전통적 민족주의 - 최후 보루로서의 사회보장 (aide sociale) - 단선적 근대화 - 약한 생태 의식 - 국제질서의 현실적 이론 - 양극화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 개혁(centre radical) - 새로운 민주국가(적이 없는 국가) - 활발한 시민사회 - 민주적 가족 - 새로운 혼합경제 - 통합의 평등 - 적극적 사회보장(assistance) - 국가의 사회투자 - 세계주의적 국가 - 세계주의적 민주주의

※ 출처: "La troisième voie: un impérative de civilization?,"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53, 2003/2, p.305.

〈표2〉 생 마르탱(Denis Saint-Martin)이 보는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의 비교

	복지국가 (Etat-providence)	사회투자국가 (Etat d'Investissement Social)
형성 요인	과거, 경제침체, 전쟁	미래, 천년, 새로운 지식경제
상징적인 특성	노동자 아버지(시민)	아이(미래의 노동자), 배제된자(exclus)(비시민 non-citoyen)
통합기준	고용(emploi)	고용가능성(employabilité)
자본의 유형	금융 자본	인적사회적 자본
기초 원칙	사회정의	편입(inclusion)/사회일체(cohésion sociale)
사회정책의 목적	시장으로부터의 보호	시장에의 통합을 용이하게 함
위험의 개념	위험으로 인식	기회로 인식
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망(filet)	추락하지 않도록 무장된 "공중그네 타는 사람들(trapézistes)"
급여(prestation) 체계	관료	파트너(partenariat)

※ 출처: Denis Saint-Martin, "De l'Etat-providence à l'Etat d'investissement social: Un nouveau paradigme pour enfant-er l'économie du savoir?," http://www.fas.umontreal.ca/pol/cohesionsociale/publications/saint-martin_fr.pdf.

다고 평가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두번째 모델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첫번째 모델은 "스스로 낙하산을 펴라는 전략(pack your own parachute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표3〉 고티에(Jérôme Gauthier)가 보는 제3의 길 패러다임

	사회민주주의자	신사회민주주의자
개인의 개념	가부장적 개인주의 (Individualisme patrimonial) 개인이 시장관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시민개인주의 (Individualisme citoyen) 개인으로서의 능력과 시민으로서의 참여
국가사회의 개념	가부장적 사회국가(Etat social patrimonial)	후기 베버리즈적 사회국가 (Etat social post-beveridgien)
노동시장의 개념	새로운 전문가시장 (Marché des nouveaux professionnels)	과도적 시장 (Marché transitionnel)
지적 기원	유산: Rousseau, Paine, Walras 현대 철학자: Rawls	유산: Durkheim, Bourgeois, Beveridge 현대 철학자: Sen
잠재적 한계	수직적 이중구조(Dualisme vertical)	수평적 이중구조(Dualisme horizontal)

※ 출처: Jérôme Gauthier, "Quelle troisième voie? Repenser l'articulation entre Marché du travail et Protection sociale," *Document de travail*, Centre d'Etudes de l'Emploi, no.30, Septembre 2003, p.31.

제3의 길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조던(Bill Jordan and Charlie Jordan)에 의하면 대처리즘은 1970년대의 노동당의 집단주의(collectivism)에 반대하고 개인주의, 위계서열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제3의 길은 평등주의를 내세우지만 개인주의와 위계서열의 조화 속에서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가족의 가치도 중시되고 있다. 영국에서 야장 야장 걷는 아이 벌거(James Bulgar)가 10세의 소년에게 살해되는 사건으로 "tough love"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3년 6월 13일 Observer지에 출판된 필립(Melanie Phillips)의 글 제목이다. 도덕의 붕괴에 직면하여 가족의 가치로 돌아가자(return to family values)는 것을 촉구한 말이다.¹⁹⁾

18) Jérôme Gauthier, "Quelle troisième voie? Repenser l'articulation entre Marché du travail et Protection sociale," *Document de travail*, Centre d'Etudes de l'Emploi, no.30, Septembre 2003.

19) Bill Jordan and Charlie Jordan, *Social work and the third Way: Tough Love as Social Policy*, London: Sage, 2000, p.27.

〈표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속에서의 제3의 길

A. 운명주의(Fatalism)	C. 위계서열(Hierarchy)
B. 개인주의(Individualism)	D. 평등주의(Egalitarianism)

※ 출처: Bill Jordan and Charlie Jordan, *Social work and the third Way: Tough Love as Social Policy*, London: Sage, 2000, pp.42-43.

이러한 제3의 길은 유럽 국가들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머켈(Wolfgang Merkel)은 서유럽에서의 제3의 길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시장지향적 길(market-oriented way), 둘째는 합의 지향적 시장의 길(consensus-oriented way to more market)인 네덜란드의 "폴더(polder)" 모델, 셋째는 스웨덴식의 개혁된 복지국가(reformed welfare state), 넷째는 프랑스 사회당식의 국가주의적 길(statist way)이다.²⁰⁾

〈표5〉 머켈(Wolfgang Merkel)이 보는 서유럽에서의 제3의 길 분류

시장지향적 길(market-oriented way): 블레어 노동당 - 엄격한 건전재정 - 케인즈적 수요정책 거부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사회투자국가	합의 지향적 시장의 길(consensus-oriented way to more market): 네덜란드 "폴더(polder)"모델 - 건전재정 목표 - 케인즈적 수요정책 거부 - 노동시장유연화 - 조세, 기업, 개인의 3단계구조
개혁된 복지국가(reformed welfare state): 스웨덴 - 공급지향 정책과 건전 재정의 결합 - 적극적인 고용정책 - 복지급여의 감축, 연금 축소	국가주의적 길(statist way): 프랑스 - 건전재정정책 - 수요정책포기 - 국가보조 - 복지국가 개혁 거의 없음

※ 출처: Wolfgang Merkel, "The Third Ways of Social Democracy," Anthony Giddens, 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 Cambridge: Polity, 2001, pp.57-72; 김호균, 〈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 서울: 백의, 2001, p.54.

국가와 개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진보정책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무에게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

(equal opportunity)를 부여해야 한다. 상호 책임(mutual responsibility)의 윤리는 (사회보장 및 실직수당) 수급권 정책(politics of entitlement)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기 정책(politics of social abandonment)을 거부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act for themselves)"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한다."²¹⁾

이러한 의미는 사회정책의 역할은 시장경제에 내재해 있는 위협에 대항한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개별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국가(Etat-providence)에서는 시장경제에 내재해 있는 위협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보장도 사회전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위협이 더 이상 위험(danger)이 아니며 회피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며 한 사건(une occasion d'affaire)으로 간주된다. 개인들이 위협을 감당할 책임이 있고 사회투자국가의 역할은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²²⁾

사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는 시장보다도 정치적 책임에 우선권을 두고 있었다. 지식경제는 자본주의를 변화시켜 기존의 재화와 용역이 빠르게 구식이 되고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중요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실용적으로 전략적 혼합(strategy-mixes)을 택했다. 전반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메이어(Thomas Meyer)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진보, 성장, 완전고용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지만 생산수단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국가 계획(planning)은 배제한다. 둘째, 인플레이 역제가

20) Wolfgang Merkel, "The Third Ways of Social Democracy," Anthony Giddens, 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 Cambridge: Polity, 2001, pp.57-72.

21) "About the Third Way,"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http://www.ppionline.org/ppi_ci.cfm?contentid=895&knlgArealD=85&subsecid=109.

22) Denis Saint-Martin, "De l'Etat-providence à l'Etat d'investissement social: Un nouveau paradigme pour enfant-er l'économie du savoir?," http://www.fas.umontreal.ca/pol/cohesionsociale/publications/saint-martin_fr.pdf.

우선이며 연방준비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건전예산을 하게한다. 셋째, 복지의 목표는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력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공급수요 정책의 혼합은 세금인하를 포함하며 연구개발을 우선시하고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ecologically sustainable growth)을 이룩한다. 목표 그룹(젊은 층, 장기 실업자)을 지정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프로그램을 실시한다."²³⁾

기든스에 의하면 제3의 길이 제시하는 구조 개혁의 주요 영역은 11개 영역이다. 첫째, 정부와 국가의 개혁이 우선과제이다. 둘째, 국가는 시장이나 시민사회 어느 쪽이라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시민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제3의 길에 중요하다. 넷째, 권리와 책임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등한 사회(egalitarian society)를 창조하려는 목표는 포기하여야 한다. 여섯째, 다이내믹하고 완전고용의 경제를 창조하는 것은 발전국가에서 도달 가능한(feasible) 목표로 되고 있다. 일곱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복지국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범죄퇴치를 위해 활발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열번째, 환경 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열한번째, 기업들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규제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자본주의(responsible capitalism)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²⁴⁾ 기든스는 빈곤을 소득이 없어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구제되는 개념은 구식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방법은 우선 노동시장이 빈곤한 사람들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의 역할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의 필요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²⁵⁾

제3의 길은 위로부터의 재분배(Top-down redistribution)나 자유방임(laissez-faire) 보다는 기술진보, 기업경쟁, 교육을 강조한다.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며 톨레랑스(tolerance)적인 전통을 존중한다. 관료적 정부보다는 능력 있는(enabling) 정부를 선호한다. 시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시장을 통해 공공이익을 달성하고 시민과 공동체가 공공생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²⁶⁾

신진보선언(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은 신진보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선언에 의하면 신진보정치는 미국적인 세 개의 중요 축을 가지고 있다. 기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 상호책임(mutual responsibility), 자치정부(self-government)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는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를 재분배하기보다는 부를 확대함으로써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경제성장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은 책임을 지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사회보장(security)을 높인다. 둘째, 가족을 강화시키고 범죄를 퇴치하고 도시시민민에게 힘을 줌으로써 사회질서를 재건해야 한다.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 안정은 성공적 자치정부의 기초가 된다. 셋째,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특별이익에 반대하고 시민과 지방기구에게 권력을 넘겨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 특수 이익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야 한다. 넷째, 공통의 시민적 이상과 관용(tolerance)의 정신을 방어하여 다양성 속에서 강함과 단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국제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 구조를 지속함으로써 세계적 혼돈(global confusion)에 맞서야 한다.²⁷⁾

23) Thomas Meyer, "Just Where Do Modern Social Democrats Stand?," Policy-Network.org, February 2, 2001, http://www.ppionline.org/ppi_ci.cfm?knlgArealD=128&subsecID=187&contentID=2971.

24) Anthony Giddens, "Introduction," Anthony Giddens, 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 Cambridge: Polity, 2001, pp.5-13.

25) Chris Haylett, "Modernization, welfare and 'third way' politics: limits to theorizing in 'third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vol.26, no.1(2001), p.46.

26) "About the Third Way"

27) "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 DLC/PP1, July 10, 1996, http://www.ppionline.org/ppi_ci.cfm?knlgArealD=128&subsecID=174&contentID=839.

사회정책은 신우파에게는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는데 반해 사회투자국가에게는 경제발전의 수단이 된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의 구별은 이제 모호해졌다. workfare에 대한 대부분의 저작들은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정책이 노동력을 더욱 더 유연하게 하고 질적으로 제고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특히 좌파에게는 경제적 효과(rentabilité économique)가 평등과 사회정의의 목표를 대신함에 따라 후퇴로 보여질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복지국가(État-providence)식의 사회정의와 평등에 있지 않다. 평등/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배제(inclusion/exclusion sociale)가 문제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시장은 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며 일체감(cohesion)이 경제의 해체 효과로 항상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사회와 시장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경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열쇠가 된다. 시장은 사실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지만 사회투자국가에서는 경제가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한다. 노동자와 자본가로 분리된 사회에서도 착취자가 피착취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회투자국가에서의 논리에서는 피착취자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체제의 주변에 살아가는 배제된 사람들(exclus)이나 하층계급(underclass)이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²⁸⁾

28) Saint-Martin, *op.cit.*

4 중도개혁주의에서의 경제정책

기든스가 이야기하듯 제3의 길은 새로운 혼합경제(new mixed economy)를 제시한다. 하나는 국가와 민간영역이 분리되고 대부분의 산업영역은 공공영역이 담당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시장(social market)이다. 각자에서 시장은 정부에 대체적으로 종속된다. 새로운 혼합경제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의 다이내미즘을 이용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둔다. 규제와 탈규제의 균형, 다국적 수준과 국내지역적 수준과의 균형, 사회생활에서 경제와 비경제의 균형을 추구한다.²⁹⁾ 라탐(Mark Latham)이 지적하듯 제3의 길은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강한 사회와 강한 경제는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추구가 가능하다. 둘째, 시장경제가 약

29)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Oxford: Polity Press, 1998, p.100, cited in Philip Arestis and Malcolm Sawyer, "Economics of the Third way: introduction," Philip Arestis and Malcolm Sawyer, ed., *The Economics of the Third Way: Experiences from Around the World*,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2001, p.7.

점이 있지만 시장이 작동하게 해야 한다. 셋째, 신경제는 지리적으로 양분된 신경제지리 즉 세계화 측면과 지역화(localized) 측면의 갭을 메워야 한다. 넷째,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이 경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상 노력(rewarding efforts)"이 필요하다.³⁰⁾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경제는 성장과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트킨슨(Robert D. Atkinson)은 프리드만(Benjamin Friedman)의 성장론과 헬프만(Elihanan Helpman)의 이노베이션론이 경제를 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³¹⁾ 이트킨슨이 쓴 두 학자의 저서에 대한 서평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바드 경제학자로서 보수주의의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프리드만(Benjamin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경제성장의 도덕적 결과(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에서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성장이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가 진보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장 없이는 미국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종족적 관용, 개방사회, 강한 민주주의, 깨끗한 환경, 재분배는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성장은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성을 관용하고 사회유동성, 공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헌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하면 비관용, 비관대, 개방반대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프리드만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의 역사를 분석한 후 성장의 시기에는 좀더 진보적인 법안과 태도들이 나타났고 반대로 침체기에는 예를 들어 1880년대에서 189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197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는 개방, 관용, 유동성, 공정성,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프리드만은 성장이 행복지수도 높다고 지적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고소득 국가사람들이 중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이후 부자국가들이 더 행복하다고 지적한다. 이 변화를 설명하면서 프리드만은 개인 행복은 개인이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대중매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저소득 국가는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부자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뒤졌는지 비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록 더 행복해지고 관용적이 된다고 결론짓는다. 시장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부비개입을 반대한다. 성장 그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³²⁾

하바드 경제학자 헬프만(Elihanan Helpman)은 <경제성장의 비밀(The Mystery of Economic Growth)>을 통해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은 성장 촉진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1인당 소득 증가의 9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신고전학파들은 이노베이션을 무시하고 자본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하와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인하를 주장한다고 평가한다. 자유경제학자들은 교육에 투자하여 "인적자원(human capital)"을 부양하고 예산 잉여(budget surpluses)를 운용하여 금융자본을 부양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한다.³³⁾

신케인즈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아레스티스(Philip Arestis)와 쇼우어(Malcolm Sawyer)은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신통화주의(new monetarism)"로 보고 있으며 "신(新)케인즈적인 개입주의적 신고전학파(interventionist neoclassical economics of a new Keynesian variety)"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몇몇 재화와 공공재적 성격과 독점 그리고 영국 노동당의 한 훈련과 교육의 강조는 시장에서 부족하게 공급되는 활동을 정부가 제공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실업의 비가속 인플레이션(NAIRU:

30) Latham, *op.cit.*, pp.27-33.

31) Robert D. Atkinson, Book Review of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by Benjamin M. Friedman and THE MYSTERY OF ECONOMIC GROWTH by Elihanan Helpman, Blueprint Magazine, February 9, 2006, http://www.ppionline.org/ppi_ci.cfm?knlgArealD=127&subseclD=171&contentID=253721.

32) Atkinson, *op.cit.*

33)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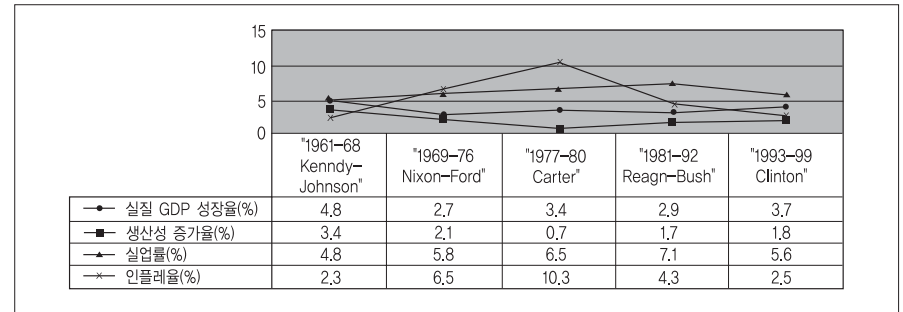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을 강조하고 총체수요와 재정정책을 경시하고 통화정책을 강조하는 그리고 경제정책의 신뢰성(credibility)에 관심을 갖는 신케인즈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³⁴⁾ 그러면서 이들은 제3의 길의 경제정책을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거시경제정책 특히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시장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둘째,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낮은 인플레이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 수준은 NAIRU주위에서 변동하며 NAIRU이하의 실업은 높은 인플레이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넷째, 세이(Say)의 법칙이 유효하다. 유효수요는 경제활동 수준을 결정하는데 독립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공급측면의 경제활동을 지지한다. 다섯째, 시장경제는 신고전학파적인 시장의 실패를 포함하며 외부효과, 공공재, 독점상황 때문에 시장이 적정 산출에 도달하지 못한다. 여섯째, 불평등은 시장전 불평등(pre-market inequality)와 시장후 불평등(post-market inequality)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 일곱번째, 세계화는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없지만 제3세계의 논리에 중요하다. 제3의 길은 세계화가 국내적인 차원의 재정정책(fiscal policies)들과 같은 정책범주들을 제한시키며 사실상 산업정책(특히 경쟁정책)과 거시정책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고 인식하고 있다.³⁵⁾

특히 아레스티스와 쇼우어가 국가의 역할을 투자하는 것 특히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을 제시한다. 공공지출을 투자로 보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그리고 차용(borrowing)은 지출이라기 보다는 공공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그러면 실제 중도개혁주의가 이룩한 경제실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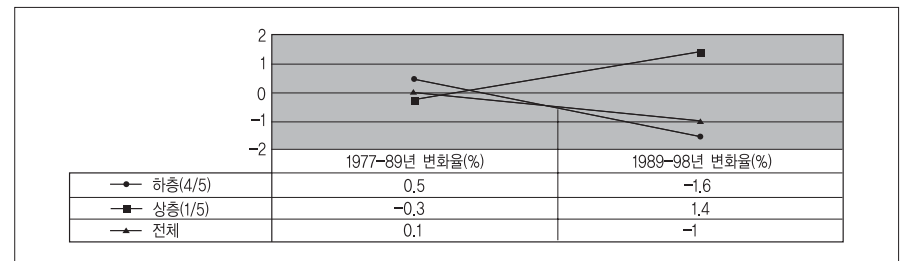
경우 뉴딜 정책으로 1999년 11월의 경우 15만 5,500명이 실업을 면했다. 처음에 보조금을 받았던 뉴딜 혜택자들의 59%가 보조금을 받았다. 뉴딜이 시작되었을 당시 62,000명이 1년 이상 실업에 있었다. 2년후인 1999년에는 9,200으로 하강하여 85% 감소하였다.³⁷⁾ 미국의 경우에는 중도개혁주의가 이룩한 경제실적은 상당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클린턴 시대에 실질 GDP성장율이 다른 행정부보다 높은 3,7%를 기록했고 실업과 인플레이는 다른 대통령들보다 낮은 5.6%, 2.5%를 기록했다. 연방세의 변화율도 클린턴 행정부시절 상층에게는 평균보다 높게 하층에게는 평균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

〈표6〉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실적



※ 출처: Robert Pollin, "Anatomy of Clintonomics," Philip Arestis and Malcolm Sawyer, ed., *The Economics of the Third Way: Experiences from Around the World*,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2001, p.65.

〈표6〉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실적



※ 출처: *Ibid.*, p.62.

34) Philip Arestis and Malcolm Sawyer, "Economics of the Third way: introduction," Philip Arestis and Malcolm Sawyer, ed., *The Economics of the Third Way: Experiences from Around the World*,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2001, pp.2-3.

35) *Ibid.* pp.3-6.

36) *Ibid.* pp.7-8.

37) Jordan and Jordan, *op.cit.*, p.27.

4 중도개혁주의에서 보는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중도개혁주의는 지식경제의 도래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식사회가 나타나고 발전하면서 계급간의 연대가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기든스는 전통적 좌파가 관심을 나타내던 노동계급은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회는 질적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질적 능력없는 노동자들을 주변으로 밀려나게 하지만 사회투자(investissement social)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계급의 붕괴는 계급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계급은 개인화되고 개인의 경력을 통해 표현된다. 점차 집단적인 존재로부터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³⁸⁾

전통적인 노동계급이 완전히 사라지고 신경제가 사회계층과 가치 등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노동계급이 인구의 16%에 불과하다. 과거식으로

계급 구분에 의한 사회정치적 구분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가치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과거의 노동계급에 새로운 노동계급('wired workers', social and cultural workers)과 새로운 브르조아지(small and medium size entrepreneurs in the knowledge economy) 그리고 자유직업전문가들(liberal professionals)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사회에서 전통적 계급구조는 가치가 다르고 생활양식이 다르며 사회문화적 정향이 다른 10~12개의 사회문화적 범주로 대체되었다.³⁹⁾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적 계급의 부상(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2002)에서 창조성(creativity)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이 사회의 주도세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에는 노동력의 30% 이상 되는 3,800만 명의 창조적 계급이 세계를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하였다.⁴⁰⁾ 워런(Donald I. Warren)은 <급진중도(The Radical Center: Middle Americans and the Politics of Alienation)>(1976)에서 미국인의 다수를 이루는 집단이 급진중산층(Middle American Radicals)이며 이들은 과거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좌우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개인을 부와 권력자로부터 뿐만 아니라 전투적이고 조직적인 소수 집단으로부터 생활이 위협받는다라는 관점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⁴¹⁾

전반적으로 사회가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개인이나 가족,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수단이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고교 졸업장만 있어도 충분했지만 이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게 된 시대가 된 것이다. 아울러 높은 실업률의 지속, 소득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sentiment d'insécurité)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배제(exclusion sociale), 사회자본(capital social), 사회적 능력부족(disqualification sociale), 사회적 일체감(cohésion

39) *Ibid.*

40) http://www.radicalmiddle.com/writers_n_pols.htm

41) Don LeFave, "Review,"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428, The American Revolution Abroad, (Nov., 1976), pp.168-169.

38) Bruno Jobert, "Une Troisième voie très britannique,"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43-2, 2002, p.410.

sociale)과 같은 용어들이 나왔다. 이러한 용어들이 나타난 것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다. 변혁이 있을 때 그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⁴²⁾

〈표8〉 미국에서의 개인, 가족, 사업의 규칙변화

	과 거	현 재
개인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 여유있는 노동	성공은 고고 졸업장을 필요로 하였다.	성공은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한다.
	좋은 직업은 공장에 있었다.	좋은 직업은 사무실에 있다.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한 회사에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다수의 노동자들과 기회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집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메리칸 드림은 집과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관리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 시간의 희소성	대부분의 엄마들은 집에 있기를 원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집에 있기를 원한다.
	가족은 아이들을 길렀다.	가족은 지금 아이들과 노년을 돌본다.
사업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 경쟁에서 성공	성공적 기업들이 건축되었다.	성공적 기업들이 창조된다.
	경쟁은 제한적이었다.	경쟁은 치열하다.

* 출처: Anne Kim, Adam Solomon, Bernard L. Schwartz, Jim Kessler, and Stephen Rose, "THE NEW RULES ECONOMY: A Policy Framework for the 21st Century," *The Third Report*, February 2007, http://www.third-way.com/data/product/file/71/Third_Way_New_Rules_Economy_Report.pdf.

미국의 중산계급과 관련하여 "외형은 민주당 투표는 공화당(Looking Red, Voting Blue)"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3,000명을 서베이한 결과 중산계급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지만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산계급은 걱정스러워 하지만 경제적으로 절망적이지는 않다. 2005년 일하는 나이(25-29세)의 가장을 둔 미국 가정의 평균 소득은 61,629 달러였고 부부는 72,216 달러, 돈버는 부부는 81,365 달러였다. 이 소득 수준은 중산층이

42) Saint-Martin, *op.cit.*

라고 부르는 가정의 평균소득 46,326 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소득이다. 둘째, 중산층은 난관적이고 희망적이다. 미국인의 62%가 "성공은 대부분 개인의 통제 밖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반대한다. 64%는 "힘든 일이 거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사람들은 미국 자본주의에 크게 불만족한 것은 아니다. 미국인의 80%는 가난에서 출발하여 힘들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들의 90%정도가 성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행복해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반(反)기업적이지 않다. 5,800만 명이 대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약 80%정도는 회사에 충성하고 있으며 2/3정도가 그들 회사에 자신들이 충성한다고 말한다. 여론을 통해 보면 큰 정부(big government)가 큰 기업(big business)보다 더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진보정책 제안 서명은 중산계급에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각종 사회보장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Pell Grants, Head Start,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가 미국인들의 안녕에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중산계급을 위한 정책은 될 수 없다. 일하는 중산계급의 40,000~100,000달러 사이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섯째, 대중의 정부 신뢰는 낮다. 2007년 Pew poll에 의하면 미국인의 62%가 "정부가 무엇을 운영할 때, 보통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다"라고 생각한다.⁴³⁾

이러한 중산계급의 성향에 따라 미국의 중도개혁주의자들은 새로운 규칙 경제(New Rules Economy)를 제시하고 있다. 학위를 받게 만들어주고 능력개발 할 수 있게 해주고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식소유를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특히 사회투자국가차원에서 투자는 필요하며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미래에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현재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43) A strategy Center for progressives, "The Third Way Middle Class Project," June 2007.

〈표9〉 New Rules Economy가 추구하는 약속

약속	약속내용	이유	정책의 예
약속 1	대학 수용능력을 더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졸업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고 대학졸업은 필요하다.	대학 학자금 세금공제
약속 2	성인들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여 더 많은 수입과 소득을 올리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1960년에는 1/3이 손으로 일했는데 최근에는 7/8이 두뇌로 일한다.	연방 학자금 대출
약속 3	양질의 건강보험을 사업주들과 개인들에게 더욱 확대 한다.	Healthcare 비용이 높아져 매년 3,250 달러를 노동자로부터 빼앗아 간다.	노동자를 위한 구매 보험
약속 4	건강과 연금혜택을 논란이 없도록 하여 혜택이 유동적이게 하고 혜택이 단순하고 확실하게 한다.	개인이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1983년에 17년이었지만 2006년에는 9.5년으로 반절 줄어들었다.	노동자 보조
약속 5	일, 자녀교육, 노인부양 등을 하는 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	6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2/3가 집밖에서 일한다.	유급가족휴가, 노인의료세금공제
약속 6	모든 미국인들이 주식소유(stock ownership)를 통해 성장하는 미국 경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과거에는 집하나 가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집과 주식을 가지는 것이다. 1960년 11,700달러의 집이 지금 166,000달러가 됐으며 S&P Index에 투자했다면 1,364,000원이 되었을 것이다.	출생계정 ("Worth at birth" accounts); 401(k) 연방보조
약속 7	친성장(pro-growth)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소득 직업을 계속 창출한다.	과거에는 성공적 기업들이 세워지지만 오늘날의 성공적인 기업들은 창조된다. 2005년 연방정부는 주간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데만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s)를 만드는 것보다 33배를 더 투자했다.	연구개발 투자증대

※ 출처: "The Third Way Middle Class Project," June 2007.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투자국가는 과거에는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복지국가는 전쟁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이 기초가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재난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고 과거의 행위자였던 사람들 특히 나이드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려고 했다. 반면에 사회투자국가는 미래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다고 노년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와 새로운 지식경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원, 지식, 아이디어들에 기초한 새로운 지식경제의 정치적 제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⁴⁴⁾

역사적으로 어린이들은 항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왔고 부인의 동반자로 간주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노동력의 증가는 전통적인 역할을 안정적 가족통합의 역할로 재정립하게 했다. 이후 국가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직접적이 되었고 아이들이 재분배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미성년으로 선거권이 없고 어떠한 정치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성은 집단적 사회행위자로서 동원 정치를 통해 시민성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아주 강한 가부장적인 국가 즉 권위주의적이지만 보호자이다.⁴⁵⁾

이러한 미래에 대한 투자,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어린이저축안("KidSave" 또는 "Baby Bond" Proposals)은 미국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영국에서 정착한 정책이다. 영국 정부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400달러(가난한 가정의 아이에게는 두 배)를 지원하며 가족도 계좌에 펀드를 붓도록 하는 제도이다. 축적된 자금은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 교육, 사업, 주택소유, 은퇴 등을 할때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케레이(Robert Kerrey) 상원의원이 이와 비슷한 아이저축구좌("Kid Save" accounts)를 제안했다. 영국의 제안들과 달리 케레이의 아이저축구좌는 단지 은퇴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처음 2,000 달러를 지불하며 가족이 더 저금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계좌는 절약저축플랜(federal Thrift Savings Plan), 401 프로그램의 모델에 따라 만들었다. 절약저축플랜은 증권, 주식, 정부주식펀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은 중요한 문제다. 블레어의 영국에서 정부는 "문자해독과 수리능력 전략(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를 도입해 자세한 학사과정을 제공하고 독서와 수학에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도록 했다. 영국의 학교는 일종의 차터스쿨

44) Denis Saint-Martin, *op.cit.*

45) *Ibid.*

(charter school)처럼 교사의 채용과 해고 결정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부모들은 규모가 허용하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영국사회를 해체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회적 일체감을 높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급지급계획(pay-for-performance plan)을 도입한 것이다. 교사들은 거부반응을 나타냈지만 블레어가 직접 교사들을 설득하여 25만 명의 대상 교사들 중 20만 명이 참여하였다. 정책결정은 학교에 맡겼지만 학교들이 표준화운동(standards movement)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했다. 신경제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는 국가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3의 길 주장자들은 가지고 있다.⁴⁶⁾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비용이 들어가고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게다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 되어갔으며 사기로 혜택을 받는 일들이 나타났다. 게다가 고령화 되는 사회추세 속에서 재정적으로 담당할 능력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각국들은 국가적으로 혜택을 사기를 엄단하고 보조금을 지불하는 대신 직업을 찾게 했으며(welfare to work)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였다. 아울러 지식경제에 어울리게 제2의 기회(policy of second chances)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장려하였다.⁴⁷⁾

아이와 달리 배제된 사람들(exclus)은 사회투자국가의 주요 전략 대상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식경제의 미래 노동자로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 반해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출은 신경제로 인해 주변으로 전략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사회정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포용(inclusion sociale)에 기초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계층을 위해 보편적 저축계좌안(Universal Savings Account Proposals)이 있다.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안 한 것으로 저소득층이나 중간 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대응자금(matching funds)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위 USA accounts는 저소득의 저축자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진보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로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저축자 크레딧(Saver's Credit)은 2001년 만들어졌다. 저소득층의 저축에 대해 상응하는 소규모 세제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소득세 부담(income tax liability)이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어린이 세제혜택(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어 순소득세부담을 0에 가깝게 한다. 이외에도 디폴트 계정(Default or "Roll Over" Accounts)은 모든 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저축 계좌를 가지는 것이다. 사회보장 계좌나 주식계좌와 함께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단순히 개인은퇴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을 만들면 된다. 연방 정부는 연방고용인이 절약저축플랜(Thrift Savings Plan)을 선호하면 이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⁴⁹⁾

결국, 과거의 복지국가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등을 통해 나이, 건강, 경제침체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시장으로부터(from the market)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3의 길은 사람들이 교육, 훈련, 노동력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in the market)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⁵⁰⁾

46) Andrew Rotherham, "No Myth, The British Have Proven That Genuine School Reform Isn't a Fantasy," *The New Democrat*, December 20, 2000.
http://www.ppionline.org/ppi_ci.cfm?knlgArealD=128&subseclD=187&contentID=2822.

47) Meyer, *op.cit*.

48) Saint-Martin, *op.cit*.

49) "Wealth building," http://www.centrists.org/issue_summaries/wealth_basics.html.

50) John Myles and Jill Quadagno, "Envisioning a Third Way: The Welfare State in the Twenty-First Century," *Contemporary Sociology*, vol.29, no.1, p.157.

6 결론: 중도개혁주의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

중도개혁주의는 지식경제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거대한 시대적 조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도개혁주의가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정치냉소주의와 정치 교착상태를 벗어나야 하며 영국에서는 개혁을 유지해야 하고 유럽에서는 10%대인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경제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영국의 블레어는 노동당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1950년대와 1970년대 선거에서 실패했는가를 상기하고 노동당이 자기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정부의 누데르(Par Nuder)가 명명한 "재임/ 반란 딜렘마(the incumbency/insurgency dilemma)"를 해결하지 못해 유럽에서 중도좌파정권들이 실패했다는 점을 블레어는 알고 있었다. 이 딜렘마는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반란자로 남아있지 못하고 현상유지의 옹호자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⁵¹⁾

51) Robert Philpot, "In Their Faces Political minefields haven't deterred Britain's Tony Blair from pressing forward with new progressive reforms," *Blueprint Magazine*, March 23, 2004, http://www.ppionline.org/ppi_ci.cfm?knlgArealD=128&subsecID=187&contentID=252482.

중도개혁주의가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샬(Will Marshall)이다. 첫째, 대부분의 진보정당들이 과거의 교조적인 계급투쟁, 복지 온정주의(welfare paternalism), 큰 관료정부(big, bureaucratic government)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화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우파정당들은 세계화의 불만이나 유럽에서 범죄, 이민, 민족주체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흥기하는 새로운 표퐁리즘(populism)에 대응하여 아무런 상상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실패함으로써 중도좌파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⁵²⁾ 밀러(Matthew Miller)는 <2% 해결(The Two Percent Solution: Fixing America's Problems in Ways Liberals and Conservatives Can Love)>(2003)에서 미국정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신좌파(new left)가 아니라 새로운 중도(new center)라고 말한다.⁵³⁾

한국에서 중도개혁주의가 자리잡게 될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지식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해왔고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다. 인터넷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휴대폰도 거의 전국민이 사용할 정도이다. 또한 노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령자들도 단순히 사회보장의 혜택자가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각종 사회보장 자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다가 노령자 부양률(dependency ratio)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대처하고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하게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도개혁주의 정치세력이 정권을 담당함으로써만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구시대적 진보세력이나 보수세력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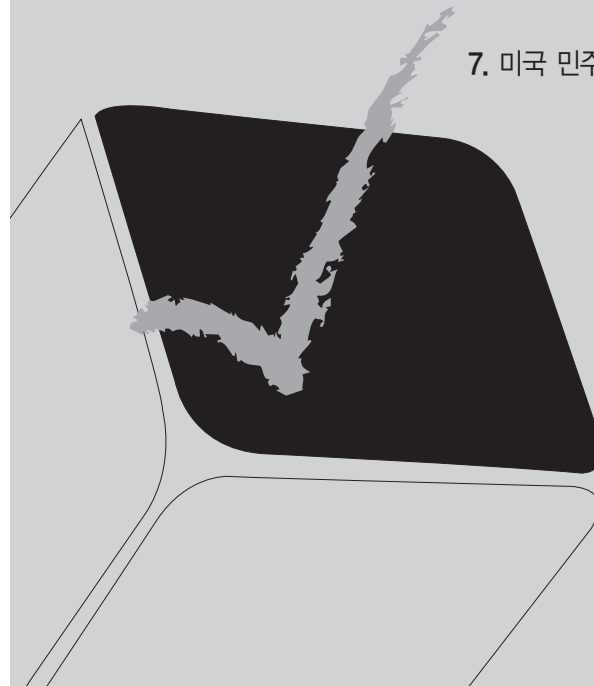
52) Will Marshall, "Third Way Will Rise Again," *Blueprint Magazine*, July 29, 2002, http://www.ppionline.org/ppi_ci.cfm?knlgArealD=128&subsecID=187&contentID=250672.

53) http://www.radicalmiddle.com/writers_n_pols.htm.

미국 민주당

제2장 | 중도개혁주의의 주요문서

1. 민주당리더십협회 클리블랜드 총회에서의 기조연설 - 빌 클린턴
2.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
3.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
4. 제3의 길 - 민주당리더십협회
5. 문제는 가치와 경제야 - 앨 프롬
6. 올바른 싸움 -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7.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미국 민주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민주당리더십협회 클리블랜드 총회에서의 기조연설

- 1991. 5. 6.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메리 로즈(Mary Rose)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소개를 들으면서 로즈의원이야말로 진정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로즈의원의 지역구이자, 화이트시장이 있는, 이곳 클리블랜드에 온 것은 큰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민주당리더십협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는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메시지를 형성하고 미국의 새로운 진로를 정하기 위해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읽었고 여러분도 읽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민주당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민주당의 혼수상태(Democratic Coma)' 를 머리글로 다룬 『신공

화국(New Republic)』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리더십협회는 600명 이상의 연방, 주,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매일 전선에 있고 실제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엄청나게 인기 있고 우리 모두가 그의 빠른 건강회복을 기원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모든 게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걸프전의 압승을 자랑스러워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압승이 가능한 정치적, 군사적 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세계 일등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체적 그림을 본다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 단순히 아이를 낳기만 할 때, 다른 18개국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아이들이 우리 미래에 매우 중요한 국제 과학과 수학시험에서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개국에서 근로자들은 더 좋은 읽기 능력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기 능력은 소득이 학습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세계에서 필수적인 경쟁력입니다.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들 중, 미국만이 근로자가 일을 할 때, 고통스런 불안감을 느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자신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주요 산업 국가들에서 미국만이 대학미진학자가 밑바닥 일자리가 아니라 고임금과 유망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우리는 또 다른 분야에서 일등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련과 남아공을 제치고 교도소 수감자 비율에서 세계 일등국가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경쟁국은 독일과 일본입니다. 작년에 그들은 우리보다 세 배, 네 배의 생산성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국민들을 더 잘 교육시키

고 미래에 더 많이 투자하고 세계적 경쟁을 위해 경제를 조직했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십여년 동안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버릇없고 끔찍한 정치라는 환상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치지도자들은 이 문제들에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걸프전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마침내 여기 국내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이 문제들은 미래의 국가안보 이슈들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민주당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미래입니다. 현재의 이 조건들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애써왔던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다시 품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민주당리더십협회에 참여했습니다.

1980년대는 탐욕과 이기심이 찬미되었고 가난한 여성과 아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의 경쟁력은 침식당했지만 미국의 CEO는 자신들의 종업원보다 네 배 더 많고 기업의 이윤 증가보다 세 배 더 많게 자신들의 봉급을 올렸습니다.

중산층 가족의 소득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로 가족들은 1979년보다 1989년에 더 많이 일하고 있고 아이들과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일 공장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미국 근로자들보다 20% 이상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이 조건들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투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중산층이 우리가 해외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내의 사회정책에서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는 건전하게 과세하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 연

방선거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국정당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국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는 진정으로 올바른 정당이 적어도 이 미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을 정치혐오에 빠지게 하는 30초 네거티브 정치 광고를 하지 않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론 브라운(Ron Brown)의 지도하에 민주당이 변화해 온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브라운은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진실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모든 당원들에게 말하고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 같은 사람과 하원의원이 당선되도록 돕기 위해 진실로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매우 잘 견디어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정당이 되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좌파와 우파의 진부한 정설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미국인들의 진짜 관심,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공명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클리블랜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부담은 그들의 부정, 회피, 태만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담은 국민에게 오래된 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선택(new choice)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명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주고 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함께 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만민을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대한 공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무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무역확대의 조건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구환경이 교란되는 것이 아니라 향상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한 기회는 신기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미국 기업들이 자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의미합니다.

만인을 위한 기회는 다른 무엇보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지만 돈과 경영권은 해외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인을 위한 기회는 또한 정부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로 6백5십억 달러에 달하는 역진적인 사회보장제 때문에 과중한 세금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earned income tax credit)를 인상하는데 우리가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동들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기회로서의 모든 아동들의 유치원(preschool)을 우리가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대학미진학 청년을 위한 국립도제제도(national system of apprenticeships)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사 또는 경찰로서 국가에 뭔가 돌려준다면 대학입학금을 제공하는 국민봉사제도(national service)를 우리가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만인을 위한 기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기회만 제공한다면 많은 돈이 낭비될 것이고 국가의 힘은 여전히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을 위한 책임(responsibility for all)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국민봉사제도 뒤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복지개혁 뒤에 있는 아이디어이고 우리가 모든 주들이 복지개혁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지수급권자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주고 육아와 아동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가 미국이 고안한 가장 좋은 사회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엄격하게 아동 지원을 집행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 지원을 책임져야 하는 남성이 책임을 진다면 미국 복지재정의 40%가 납세자로부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아이들을 포기한다면 정부가 아이들을 기를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나는 아동서비스와 가족서비스의 분리를 위해, 모성보호와 육아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위해 예산을 배정해왔습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배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토할 수밖에 없습

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기를 수 없고 부모들이 길러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 하도록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강제해야 할 때입니다.

만인을 위한 책임은 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유지할 수 없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인을 위한 책임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돈을 세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하기로 한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만인을 위한 책임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더 많은 선택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택(choice)은 엘리트주의 또는 인종주의의 코드 명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채널수가 50 또는 60개 되는 케이블 텔레비전을 원하고, 동유럽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정부독점에 염증을 느끼고 이것이 실효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부 관료제에 의한 결정의 독점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인종 또는 소득 차별에 대한 적합한 보호와 함께 우리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즉 육아 바우처(child care vouchers), 공립학교 선택 옵션, 직업훈련 프로그램, 노인의 더 많은 선택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혁신하여 효과적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의무를 믿습니다. 우리는 중간 관료층을 제거하고 최대한 밑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높이고 시민을 고객과 상사처럼 대우하는 우리 기업의 가장 위대한 성공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공주택의 임차인 관리를 지지하고, 교장과 교사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경찰이 주야로 거리를 순찰하고 동네사람들이 경찰을 거리안전의 파트너로 아는 지역이웃 경비치안(neighborhood policing)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방예산을 미래에 더 많이, 현재와 과거에 더 적게 지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지출증가를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연방예산을 미국인

의 소득증가와 연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동체(community)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 함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어린 시절을 빼앗긴 수백만의 어린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즉 기회(opportunity), 책임(responsibility), 선택(choice), 작동하는 정부(government that works), 공동체(community)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새로운 선택은 낡은 범주들과 이것들이 강요하는 그릇된 대안들을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진실은 둘 다이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과 이전 민주당의 저항을 거부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권에 대한 투쟁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화당은 여러분이 민권법안을 지지한다면 할당제를 지지하는 것이고 할당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차별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짜 논쟁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새로운 선택을 하려는 미국의 기업 원탁회의(Business Roundtable)와 민권 그룹의 정직한 시도를 해체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경제성장, 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지하지만 여성과 소수자 등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미국에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어린이에 대한 논쟁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 문제들에 더 많은 돈을 퍼붓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퍼부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단지 가족의 가치(family values)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가족의 가치는 배고픈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지만 가족의 가치 없이 배고픈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증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조부모가 나를 키우셨습니다. 나의 증조부모는 시골에서 방 두 칸의 오두막집에서 사셨습니다. 그 집의 가장 좋은 방은 폭풍 대피용 지하실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등유 램턴과

땀을 가지고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모는 당시 우리가 정부의 일용품이라 불렀던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것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아칸소주 호프(Hope, Arkansas)라는 작은 마을의 흑인 동네에서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식량 배급표(food stamps)가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흑인 손님들은 돈 없이 사러 왔지만 할아버지는 늘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의 가치와 개인적 책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날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내와 나는 일 년 반전에 약물 남용 지역인 남중부 로스엔젤레스에 갔습니다. 우리는 10여명의 6학년생들과 1시간 반을 보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조부모를 만난 적도 없었고 증조부모가 있다는 것은 단지 상상할 뿐이었고 그들 중 하나는 부모의 약물 남용 때문에 자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압니까? 첫째, 아이들은 통학할 때 충격을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둘째,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갱단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낮에 그들에게 맞는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지금 말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좌파와 우파의 수사에,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목적이 포즈를 취하면서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들을 풀고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절망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미국 도처에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지사 선거 때 나에게 질문을 했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믿고 이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더 잘살 수 있겠습니까?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네 명의 자녀를 가진 미망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복지

수급과 내 아이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이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이 아프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정치를 마비시켰던 쓸데없는 수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선택을 원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자격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조건들이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동안 계속되도록 허용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국가 정책이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동안 현재의 부적절한 궤도로 계속 가도록 허용한다면 미국이 다음 세대 동안에도 세계를 지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딸이 내가 살았던 미국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딸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쁜 첫 세대 미국인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딸이 통합이 아니라 분열된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5년 전에 한 서양문명사 교수는 우리 국민이 언제나 두 가지 단순한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미국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나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현재는 미래보다 더 좋지 않고 미래가 언제나 더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기 위한 개인적,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클리블랜드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2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

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 기 회 -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대한 투자 • 혁신에 대한 지원 • 적자 • 국방력 전환 • 도시 •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 • 근로자 권리 • 평생 학습 • 국민봉사 지원법 • 저렴한 보건의서비스 • 공정성 • 에너지 • 민권과 평등권 • 자치주와 영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 선택 • 노사 • 책임 정부 • 복지 • 교육 • 환경 • 공무원 ◎ 공 동 체 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마약에 대한 전쟁 • 지역이웃 경비치안 • 총기 • 모든 범죄에 대한 적극적 추적 • 여타 이니셔티브 • 영세민의 능력강화 • 이민 • 주택 • 국민봉사제도 •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가 안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의 구조조정 • 군사력 • 군사력의 사용 • 분쟁예방과 봉쇄 •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 복원 • 무역과 무역협정 • 민주주의 촉진 • 신생 민주주의국가 • 인권 • 인간적 필요 • 지구적 환경 보호 ◎ 결 론
---	---	---

전문

이백년 전에 이 민주당은 펜으로 미국독립전쟁(American Revolution)의 정신을 불타게 했던 사람에 의해 창당되었다. 그는 우리의 자유를 혁신하고 세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년마다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년 현재,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창당했던 당은 그의 혁명정신에 새롭게 호소한다.

우리의 땅에 미국의 바로 이 영혼에서 나오는 절망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절망의 함성은 가까운 이웃에 사는 가족,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와 경제 국가에 사는 평범한 무명 영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미국인들은 상처입고 있다. 기회를 확대하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 가족들은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뒤쳐져 있다. 빈곤은 폭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분열되어 있다.

공화당이 무책임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지난 12년간은 악몽이었다. 미국의 리더십은 국내에서 서툴렀고 세계에서 불확실했다. 공화당의 부실경영은 우리 경제를 작동시키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필요, 희망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정부를 무장해제시켰다. 공화당은 미국에 소득이 아니라 차입에 근거한, 그릇되고 허약한 번영을 가져왔고 따라서 엄청난 공공부채와 연 이자에 대한 몹시 큰 부담을 남길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지출하기 위해 차입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고통과 분노를 듣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권력을 잡고 있는 공화당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때처럼 일할 수 없다. 지난 12년간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 부실경영, 리더십의 실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서비스의 감축 정책도 안 되지만 새로운 생각이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지출을 채택해서도 안 된다.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귀 기울이면서 언제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시금석이었던 시민 행동주의(citizen activism)의 정신을 혁신할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을 워싱턴의 뿌리 깊은 관료제와 협소한 이익단체들로부터

터 일상인의 손으로 돌려주는 정부 내의 혁명(revolution in government)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직 제도를 개혁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교체하여 정부를 더 분권화하고 더 유연하고 더 책임 있게 할 것을 공약한다.

1992년의 혁명은 위대한 미국의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의 공수표 윤리(something-for-nothing ethic)를 버리고 변화를 위해 사람을 우선함으로써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 오직 번영하는 경제, 강력한 제조업 기반, 창조적 신생기업의 성장만이 국가의 절박한 인간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만들 수 있다.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가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만이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족정책, 도시정책, 노동정책, 소수자정책, 외교정책이다.

1992년의 혁명은 정부를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규칙을 지키고 감세를 위해 로비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마약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 안전한 동네를 원하고 안정된 좋은 생산적 일자리를 원하고 부모의 품위 있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1992년의 혁명은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할 게 없다는 공화당의 명제나 정부 프로그램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하려는 낡은 관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향상하고 선택을 확대하고 아래로부터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능력을 강화하는,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성과지향적 정부이다. 우리는 활동적 정부(activist government)를 믿지만 다른 더 민감한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1992년의 혁명은 어려운 선택들을 직시하는 것이다. 우회와 회피의 정치(politics of diversion and evasion), 그릇된 선택과 선택 없는 정치에 대해 미국은 계속 절망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나태에 대해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정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우리가 못한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무엇보다 1992년의 혁명은 이 나라를 건국하고 언제나 위대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기본적 가치들, 즉 개인적 책임, 개인적 자유, 관용, 신앙, 가족, 근로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진로, 새로운 대통령을 미국인

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지속적 원리들, 즉 기회의 약속, 공동체의 힘, 근로의 존엄, 노인의 품위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는 미국인과 정부 간의 손상된 유대를 복구하는 새로운 약속(New Covenant)을 추구한다. 새로운 약속은 기회를 확대하고 그 대신에 더 큰 개인적 책임을 주장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의 옹호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방식을 망각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의 면밀한 검토를 환영한다. 이 선거강령은 미국인들에게 변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I. 기회

민주당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회이다. 인플레이션 없는 광범한 경제성장과 이로부터 나오는 기회이다. 1992년, 민주당은 만인을 위한 성장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국내정책에 무관심한 부시 대통령 때문에 미국은 대공황이후로 경제성장, 소득증가, 일자리 증가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부시의 장기 불경기가 단순한 경제주기가 아니라 장기적 하강이고 그 결과 빈약한 성장의 시기에도 우리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시정부의 급증하는 적자는 생산적 투자로부터 자본을 빼앗았다. 고리대부업자들이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부자가 되었다. 주식시장은 세배 성장했지만 평균소득은 그대로이고 우리 아이들의 빈곤은 더 늘었다.

우리는 지난 12년간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do-nothing government)와 번영을 위해 세금과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큰 정부(big government) 이론, 모두를 거부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제3의 길(a third way)을 제시한다. 우리가 언제나 일하는 남성과 여성을 미국 경제의 기반으로 보았듯이 기업을 고귀한 노력으로 영예롭게 하고 근로자의 능력을 강화하고 작업장을 혁신하고 환경을 존중하

고 공동체에 잘 기여하는 기업과 독립 계약자를 위한 훨씬 더 좋은 풍토를 창출할 것을 공약한다.

우리는 자유기업과 시장의 힘을 믿는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적 경제 전략 없이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12년 동안 미국은 어떤 경제적 비전, 리더십, 전략도 없었다. 사람과 나라를 우선할 때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의 번영을 위한 혁신적 토대를 놓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과 민간의 투자 모두를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산적자와 투자격차 모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도로, 다리, 정보 네트워크, 미래의 기술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교통, 환경기술, 국방력 전환, 국가 정보네트워크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미국을 재건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대통령과 의회는 절약된 국방비를 국내의 연구, 교육, 훈련 등에 재투자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미래에 투자하는 얼마 안 되는 9%의 국가예산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쓰는 예산 부분과 별도로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투자를 위해 “미래 예산(future budget)”을 신설할 것이다. 민간부문을 위해, 부자와 투기자의 엄청난 자본소득 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신기술과 신사업에 대한 장기투자자를 위해 투자세금공제(investment tax credit)와 자본소득공제(capital gains reduction)를 신설할 것이다.

혁신에 대한 지원

우리는 지금 일본과 독일에 뒤진 우위를 되찾을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보다 더 많이 신기술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개발세금공제(R&D tax credit)를 영구화하고 우리 미래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 민간연구기관을 신설할 것이다.

적자

적자해소는 공동선을 위한 모든 미국인들의 공정하고 공유된 희생을 요구한다. 12년간의 공화당 통치기간 동안, 200년이 걸리는 국가 부채 규모가 4배로 증가했다. 지금 이 부채에 대한 이자의 증가가 7명 중 한명의 세금을 삼키고 있다. 공화당의 공급측면 재앙이 아니라 민주당의 투자, 경제전환, 성장전략이 경제성장으로부터 더 많은 세입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출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즉 비생산적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국방비를 절감하고 급등하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수급권 프로그램들을 개혁하고 연방행정비를 4년 동안 매년 3% 줄이고 미국인의 평균급료의 성장률에 “현재의 예산” 증가를 연동하고 새로운 비투자 지출에 엄격한 “성과기반지출” 원칙 (“pay-as-you-go” rule)을 적용하고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 몫을 내도록해야 한다. 이 선택들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영세민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진행될 것이다. 이 적자축소노력은 민간의 저축을 장려하고 예산적자를 점차 해소하고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복원하는 재정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방력 전환

미국경제는 냉전종식으로 국방에서 방출된 사람과 자금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국방력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 즉 남녀 군인, 방위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기업, 근로자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프로그램 변화에 대해 사전에 일찍 고시할 것이다. 우리는 퇴역군인을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다. 퇴직한 군무원, 방위산업 근로자, 군수 지원 직원은 직업재훈련, 계속 교육, 직업 알선과 재배치 지원, 조기연금수당, 교직, 경찰 등의 중요한 민간분야로의 전직 인센티브를 활용할 것이다. 새로운 국립 연구소와 민간연구기관이 중요한 민간기술 분야에 국방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다. 중소방위업체는 민간시장으로의 전환을 돕는 기술지원과 전환 교부금과 대출을 받을 것이고 방위산업지역도 전환 계획과 이행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민간우주항공산업, 특히 환경부문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도시

튼튼한 경제만이 미국의 도시를 활성화할 것이다. 도시가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일자리, 양질의 보건서비스, 저렴한 주택, 훌륭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의 관심사이다. 12년간의 태만한 공화당 통치이후, 민주당은 미국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창출할 것이다. 시장들과의 파트너십은 전국의 시장들이 제시한 7개 항의 경제성장 이니셔티브(seven economic growth initiatives)의 고려사항에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도심지 빈민가의 청년들을 위한 여름 일자리 이니셔티브(summer jobs initiative)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람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한 지역사회 개발프로그램과 낙후도시의 맞춤형 재정지원을 지지한다. 국가 공공사업 투자와 기반시설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의 도시, 교외, 농촌 지역사회와 국가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맞춤형 기업지대(targeted enterprise zones)와 도시, 농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공공 연금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도심지 빈민가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계약금 지지역설정(redlining)과 주택차별을 단속하는 한편, 우리는 또한 기업가와 개발 사업에 은행의 대출을 장려하는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도시와 농촌의 소기업에 투자하는 지역사회개발은행(Community Development Banks) 전국 네트워크, 복지의 대안으로 자영업을 하려는 영세민을 위한 영세기업 대출(microenterprise lending)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것이다.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

미국의 수십만 가족농에 의해 생산되는 식량과 섬유가 공정한 가격을 받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이익을 얻는다. 미국의 풍부한 식량과 섬유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세계농업의 선두에 서게 했던 혁명은 독특한 민관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을 통해 이루어졌다. 과

거 12년간, 공화당의 식량, 농업, 농촌개발정책을 특징지었던 무관심과 적대 때문에 미국 농촌은 위기에 빠졌다. 공화당의 농장정책이 야기한 비용은 엄청났고 기록적인 농촌 파산 수는 그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한다.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제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가족농이 자신의 노동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고 그 결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구입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기초연구, 교육, 농촌사업개발, 시장개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다시 확립해야 할 때이다.

근로자의 권리

더 유연해지고 생산적이 되기 위해 미국의 작업장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의 권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큰 권리를 주고 고용주가 직장의 위험에 책임 지도록 직장안전법(job safety laws)을 개혁할 것이다. 우리는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에 반대한다. 우리는 근로장려세(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여 전업노동을 하고 자녀가 있는 어떤 가족도 빈곤하게 살지 않게 함으로써, 가족농이 근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복지보다 근로를 더 가치있게 함으로써, 노사분규에서 위협 또는 해직의 두려움 없이 근로자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권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운리를 존중할 것이다.

평생학습

경쟁력 있는 미국경제는 세계시장에서 가장 잘 교육받고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유연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성과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사립학교 바우처(private school vouchers)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인 공립학교를 파산시키려는 부시정부의 노력에 반대한다. 어린이들이 학습준비가 되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아동보건영양프로그램(child health and nutrition programs)을 확대

하고 헤드스타트(Head Start)¹⁾ 를 자격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하고 양질의 저렴한 육아를 모든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공립학교간의 심각한 불평등을 개탄하며 모든 아동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이 목적에 자원을 재할당하는 것이 우선 순위여야 한다. 우리는 차별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함께 현장기반의사결정(site-based decision-making)과 공립학교의 선택 등의 교육개혁을 지원한다. 우리는 90%의 졸업률을 달성하고 중퇴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우리는 교육기술에 투자하고 수학, 과학 등 핵심과목에서 세계적 수준의 표준을 확립하고 이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시험을 지지한다. 등록된 도제프로그램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대학미진학자가 기술을 익혀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립도제방식의 프로그램(national apprenticeship-style program)을 채택할 것이다. 신경제에서 기회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에 의존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읽고 쓸 줄 알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이 회사운영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훈련에 투자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국민봉사 지원법

지난 12년간 급등하는 학비와 중산층의 소득하락 때문에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학자금대출제도의 운영을 혁신할 때이다. 우리는 가족소득과 관계없이 입학시험에 합격한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봉사 지원법(Domestic G.I. Bill)²⁾ 덕분에 모든 미국인들은 소득의 일부분으로 장기상환을 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국민봉사(national service)를 한다면 대학 학비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역주 1) 헤드스타트는 미국의 저소득 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교육, 보건, 영양 등의 종합 프로그램이다.
 역주 2) G.I.는 모든 보급이 관공품(government issue)인 군인을 가리키고 G.I. Bill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참전 군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제대군인 원호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시민의 책임을 이행하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Domestic G.I. Bill은 제대군인 원호법의 취지를 살려 군인만이 아니라 경찰, 교사 등 국내에서 책임을 이행한 시민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봉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제3의 길의 '책임 없이 권리 없다'는 정신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저렴한 보건서비스

모든 미국인들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양질의 저렴한 보건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의료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한다. 의료비가 물가인상보다 두, 세배 더 상승하면서 미국 가정과 기업을 경악시키고 수백만 명의 의료를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저렴하게 하고 의료공급자의 질과 선택을 보장하고 사전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낭비, 관료제, 남용을 제거하고 아동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차 예방 의료와 지금 도시에서 창궐하는 결핵 등의 질병 예방을 향상하고 음식과 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고 교육, 상담, 피임,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의 권리를 포함한 완전한 임신선택권을 제공하고 의학연구를 확대하고 재택의료를 포함한 더 장기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독특한 미국의 의료서비스체계 개혁법을 제정할 것이다.

우리는 유방암의 유행을 우선적으로 끝내고 유방, 자궁, 난소암, 불임, 임신 등 여성의 특수질병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에이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국립에이즈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AIDS)의 권고를 이행하고 라이언 화이트 의료법(Ryan White Care Act)³⁾에 자금을 전면 지원할 것이다. 정직한 맞춤형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이즈 관련 차별을 없애고 모든 감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약물치료법을 개발하고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고 치료와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확대하고 식품의약국(FDA)의 의약승인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이다.

역주 3) 라이언 화이트 의료법은 수술 중 우연히 에이즈에 걸려서 에이즈 관련 차별 투쟁을 한 십대 소년의 이름을 딴 법으로 에이즈에 걸린 저소득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지원법이다.

공정성

성장과 평등은 병행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사회의 공동비용을 공유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중산층이 치솟는 지불급여세 등을 과도하게 부담했다. 우리는 부자가 공정한 세금 몫을 내게 함으로써 중산층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우리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금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정한 대출관행을 지원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에너지 효율과 환경보호가 경제성장의 적이라는 공화당의 신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고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독성 고체폐기물을 더 적게 생산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대중교통 지원과 함께 교통종합정책을 채택하고 효율적인 대체연료 자동차를 장려하고 청정 천연가스의 이용을 늘리고 청정 석탄기술을 장려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공기와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국내산 석유와 가스 이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 오염예방, 재활용을 장려하는, 세입에 무해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민권과 평등권

우리는 한명의 미국인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인이 능력과 무관한 인종, 성, 언어, 출신국가,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취향 등에 근거해서 차별당하거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할 것이다. 우리는 남녀평등 헌법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의 추인,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 투표에 대한 언어적 접근을 포함한 인종적, 민속적 소수자의 투표권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 차별적인 영어 공용어 압력집단에 대해 계속적해서 반대한다. 우리는 민권집행에 대한 부시정부의 공격을 역전시키고 그 대신 민권집행

기제를 구축하고 활발하게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의 동등한 치료를 지원하고 증오범죄(hate crimes)를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영세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미국인이 외교정책 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게이와 레즈비언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국방부의 차별을 종식하고 인디언의 문화와 미국의 인디언보호조약을 존중하고 미국정부가 하와이 거주자, 특히 하와이 원주민에 대한 신탁통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장애인들이 독립과 기능을 최대한 성취하도록 장애인평등법(Disability Act)을 완전히 집행할 것이다.

자치주와 영토

우리는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의 기존 자치주(Commonwealth) 지위와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간의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인정한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자치주민들이 미국의회와의 협조 하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화된 자치주 또는 주 또는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연방 프로그램에서 푸에르토리코의 공정한 참여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 버진제도(Virgin Islands) 사람들이 연방정책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할 것을 공약한다. 우리는 그들과 팔라우(Palau) 사람들이 미국과의 미래 관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정책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존중한다.

II. 책임

60년 전, 플랜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대공황의 도탄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말했다. 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약속해야 하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책임이다. “미국에 대한 신념은 우리가 오랜 사회적 계약의 새로운 조항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희망의 힘으로 우리 모두는 공동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12년 동안 공화당은 공공제도에 너무나 적은 것을 기대했고 우리 국민을 너무나 적게 믿었다. 우리는 냉담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화당의 태만이나 만능 처방으로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낡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공한다. 우리는 정부를 규칙을 지키는 시민의 편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하여 낡은 접근들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부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가적 목적의 도구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개인적 책임, 즉 그들이 믿는 종교적 신앙, 그들이 실천하는 윤리, 그들이 고취하는 가치, 그들이 직장에서 가지는 공지에 의존한다.

가족의 강화

정부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기른다.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낸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치, 동기, 기질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책임한 부모들을 국가적으로 단속하고 아동지원집행체계를 전국적으로 효율화하고 모든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동일임금을 통해 부모들이 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더 쉽게 해야 한다. 육아휴가와 병가휴가는 근로자가 가정과 일 간에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가정위기에 대한 예방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와 부부학대를 줄이는 가정보호프로그램(family preservation program)을 지원한다. 우리는 근로가족을 위한 양질의

의 저렴한 육아 기회와 모든 아동의 공정하고 건강한 출발을 보장한다. 우리는 기아 예방, 적합한 소득, 교통 이용, 학대 예방을 포함하는 노인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의 필요를 지원한다.

복지는 생활방식이 아니라 재기(second chance)여야 한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에 영원히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일하는 사람은 빈곤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단순한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복지의 반복을 깨뜨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도울 것이다. 우리는 복지수급권자에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하고 복지수급권자가 일하러 가고 장기적으로 자조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육아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복지에서 일로(from welfare to work) 이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민간부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의 준비된 일자리에서 2년 안에 일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복지가 원래 의미했던 약속, 즉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잠정적인 도움이라는 약속을 복원하는 것이다.

선택

민주당은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로 대 웨이드 재판(Roe v. Wade)⁴⁾ 과 일관되게 모든 여성의 선택권과 이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지지한다.

정부가 아니라 미국인 개인이 임신과 관련된 가장 어렵고 심각한 개인적 결정을 할 책임을 가장 잘 맡을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이다. 미국의 목적은 낙태를 더 어렵고 더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피임연구, 가족계획, 종합적인 가정생활교육, 건강한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지지한다.

역주 4) 1973년, 로 대 웨이드 재판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에는 헌법상 낙태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때는 대부분의 주에서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조차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 정상화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만 성공할 수 있는 협력적 사업이다. 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 교사는 교실에서의 능력을 얻고 유지하고 증명해야 한다. 학교운영자는 높은 수준의 기율과 교육을 성취해야 한다. 정부는 학군 간에 교육적 계토(educational ghettos)를 창출하는 불평등을 종식하고 만인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급료가 교사의 능력에 따라 올라가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교육을 미국 경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한다.

노사 책임

민간부문은 미국 경제의 엔진이고 국부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사람들이 최대한 돈을 벌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980년대 내내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은 사다리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즉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챙기는 내부 주식거래자들, 불로소득 예술인들, 저축대부조합 우두머리들(S&L kingpins)이었다. 미국의 기업지도자들은 자국에 투자할 책임이 있다. 평균 근로자보다 100배 더 많이 받는 CEO들은 성과와 무관하게 크게 인상된 봉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업이 경영진에 과도하게 많은 봉급을 주고 미래에 덜 투자하고 해외에 일자리를 이전한다면 특별대우와 세금감면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영진은 종업원과 함께 작업장을 더 안전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들도 또한 신경제에서 부가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성공에서 더 큰 목소리와 몫에 대한 보답으로 근로자들은 생산성, 유연성, 품질을 높이는 협력적 노력에 함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노사에서 정부의 중립성은 공화당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켰던 단체교섭에 대한 중립성을 의미할 수 없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노사가 함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교섭을 포함한 과정들에 의존한다.

환경에 대한 책임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원시림과 보존 서식지를 보호하고 습지에 대한 진정한 “순손실 제로(no net loss)” 정책을 실시하고 유독성 화학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토양, 물, 공기의 중요한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새로운 해양굴착과 광물탐사·생산을 반대하고 석유와 유독성 폐기물 방출을 줄여 해양오염을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청년들이 민간환경보호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공중보건을 위해 우리는 연방시설에서 환경위험물을 제거하고 민간 오염자가 자신의 유독성 폐기물을 제거하고 환경범죄자를 적극 기소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력의 미명하에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을 무력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고형 폐기물(solid waste)의 양을 줄이고 과도한 포장지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장려할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 효율, 재활용, 오염예방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책임 정부

1992년에 민주당은 가장 어렵고 긴급한 적자와 경제성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책임 정부를 달성함으로써 정부 내의 혁명을 지도할 것이다. 낡은 프로그램들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필요한 관리층을 제거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그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더 큰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연방명령을 완수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군, 주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다.

책임 공무원

정부의 모든 부서는 국민이 지키는 법을 지키고 공적 신뢰를 얻는 공개된 방식

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정하고 특권을 제거해야 한다. 공무원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미국 정치가 큰 돈이 들지 않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제도를 개혁할 때이다. 우리는 전반적인 선거자금 지출과 정치활동위원회(PACs)의 과도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우리는 보편적 동일 등록(universal same-day registration)과 같이 유권자들을 확대하는 새로운 유권자등록법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공무원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중파 방송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후보와 정책의 선택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지위(statehood status)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공정한 정치적 대표가 필요하다.

Ⅲ. 공동체 복원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은 우리의 공동체 제도, 즉 가족과 이웃, 공립학교, 종교 제도, 자선조직, 시민단체 등 자발적 조직의 힘에 실질적으로 의존한다. 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자치의 습관과 기술을 배우듯이 미국 시민의 가치와 성격이 형성되고 시민으로서 우리의 공동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가 습득된다.

12년간의 공화당 통치기간 동안, 우리를 함께 묶었던 상호의존과 의무의 정신이 붕괴되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공적 책임을 무시하고 내향적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촉구했다. 인종, 민속, 성에 근거한 정치를 함으로써 공화당은 우리를 서로 분열시켰고 비난, 거부, 공포의 분위기를 창출했고 평등과 공정성을 위한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동체는 정부와 시장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제3섹터(third sector)⁵⁾”를 형성한다. 미국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필요한 지혜, 에너지, 자원은 정부에

역주 5) 제3섹터는 제1섹터인 정부, 제2섹터인 시장과 다른 비영리부문 또는 시민사회를 지칭한다.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한 미국의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을 포함하는 우리의 공동체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다. 정부의 최선의 역할은 국민들과 공동체가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특별한 재능은 독특하고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공유된 가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포용의 정당(party of inclusion)으로서 우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다민족, 다민족 공화국으로 출현한 것에 특별한 자긍심을 갖는다. 우리는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 편협함 등 모든 종류의 부정적 낙인을 비판한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만인을 위한 자유와 기회의 땅(land of freedom and opportunity for all)으로 만들었을 때, 이 모자이크 사회를 유지했던 공동 요소들을 보존하고 우리들의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다.

공화당의 태만과 전통적 지출 프로그램 모두 이 도전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민주당은 근로, 가족,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빈곤과 의존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미국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길을 추구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제도를 뒷받침하고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기획(civic enterprises)을 새로이 강조한다. 공동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재구축하고 미국을 전환시킬 수 있다.

범죄와 마약에 대한 전쟁

범죄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는 놀랄 정도로 미국을 휩쓸었다. 1980년대에 베트남에서 죽은 숫자보다 네 배 많은 20만 명이상의 미국인들이 살해되었다. 폭력범죄는 1988년 이후로 16%이상, 1975년 이후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살인은 25분마다, 강간은 6분마다, 강도는 10초마다 일어난다. 범죄에 대한 광범한 공포는 미국의 공적 생활을 손상시키고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다.

영세민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암담한 전망과 마약과 신형무기가 뒤섞여

많은 도심지 빈민가가 전쟁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범죄는 도심지 빈민가를 괴롭히는 극심한 빈곤과 타락의 징후일 뿐 아니라 주요한 원인이다.

미국 지역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정부를 범죄가 만연한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법과 질서의 유지자로 복원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길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다.

미국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불균등한 상태에 있다. 1951년 이후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비율이 3대1에서 1대3으로 역전되었다. 우리는 경찰단(Police Corp)을 창설할 것이다. 경찰단 참가자는 졸업 후, 주 또는 지방의 경찰국에서 몇 년간 복무한 대가로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과 자원을 국방에서 민간경제로 이전함에 따라 전역하는 군인을 위해 새로운 경찰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약물 중독자를 위한 마약 상담과 치료를 확대하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위험에 대한 어린이 조기교육을 강화하고 길거리에서 호화주택까지 모든 곳에서 마약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세계 인구의 2%를 차지하는 미국이 세계의 불법적 마약의 50%를 소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역이웃 경비치안

지역이웃과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더 많은 지역이웃 경비치안(community policing)을 지원한다. 지역이웃 경비치안은 도보순찰과 상점 앞 방법초소를 이용하여 도시의 근린지역에서 경찰관이 항상 보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길거리 폭력을 방지하고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범죄를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총기

미국 도시에서 무기시장을 폐쇄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치명적인 공격용 총기의 소유, 판매, 수입, 제조를 금지하는 공격용 총기의 통제뿐만 아니라 권총 구

입 시, 신원확인을 위한 적당한 대기시간을 지지한다. 우리는 합법적인 사냥과 스포츠 목적의 무기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총기규제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과 총기사용 범죄자에 대한 더 강력한 판결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총기 암시장을 폐쇄하고 아동에게 총기를 파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한 적극적 추적

미국 사법제도의 편파성에 대한 가난한 지역사회의 냉소를 야기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공화당의 자비와 정반대로 민주당은 공적 신뢰를 배신하거나 금융시장을 조작하거나 예금주의 돈을 오용하거나 고객을 사취하는 자들을 추적하고 처벌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여타 이니셔티브

민주당은 또한 초범에 대한 지역사회 봉사과 신병 훈련소 입소, 강간범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범죄 희생자가 복잡한 형사재판에 고통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희생자 보호 진술과 손해배상, 폭력학살에 대한 대안적 학교 등의 학교 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혁신적 판결과 처벌 옵션들을 지지한다.

영세민의 능력강화와 중산층의 확대

우리는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에서 규정된 생계의존에서 근로, 가족, 개인적 이니셔티브와 책임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가속화해야 한다. 우리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자의료보조(Medicaid) 등의 수급조건을 개선하고 저소득자 가정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특별저축계좌(special savings accounts)를 신설하고 대부분을 공정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물가인상과 연동하고 청년직업훈련단(Job Corps)을 확대하고 개인저축 1000달러 복지수급한계와 같은 가족해체를 촉진하고 개인의 노력을 벌주는 복지규칙을 폐지할 것이다.

이민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 생활방식이 미국 모자이크의 부분이 되면서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은 활성화되었다. 민주당은 공정성, 비차별, 가족상봉을 촉진하고 언론, 결사, 여행의 헌법적 자유를 반영하는 이민법을 지지한다.

주택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은 지역사회와 가족 제도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근로가족의 주택소유를 지원하고 알맞은 모기지 신용(mortgage credit)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이 공약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저렴한 저소득 주택을 개선하고 유지하고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임차인의 관리와 소유를 지원하여 공공주택 거주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관리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국민봉사

우리는 시민들이 서로와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함으로써 국민봉사(national service)는 지역사회의 미해결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반시민들의 역할을 증대할 것이다.

예술

우리는 정치적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굳게 뿌리 박은,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을 포함한, 예술에 대해 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Ⅳ. 국가 안보 유지

지난 4년 동안,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이 부식된 결과, 미국은 과거에 안주하고 미국의 가치와 결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에 맞설 수 없었다. 부시 대통령 하에서 위기는 예방되기보다 관리되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구애했고 세르비아의 구유고연방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대응했고 인권유린자들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했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했고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켰다. 변화하는 세계의 도전에 대응할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힘은 폭정을 물리쳤고 미국의 재능은 대공황을 극복했다. 트루먼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어려운 도전에 대한 대담한 접근 방식으로 세계안보를 재규정하고 나토와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국제연합 등의 기구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새로운 다자간 제도를 통해 세계의 경제적 안전을 진전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로 세계를 이끌었다.

거의 50년 후에 미국은 역사의 또 다른 전환점에 서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 또는 위협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우리 미래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벽두에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군대의 구조조정

미국은 세계의 군사최강국이며 계속 그래야 한다. 미국 군대의 탈냉전 구조조정에서 생긴 절약은 부시 정부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이 구조조정은 안보에 대한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달성되어야 한다. 1990년대를 넘어서는 군대구조는 네 가지 초석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가 무기통제협상 등 상호행동을 통해 핵무기를 감축함과 함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존속할 수 있는 핵무기. 둘째, 우리의 사활적 국익이 위협받는 곳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이것은 나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독재자, 테러리스트, 국제마약밀매자, 지역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국지적 무력분쟁에 의한 미국 안보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신속전개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미군을 세계최강으로 만드는 두 가지 특징, 즉 군인과 기술 우위의 유지. 이 특징들은 분쟁을 단축하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이다. 넷째,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에 대한 훨씬 더 정교하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 재조정된 정보능력이다.

군사력의 사용

미국은 사활적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집단안보의 부담은 공정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미국은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을 통한 다자간 평화유지를 촉진해야 한다.

분쟁예방과 봉쇄

미국의 정책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뿐 아니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기술을 퍼뜨리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엄격한 국제적 노력을 지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강화하고 국제적 제한을 위반하는 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Comprehensive Test Ban)는 미국의 가장 큰 미래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분쟁지역으로 위협하고 파괴적인 재래식 무기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제한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은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 복원

미국이 국내에서 약하다면 해외에서 강할 수 없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은 국가안보정책의 중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국가의 힘이 군사적 의미로 규정되었지만 지금은 또한 근로자의 기술, 경영자의 상상력, 기술의 힘으로도 측정된다.

우리가 정부, 노동,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재건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발전시키고 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와 경쟁하고 성장하는 국가들에 뒤쳐질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일자리, 생활수준, 삶의 질이다.

경제적 힘, 즉 진정한 국가안보는 건전한 국내 경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활기차고 팽창하는 세계경제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강력해질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인을 위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무역

미국정부는 공정한 세계무역을 주장하는 한편,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출을 장려하고 농산물 등의 무역을 확대하고 주요 경쟁국들의 생산품, 서비스 분야 시장을 개방하고 호혜적 접근을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무역을 미국의 지레대로 삼는 새로운 권한을 포함한다. 미국정부는 또한 불공정 무역에 대해 미국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무역협정

다자간 무역협정은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NAFTA)에 대한 협상 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의 체결에서 미국정부는 환경, 보

건과 안전, 노동기준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관심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자리가 영향 받는 미국 근로자들은 효과적인 조정 지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 촉진

베이징에서 탱크 앞에 서있던 영웅과 모스크바의 탱크 위에 서있던 지도자 같은 용감한 남성들과 여성들이 전 세계 민주화 대오에 생명을 바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중국, 발틱해 연안국, 남아공에서 민주주의의 파도가 높아질 때만 마지못해 이 정부들은 현상유지를 포기했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받아들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이상과 국익에 기여한다. 세계가 민주화될수록 더욱 더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개입하는 미국 외교정책은 효과적으로 착수되어야 한다.

신생 민주주의국가

동구와 구소련에서 아직은 약한 신생 민주주의국가가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노력은 이 사회들을 비군사화하고 경제를 세계무역체계에 통합하는 것이다. 발틱해 연안국과 구소련 국가들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승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부시정부와 달리, 민주당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 분투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와 같은 구공산주의국가들에서 자유를 지원하고 인종 긴장을 줄이고 침략을 반대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발칸반도에서 변화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마케도니아(Macedonia)의 국명 사용에 대한 그리스의 우려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탈냉전시대에 아프리카, 카리브해, 라틴아메리카 등에 대한 미국의 외국 원조프로그램들은 압제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민주주의 지원단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 재정, 정치 전문가들을 찾는 나라들에 미국의 자원봉사자를 보내는 민주주의 지원단(Democracy Corps)을 창설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촉진하고 국립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등의 단체를 지원한다.

대중국 무역

중국과 티베트에서의 인권 존중, 미국 상품의 시장접근 확대, 무기 확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우호적 대중국 무역의 조건으로 한다.

남아공

남아공에서 모든 시민이 완전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다수인 흑인들과 역행할 수 없고 완전하고 공정한 화해를 이룰 때까지 남아공에 대한 투자 등의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보이파통 흑인 거주지역(Boipatong Township)에서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고 협상의 결렬에 대해 우려한다. 미국정부는 제재를 다시 연장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은 남아공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할 민관기금을 새로운 과도정부에게 제공하는 남아공/미국 기획 기금(South African/American Enterprise Fund)의 창설을 지원한다.

중동 평화

캠프 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의 전통에 근거해서 중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는 이스라엘, 관련 아랍 인접국가들, 팔레스타인간의 직접협상만이 이스라엘의 지속적 안보와 지역의 모든 당사국들의 완전한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냉전이

종식되었어도 미국은 공유된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상호헌신, 양국에 이익을 주는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이스라엘과의 장기적인 특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평화 프로세스에서 정직한 중재자로서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시 정부처럼 다른 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할 것으로 믿게 할 정도로 한쪽만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모든 신앙인들이 갈 수 있는 분할되지 않는 도시로 남아야 한다.

인권

모든 곳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정부의 억압적 조치, 즉 고문, 정치적 감금, 인간적 자유의 문명적 기준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해 인종적 소수자를 존중한다. 이것은 남아공의 자유를 지지하고 쿠바의 압제에 계속 반대하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미국은 아이티 난민이든, 이스라엘로 귀화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구하는 소련 유대인이든, 공산주의를 탈출한 베트남인이든, 모든 곳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 번 피난의 원리(principle of sanctuary)를 촉진해야 한다. 정치적 압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강제귀국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배신이다.

인간적 필요

아프리카의 처참한 기아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지원한다. 우리는 동서갈등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증가된 격차인 남북갈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개발프로그램은 그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진정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재검토되고 재조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희망 없이 너무나 자주 기아에 시달리고 고향에서 추방된 수백만 인류의 삶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아를 없애는 특별계획과 시간표를 확정해야 한다.

키프로스

국제연합 결의안에 의거해서 키프로스(Cyprus)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새로이 공약한다. 이 목적은 지금 미국의 외교 어젠더로 복원되어야 한다.

북아일랜드

영국과 아일랜드와의 미국의 전통적 유대에 비추어 그리고 세계평화,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일관되게, 북아일랜드에서 폭력을 종식하고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화와 정치적 대화에서 미국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구적 환경보호

핵전쟁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환경 위기의 축적으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도전 받고 있다. 전 세계 정부들은 행동을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외교정책 전문가를 자처하는 부시정부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실천함으로써 변화의 리더가 아니라 진보의 장애가 되었다. 민주당은 우리가 지금 지구의 건강과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구온난화 해결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투쟁에서 장애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데 합의하기 위해 유럽동맹국들과 함께 해야 한다.

오존층 파괴

미국은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체하는데 세계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미국은 지구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보호하고 삼림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리오지구정상회담(Rio Earth Summit)에서 부시정부는 생물다양성 조약의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포기했다.

개발도상국

미국은 개발도상국이 환경적 유산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참신한 개입방법을 형성해야 한다.

인구증가

폭발적 인구증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가족계획 민간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통제되어야 한다.

한 국가와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공화당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은 냉전의 계명에 집착하여 새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거의 반세기의 희생, 충실, 힘을 통해 미국인들은 냉전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었다. 오직 국내에서 미국의 위대함을 복원하는 새로운 리더십만이 새로운 평화와 자유의 시대로 세계를 이끌기 위하여 미국인의 이 동일한 힘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부르는 자유와 기회를 찾기 위해 탱크와 맞서고 쿠데타에 저항하고 보트로 해상을 탈출하는 해외의 용감한 사람들을 보았

다. 여기 국내에서 이 동일한 기회가 쇠퇴하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투쟁해야 할 때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우리가 함께 상승하거나 몰락한다는 것을 안다. 다시 한 번 미국 사회를 위해 민주당은 가족(family), 공동체(community), 공동목적(common purpose)의 미국의 건국가치를 복원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국가에 뭔가 돌려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부유해질 것이다. 개인이 책임을 다했을 때, 품위를 얻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 그들은 상실된 자긍심을 다시 찾는다. 비양육부모들(absent parents)이 아이들을 부양할 때, 그들은 자신들과 아이들이 필요한 관계를 복원한다.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때,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기업경영자들이 단기 이득보다 근로자들과 장기적 성공을 우선할 때, 기업이 잘 된다.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미국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미국을 전진시키기 위해 함께노력할 것이다.

3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 혁신의 신비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경축은 한겨울에 열리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세계가 우리를 보는 면면을 보면 우리는 봄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봄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미국을 혁신하게 하는 비전과 용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의 건국자들이 용감하게 미국 독립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고했을 때, 사람들은 미국이 지속하기 위하여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닌 생존,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미국의 이상을 보존하기 위한 변화라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시대의 음악에 맞추어 행진하였지만 우리의 사명은 영원합니다. 모든 세대의 미국인은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합니다. 조국을 대신하여 반세기 동안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부시 전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황과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대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 수많은 사람들의 성실함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냉전의 그림자에서 자란 한 세대가 자유라는 햇볕으로 파스해진 세상에서 새로운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과거의 증오와 새로운 전염병에 아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할 데 없는 번영에서 자라서 우리는 아직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와 저조한 수준의 임금과 불평등의 심화와 바로 우리 국민의 분열로 인해 취약해진 경제를 이어받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처음 대통령 선서를 했을 때, 그 소식이 말을 타고 대륙에 퍼져 나갔고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갔습니다. 지금 이 식장의 장면과 소리는 세계의 수십억 명에게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통신과 통상이 세계적입니다. 투자는 유동적입니다. 기술은 거의 마법과 같고 더 좋은 삶을 위한 야망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과의 평화로운 경쟁을 통해 우리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심층적이고 강력한 힘이 세상을 흔들며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 친구와 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이미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백만의 미국인들의 삶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벌 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일할 수 없을 때, 의료보험의 비용이 가족을 황폐하게 하고 대기업이던 소기업이던 우리 기업이 파산의 위협을 받을 때, 범죄에 대한 공포가 자유 시민을 지키는 법을 짓밟을 때, 수많은 빈곤 아동들이 우리가 이끌어 주려 하는 삶을 꿈꿀 수조차 없을 때, 우리의 친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고된 진실에 맞서서 힘찬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표류하며 자원을 고갈시키고, 경제를 망가트리고, 우리의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두렵지만 우리의 힘도 두렵습니다. 우리 미국인은 쉬지 않고 탐구하며 희망찬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비전과 의지를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독립전쟁이후 남북전쟁, 대공황, 민권운동까지, 우리 국민은 늘 이러한 위기에서 미국 역사의 초석을 만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국가의 바로 그 토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때때로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부러움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혁신을 위한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더불어 선으로 치유될 수 없는 악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교착과 표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미국의 혁신이 시작되는 계절이 도래했음을 선언합니다.

미국을 혁신하려면 대담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느 세대도 전에는 할 필요가 없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직장, 미래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거대한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부양하듯이 우리는 국가를 부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국자들은 후세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들어있는 어린이의 눈을 본 사람이라면 후세가 무엇인지 압니다. 후세는 미래의 세계, 후손을 위해 우리의 이상을 가져가야 하는 세계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이 땅을 빌렸으며 그들에게 신성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만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만민으로부터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에게 또는 서로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나쁜 버릇을 없앨 시간입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집시다. 미국을 혁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멋진 의회는, 문명의 여명기 때부터 나타난 모든 의회처럼, 가끔은 술수와 계산의 장소였습니다. 강자는 지위를 얻기 위해 책략을 사용하며,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탈락하는지, 누가 승진되는지, 누가 강등되는지 끊임 없이 걱정합니다. 노고와 땀으로 우리를 여기에 보냈고 우리의 길을 닦은 국민을 잊은 채 말입니다.

미국인은 더 좋아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시에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밝힙니다. 우리의 정치를 개혁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하여 권력과 특권이 더 이상 민의를 물리치지 않게 합시다. 사적인 이익은 제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국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미국의 약속을 볼 수 있게 합시다. 우리 정부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 과거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부(bold, persistent experimentation, a government for our tomorrows, not our yesterday)”가 되게끔 결의합시다. 이 의회를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미국을 혁신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내만이 아닌 해외의 도전에도 맞서야 합니다. 국내와 해외 사이의 명백한 구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경제, 환경, 에이즈, 무기 경쟁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낡은 질서는 사라지면서 신세계는 더욱 자유롭지만 덜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오래된 원한과 새로운 위협을 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세계를 확실하게 계속 지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재건하는 동안, 우리는 도전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고, 새 시대의 기회를 잡는데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과 함께, 같이 변화하고 변화에 침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적 국익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의지와 양심이 무시될 때,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최대한 평화적 외교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소말리아와 그들이 어디에 있던 용감한 미군은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힘은 우리의 이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 이상을 환영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열정과 도움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구축하는 모든 대륙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의 대의는 우리의 대의입니다.

미국인은 우리가 지금 경축하는 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명백히 밝혀왔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하였고 국회와 대통령을 그리고 정치과정 자체의 면모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은 봄을 오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이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대통령의 모든 권한으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국회가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정부도 홀로 이 사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 또한 우리의 혁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는 미국의 젊은 신세대들이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도움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분열된 우리사회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여러분의 이상주의를 실행하는 봉사의 계절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봉사함으로써 여전히 젊은 영혼을 갖고 있는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일은 정말 충분히 많습니다. 봉사에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경축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바로 그 이상, 미국독립전쟁에서 태어나 2백년의 도전을 통해 혁신되고, 운명이 아니라 불운아이던 행운아이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조화되는 이상에 다시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미국의 심오한 화합의 방법이 수많은 다양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해 고귀해 집니다. 이 이상은 미국의 긴 영웅적 여정이 영원한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의해 고취됩니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신념과 기운을 가지고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일이 끝날 때까지 일합시다. 성서에 쓰여 있습니다. “선행에 지키지 않게 하소서. 약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때에 수확하게 되리니” 이 기쁨이 넘치는 산정상에서의 취임식장에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봉사하라는 소명을 듣습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호와 함께, 우리는 그 소명에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4 제3의 길

- 2000. 6. 13. 민주당리더십협회

제3의 길은 전 세계 진보정당에 뿌리내리고 있는 통치철학이자 정치전략이다. 제3의 길은 정보화시대(Information Age)의 정책적 도전들과 우파의 정치적 도전에 맞서 진보정당의 성공을 이끌었다.

전통적 좌파의 큰 정부의 온정주의(paternalism)와 현대적 우파의 공적 책임의 포기를 모두 거부하기 때문에 “제3의 길”이라 불린다.

“정부가 당신을 돌볼 것이다” 또는 “당신은 혼자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제3의 길은 사람들에게 책임의 대가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3의 길은 또한 정부의 규모와 비용에 대한 진부한 좌우논쟁을 초월하는 공공정책의 논쟁을 창출할 것이다. 제3의 길은 미국인이 자신의 문제들을 풀도록 정부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제3의 길의 첫 번째 원리는 특권자가 아닌 만인을 위한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이다.

제3의 길의 공적 윤리는 상호책임(mutual responsibility)이다. 그 핵심가치는 공동체(community)이다. 그 전망은 세계적(global)이다. 제3의 길은 공공목적 추구를 위해 시장의 수단을 받아들이고 성공에 필요한 도구로 시민을 무장시키는 권능강화 정부(empowering government)를 촉진한다. 제3의 길은 오늘날 균등한 기회의 필수요건인 민간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3의 길은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정의의 명령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제3의 길 운동의 목적은 현대적 수단들로 지속적인 진보적 가치들을 촉진하는 것이다.

급속하게 제3의 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치운동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신민주당(New Democrats)에서 시작하여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New Labour)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의 진보정당들이 집권하도록 돕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3의 길의 아이디어들은 라틴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영향력을 얻고 있다.

신민주당의 지도하에 제3의 길은 서방세계와 그 국민들이 세계적 정보화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제3의 길은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통해 진보적 정치전통의 지속적 가치들을 촉진한다.

5 문제는 가치와 경제야

– 2001. 7. 12. 『청사진(Blueprint)』, 앨 프롬(Al From)

1992년에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은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를 붙였다.

3년 후에 정치평론가 벤 와텐버그(Ben Wattenberg)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Values Matter Most)』는 제목의 책을 썼다.

경제적 우선인가 문화적 가치인가? 누가 옳은가? 나는 과거 20년간의 대통령 선거를 검토한 후, 정답은 둘 다라고 결론지었다. 경제적 이슈들에서 승리하지 않고서 민주당은 경쟁할 수조차 없고 가치 이슈들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한다.

2십년 전, 투표에서 계급 분할은 뚜렷했다. 민주당은 저소득 유권자들에서 이겼다. 1980년에 지미 카터(Jimmy Carter)와 1984년의 월터 먼데일(Walter Mondale)은 최하위 소득 유권자들에서만 15%를 이겼다. 공화당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산층을 포함해 다른 모든 계층에서 이겼다.

1990년대가 되자 상황은 변했다. 클린턴의 성장지향 신민주당 경제정책

(growth-oriented New Democrat economic policies)은 미국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고 더 부유한 미국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확신시켰다. 4명중 3명의 유권자들이 오늘날 자신을 중산층 또는 상위 중산층(upper middle class)으로 생각하고 10명중 7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1996년에 클린턴은 최상위 소득 유권자에서 단지 18%만 졌을 뿐, 중산층과 상위 중산층에서 승리했다. 2000년에 앨 고어는 중산층을 반분했고 상위 중산층에서 경쟁할 수 있었고 최상위 소득 유권자들에서 단지 15%만 졌다.

우리 민주당이 경제정책에서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한, 1980년대에 민주당에게 파멸적 타격을 주었던 침체한 계급 분할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 다수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커다란 문화적 격차(cultural gap)를 줄여야 한다. 고어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 총기소유자, 정기적 교회참석자, 낙태반대론자(pro-lifers), 작은 정부 옹호자에서 크게 졌다. 그러나 그는 미혼자, 총기미소유자, 불규칙적 교회참석자, 낙태선택론자(pro-choice voters), 큰 정부 옹호자에서 이겼다. 그는 고등학교 중퇴자와 대학원 졸업자에서 이겼다. 그러나 교육의 중간층, 즉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에서 졌다.

문화적 격차는 백인 유권자들, 특히 백인 남성에서 가장 명백하다. 그리고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가령, 우리의 낙태선택과 총기안전의 입장은 농촌지역의 지지를 떨어뜨리지만 점차 미국정치의 핵심적 전장이 되고 있는 교외지역에서 우리의 지지를 높이고 있다.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서의 후퇴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고 정치적으로 비생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이 이 불안정한 문화적 영역을 성공적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다고 믿는다. 1996년에 클린턴은 자녀를 가진 기혼자들에서 이겼고 총기소유자, 낙태반대론자, 작은 정부 옹호자에서 손실을 줄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에서 이겼고 대학졸업자에서 거의 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클린턴의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재분배가 아니라 성장과 기회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건전재정,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 무역확대를 통해 민주당은 1990년대에 쟁취했던 중산층과 상위중산층에서의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 민주당은 1980년대의 계급지향 투표패턴이 다시 출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와 복지 같은 문화적 이슈들에서 신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근로와 가족 같은 핵심적 가치들과 호혜적 책임의 윤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기회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국가에 뭉가 돌려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가치 메시지(values message)를 보낼 수 있다.

셋째, 우리는 큰 정부가 아니라 큰 아이디어들을 지지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말했듯이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활동적 정부(activist government)를 믿는다. 그러나 활동적 정부는 관료적이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권능강화와 촉매이다. 민주당은 언제나 큰 정부 옹호자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지만 클린턴처럼 우리는 정부가 더 적은 것을 해야만 한다는 다수 유권자들에서 손실을 줄여야 한다.

넷째,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돕는 가족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ies)을 지지해야 한다. 클린턴이 말했듯이 “정부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고 부모들이 키운다.” 엘리트들은 1996년에 클린턴의 V칩®, 교복, 아이들의 흡연금지와 같은 작은 아이디어들을 비웃었다. 그러나 클린턴은 고통 받는

부모들과 교감했다. 그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아이가 있는 기혼 유권자들에서 이긴 유일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낙태와 총기 같은 분열적 가치(divisive values) 이슈들에서 양극화의 언어를 피해야 한다. 클린턴은 낙태선택의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낙태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드물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지난 10년간 세력이 커진 낙태반대 유권자들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카빌과 와텐버그는 둘 다 옳다. 성장지향 경제정책 없이 민주당은 승리의 열쇠인, 점차 부유해지고 있는 유권자들에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문화적 이슈들과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 양극화의 입장을 피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반은 온건하지만 나머지 반에서 3대2로 좌파보다 우파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역주 6) 미국에서 1996년 2월에 폭력·외설·저속 언어 정보의 송신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통신 품위법에 따라 1998년 2월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에 반드시 장착하도록 의무화한 프로그램 수신 차단 장치. V는 폭력을 의미하는 violence의 약자이다. 시청자가 프로그램이나 정보 매체 내용 등급(연령별 등급 제어에 의한 등급)을 V칩에 입력하여 등급을 초과하는 내용을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폭력·외설·언어 등 내용별로 등급을 동시에 선택하여 실행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폭력을 의미하는 V칩이라기보다는 선택(choice)을 의미하는 C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6 올바른 싸움

- 2004. 1. 8. 『청사진(Blueprint)』,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Bruce Reed)

민주당은 단지 부시에게 화를 내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좋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 중산층과 신민주당의 계약을 제시할 때이다.

수신인: (선출될) 민주당 후보

발신인: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주제: 중산층과의 계약(The Middle-Class Bargain)

민주당이 2004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단 한사람도 일자리를 찾거나 의료보험을 얻거나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 2004년 대선의 후폭풍은 특히 클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진다면 부시정부는 계속적으로 한 세대동안의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부자에서 근로자로 세금부담을 전가하고 테러와의 전쟁 명분을 파괴할 것이다. 다음 몇 주 동안에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를 훨씬 더 어렵게 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정말 멍청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의 글에서 썼듯이 민주당은 단순히 부시에게 화를 내거나

국가의 상황이 나쁘게 되기를 바람으로써 그를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이 설득력 있는 비전과 어젠더를 제시했을 때만 부시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은 해야만 한다. 우리가 집권해서 할 일이 유권자들에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선은 원칙과 국가의 방향에 대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정치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비전이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소수의 협소한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필요를 우선하는 계약이 되어야 한다.

국가를 우선한다: 미국의 잊혀진 중산층과 우리의 새로운 계약

부자만 걱정하는 공화당과 전쟁만 걱정하는 민주당 일부간의 무익한 국가적 논쟁에서 미국의 중산층은 잊혀졌다. 부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즉 좋은 일자리의 창출, 치솟는 의료비와 대학 학비, 은퇴를 대비한 저축과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부시는 해결책 대신에 중산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했다.

중산층 가족은 부시의 공화당이 해왔듯이 중산층의 가치를 손상하고 중산층의 이익을 무시하고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당이 필요하지 않다. 민주당은 우리가 중산층의 가치를 영예롭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방위하고 그들이 힘들게 번 세금 달러를 지출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한다는 것을 중산층에게 보여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산층에게 희망을 다시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의 공포를 완화해주고 미래가 과거보다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세기 이상동안 단순하고 심오한 원칙이 미국을 지도해왔다. 근로와 책임이 더 좋은 생활과 더 강한 나라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적이 우리 생활방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이 때, 그 원칙이 여기 국내에서 공격받고 있다.

부시 정부 하에서 우리의 정치제도는 협소하고 돈 많은 이익단체들의 이기적 충동에 불과했다. 그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위대한 사회적, 경제적 진보의 엔진인 우리의 중산층을 부담지우고 배신하고 버렸다. 부시 임기동안 우리의 민간부문은 100년에 한번 있을 가장 악독한 기업부패 스캔들에 의해 흔들렸다. 너무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책임, 즉 국가를 우선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현재의 진로로 계속 간다면 미국의 약속은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다.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최강으로 만들었던 가치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세계의 최강국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특권의 국가로 건국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기회 나라(land of opportunity)이어야 한다. 세계에서 우리의 사명은 희망과 자유와 존경의 봉화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미국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중산층의 가치, 안전, 열망이 더 이상 망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부시와 그의 동맹자들은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산층의 형성을 도왔던 정당은 이제 중산층을 구하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미국의 잊혀진 중산층과의 10개항 계약(10-point Contract with America's Forgotten Middle Class)을 제안한다.

1.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공약한다.

부시 정부 하에서 우리는 진주만 이후로 가장 큰 정보기관의 실수를 경험했다. 우리는 현 정부가 머뭇거리면서 못하고 있는 안보기관과 정보기관을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국내 방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테러리스트의 음모를 수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 정보기관을 창설함으로써 연방수사국을 개혁할 것이다. 부시정부처럼 법집행 지원을 삭감하고 주와 지방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유지하는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범죄를 줄이고 테러리즘을 막는 경찰과 소방관, 위급시의 전화안내원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우리는 테러와 테러의 원인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이 승리에 필요한 존경과 동맹국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일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부시 정부는 미국을 고립시켜 우리의 동기에 대한 전 세계적 불신을 자초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정책들의 비용과 리스크의 대부분을 우리가 짊어지게 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과 적들 모두에게 반미적 분노의 위험한 발미를 주지 않고 우리의 안보와 존경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거대한 힘을 사용하는 강경한 국제주의(tough-minded internationalism)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중동의 안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원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온상을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중동이 현대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동과의 무역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외국원조를 더 전략적이고 더 관대하고 더 선택적으로 만듦으로써 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결정적이고 지속적 결과를 가지는 승리를 위해 미군을 21세기의 병력, 무기, 교리에 적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3.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국가에 뭔가 돌려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도전적인 미국이 아니라 부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했다. 우리는 모든 미국 청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아메리코(AmeriCorps)역주 아메리코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신앙단체의 네트워크이다. 아메리코가 하는 일은 교육, 환경보호, 치안, 의료 등을 포함한다. 를 10배로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과 지역사회가 테러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시민방위단(civil defence corps)을 창설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미국인들의 협력을 얻을 것이다. 국가에 봉사할 용의가 있다면 대학입학을 포함해서 돈이 없어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다.

4. 우리는 번영을 소수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에게 확대하고 중산층을 높은 조세부담으로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부시 정부는 번영은 부자가 나머지 우리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일자리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한, 중요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보존 등과 같은 신산업에서의 고수입 미래직업을 만들어냄으로써 거대한 미국식 직업창출기제를 재시동시킬 것이다.

부시 정부의 근로에 대한 전쟁은 세 부담을 부자에서 중산층으로 전가시켰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중산층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우리는 중산층의 세금을 올림으로써 중산층의 소득을 향상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집을 장만하고 대학과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고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중산층과 근로자들에게 주는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제안한다. 미국의 모든 중산층과 서민은 최대한 면세로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산층과 근로 영세민을 위해 우리는 자본이득세율을 낮추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우리는 복잡한 세제혜택 저축 프로그램들을 모든 미국인들이 일자리마다 갖고 다닐 수 있는 단일한 보편적 연금으로 통합할 것이다. 우리는 퇴직자 적립제도를 확대하고 급여의 현대화와 비용급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시킴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주택최초구입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이 주택소유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일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아동세금공제들을 단일하고 단순한 가족세금공제(Simplified Family Tax Credit)로 대체함으로써 가족 부양을 위해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우리는 정부지출이 당신의 급료보다 더 빨리 상승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는 재정보전의 윤리를 포기하고 큰 정부의 시대로 복귀했다. 우리는 감세

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세를 제공하는 것과 협소한 이익집단들과 기업들에게 특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연지출 상한선(annual spending caps)과 성과기반지출 원칙(pay-as-you-go rules)을 복원함으로써 상쇄하는 절감 없이 연방정부가 새로운 지출 또는 감세를 입안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기업지원정책(corporate welfare)을 종식하기 위해 독립적 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갑부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해 감세할 것이다.

6. 우리는 민간부문이 성공할 수 있는 강한 경제풍토를 보장하겠지만 기업이 법을 지키고 종업원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부시는 워싱턴과 월스트리트가 몹시 필요로 하는 책임과 개혁을 수행하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만인을 위한 기회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경제정책을 미국의 가치와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벌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일하고 세금을 내는 미국인들이 더 작은 국가부담과 더 큰 기업성공의 몫을 받는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로 대체할 것이다. 우리는 주주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고 최고경영자에게 옵션을 주는 기업이 모든 종업원에게도 옵션을 주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최고경영자의 봉급 스캔들을 멈추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환경과 경제 모두에 좋은, 새로운 에너지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해외의 장벽을 축소 시킴으로써 미국의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고 의류, 신발 등의 수입품에 대한 국내의 역진적 과세를 철폐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비자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승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관료적 직업훈련제도를 현대화하고 실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과 기술을 선택하게 하는 신경제 근로장학금(New Economy Work Scholarships)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할 것이다.

7. 우리는 당신이 자녀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책임을 이행한다면 저렴한 의료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의료비의 상승은 기업과 근로자를 불구로 만들고 있지만 부시 정부는 저렴한 의료보험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지만 부모들에게 가족이 모두 가입하도록 할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하원의원들이 가입한 것과 같은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고 보험을 더 저렴하게 하는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주요 만성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는 국립의료센터(National Cure Center)를 설립할 것이다.

8. 우리는 공립학교에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

부시는 개혁에 투자할 것이라는 약속을 어겼고 주와 지역사회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을 속였다. 학교개혁에 대해 연방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부시 정부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뒤처지게 하고 있다. 우리는 개혁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지킴으로써 공립학교를 모든 지역사회의 자랑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학교가 개혁의 도전에 나서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교사에게 봉급을 더 많이 제공하고 그 대신 더 많이 요구함으로써 모든 교실에 좋은 교사를 배치할 것이다. 우리는 학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이 다닐 공립학교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불량학교를 향상시키거나 폐쇄하고 더 많은 개방형 자율학교(charter schools)와 소규모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9. 우리는 청년들이 엄청난 빚을 지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일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부시는 대학교육이 더욱 더 중요한 때에 4반세기만에 가장 급격하게 공립학교 학비를 인상시켰다. 우리는 복잡한 교육 세금공제들을 단순화하고 그것들을 모

든 가족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일한 교육공제와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메리코와 근로장학프로그램(work-study programs)을 확대하여 일하거나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미국인은 빚을 지지 않고 대학에 다니고 졸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에 다니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즉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부시 정부는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위해 미국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을 줄이고 유급육아휴가(paid parental leave)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가족이 새로운 부담을 지게 했다. 우리는 부모들이 신생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금공제와 유급휴가제도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출산 후, 3년 동안 손실된 면세 퇴직 적립금을 보상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서 어머니의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을 종식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미래가 중산층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중산층을 구하고 확대하는 이 정책들을 공약한다. 미국의 약속은 소수 특권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미국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진다. 즉 미국 시민의 근로와 신이 주신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승의 기회를 모든 시민이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7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신념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말해야 할 때이다.

- 2005. 3. 16. 『청사진』,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이 글에서 우리는 모든 민주당원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단순한 진리를 제시할 것이다.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정치전략을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고정 지지층을 흥분시키는 것과 호소력을 확대하는 것 간의 그릇된 선택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이 고정지지층을 자극하는 동시에 부동층을 설득못한다면 모든 선거에서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에 대해 과감하고 분명해야 한다. 안보(security), 기회(opportunity), 책임(responsibility)을 믿는 미국인이 민주당에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가를 알지 못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이다.

클린턴이 1992년에 여러 번 우리에게 말했듯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민주당의 가장 큰 도전은 기회를 확대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세계에서 자유와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의 정설에 도전하고 때때로 당내의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다음 4년 동안 우리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면 선거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선거조직이 얼마나 잘하는지와 상관없이 질 것이다.

우리는 하워드 딘(Howard Dean) 주지사가 민주당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그는 수억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공화당의 거대 선거조직에 대항해 민주당의 선거조직을 강화하고, 특히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당 조직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딘과 같이 활력이 넘치고 강인한 사람에게도 힘든 주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딘 주지사와 견해가 달랐지만 그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 그가 민주당을 잘 조직하고 모금을 잘 한다면 모든 민주당원들에게 좋은 것이다.

결국 전국당의 성공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아니라 의장임기동안 자신의 당이 집권했는가에 달려있다. 의장의 역할은 당의 응원단장이다. 민주당이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중앙당이 개선할 수 없는 몇몇 기본적인 문제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당은 4년마다 한 번씩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규정할 기회를 가진다. 이것이 대선후보 예비경선이고 이 규정은 당의 대선후보와 그 후보의 공약에 의해 결정된다. 역설적으로 당의장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열심히 노력해서 당의 잠재적 후보들에게 논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딘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1항,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를 기억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스벨트 이후 15번의 대선에서 오직 두 명의 민주당 후보, 즉 1964년의 존슨과 1976년의 카터만이 일반투표에서 다수를 얻었다. 이 60년 동안 오직 한 명의 민주당 후보, 즉 1992년과 1996년의 클린턴만이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가 이 기록을 경신하려면 실패한 전략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버려야 한다.

가령, 민주당 지지자들만 동원해서 연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2004년 선거로 이 신화는 최종적으로 사라졌다. 민주당은 지지자 동원에서 모든 예상들을 능가하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 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지지자 동원만이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지난 10번의 대선에서 평균 44.5%

의 득표율을 얻고 60년간 대선의 일반투표에서 단지 2번만 다수표를 얻은 민주당은 상실한 유권자의 일부를 얻어야 한다.

고정 지지층(base)이나 부동층(swing voters)이냐의 논쟁은 연방선거에서 가장 오래된 그릇된 선택(false choice)이다. 우리는 둘 다 얻어야 한다. 우리가 고정 지지층만 얻는다면 매번 질 것이다. 우리 고정 지지층이 많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부동층에서 잘 해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 직면한 큰 도전들에 분명하고 진취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매번 잘 할 수 있고 국가도 잘 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공화당은 열등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잘 전달하기 때문에 이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의회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후,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크게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결해서 공화당과 차이를 분명히 하면,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념을 견지하는 민주당원이고 신민주당원은 가장 첨예하게 부시의 기업 보수주의(corporate conservatism)를 반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신민주당원은 너무 미숙하게 (공화당의 정치전략가)칼 로브(Karl Rove)를 상대하는 당내 일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미국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공화당과의 차이를 명백히 하려면 단순히 우리가 무엇에 반대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미국인들은 존 케리(John Kerry)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의 차이를 말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가에 대해 말할 때이다.

우리는 1988년 대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다. 지금처럼 그때도 많은 민주당원들은 당의 문제가 모두 선거조직의 문제, 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지지층 동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클린턴은 근본적인 문제, 즉 민주당의 비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의 민주주의단(Democracy Corps) 조사에 의하면 두 배 많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은 무엇을 하려는가를 안다고 말했다. 그 조사에서 지적된 민주당의 가장 큰 두 가지 약점, 즉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와 국가의 방향을 강력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의 쌍둥이 문제를 가리고 있다. 유권자들은 첫째,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가를 알지 못하고 둘째,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당의 약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진정한 논쟁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내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정한 논쟁이 없다. 우리는 이것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투표일이 아니라 지금 단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우리의 차이에 대해 논쟁을 해서 민주당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선택에 유권자의 실질적 다수를 결집시킨다면 우리는 투표일에 훨씬 더 많이 단결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당의 모습을 일신하여 유권자들, 특히 미국의 중심부 지역(America's heartland)⁸⁾을 장악하려면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전들을 상대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안전, 기회의 사회(opportunity society) 건설, 책임과 핵심적 가족 가치의 옹호, 실패하고 부패한 정치제도의 개혁이다.

국가안보의 격차(national security gap) 축소

민주당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안보이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200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졌고 또한 2004년 대선에서도 졌다. 다음 10년 동안 안보는 민주당이 루스벨트, 케네디, 클린턴의 영광의 시대를 되찾을 수 있을지, 휘그당(Whigs)과 불가지당(Know-Nothings)⁹⁾의 길로 갈지를 결정할 것이다. 웁건 그르건 매우 많은 유권자들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민주당의 엄격함과 결의를

역주 8) 1960년대에 공화당이 남부전략(Southern strategy)을 추진하여 다수당이 되었듯이 민주당은 오늘날 상대적으로 공화당 지지성향이 약해 승리할 수 있는 미국의 중심지역에 초점을 맞춘 중심지역 전략(Hearthland strategy)을 취하고 있다. 이 중심지역은 플로리다, 아칸소, 버지니아, 오하이오, 아이오와, 미주리, 뉴멕시코, 네바다, 콜로라도 주이다.

역주 9) 휘그당은 민주당 잭슨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1832년에 태동한 정당이었지만 단일후보나 공동정당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지리멸렬한 정당이었다. 불가지당은 1849년에 창당한 이민에 배타적인 미국본토인의 정당으로 노예문제에 대한 분열로 분당되어 사라졌다.

의심했다. 민주당이 루스벨트, 트루먼, 케네디의 강건하고 진보적인 국제주의(muscular, progressive internationalism)를 되찾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더 편한 국내 이슈들로 이슈가 변할 때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가 민주당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확신할 때까지 우리의 재집권 이유를 유권자에게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저명한 민주당 선출직 공무원과 사상가 집단이 민주당이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놓도록 촉구하는 공개편지에 서명했던 이유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열렬히 수호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도전은 국제연합, 마셜플랜(Marshall Plan), 봉쇄,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그랬듯이 오늘날의 문제의 규모에 맞는 일련의 국가안보 아이디어들을 명료히 하는 것이다. 가령,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월 마셜(Will Marshall) 소장 등은 나토가 테러에 대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국내에서도 크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영세민과 소수자가 국가안보를 전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복무제도를 제안해야 한다.

2002년 실망스런 선거 이후,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리더십협회 연설에서 하나의 이슈로서 안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도록 민주당원에게 경고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강하고 틀린 것이 약하고 옳은 것을 이긴다(strong and wrong beats weak and right)”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민주당원들은 클린턴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당의장이 된 며칠 후, 딘은 민주당의 문제가 안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 클린턴의 말을 인용했다. 딘은 말했다. “민주당은 이데올로기의 위기가 아니라 단지 확신의 위기이다.”

1988년에 마이클 듀카키스(Michael Dukakis)가 했듯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능력”을 약속하거나 지금 딘이 하듯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확신”을 약속함으로써 민주당원에게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결국 아이디어들과 이데올로기가 선거를 결정하고 민주당이 이것들을 올바르게 하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좋든 싫든 테러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중심적 도전이고 유권자는 약하지도 틀리지도 않은 강하고 옳은, 더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

기회의 사회 건설

우리의 최대강점은 민주당이 줄곧 중산층과 그 대오에 끼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것이다. 기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당을 단결시켜 주는 가치이다. 더우나 192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부가 집중되고 1970년대 이후 가장 크게 중산층의 기회가 침식된 지금도 민주당은 기회의 정당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줄 대담하고 명확한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회의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너무도 오랫동안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고 민주당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원대한 비전을 잊어버렸다. 뉴딜(New Deal),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새로운 약속(New Covenant)이 우선이었고 나중에 사회보장, 헤드스타트(Head Start), 근로장려세(Earned Income Tax Credit)가 만들어졌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삶의 약속과 이 약속을 소중히 뒷받침할 찬스를 주는 국가공동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는 소유권의 사회(Ownership Society)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등은 기회의 사회를 제안하는데, 이는 옳은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문제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부가 아니라 일을 보상해주고 더 큰 빚더미가 아니라 한 뭉치의 돈을 소유할 찬스를 각 개인들에게 주는 조세개혁을 요구하고, 일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대학학비를 면제해주고, 재무책임을 복원하고 시장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법인체의 세금탈루를 봉쇄하는 것 등이다. 이런 생각들은, 클린턴 식으로 말하면, 매일 일하러 가고 규칙을 지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저임국가들과의 경쟁과 급속한 경제변동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상향이동전략(upward mobility strategy)을 제공한다. 공화당은 이러한 전략이 없다.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명료히 할 수 있다.

책임의 옹호

우리는 공화당이 선거마다 도덕적, 문화적 논쟁을 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의 논쟁에서 그들은 그들을 돕고 우리를 손상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분열이슈들(wedge issues)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변화를 위해 우리의 가치들을 타협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문화적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가치들과 문화적 어젠더를 제공할 때에 만 이길 수 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동성결혼, 총기, 낙태에 대한 비난을 비껴가기 위해 내내 수동적이었다. 똑같고 낡은 가짜 문화적 이슈들에 대한 논쟁을 중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이슈들, 즉 가족의 강화, 부모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돕는 것, 권리와 책임이 함께하는 부부, 모든 미국인들에게 국가에 뭔가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심부 지역의 미국인들은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정직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민주당이 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이 문화가 난잡해 지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상원의원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이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분명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바락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이 우리가 개인의 책임을 망각한다면 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공화당은 책임정당(responsibility party)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왜 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개혁

이 위대한 가치들을 부흥하기 위해 민주당은 진정한 개혁의 정당(true party of reform)으로서 우리의 소명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백악관과 상·하원 그리고 주지사들과 주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 낭비, 특별이익단체, K가(K Street)¹⁰⁾ 부패의 정당이다. 의회 지도자들은 구 소

련보다 더 빨리 규정을 고쳤다. 자유언론에 기초한 나라에서 정부는 칼럼리스트들이 뇌물을 받도록 만들었다.

민주당은 휘슬을 불고 근본개혁(radical reform)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치적 모험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현직의원들이 낙선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있게 하는 선거구 재획정 소동을 분쇄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투표하고 그 투표가 기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당파 유권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비경선을 개방하고 경선과정과 정당에 대한 이익단체의 장악을 분쇄하고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출 상한선과 성과기반지출을 복원하고 중산층 가족이 퇴직저축, 대학 학비, 주택, 가족부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친화세금정책을 촉진하고 워싱턴의 낭비적인 전직관리의 낙하산 인사를 끝내고 세법을 경매에 붙이는 부당한 기업지원정책을 종식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과 혁신의 화두를 되찾고 워싱턴, 부패, 현상유지의 정당(party of Washington, corruption, and the status quo)인 공화당의 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루스벨트, 케네디, 클린턴 하의 전성기에 했듯이 워싱턴의 관료적 허튼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치, 우리의 국가적 목적의식으로 미국인들에게 말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광범한 중산층과 그 대오에 끼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 이익, 안정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시 다수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다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할 때만 가능하다. 2004년 투표일 밤에 지도를 보면서 미국의 중심지역이 (공화당의)빨간색으로 뒤덮이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누가 우리 당의 모세가 될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모두는 홍해(Red Sea)¹¹⁾를 가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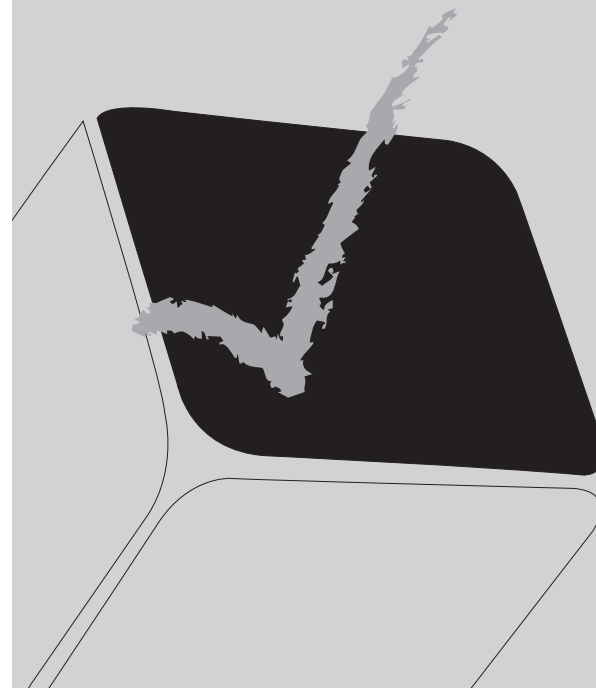
역주 10) K가는 수많은 싱크탱크, 로비스트, 시민단체가 밀집한 워싱턴의 도로이름이다.

역주 11) 공화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다는 표현은 공화당의 우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중심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노동당

제3장 |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 - 토니 블레어
2.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에 - 1997년 노동당 선거강령
3. 새로운 영국 -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중도개혁주의 주요문서

1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

- 1994. 10. 4. 토니 블레어(Tony Blair)

오늘 나는 노동당과 영국에 대한 나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우리는 보수당 정부의 약속불이행, 실패한 정책, 신뢰없는 철학을 없애고 영국을 위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 스미스(John Smith, 블레어 직전 당대표)의 서거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온 나라와 모든 당이 함께 슬퍼하였고 그의 성실성, 정직성, 품격을 추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서 자랑스럽고 그의 지도를 받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했던당을 그가 사랑했던 나라의 정부로 다시 한 번 만듦으로써 그를 가장 잘 기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우리를 선출해서 175개의 지방의회를 통제하게 했습니다. 5월에 우리는 2천5백개 이상의 새로운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4번의 보궐선거에서 이겼고, 4명의 새로운 의원 중 3명이 여성입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리는 기록적인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폴린 그린(Pauline Green) 유럽의회의원이 유럽의회 사회주의 그룹(Socialist Group)의 첫 여성 지도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유럽의 또 한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자부심, 키녹(Neil Kinnock) 유럽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는 브뤼셀에서 영국으로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당대표도 선출했습니다. 백만명이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이로부터 우리는 단결했고 강력해졌습니다. 나는 노동당에 훌륭하게 기여한 존 프레스콧(John Prescott)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신에 당대표 선거를 잘 관리하고 품위있게 우리를 지도한 마가렛 벤키트(Margaret Beckett)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는 당원의 기록적인 증가를 자축합니다. 8월 달에만 1만4천명이 입당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번 달 말까지 3십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수당보다 세배나 많은 능동적인 청년 노동당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기쁩니다. 나는 영국 청년에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세대의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나는 청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래리 휘티(Larry Whitty)는 당과 유럽의 연결을 조정하는 새롭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 당 사무총장 직을 떠납니다. 래리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재능있고 가장 털 이기적인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자랑하는 당입니다.

나는 오늘 오후 여기서 새로운 남아공 정부대표를 환영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나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로벤 섬(Robben Island)에 투옥되었을

때 10살이었습니다. 그 이후 넬슨 만델라의 말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만델라의 말이 훨씬 더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정부대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가자지구(Gaza Strip)와 예리코(Jericho)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과 중동 평화의 물꼬를 튼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노동당 정부와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네덜란드의 형제당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이 다가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50년 전에 영국 노동당 정부는 국제연합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연합이 더 강력하고 더 결집력 있는 집드으로써 냉전이 더 이상 지배되지 않는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보스니아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만행과 유혈사태가 없도록 지금 협상중인 평화계획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세계인구의 1/4이 식수가 부족하고 1/5이 굶주리고 르완다(Rwanda) 등에서 내전이 한창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해외원조와 발전이 내가 지도하는 노동당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제관계의 완전히 다른 영역인 유럽에서도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 영국은 새로운 유럽의 발전에서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유럽은 변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익을 지키듯이 영국의 국익을 옹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국 보통가족이 주당 20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보수당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당은 유럽과 이 나라의 미래를 상대로 정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하는 한, 나는 결코 유럽에서 영국을 고립시키거나 뒤처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영국정치에서 이념의 조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방황하고 환멸을 받는 세력은 바로 우파입니다. 더 이상 그들 자신의 언어

를 믿을 수 없어서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동체”, “파트너십”, 심지어 “공정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시민 보수주의(Civic Conservatism)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말 명청하게도 노동조합회의(TUC)에서 절망한 데이비드 헌트(David Hunt)는 “완전고용”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른 댓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강등입니다.

노동당: 다수당(The Party of the Majority)

전국적으로 전 계층적으로 정치적 경계를 가로질러 노동당은 다시 한 번 모든 영국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치의 주류 목소리입니다. 광범한 다수를 위하여 말하고 다수를 구속하는 기득권에 반대하며 다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교실에서 자녀들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대학에 합격했지만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 보수당은 당신들을 망쳤지만 우리는 당신 편에 있습니다. 당신의 포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둑맞은 것을 아는 남녀들에게,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연금 수령자들에게 보수당은 당신들의 신뢰를 남용했지만 우리는 당신 편에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입니다.

탐욕스런 은행에 의해 문전박대 당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실패에 의해 고통받는 고용주들에게, 해고통지서의 공포 속에 사는 종업원들에게, 무엇보다 치욕스럽게 해고당한 40대에게, 전국 모든 곳에서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보수당은 당신들을 망각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입니다.

평시 역사에서 가장 큰 세금인상으로 고통 받는 영국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보수당은 당신들을 배신했습니다. 노동당은 당신의 편에 있습니다. 당신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국정치에서 다수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영국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당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대처가 총리로 취임한 후 15년의 영국을 보십시오.

불화가 있는 곳에 조화가 있습니까? 오류가 있는 곳에 진실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곳에 신뢰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까?

조화?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진실? 그들은 노동당에 대한 거짓말과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거짓말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신뢰? 정치는 그들의 배신으로 품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 삼백만명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거의 6백만명이 소득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 중 한명의 어린이가 빈곤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의와 분열을 가져왔지만 이것들은 경제적 효율성의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가족에게 매년 800파운드나 세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상승하고 성장은 지난 15년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과정에서 낭비했던 것을 보십시오. 자연이 준 수십만 파운드, 신이 주신 복해 석유의 축복, 우리가 미래에 투자할 수 있었던 수십만 파운드, 그들이 탕진한 수십만 파운드. 영국의 모든 가정에 오천 파운드를 줄 수 있는 천팔백만 파운드가 버려졌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영국의 고정자산을 팔아 투자에 쓰지 않았던 국가적 문제의 진실을 숨기고 현재의 지출을 덮기 위해 칠백만 파운드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보수당이 영국에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을 혼내줄 때입니다. 그들이 온정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정부를 방치한 가장 나태하고 무책임한 무능력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왔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시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명백합니다. 사라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당이 무능할까요? 단지 개인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장관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정치적 가치 전체입니다. 그들은 개인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공동체처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

기 때문에 보수당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이지만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있는 기업을 가서 보십시오. 노동력을 하인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동기가 부여되고 훈련되고 공통 목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 착취기업이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합니다. 품질과 헌신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특권과 탐욕에 기초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입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미래의 성공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때문에 더 많은 세금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과 보건과 경찰에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실업, 범죄, 사회적 병폐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 실업과 빈곤에 영국의 국가소득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투자되는 국부의 몫이 1979년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110억 파운드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주택수당(housing benefit)에 110억 파운드를 지출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주택수당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수당을 줄이는 대신에 왜 노숙자를 줄이고 실업을 줄이고 주택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자본투자가 필요하다면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은행계좌와 연계된 자금을 방출해야 합니다.

보수당의 경제학은 조잡하고 낡고 비효율적인 시장관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관은 냉담하게 떠나버리는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기심과 전체 사회 또는 국가 이익 간에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기심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능력이 삶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상층과 하층을 가장 크게 구분하는 것은 생활기회(life chance)입니다. 너무나 많은 재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잠재력이 저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

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상승의 전망과 희망이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보수당은 너무나 오랫동안 가족의 당 (party of the family)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법과 질서의 당 (party of law and order)이 아니듯이 가족의 당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정부보다도 더 영국에서 안정된 가족의 삶을 붕괴시켰습니다.

보수당의 가족관은 그들의 개인관과 동일합니다. 너는 혼자다. 그러나 가족생활의 본질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 속에서 함께 합니다. 식구가 서로를 돕고 부양할 때 가족은 가장 잘 삽니다. 동일한 것이 공동체와 국가에서도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어렵פות한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학교, 마을, 나라를 자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존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에 대한 존중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조와 자기개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지원과 상호향상도 가르칩니다.

보수당은 이 원리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병원과 학교가 즐거운 초원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적의 행성에 꿈쩍 않고 있으면 됩니다. 이곳에서 자유시장은 기업을 세우고 종업원을 훈련시키고 물가 인상을 잡고 수요를 유지하고 끝없는 성장을 보장합니다. 노인들이 안락하게 아무 일 하지 않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노는 것을 자축합니다.

이 행성의 도처에서 사람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인에게 평등과 번영을 가져오고 '부의 폭포'가 대대손 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포틸로 행성(Planet Portillo)¹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광대극입니다.

시장의 힘은 급격한 기술적, 경제적 변동의 세계에서 우리를 교육시키지도 준비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것을 위

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늪지 않는 옵션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임하여 권력남용으로부터 보통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찰입니다. 사회, 협업, 연대, 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맑스 또는 국가통제의 사회주의(socialism)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사회관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원리, 기준, 공동목적과 공동가치를 가진 강하고 훌륭한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이해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social-ism)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당(party of community)이기 때문에 개인의 당(party of the individual)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가치들을 현대세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전통적 경계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그마 없는, 그들의 편견을 우리의 편견으로 바꾸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합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영국을 위한 명백하고 근본적이고 현대적인 비전을 갖고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강하고 능동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국을 위한 우리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초석에 기초할 것입니다. 기회(opportunity), 책임(responsibility), 공정성(fairness), 신뢰(trust)가 그것입니다.

역주 12) 마이클 포틸로(Michael Portillo)는 신우파 보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 동성애자 정치신인에 의한 그의 낙선은 영국정치에서 '보수당의 종말'을 상징했다.

기회

기회의 사회(society of opportunity)는 우리 모두가 지분을 갖는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위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대량실업은 문명사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1944년 선구적인 백서에 쓰여 있듯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사회로서 공유하는 책임입니다. 이 공약, 즉 완전고용의 목적을 오늘 나는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고용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국을 붙잡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통제를 통해 할 수 없고 시장 도그마를 통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산업 간, 노사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오직 보수당이 집권한 영국에서만 정부가 공적 투자 없이 도버해협터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터널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포자기하여 그들은 납세자에게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낼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금 터널은 개통되었습니다. 열차는 시속 185마일로 프랑스를 관통하고 시속 85마일로 터널을 통과하고 그런 다음 시속 45마일로 영국을 달립니다. 프랑스는 고속철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보수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 정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통, 주택, 보건, 교육의 주요 사업에서 공공금융과 민간금융이 협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재정부 규칙이나 낡은 공적 차입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지능형 정부(Intelligent Government)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술에서 정보화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 지금 영국에서 종업원의 50%가 정보처리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다음세기에 부의 70%가 정보산업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 세계에 저장된 모든 정보의 80%가 영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경쟁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보수당의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세기의 도로와 철도처럼 다음 세기를 위해 새로운 정보경제의 중추 신경인 위성원격통신기술, 즉 새로운 정보고속도로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보화 혁명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기업에 반하는 낡은 규칙 하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투자를 장려하는 틀을 설정할 것이고 그래서 영국기업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도록 새로운 국가적 노력을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보수당 정부시기에 제조업에서 배당금은 매년 12% 올랐지만 이윤은 6%, 투자는 단지 2%만 올랐습니다. 이것은 장기적 공공재를 없애는 단기적 민간이익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기업이 필요한 투자자금의 안정적 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과 산업 간의 장기적 투자협정을 장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부흥에 투자해야 합니다. 구산업의 도태로 황폐하게 된 국가 영역이 있습니다. 시장은 혼자서 재건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경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노동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방의 부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 원스톱 개발청(one-stop-shop development agencies)을 제안했던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은 신경제의 추동력입니다. 보수당은 중소기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 노동당은 최근에 영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환영합니다. 능동적 정부(Active Government)는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나는 일부 노동당원조차도 우리가 어떤 정책도 없다는 보수당의 공격에 속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난센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보수당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정책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국 국민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육은 노동당 정부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나는 나쁜 기강, 낮은 수준, 구태의연한 기대, 형편없는 교사가 있는 불량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합니다. 학교가 나쁘다면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수당 정부가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정부를 해고하고 알고 있는 정부를 고용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돈 벌려면 평생 학습해야 합니다. 개방대학(Open University)과 유사한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stry)은 만인의 영구적 교육기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집과 작업장이 정보, 기술, 교육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 케이블, 새로운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교육기회를 위해 컴퓨터를 켜는 것은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각자의 기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보건서비스, 군대, 경찰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철도나 우체국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공공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은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영국의 국민을 위해 공적 소유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당이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했던 감축에 대해 말합시다.

그들은 철도 민영화로 7억 파운드의 비용, 봉급 등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7억 파운드는 런던(London)에서 맨체스터(Manchester)와 리버풀(Liverpool)까지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헐(Hull)과 미들스보로(Middlesborough)간의 철도를 개선할 수 있고 그래도 (수도권)남동부 네트워크(Network South East)에 대한 통근자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다.

환자들이 병상에 방치되어 있어서 국민보건서비스(NHS) 대기자가 1백만 명이 넘습니다. 치과가 사실상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제외되어 국민보건서비스의 변화와 환자의 치료에 지출할 수 있는 16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천만 파운드가 경찰청에서 특수법인(quangos)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경찰을 더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절약하고 있지만 대학부총장은 압도적 불신임을 당하고도 5십만 파운드의 보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

로 50만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도그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난장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노동당의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일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변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병원 자원이 탈퇴의 행정적 혼란으로부터 해방되어 간호사가 다시 간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학교가 관료제로부터 해방되어 교사가 다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경찰이 보고서 작성에서 해방되어 다시 순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

기회는 책임과 동반하는 것입니다. 보수당에게 책임이란 말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태만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는 책임과 의무의 관념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중심적인지 이해할 때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종업원과 공동체에게 그래야 합니다. 성직자는 진리에 그래야 합니다. 시민은 서로에게 그래야 합니다.

책임은 범죄에 대한 우리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노동당은 오늘날 영국에서 법과 질서의 당(Party of Law and Order)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옳은 말입니다.

- 50번의 범죄 중 한번만 처벌받습니다.
- 선고는 아무렇게나 내려지고 있습니다.
- 희생자는 가차 없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무부장관은 자신이 너무 범죄에 엄격하기 때문에 매주 공격받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엄격하기 때문에 공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만 하고 실효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책임지고 있는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 작년에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6개의 엄격한 교도소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그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옳습니다. 우리는 범죄

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보수당 전당대회 연단에서 화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엄격하고 범죄의 원인에도 엄격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일련의 범죄퇴치 프로그램들을 제안했습니다.

범죄에 엄격해야 합니다.

-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불법총기를 단속해야 합니다.
- 인종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고소가 취하되거나 변하기 전에도 희생자에게 상담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의 원인에도 엄격해야 합니다.

- 종합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마약방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 마약문화, 가족불안정, 고실업, 일부 흉악범이 야기하는 도시황폐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책임은 외부세계와 결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인을 위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당신의 라디오를 훔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연금에 신경 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당이 실패한 곳입니다.

책임은 공유된 가치입니다.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임은 복지수급을 절취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책임은 세금탈루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은 우리를 희생시키고 엄청난 봉급, 주식옵션, 특혜, 퇴직금을 받는, 독점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도, 가스, 전기 기업 경영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은 보건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의사,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더 좋고 더 빠른 환자치료의 미명하에 개혁이 어떻게 판매되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이 개혁으로 이익을 보았습니까? 환자가 아니라 병원 사무원입니다. 병원 사무원이 원

하는 양탄자, 벽지, 병원 사무원의 아내도 탈 수 있는 고급승용차입니다.

책임은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런던 주식시장제도 대개혁(big bang)¹³⁾으로 연금은 국민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을 상실했습니다.

책임 없는 사회는 실력과 근로에 기반한 사회의 적입니다. 무책임은 기업이 불로소득자와 이음동의어인 경제를 창조합니다. 대처주의자(Thatcherites)는 반기득권론자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문제는 기득권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으로 기득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득권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환전상인, 중개인, 투기자 등,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나 국익 또는 공익보다 앞세우는 파워엘리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해 나라를 운영하는데 우리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15년의 보수당 통치기간동안, 비열한 고위직이 양아치문화(job culture)를 탄생시켰다는 것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보수당의 철학(Tory philosophy)은 가장 효과적인 양아치문화의 창출 도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일자리나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거의 백만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능의 낭비일 뿐 아니라 분노, 범죄, 마약의 온상입니다. 사회정의위원회(Social Justice Commission)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적인 일이 주어지는 청년 자원봉사 전국 태스크포스(voluntary national task force of young people)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환경이나 노인보호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개인만족에 유용하고 책임감, 자제심, 자존심, 성취감과 가치를 심어 줍니다.

공정성

책임과 기회는 공정성, 정의, 시민의 평등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인종, 성, 신조,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주 13) 1986년에 영국 대처정부가 시행한 갑작스런 금융시장 탈규제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정의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우리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법과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보수당이 어느 편인지를 알고 싶다면 조세제도를 보십시오. 좋은 회계사를 가진 백만장자는 한 푼도 안내지만 연금 수령자는 연료 부가가치세(VAT on fuel)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신탁에는 세금감면을 주지만 주택소유자는 보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중산층 납세자는 고통 받고 있지만 최상층의 특혜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2백만명이 더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불능력과 연계된 공정한 조세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남용이 끝나고 특혜가 중단되고 보통사람이 특권자를 위해 압박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지역구민이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만나절만의 상담으로 더 많이 버는 일부 보수당 의원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결국 기초생활보장을 보조하기 위해 수십억 파운드 이상을 내는 것도 잘못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경제적 의미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모든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기 때문에 이 기본원칙으로부터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현장(Social Chapter)에 조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줄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노조는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첼트넘 정부통신본부(Cheltenham GCHQ) 근로자에게 노조의 권리를 복원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를 보상할 것(make work pay)입니다. 존 스미스가 사회정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를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구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취할 기회를 원한다.”

보수당은 언제나 복지국가가 너무나 비싸다고 불평합니다. 복지급여가 적당해야 하지만 해결책은 단순한 복지급여의 증가가 아닙니다. 복지수급권자는 더 좋은 것이 필요하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복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복지는 기회와 안전입니다. 복지는 사람들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상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계가 변했기 때문에 복지국가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지국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신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보수당은 복지급여를 삭감할 것이고 빈곤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를 근로와 연계하겠습니다. 복지급여가 아니라 일하는 국민. 이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신뢰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변화를 위한 계획의 길에 하나의 큰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당 통치 시기의 유산, 즉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멸을 없애고 싶다면 노동당 정치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국을 위한 노동당의 비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즉 용기, 정직,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락을 위해 다른 당들이 하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처럼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북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을 유보 없이 환영합니다.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에 노력한 우리 정부,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 독립반대파(Unionist), 북아일랜드 독립파(Nationalist)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당의 지도자인 존 흄(John Hume)¹⁴⁾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북아일랜드의 평화에 부단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내일 우리에게 연설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역주 14) 존 흄은 북아일랜드 사회민주주의 노동당(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의 지도자이고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중의 하나이다. 이 공로로 1998년 그는 독립반대파인 얼스터 통일당(Ulster Unionist Party) 지도자, 데이비드 트림블(David Trimble)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해 말해야 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리더십을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예스는 물론 노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나는 사람들이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의 노조법을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적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영국에 한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파업찬반투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폐지합니까?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완전고용의 목적을 공약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고용을 하룻밤 만에 할 수 있는 체하지 맙시다. 우리가 화요일에 집권하면 금요일에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실업자들을 바보로 만들지 맙시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은 진실도 필요합니다. 희망은 그릇된 약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멸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은 도그마에 싫증나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들을 독점한 체하는 정치인들에 싫증나 있습니다. 그들은 가두연설에서는 말하고 집권하면 파기되는 그럴듯한 약속들에 싫증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와 시민간의 새로운 계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규칙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변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시민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 규정된 근본적 권리가 국가 또는 동료 시민들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입니다.

- 정부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당 정부 첫 해에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와 웨일즈 의회(Assembly for Wales)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당이 만든 특수법인은 적합한 민주적 통제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 우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비밀주의를 없애기 위해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할 것입니다.

- 우리는 하원의 운영관례와 조사권을 더 효과적으로하기 위해 하원을 개혁하고 오랫동안 말해왔던 여성의원수를 노동당 여성위원의 당선을 통해 늘릴 것입니다.

- 우리는 토지법에 대한 낡고 옹호할 수 없는 세습귀족의 투표 특권을 종식시킴으로써 역사적 과업을 달성할 것입니다.

- 우리는 정당의 정치자금 규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정치기부에 따라 투표하듯이 자유 영국에서 주주가 보유주식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공정합니다.

리더십

영국의 국민들은 우리에게 혁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원합니다.

이 임무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지도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통치합니다.

일부 노동당원들은 우리의 목적이 너무 온건하고 신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부는 내가 이길 수 있기에 나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념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보수당이 경멸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고 지지받고 신뢰받기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이지만 당선가능성이 없고 당선가능성이 있지만 원칙적이지 못한 것 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변민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승리해야 합니다.

영국을 혁신하는 임무는 소심하거나 따분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선택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만족적 견해를 갖거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보수당이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수당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보수당을 압니다. 나는 지금 유권자들이 우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당으로서 우리의 성격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변하지 않은 당은 죽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역사적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입니다.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당은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노동당의 원칙은 원칙이기를 그치고 단지 도그마로 경직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당의 원리를 망각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변하는 것입니다. 노동당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당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인일표(one member one vote)를 도입한 것은 올바른 것이고 이 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이 운영하는 쇠신 프로젝트(Regeneration Project)가 어떻게 당을 지역사회와 더 밀접하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정치가 공허한 회의실에서 많은 서류를 갖고 하는 권모술수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진정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접촉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더 나아갈 것입니다. 금요일에 존 프레스콧은 영국에서 한 세대에 가장 큰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입니다. 프레스콧의 노력은 노동당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당원을 배가하고 신·구당원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배신의 비아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논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이 의도가 되게 합시다. 단지 우리가 무엇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는가를 명확히 합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소심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노동당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현대화 보고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와 존 프레스콧은 노동당의 대표와 부대표로서 전국집행위(NEC)에 이 보고서를 제안할 것입니다. 그런 후, 다음 달에 논쟁을 합시다. 나는 모든 당원들이 논쟁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노동당이 이 논쟁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지면 다음 선거에서 노동당의 목적이 되게 하고 다음 세기의 노동당 당헌으로 만듭시다.

이것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정당입니다. 이것은 대중이 오해할 수 없고 보수당이 왜곡할 수 없는 용어로 쓰여진 현대적 당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노동당의 신념에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념을 말합시다. 단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든 작업장, 모든 집, 모든 가정, 모든 지역사회에서 공명할 수 있는 용어로 말합시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노동당의 결의가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뢰의 상징이 되게 합시다.

영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 우리는 민주적 전통을 자랑합니다.
- 우리는 관용, 혁신, 창의성의 나라입니다.
- 우리는 천부적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는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금세기에 두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점은 각성하지 않으면 자포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아져야한다”기 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수당은 이 결점을 장려합니다. 보수당은 자기만족 위에서 변영합니다.

나는 우리가 각성할 때라고 말합니다. 솔직해 집시다.

- 우리 정부제도는 구식입니다.
- 우리 경제는 약화되었습니다.
- 우리 국민은 충분하게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 우리 복지국가와 공공서비스는 낡았습니다.

- 우리 사회는 지난 100년의 어느 시기보다 더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노동당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세계에서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 국가로서, 공동체로서 우리의 공약을 혁신하는 국가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갖는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번영으로 풍요롭고 사회 정의로 안전하고 정치적 변화로 확신에 찬, 활기찬 공동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갖는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당의 희망입니다. 변화를 약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은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새로운 영국(New Britain)입니다.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입니다.

4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에 영국은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대의는 단순하다: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좋아져야 한다.’

‘비전은 국가혁신, 즉 추진력, 목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정책의 각 영역에서 구좌파와 보수당 우파와 다른 새롭고 선명한 접근이 입안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운 이유이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이상의 정당이다. 중요한 것은 작동하는 것이다. 목표는 근본적이다. 수단은 현대적일 것이다.’

‘이것이 국민과 우리의 계약이다.’

나는 영국을 믿는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영국인은 위대한 국민이다. 그러나 나는 영국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좋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즉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범죄퇴치 방법, 현대 복지국가 구축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더 좋은 방법.

나는 영국이 소수 강자가 아니라 다수를 위하고 능력이 특권보다 우선하고 국내와 해외에서 강하고 자신감에 차있는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새천년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확보하는 영국을 원한다.

나는 새로운 영국을 만드는 정부와 정치의 능력에 대한 영국의 신뢰가 혁신되기를 원한다. 나는 제한된 일련의 중요한 약속을 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신뢰가 혁신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이 서문의 끝에 제시하는 신뢰유대의 목표이고 거기서 10대 특별공약이 표명될 것이다. 이 공약은 당신과 우리의 계약이다.

나는 지난 18년에 대해 정직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가 혁신되기를 원한다. 일부는 보수당이 옳았다. 우리는 이것들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변경하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곳이다. 우리는 일련의 도그마를 또 다른 도그마로 대체하려는 의도도, 욕구도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우리들과 점점 멀어져 가는 상층의 소수 엘리트에게 세금감면을 주는 정치제도에 실망한 광범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통치할 정부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가 혁신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경제와 변화하는 사회의 거칠고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 영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고 그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지분을 갖고 내가 내 아이를 위하여 원하는 것을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도 원하는 영국을 원한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동당을 창조하는 이유는 과거와 다른 세계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새천년은 영국을 위해 열린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우리가 변화에 대한 용

기를 가지고 이를 더 좋은 영국의 건설에 이용한다면 나는 우리 미래의 번영을 확신하고 심지어 낙관한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단지 정권교체 그 이상이다. 우리의 목표는 영국의 정치적 삶이 미래의 새로운 진로를 찾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정치에 냉소적이고 정치적 약속을 불신한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992년 선거 직전에 메이저(John Major)가 이끄는 보수당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매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 보다 더 큰 약속위반은 없었다. 그때부터 선거 이후 첫 회계년부터 평시 역사에서 가장 큰 액수로 세금을 계속 올렸다. 경제정책의 초석인 환율조정제도(Exchange Rate Mechanism), 유럽, 보건, 범죄, 학교, 추문. 국민의 기억에는 보수당의 파기된 약속들이 각인되어 있다.

보수당의 파기된 약속은 정치를 완전히 오염시켰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약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의 지도적 규칙으로 삼았던 이유이다. 대안은 용두사미의 100일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정치, 인내심 있는 영국의 재건과 혁신,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내릴 수 있는 혁신이다.

이것은 영국정치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국을 분열시켰던 좌우의 치열한 정치 투쟁을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고용주 대 근로자, 중산층 대 노동계급 간의 많은 갈등들은 어쨌든 현대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영국은 움직이고 전진할 때이다. 우리는 영국의 역사, 영국이 달성했던 것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영국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노동당의 목적은 영국에게 다른 정치적 선택, 즉 권력욕을 제외하고 모두 소진되고 분열된, 실패한 보수당 정부와 미래의 정당으로 자신을 혁신하는데 단호했던, 새로이 활성화된 노동당 간의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 공약(commitment to justice)과 동반하는 기업 공약(commitment to enterprise)을 위해 우리의 당헌 4조를 개정했다. 우리는 노동당의 정책입안 방

식을 변화시켰고 노조가 노동당 정부로부터 특혜가 아니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현대적 기반 위에 노조와의 관계를 설정했다. 모든 노동당 의원은 지금 소위원회나 압력집단이 아니라 평당원에 의해 선출된다. 당원 수 자체가 4십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증가했고 그 중 반이 지난 선거이후 입당했다.

우리는 메니페스토 초안,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의 삶(new Labour new life for Britain)』을 전당원의 투표에 부쳐 95%의 지지를 얻었다.

우리는 오늘날 성공한 기업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연금 수령자들까지,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는 전국정당이다. 서방세계의 정당들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당원이 증가하는 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다.

비전

노동당은 진보와 정의를 위한 광범한 운동이다. 새로운 노동당은 다름 아닌 전체 영국인의 정치적 무기이다. 우리의 가치는 동일하다. 즉 누구도 버리지 않는 만인의 평등, 강력한 공동체에서의 공정성과 정의이다.

그러나 우리는 낡은 도그마 또는 독트린으로부터 이 가치들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치들을 현대적 세계에 적용했다.

나는 사람들이 삶을 잘 영위하고 잘하고 성공하는 나라를 원한다. 나는 질투의 정치를 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공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생활기회는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야망과 온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는 사회를 원한다. 거기서 우리는 물질적 부만큼 공공서비스를 높이 평가한다.

새로운 노동당은 우리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표들을 공통으로 묶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믿는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산업과 고용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회의 분열과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상호존중과 관용이 일상의 질서가 되는 안전한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다.

비전은 국가혁신, 즉 추진력, 목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기술변동의 세계경제에서 번영하기 위해 현대적 교육국가, 더 책임 있는 정치, 세계에서 그 지위에 확신을 갖고 있는, 준비된 영국이다.

프로그램: 신중도와 중도좌파 정치

정책의 각 영역에서 구좌파와 보수당 우파의 해결책 모두와 다른 새롭고 선명한 접근방식이 입안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운 이유이다. 우리는 노동당의 가치가 가진 힘을 믿지만 또한 1997년의 정책이 1947년 또는 1967년의 정책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상 어느 야당 보다 노동당의 정책이 더 상세했다. 노동당의 방향과 목적지는 분명하다.

구좌파는 산업의 국가통제를 추구했다. 보수당 우파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에 만족한다. 우리는 이 두 접근방식을 거부한다. 정부와 산업은 시장의 역동성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 우리는 피케팅, 동조파업, 찬반투표 없는 파업, 1970년대의 노조법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그 대신 작업장에서 개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노동당의 목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경제관리에서 우리는 세계경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좌우파 양극단의 고립주의와 '일방주의(go-it-alone)' 정책을 거부한다.

교육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상이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11세 시험(11-plus)¹⁵⁾과 획일적인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s)로 복귀하지는 생각 모두를 거부한다. 그 대신 우리는 개별 학생의 독특한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과목의 향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교실별로 편성하는 포괄적 수업(all-in schooling)을 지

역주 15) '11세 시험'은 영국에서 약 11세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할 때 치르는 경쟁시험이다.

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30년의 적용 경험으로부터 배운 종합적 원리를 현대화할 것이다.

보건정책에서 우리가 설립한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기본원리를 보호할 것이지만 1970년대의 하향식 관리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계획과 보건전달을 계속 분리할 것이지만 더 장기적이고 분권화되고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계획할 것이다. 핵심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돈을 올바른 곳, 즉 일선 보건서비스에 쓰는 것이다.

범죄에서 우리는 개인적 책임과 범죄 처벌을 믿지만 근본적인 원인에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과거 노동당의 접근방식과 오늘날 보수당의 정책과 다른, 범죄에도 엄격하고 범죄의 원인에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집중화와 책임부재는 좌우파 정부 모두의 문제였다. 노동당은 분권화와 지나친 정부의 비밀주의를 없애으로써 영국의 민주적 혁신을 공약한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이슈들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복지개혁의 당(party of welfare reform)이 될 것이다. 국민들과의 협의와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현대세계에 적합한, 권리와 의무가 동반하는 현대적 복지국가를 설계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년의 혼란이후 유럽에서 영국의 국익을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는 유럽개혁의 캠페인을 지도할 것이다. 유럽은 영국과 유럽이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도는 개입적이고 건설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정책입안의 중심에 놓을 것이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주택, 에너지 정책에서 지구온난화, 국제협약까지 정부전체를 계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찾을 것이다.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적합한 더 유연한 근로시간과 관계를 장려하는 방법, 새로운 정보기술의 거대한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법, 정부기관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법, 필요한 기반시설과 교통체계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 정부(radical government)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주의

(radicalism)는 좌우파의 독트린이 아니라 성과로 규정될 것이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이상의 정당(party of ideas and ideals)이다. 중요한 것은 작동하는 것이다. 목표는 근본적이다. 수단은 현대적일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이 전환되고 있다. 비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비전으로부터 영국의 변화와 혁신의 현대적 프로그램이 나온다. 우리는 18년의 보수당 일당통치 이후 국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변화가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10대 공약의 메니페스토를 제시한다. 이 공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 공약에 근거해 우리를 판단하라. 우리를 신뢰하면 그 신뢰에 보답할 것이다.

정치에서 우리의 임무는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국민의 희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소수 특권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정부를 약속한다. 이것이 국민과 우리의 계약이다.

노동당 정부의 5년

1. 교육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실패에 지출될 비용을 줄임으로써 교육재정에 지출될 국가수입의 몫을 증가시킬 것이다.

2. 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3. 우리는 낮은 물가인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내와 해외에서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을 장려할 것이다.

4. 우리는 2십5만명의 청년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않고 일자리를 갖게 할 것이다.

5. 우리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환자치료에 대한 지출을 늘려서 국민보건서비스를 재건할 것이다.

6. 우리는 범죄에 엄격하고 범죄의 원인에도 엄격할 것이며 청소년 상습범이 재판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것이다.

7. 우리는 강한 가정과 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것이고 연금과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에 현대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8.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 혼잡과 오염을 해결하는 종합교통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다.

9. 우리는 정치를 깨끗이 하고 영국 전체에서 정치권력을 분권화하고 정당의 정치자금을 적당하고 책임 있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유럽의 리더십을 영국에 줄 것이다.

우리는 노동당을 현대화했고 영국을 현대화할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의 목적이다. 즉 국가의 미래에 명석하고 진실을 말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모든 공공 부문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국민들을 억누르는 기득권에 대처하고 모든 부문의 비합리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정부가 회피해서는 안 되는 책임 있는 곳에서 도덕적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당은 영국을 위해 더 좋아질 것이다.

토니 블레어

우리는 교육을 최우선순위로 할 것이다

- 5-7세아의 교실 인원을 30명 이하로 축소
- 모든 4세아를 위한 탁아소
- 학교의 수준 저하 방지
- 컴퓨터 기술의 활용
- 새로운 산업대학을 통한 평생학습 실시
- 실업비용을 낮춤으로써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출

교육은 보수당의 가장 큰 실패였다. 교육은 노동당의 최우선순위이다.

교육은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필수이다. 우리는 품질의 기반 위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품질은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가장 큰 국가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1세 아동의 거의 반이 국어와 수학에서 기대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다른 주요 산업국보다 17세와 18세 청소년이 더 적게 전업교육을 받고 있다. 영국 노동력의 거의 2/3가 직업 자격증이 없다.

영국의 공립학교제도는 좋은 학교들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성공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학교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영국의 교육을 미치게 했던 낡은 주장을 버릴 것이다. 우리는 학교구조에 대한 보수당의 망상을 거부한다. 즉 모든 부모가 자신의 힘과 개인적 특질을 가지고 양질의 학교를 통해 진정한 선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세 학교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과 실패로 나눈다.

우리는 종합중등학교를 현대화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배울 수 없다. 이것은 우등생과 열등생 모두의 향상을 최대화하는 학급편성을 의미한다. 초점은 수준저하(leveling down)가 아니라 수준향상(leveling up)에 맞춰져야 한다.

노동당 정부에서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는 지도적 행정부서가 될 것이다. 교육고용부는 모든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지도할 것이다. 구조가 아니라 수준이 성공의 열쇠이다. 노동당은 아동교육에 도그마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접근방식은 성공한 학교가 아니라 문제있는 학교에 개입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좋은 학교의 폐쇄를 강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머 스쿨(grammar schools)¹⁶⁾ 입학규정의 변화는 그 지역의 학부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교회학교는 독특한 종교적 정신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격차(educational divides)를 줄일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에 의해 창출된 교육차별(educational apartheid)은 전체 교육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낮은 성과에 대한 제로관용(zero tolerance)

모든 학교는 성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모든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은 모든 학교의 개선을 증명해야 한다. 개선할 수 없는 불량학교는 장관이 학교를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명령할 것이다. 좋은 학교와 불량 학교가 나란히 공존하는 곳에서 우리는 좋은 학교가 불량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교육청에 부여할 것이다.

모든 4세아에게 보장된 양질의 탁아소 교육

탁아소 바우처(nursery vouchers)는 효과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것은 비싸고, 더 많은 양질의 탁아소를 만들지 못했다. 우리는 4세아의 탁아소를 보장하기 위해 탁아소 바우처를 폐지함으로써 절감된 돈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5

역주 16) 그래머 스쿨은 16세기에 창립되어 라틴어를 주요 교과로 삼은 학교였으나 1944년부터는 '11세 시험'에 합격한 학력이 상위인 학생에게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가 되었다.

세 미만아를 위한 교육과 보호를 결합한 조기우수센터(early excellence centres)를 시범운영할 지방자치단체를 선발할 것이다.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3세아를 위한 보편적 탁아제공에 대한 목표를 세울 것이다.

초등학교 수준에 대한 새로운 초점

초등학교는 모든 아동이 기본을 습득하고 학습욕구를 개발하는데 핵심이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생의 기본적 평가를 실시하고 매학년 향상 목표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보조교실제도(assisted places scheme)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 비용을 매년 1억8천만 파운드르 올림으로써 5, 6, 7세아의 교실 인원을 30명 이하로 줄일 것이다.

우리는 모든 학습의 기본인 읽기·쓰기·셈(three 'r's)을 더 잘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교육인력의 기술을 향상하고 교육과정에 읽기와 쓰기를 더 강조하고 10년 내 모든 아동이 최소한 11세의 읽기능력을 갖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새로운 목표(현재는 겨우 반)에 부응하기 위해 읽기와 쓰기 여름학교(literacy summer schools)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 수학 태스크포스는 마찬가지로 야심찬 목표를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읽기 음향학과 수학 상호작용 교수법을 포함한 가장 효과적인 수업방법의 사용을 장려할 것이다.

교육수준의 저하 방지

학교가 어디에 있든 노동당은 낮은 성과를 관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학교건물의 조건을 향상할 것이다.

불량학교에 최고의 교사와 교장을 채용하고 서민 학생에게 일대일로 지도하는 자원봉사 학습교사를 지원하고 14세 이후 청소년에게 산업과 상업에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수준의 저하를 막는 교육 행동지대(education action zones)를 설정할 것이다.

도시지역의 교육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와 새로운 계획을 개발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축구클럽과의 파트너십으로 학습지원센터(study support centres)가 지방 어린이를 위해 프리미어 리그 경기장에 세워질 것이다. 이 계획은 1997/8년 시즌에 시범운영될 것이다.

우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시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일반교육에 최대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기술 잠재력의 실현

노동당은 신사고(new thinking)의 선구자이다. 우리는 영국전기통신(British Telecom)과 케이블회사와 학교, 도서관, 대학, 병원에 무료 정보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우리는 또한 이용 요금을 최대한 낮출 것에 합의했다.

인터넷에 대해 우리는 민관파트너십으로 연결된 전국학습망(National Grid for Learning)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교육기술을 강화하는 최신 자료와 아동들의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정보기술에 대한 교사의 현재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사용할 것이다.

야당으로서 노동당은 어린이들의 신기술 이용을 장려하는 독립적인 스티븐슨 위원회(Stevenson Commission)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도전적인 미래 보고서이다. 우리는 이 계획을 실행할 방법, 특히 학교에 제공할 품질 보장 평가시스템을 통한 교육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든 어린이의 개인 이메일 주소 제공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있다. 독립적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여당이 될 때도 계속해서 계획 집행에 대해 자문할 것이다.

부모의 역할

우리는 부모의 권력과 책임을 제고할 것이다.

학부모 운영위원이 더 많아지고 처음으로 지방교육청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할 것이다.

주요 목표는 각자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모든 학교와 학부모간의 계약을 통해

가정 내의 학습 책임 문화를 장려하는 것이다. 국가 가이드라인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의 최소 숙제시간을 설정할 것이다.

교사의 좋은 관심과 규율을 장려하기 위해 학부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다루기 힘든 문제 학생들에 의해 고통 받고 있다. 퇴학 또는 정학은 때때로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학생위탁기관(pupil referral unit)을 시범운영할 것이지만 이 학생들의 교육이 상실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방교육청의 새로운 직무규정

지방교육청의 성과에 대한 판단은 수준향상에 대한 기여이다.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보다 학교와 더 밀접하고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교장과 운영위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줄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청의 성과는 교육평가원(Ofsted)과 감사원(Audit Commission)에 의해 감사받아야 한다. 실패한 지방교육청은 장관이 관련 권한을 유예하고 개선팀에게 보낼 수 있다.

보조금 학교(Grant maintained schools)

지금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모든 학교들처럼 노동당의 제안으로 변형할 것이다.

노동당이 이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는 보수당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재정지원제도는 학교 간 또는 학생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교육청은 학교운영기구를 대표하지만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993년에 도입된 개방적이고 공정한 입학전형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분쟁의 경우에 독립적 위원단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교사: 압력과 지원

학교는 모든 교직원의 질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다수 교사는 유능하고 헌신

적이지만 일부는 떨어진다. 우리는 교사의 훈련을 향상하고 모든 교사가 적합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사자격을 처음 얻었을 때, 준비 년(induction year)을 갖도록 보장할 것이다.

교사 직업을 대변하고 수준을 높이는 일반교사협의회(general teaching council)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좋은 교사를 판정하는 새로운 교사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교사를 퇴출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만들 것이다. 학교의 힘은 교장의 질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우리는 교장 직에 대한 의무적 자격을 확립할 것이다. 교장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훈련받았을 때만 그 직책에 임명될 것이다.

고등교육

고등교육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일반조세로부터 공급될 수 없다. 자금지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해외의 성공적 정책과 조화되어 디어링 위원회(Dearing Committee)에서 만들어져 왔다.

학비는 졸업생의 소득에 기초해서 고등교육의 직업적 성공으로부터 상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부실 운영되고 있고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우리는 더 긴 상환기간에 의한 공정성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할 것이다.

평생학습

우리는 새로운 향상된 기술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학습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와 중요한 심화교육 부문에서 성인교육을 장려할 것이다.

학교와 대학에서 우리는 엄격한 수준과 핵심기술로 뒷받침된 더 광범한 수능 시험 A급(A-levels)과 개선된 직업자격증을 지원한다.

고용주는 일자리 관련 기술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훈련시킬 일차적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개인에게 훈련에 투자할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훈련을 위한 공적 자금을 가령, 일자리로 복귀하려는 여성처럼 개인이 원하는 기술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학습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 투자할 것

이다. 우리는 더 잘 쓰일 수 있고 개인이 작은 부분을 부담하고 국가가 150파운드를 분담하는 대학 및 직업교육위원회(TEC) 자금 중 1억5천만 파운드를 사용하여 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고용주들도 이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자 이니셔티브(Investors in People initiative)를 훨씬 더 많은 소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다.

개방대학과 협력하여 우리의 새로운 산업대학은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성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산업대학에서 정부, 산업, 교육계는 기술과 교육의 강화를 위해 신기술에 사용할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산업대학은 소프트웨어를 의뢰하고 평생학습을 확대하기 위한 연계를 발전시키는 민관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교육에 투자하는 정부

보수당은 경제적, 사회적 실패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30억 파운드 이상의 국가 수입에 상당하는 정부의 교육지출을 삭감했다. 우리는 이 지출경향을 바꿀 것을 공약한다. 다음 5년의 의원임기동안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실패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지출 비율을 올릴 것이다.

우리는 만인을 위한 개인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적 안정
- 엄격한 인플레이션 목표와 최대한 낮은 모기지율(rate of mortgage)
- 2년간 현재의 지출제한 유지
- 소득세율의 인상 없는 5년 약속
- 기본소득세율 10펜스의 장기목표
- 복지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얻게 하는 초기예산

보수당은 18년 집권기간 동안 금세기 최장, 최악의 불황을 두 번이나 만들었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어느 유사기간과 비교해도 가장 느린 평균 성장률을 경

협했다. 인플레이션, 저성장, 실업의 기본적 원인들에 대처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 비정상적 벼락경기를 가진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
- 교육과 기술,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너무나 적은 투자
- 구직과 창업의 너무나 적은 기회
- 너무나 협소한 산업기반과 작업장 또는 국가적 공동목적의 결여

영국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영국의 발명, 창의, 적응력에 기반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것은 고임금과 고용의 방법으로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과 최신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당의 분명한 목표는 우리의 부 창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률 추세(trend rate of growth)를 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 기술, 기반시설,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실업,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만인을 위한 교육과 고용기회(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이다.

경제적 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본질적 기반이다. 세계경제에서 성장의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안정이다. 우선순위는 장기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낮은 인플레이션 조건이다.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은 같다. 즉 취약한 경제적, 산업적 기반이다. 정부는 모든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경제주기를 종식시킬 수 없다. 그러나 현명하게 지출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정부는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생활수준과 높고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향상하는 낮은 인플레이션이다.

지출과 세금: 새로운 노동당의 접근방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지출증가라는 신화는 보수당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사라

졌다. 지출은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출을 더 많이 해도 공정성이 많아지거나 빈곤이 줄어들지 않았다. 완전히 반대였다. 우리 사회는 수세대동안 어느 때보다 더 분열되어 있다. 공적 지출은 더 이상 공익적 정부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다. 지출규모보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지출되는지가 중요하다.

국가부채는 존 메이저(John Major) 정부 하에서 두 배로 증가했다. 국가재정은 여전히 취약하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공적 자금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즉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새로운 노동당은 큰 지출자(big spenders)가 아니라 현명한 지출자(wise spenders)이다. 우리는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으로 일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경영자의 첫 번째 관심 질문을 공적 지출에 적용할 것이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효율성과 돈의 가치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장관은 지출하기 전에 절약할 필요가 있다.

세금과 지출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절약이 우리의 접근방식이다

보수당 정부에서 세금인상은 경제적 실패의 가장 극적인 증거이다. 1992년 이후, 일반가족은 부가적으로 2천 파운드 이상 세금을 냈고 이는 지난 선거에서 존 메이저의 모든 공약을 파기했던 평시의 가장 큰 세금인상이다. 비극적인 것은 세금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영세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연료 부가가치세 부과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이다. 정부의 17.5% 연료 부가가치세 인상을 막은 것은 바로 노동당이였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는 정부가 장려하는 경제활동과 정부가 신봉하는 사회가치에 대한 신호를 분명하게 보낸다. 과세 제도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해야 한다는 예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노동당과 영국인은 세금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확립할 것이다. 우리가 한 약속은 우리가 지킬 것이다.

우리의 세금정책을 뒷받침할 원리는 분명하다.

- 만인의 고용기회와 근로인센티브의 장려
- 저축과 투자의 촉진
- 공정성

새로운 노동당은 일반가정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당은 사회정의와 공정거래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경제공약을 제시한다.

공정한 세금

1970년대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 모두의 형벌적 세율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우리는 차기 의회에서 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우리의 장기목표는 1파운드당 10펜스로 기본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최저소득계층의 70 또는 80%의 높은 한계세율을 줄이는 것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고용 장려에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게 이익이다. 이것은 최소한 이익의 반이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5천개의 가정에게 돌아가는 보수당의 자본이득세와 상속세의 폐지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우리는 연료 부가가치세를 최저수준인 5%로 낮출 것이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식품, 아동용 의류, 도서, 신문, 대중교통요금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우리는 또한 근로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빈곤과 복지의존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가정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과 급여체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이것들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위험의 제거

우리는 2.5% 이하의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는 통화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개방적이고 책임 있고 단기간의 정치조작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을 개혁할 것이다.

정부차입의 엄격한 규칙

우리는 공적 지출의 ‘황금률(golden rule)¹⁷⁾’을 집행할 것이다. 즉 경제주기에서 우리는 현재의 소비가 아니라 투자하기 위해서만 차입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주기에서 공적 부채가 차지하는 국가수입의 비율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집권 시, 첫 2년 동안 계획된 공적 지출 배분의 유지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했다. 이 결정은 보수당이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다. 다음 2년 동안 노동당은 이미 발표된 정부지출 한도 내에서 일할 것이다. 우리는 비합리적인 공공부문 지출 요구를 포함한 비합리적인 세금에 저항할 것이다.

경제 실패에서 투자로의 지출 전환

우리는 자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 공적 지출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과 부처별 지출을 재검토할 것이다. 공적 지출에서 노동당의 우선순위는 보수당과 다르다.

역주 17) 황금률은 노동당 정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재무장관(현 수상)에 의해 채택된 국가재정정책 규칙이다. 황금률은 경제주기에서 정부는 현재의 지출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차입할 것이고 따라서 균형 예산을 추구한다. 황금률은 거시경제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정부차입의 증가는 이자율을 높이고 투자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한 투자를(Sustainable Investment Rule), 즉 부채를 매년 GDP 40% 이하의 분별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개혁

우리는 새로운 개인저축계좌를 도입하고 면세특별저축계좌(TESSAs)와 개인주주계획(PEPs)의 원리를 장기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조세제도가 어떻게 더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체제를 재검토할 것이다.

노동당의 생산적 복지(welfare-to-work) 예산

우리는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영국경제를 준비시키고 복지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선거 이후 두 달 내에 관련 예산을 마련할 것이다. 이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은 원칙을 자문 받은 후 도입될, 민영화 기업에 대한 초과이득세로 충당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적이고 수익성있는 기업의 창업을 도울 것이다

- 기업지원: 기술, 기반시설, 새로운 시장
- 엄격한 경쟁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새로운 소기업 지원 조치
-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을 통한 지방경제성장 장려
- 유럽에서 강하고 효율적인 영향력

새로운 노동당은 기업에게 미래의 새로운 정책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노사관계와 기업에서 1980년대의 주요변화를 그대로 둘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이윤을 역동적 시장경제의 본질적 동력으로 보고 이 이윤은 품질, 혁신적 기업가, 숙련 종업원에 의존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더 빠른 성장을 이끄는 21세기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아직도 영국경제의 많은 토대들이 취약하다. 저임금과 저숙련이 동반되고 있

다. 불안전은 경제 불안정의 결과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은 영국 산업기반의 취약성 때문이다. 우리는 높은 실업과 숙련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저임금경제로는 영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는 영국임금의 1/10 또는 1/100을 주는 나라와 임금으로 경쟁할 수 없다.

우리는 고품질, 기술, 혁신, 신뢰성으로 승리해야 한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영국 투자자와 해외투자자는 영국을 기업하기에 매력적이고 수익성 있는 곳으로 여길 것이다.

새로운 노동당은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기여하는 유연노동시장을 믿는다. 그러나 유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유연성 플러스(flexibility plus)'가 필요하다.

- 유연성 플러스 고숙련과 우리 학교와 대학의 높은 수준
- 유연성 플러스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
- 유연성 플러스 기반시설,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 유연성 플러스 현재의 정책 표류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에 대한 방치가 아니라 유럽개혁을 위한 영국의 새로운 리더십
- 유연성 플러스 유럽연합의 내부와 외부에 시장을 개방하여 영국을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유럽단일시장에서 영국의 멤버십 보장
- 유연성 플러스 국민최저임금을 포함한 공정한 처우의 최저기준
- 유연성 플러스 장기실업자가 일자리를 얻고 사회보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

경쟁법의 개혁과 엄격화

해외 경쟁은 국내 경쟁으로 시작해야 한다. 효과적 경쟁은 소비자에게 가치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초기 우선순위로써 우리는 영국의 경쟁법을 개혁할 것이다. 우리는 반경쟁적 관례와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엄격한 '금지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공익산업에서 우리는 최대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경쟁이 효율적 수단이지 않은 곳, 가령 초라한 환경기록을 갖고 있고 대부분 면세인 수도 사업에서 우리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을 위해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이다. 우리는 소비자와 주주에게 모두 공정하고 동시에 경영자가 혁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방되고 예측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민간금융 이니셔티브(Private Finance Initiative)¹⁸⁾의 재활성화

영국의 기반시설은 위협스럽게 붕괴되었다. 우리 도로와 철도의 일부는 심각하게 방치되었고 너무나 자주 우리 도시환경이 악화되었다.

노동당은 민관파트너십의 아이디어를 개척했다. 이 파트너십을 지방수준에서 창출하는데 앞장섰던 곳은 바로 노동당 지자체들이다.

노동당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민간금융 이니셔티브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프로젝트, 저축기간, 비용 간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우리는 프로젝트 파트너 간에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분배할 것이다. 우리는 최선의 실천이 정부 전체에 보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결정적 국익이 걸린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계획과정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우체국과 같은 공공부문의 자기금융 상업조직(self-financing commercial organisations)에게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상업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소기업 지원

소기업 고용주의 수는 1990년 이후로 50만까지 줄어들었다. 소기업 지원은 우리의 경제성장 계획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불필요한 관료제를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연체된 부채상환에 대한 법정이자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향상하고 개혁된 기업연계네트워크(Business Links network)와 산업대를 통해 양질의 적합한 자문과 훈련을 향상하고 해외시장에 더 효율적으로 진입하도록 기업을 도울 것이다.

지방의 경제성장

번영은 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우리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조정하고 소기업을 돕고 투자유치를 장려하는 원스톱 지역개발청을 설립할 것이다. 많은 지역들이 이 목적을 위한 비공식적 조치들을 이미 취하고 있고 지원받을 것이다.

과학, 기술, 디자인 능력강화

영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과 연구소의 강력한 과학기반으로 세계적인 신지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디어링위원회(Dearing Committee)는 영국고등교육 전체에서 과학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하는 소중한 기회를 대표한다. 우리는 신기술과 좋은 디자인의 사용을 확대하고 영국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발명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기업 간의 협력적 접근방식을 지원한다.

녹색 신기술과 기업의 장려

영국의 환경기술 개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효율적 환경관리는 현대기업의 활동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이다. 우리는 25세 이하 청년 환경감시단과 연계하여, 특히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태양열, 풍력 에너지, 열병합 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등의 대안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생산을 장려하는 에너지정책을 공약한다. 우리는 핵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의 경제적 이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역주 18) 민간금융 이니셔티브는 민관파트너십에 금융지원을 하는 방법이다.

1980년대 노조개혁의 핵심요소 유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를 위한 최저수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동반하는 노사관계법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노조설립투표, 피케팅, 쟁의행위에 대한 1980년대 노조규제의 핵심요소는 유지될 것이다. 근로자는 노조 가입과 탈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관련 근로자 다수가 투표로 노조의 대표권에 찬성하면 노조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안정되고 질서 있는 노사관계를 촉진한다. 이 제안의 집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충분한 자문이 있을 것이다.

작업장에서의 파트너십

최고 기업은 종업원을 기업의 파트너십으로 인정한다. 조건이 좋은 종업원은 자신의 기업에 더 헌신적이고 더 생산적이다. 많은 노조와 고용주는 갈등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환영해야 한다.

우리는 소유권을 확대하고 종업원지주제(Employee Share Ownership Plans)와 협동조합을 통해 더 많은 종업원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다양한 파트너십과 기업 형식을 장려하는데 민감하다. 우리는 또한 유럽연합의 사회헌장(Social Charter)을 지지하지만 유럽연합이 비유연성이 아니라 고용가능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하도록 유럽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적절하게 결정된 국민최저임금

임금이 그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법정수준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경직된 공식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환경과 소기업을 포함한 고용주와 종업원 대표가 참석하는 독립적 최저임금결정위원회(independent low pay commission)의 권고로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현대산업국가들은 최저임금이 있다. 영국은 과거에 임금위원회(Wages Councils)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있었다. 적절하게 도입되면 최저임금은 납세자가 매우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을 보조함으로써 40억 파운드의 엄청난 급여비용의 일부를 줄일 것이고 최악의 저임금과 특히 여성 급여비용의 초과를 없앨 수 있다.

우리는 실업자가 복지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얻도록 (from welfare to work) 할 것이다

- 영국에서 극빈층(underclass) 증가 억지
- 2십5만 명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에게 세금감면
- 편부모에 대한 효율적 지원

영국은 1990년보다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적다. 다섯 가족 중 한 가족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1백만 명의 편모가 복지급여의 덩어리 속에 걸려있다. 한 세대동안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고 이반된 영구적 빈민을 양산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높고 안정적인 고용수준이다. 이것이 만인이 사회에 지분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이해관계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진정한 의미이다.

최선의 빈곤퇴치 방법은 사람들이 일자리, 진정한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실업자는 훈련 또는 일자리의 기회를 거부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진정한 기회여야 한다. 1/10의 성공률만 가진 보수당 정부의 근로복지(workfare)는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다.

노동당의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은 실업을 막고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용의 악순환을 깰 것이다. 민영화기업의 과도한 이윤에 대한 일회의 초과이득세는 우리의 야심찬 프로그램의 재원이 될 것이다.

6개월 이상 된 모든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또는 훈련을 제공한다

우리는 25만 명의 25세 이하 청년실업자에게 근로, 교육, 훈련 기회를 줄 것이다. 네 가지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다.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교육 또는 훈련, 민간부문 일자리, 일자리를 주는 고용주와 노동당의 시민서비스 프로그램(citizens' service programme)과 연계된 환경감시단(environment taskforce)에 전업학습과정을 제공하는 비영리자원봉사부문(non-profit voluntary sector)의 고용주도 6개월간 주당 60파운드의 세금환급을 지원할 것이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되어야 한다. 완전한 급여를 제공하는 다섯 번째 선택권은 없을 것이다.

모든 16세, 17세 청소년이 2000년까지 적합한 자격증을 얻게 한다

거의 1/3의 청소년이 19세까지 국가직업자격(NVQ) 2레벨을 얻지 못하고 있다. 16세 이후의 모든 청소년은 파트타임 또는 전업 교육을 제공받을 것이다. 18세 이하의 일하는 청소년은 대학입학을 위한 학습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실패한 청소년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을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목표2000 프로그램(Target 2000 programme)으로 대체할 것이다.

장기실업 대책

지자체와 자원봉사부문과 완전히 연계된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장기실업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2년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초과이익세를 재원으로 6개월간 주당 75파운드의 세금환급을 제공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council house) 판매금을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우리의 프로그램은 건설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편부모에게 일자리를 준다

오늘날 일자리 없는 편부모에 대한 국가의 주요한 지원은 복지 급여이다. 대부분의 편부모들은 일하기를 원하지만 구직을 도와주지 않는다. 새로운 노동당은 적극적 정책을 갖고 있다.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편부모는 복지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직, 훈련, 방과후 보호를 적극적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로부터 제공받을 것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우리는 개인의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급여의 결합을 지지한다. 새롭고 혁신적인 고용지대(Employment Zone)에서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어 독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급여와 훈련을 위한 돈을 결합한 개인일자리계좌(personal job accounts)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급여, 고용, 직업서비스를 조정하고 그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불법복지수급

우리가 탈세를 단속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이듯이 급여체계의 불법수급을 단속해야 한다. 우리는 매년 20억 파운드로 추산되는 주택수당(Housing Benefit) 불법수급에 대해 단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불법복지수급을 단속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보건서비스를 구할 것이다

- 국민보건서비스 대기자에서 10만 명 해결
- 보수당의 내부시장(internal market) 종식
- 암수술 대기의 종식
- 병원의 엄격한 질적 목표

- 독립적 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
- 새로운 공중보건 조치
- 매년 실질적인 지출증대와 관료가 아닌 환자에 지출

노동당은 50년 전에 국민보건서비스를 만들었다. 이것이 보수당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 우리는 국민보건서비스를 구하고 현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보수당이 다시 집권하면 다음 5년 안에 국민보건서비스는 없어질 수도 있다. 더 이상 국민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역사적 원리의 혁신을 공약한다. 당신이 아프거나 다치면 도와줄 국민보건서비스가 있을 것이다. 그 이용은 당신의 지불능력, 당신의 일반의(GP), 당신의 위치가 아니라 필요에만 근거할 것이다.

1990년에 보수당은 국민보건서비스에 병원경쟁의 복잡한 내부시장을 강요했다. 결과는 모든 개별적 거래를 별도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비싼 관료제에 의해 질식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이다. 6년 후, 관료제는 매년 별도로 15억 파운드를 삼키고 있다. 2만 명의 관리자가 더 늘었고 병실에는 5만 명의 간호사가 더 줄었다. 그리고 1백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자신이 세운 보건목표조차도 항상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향식 관리로 복귀할 수 없지만 노동당은 보건에 대한 보수당의 내부시장을 종식시킬 것이다. 의료의 계획과 제공은 필수적이고 독특한 기능이고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의료구입의 행정비용은 의료 제공을 붕괴시켰고 시장체계는 임상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 노동당은 내부시장의 관료적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로써 절감된 돈은 직접 환자의 치료에 쓰일 것이다. 우선 처음 절감된 1억 파운드가 1십만 명의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암수술의 대기를 끝낼 것이고 이로써 유방암 치료를 기다리는 수천 명의 여성들을 도울 것이다.

1차 진료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에 기금보유일반의(GP fundholding)¹⁹⁾는 병원전문의와의 변화된 관계에

서 환자를 대변하여 힘을 얻었다.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자금보유일반의의 발전은 또한 해악을 가져왔다. 의사결정이 파편화되고 행정비용이 상승했고 의료서비스가 이중화되었다.

노동당은 1차 진료의 선도적 역할을 유지할 것이지만 현 체계가 가진 해악을 제거할 것이다. 일반의와 간호사는 자기지역의 모든 환자를 위한 더 효율적인 지방 의료서비스의 공동계획을 지도할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일반의는 개별 병원이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위해 우리는 이미 1천4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협력적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다.

현재의 연도별 계약체계는 비싸고 불안정하다. 우리는 지방의 1차 진료팀과 병원간의 3-5년의 협정을 도입할 것이다. 그러면 병원은 환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더 잘 계획하고 협력할 것이다.

양질의 환자 서비스

병원은 일상의 행정기능에 대한 자율성을 갖지만 국민보건서비스의 일원으로 병원 양질의 의료제공 수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경영진은 서비스 수준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사진은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지방 공동체를 더 많이 대표할 것이다. 새로운 환자 헌장(patients' charter)은 치료의 질과 성공에 집중할 것이다. 보수당의 소위 '효율성 지수(Efficiency Index)'는 치료의 질 또는 성공이 아니라 환자의 '에피소드' 수를 계산하고 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척도는 치료결과의 질, 효율성을 위한 인센티브 자체가 될 것이다. 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혼성병실(mixed-sex wards)을 폐지할 것이다.

역주 19) 기금보유일반의는 의료제공자간 경쟁체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금보유일반의는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차 진료팀의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런 조치로 일반의의 근무량이 증가되었고 수입은 일반의가 하는 일의 수행정도와 연계된다. 경쟁체제의 도입은 일반의로 하여금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인을 주지만 이런 역할과 환자의 대변자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윤리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건당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를 수호할 것이다. 병원당국은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모범을 전파하고 높은 의료수준을 보장할 것이다.

보수당이 민간의 돈으로 병원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노동당은 민간 금융 이니셔티브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체를 종식시키고 혼란을 정비하고 더 잘 작동하고 국민보건서비스의 이익을 보호하는 민관 파트너십의 새로운 형식을 개발할 것이다. 노동당은 보수당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병상서비스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노동당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우수지역연구소의 전문가 처방을 이웃 수준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원격의료(telemedicine)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건강

신임 보건부장관은 건강 악화의 근본 원인을 공격하여 삶을 향상하고 국민보건서비스의 돈을 절약할 것이다. 노동당은 빈곤, 불량주택, 실업,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목적을 설정할 것이다.

흡연은 영국에서 예방가능한 병과 사망단축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배광고를 금지할 것이다.

노동당은 독립적 식품표준청을 신설할 것이다. 35억 파운드의 손실을 야기한 광우병 파동과 심각한 인명손실을 초래한 대장균 발병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독립적 기관, 식품표준청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보건서비스 지출

보수당은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낭비했다. 우리는 더 잘 할 것이다. 우리는 매년 실질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환자치료에 돈을 쓸 것이다. 그리고 지출된 금액의 더 많은 부분이 관료가 아니라 환자치료를 위해 쓰일 것이다.

국민보건서비스의 미래

국민보건서비스는 연속성만큼 계속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체계는 대처할 수 없다. 변화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운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이 꽃 피려면 규정이 경직되어서는 안 되고 유연해야 한다.

우리의 근본적 목적은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 즉 경쟁에 의한 상업적 사업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보건서비스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에 엄격하고 범죄의 원인에도 엄격할 것이다

- 청소년 상습범에 대한 신속한 처벌
- 더 많은 범죄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대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개혁
- 경찰의 서류작업이 아니라 순찰
- 모든 총기를 금지하는 의회투표

보수당 정부 하에서 범죄는 두 배로 증가했고 훨씬 더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책임을 모면했다.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의 수는 50개의 범죄 중 하나로, 1/3 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정부기록이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모든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기록이다. 작년에만 폭력범죄가 11% 증가했다.

우리는 법과 질서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즉 범죄에 엄격하고 범죄의 원인에도 엄격한 것이다. 우리는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주장하고 사회적 박탈을 경감함으로써 범죄의 원인도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경찰은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전쟁에서 일선에 있다. 보수당은 1천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1992년 총선의 공약을 파기했다. 우리는 더 많이 순찰하도록 경찰관의 불필요한 관료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와 무질서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매우 적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기소되었고 그 중 반이 훈방으로 풀려났다. 청소년 범죄자들은 매년 7백만 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무나 자주 청소년 범죄자는 수개월간 법원 심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우리는 청소년 상습범이 체포되어 판결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것이다. 광범한 반복적 훈방을 최종의 일회 훈방으로 대체하고 모든 지역에 청소년범죄자 전담팀(Youth Offender Teams)을 창설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재판체계를 간소화할 것이다.

새로운 부모책임명령(parental responsibility orders)은 부모가 자녀의 비행에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유죄판결과 선고

대검찰청의 임무는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기소하는 것이다. 사건들을 너무나 자주 불기소처분하고 연기하고 더 가벼운 죄로 낮춰버리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과도하게 중앙집중적이고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노동당은 지방경찰과 더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지방검찰청으로 대검찰청을 분권화할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더 일관되고 엄격하게 하기 위해 모든 주요범죄에 대한 선고를 효율화할 것이다. 법원은 실제로 각 판결의 의미를 명백히 해야 한다.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모든 주요 범죄에 대한 선고지침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감형 선고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확대될 것이다.

교도소는 지금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감사하고 교도소에 대해 장관이 적합하게 책임지도록 하고 교도소 제도가 건설적이고 수감자가 범죄행동을 반성하도록 할 것이다.

무질서

보수당은 ‘법’과 ‘무질서’에서 ‘무질서’ 부분을 망각했다. 우리는 거리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에 대처할 것이다. 우리의 ‘제로 관용’ 접근 방식은 사소한 청소년 범죄도 진지하게 해결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안전 명령(community safety orders)은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이웃사람의 범죄에 대처할 것이다. 노동당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제안하는데 앞장 서왔다.

아동보호명령(child protection orders)은 밤늦게 방치되어 부모에 의해 버림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영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다. 영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인종적 소수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종희롱죄와 인종폭력죄를 신설할 것이다.

마약

마약과 범죄의 악순환은 삶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위협한다. 노동당은 범정부적 마약퇴치를 조정하기 위한 마약전담 책임자를 임명할 것이다. ‘마약퇴치 책임자(drug czar)’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현대적인 마약의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공약의 상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마약중독과 범죄간의 연계를 깨기 위해 범죄자의 마약 검사 의무화와 치료 명령(compulsory drug testing and treatment orders)을 시범운영할 것이다. 이것은 재구류 연기를 국가적 목표로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교도소의 마약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모든 수감자의 임의적 마약검사에 덧붙여 우리는 수감자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모든 교도소에 자발적 검사소(voluntary testing unit)를 설치할 것이다.

희생자

범죄 희생자는 너무나 자주 형사재판에서 망각되었다. 우리는 희생자가 자신의 사건의 진행경과와 죄가 경감되고 기각된 이유를 알도록 보장할 것이다.

강간과 심각한 성범죄를 당한 희생자와 목격자를 포함하여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다.

예방

우리는 지자체에 범죄예방을 돕기 위한 법정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그런 후, 지방의회가 자리지역의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는 목표를 세우도록 요구할 것이다.

총기규제

던블레인(Dunblane)과 헝거포드(Hungerford)의 총기사건 이후,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법만이 최대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보수당은 필요한 안전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노동당은 민간인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할 것이다. 개별 의원이 총기의 완전한 금지에 대해 자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노동당은 오늘날 영국에서 법과 질서의 당이다.

우리는 가족생활을 강화할 것이다

-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 주거 안정과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판매금을 이용한 무주택 문제 해결
- 퇴직자의 품위와 안전
- 기본적 국가연금 보호와 안전한 2차 연금 장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가족생활을 지원할 것이다. 가족은 사회의 핵심이다. 가족은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첫 번째 방어막이다. 가족생활의 해체는 사회구조를 손상시킨다.

노동당은 시민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에서 가족과 국가를 라이벌로 보지 않는다. 가족은 일상의 안정적이고 애정 있는 환경에서 어린이가 자라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 필요하다면 청소년의 보호, 환자와 노인에 대한 적합한 도움, 좋은 육아의 지원, 무법상태와 권력남용으로부터 가족의 보호 등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은 번영할 수 없다. 정부를 통해 사회는 가족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집단적으로 성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의 가족은 이전에는 없었던 긴장상태에 있다. 보건서비스가 이전에 제공했던 안전은 붕괴되었다. 거리는 안전하지 않다. 주택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다. 비연금 가족의 다섯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영국인은 유럽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일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은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더 평등한 남녀관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마찬가지로 인종, 성, 성적 취향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리의 임무는 변화와 사회적 안정을 결합하는 것이다.

일과 가족

일없는 가족은 독립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이다.

노동당의 국가육아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은 현대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부모, 특히 여성이 가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과 부당한 부담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것 간에 건전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 균형은 이미 가장 성공한 일부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 보수당 정부는 가족 친화적 근로활동을 개발할 필요에 완전히 무관심했다. 시행이 유연해야 되고 어떤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주당 48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을 종업원의 권리를 지지한다. 그리고 연차유급휴

가와 제한된 무급육아휴가를 지지한다. 이 조치들은 가족생활의 가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권리는 우리가 환영하는 최근의 법원판결로 분명해졌다.

우리는 가족과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와 급여체계의 모든 측면을 계속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 물가와 연동하는 보편적 아동급여(Child Benefit)를 공약한다. 우리는 학교와 대학의 학생 재학율을 높이기 위해 16세 이상의 학비를 재검토하고 자원을 가장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 재검토는 우리가 이미 설정한 지침에 따라 집권해서도 계속될 것이다.

주거 안정

대부분의 가족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또한 품질과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민간적 임대부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보수당의 주택정책은 이중적으로 실패했다. 주택을 소유한 2/3의 가족은 지난 10년간 기록적인 모기지 연체금, 기록적인 주택가치의 하락, 기록적인 압류에 기인한 엄청난 불안정의 증대로 고통받았다. 그리고 보수당이 주택정책을 견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사실상 포기되었고 무주택자가 증가했고 임대법을 완전히 개혁하는데 실패했다. 이 모든 것이 보수당의 유산이다.

노동당의 주택정책은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의 필요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주택정책을 붕괴시켰던 보수당의 비정상적 벼락경기 정책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모기지 제공자(mortgage providers)와 협력하여 일자리 불안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더 유연한 모기지를 제공할 것이다.

모기지 구매자는 또한 불리한 모기지 판매에 더 강력한 소비자보호, 가령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사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깨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손실, 특히 법적 비용과 조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는 책임 있는 주택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서 부동산 사기에 대처할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임대주택부문

우리는 좋은 공공주택을 장려하기 위해 민, 관, 주택조합 간의 삼자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노동당은 지방의회가 받기만 할 뿐 지출하지 않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판매금을 주택 신축과 재건축에 재투자할 것이다. 재투자가 단계적으로 실행되면 건설업의 능력과 건전한 경제 관리의 요구에 부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공공주택을 향상하고 더 큰 다양성과 선택을 도입하기 위해 효율적인 민간금융제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관련된 임차인의 지지를 받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임차인의 동의와 임차인의 임대 또는 안전의 보장 없이, 공공주택을 민간의 땅주인에게 넘기는 현 정부의 위협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간임대부문의 활성화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즉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들을 보호할 것이다. 임차인과 책임 있는 땅주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자체의 적합한 허가제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아파트 거주자가 자신의 집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전체 아파트는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새로운 주택보유형식인 '공동소유(commonhold)' 를 도입할 것이다. 우리는 임차인의 자유보유권(freeholds) 구입을 제한하는 현재의 규칙을 단순화할 것이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보수당 정부 하에서 두 배 증가했다. 오늘날 잉글랜드에서 4만 가족 이상이 비싼 임시숙박시설에 있다. 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부는 무주택 가족이 영구적인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자체의 의무를 제거했다. 우리는 과실이 없는 무주택자의 우선적 필요를 보호하도록 지자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무주택 청년이 노숙하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보수당의 태만을 더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은 없다. 가족의 도움이 없는 청년은 특히 취약하다. 우리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판매금을 단계적으로 방출하여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우리의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실업자가 일하고 금전적으로 독립하게 할 것이다.

노인

우리는 노인이 우리사회에 한 기여를 가족, 자원봉사, 근로를 통해 존중한다. 노인의 기술과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가령, 이것이 우리가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아이들이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직장에서 노인이 연령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된다.

노인에게 적합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주요한 도전이다. 오늘날 연금수령자에게 보수당의 정책은 진정한 빈곤, 불평등의 증가, 광범한 불안전을 야기했다. 보수당은 연금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분담을 폐지하고 민간연금으로 대체하고 연금이 최저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자산조사 국가보장(means-tested state guarantee)이라는 공허한 약속을 했다. 이 제안은 반세기 동안 복지에 지출할 저축분을 없애고 새로운 민간연금을 보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것이다. 이 계획은 지금부터 2040년까지 세금과 차입을 통해 3천1백2십억 파운드를 추가로 요구하고 이후의 저축분을 없애서 결국 퇴직의 불안전을 심화한다.

우리는 모든 연금수령자가 국가의 증가된 번영에서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민영화 대신에 우리는 민관 연금제공자 간의 파트너십과 세금에서 지급된 소득과 투자된 저축간의 균형을 제안한다. 기본적 국가연금은 연금제공의 토대로서 유지될 것이다. 이 연금은 최소한 물가와 연동하여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도 받지 못하는 1백만 극빈층 연금수령자를 도와줄 더 자동화된 수단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예금을 적절하게 보호하여 퇴직예금을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을 개혁하여 6십만 명의 연금수령자가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7천명만 보상받은 연금 스캔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특히 저임금과 고용변화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좋은 2차 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당은 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틀, 즉 이해관계자 연금(stakeholder pension)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연금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고용주, 종업원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장려할 것이다. 이 연금이 높은 수준의 연금수령, 유연성, 안전성에 부응할 때만 사람들이 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다.

노동당은 연금 제공의 선택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직업연금의 틀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이다. 개인연금은 적합하게 규제되면 다수의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 노동당은 국가소득연계연금(SERPS)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연금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자산조사급여만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민연금(citizenship pension)'을 만들기 위해 국가소득연계연금의 관리구조를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혼한 남성과 여성에게 연금을 분할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반대를 극복했다. 우리가 집권하면 이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적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보호의 필요가 증가한다. 보수당의 접근방식은 민간보험과 요양원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주거주택정책은 교조적이고 실효가 없다. 우리는 지자체가 혼합적 민관 케어(mix of public and private care)를 발전시키는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식구, 이웃, 친구가 제공하는 보호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95년 의회에서 보호자법(Carers Act)을 통과시켰던 의원들은 바로 노동당 의원들이다. 우리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공정한 자원마련제도를 만들기 위한 왕실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 주택,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는 '장기요양헌장(long-term care charter)'을 도입할 것이다. 우리는 주거주택과 재가보호에 대한 독립적 감사와 규제서비스를 공약한다.

모든 사람들은 존엄한 퇴직의 권리가 있다. 보수당 정부 하에서 국가연금의 소득연계는 끝났다. 연료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국가소득연계연금이 붕괴되었고 커뮤니티케어는 누더기가 되었다. 우리는 노인이 불안해하는 중심 분야, 즉

기본연금과 그 가치, 국가소득연계연금을 포함한 2차 연금, 커뮤니티케어를 재검토할 것이다. 그 재검토에서 연금수령자의 견해가 경청될 것이다. 연금과 장기요양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동당의 정책 표어는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삶에서 더 많이 얻도록 도와줄 것이다

- 모든 정부부처의 ‘녹색’ 화
- 만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깨끗한 교통
- 청년을 위한 새로운 예술·과학재능기금(arts and science talent fund)
- 복권 개혁
- 농촌의 생활향상
- 월드컵 유치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책임을 재확인하여 우리가 후세에게 전해줄 나라를 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예술, 문화, 스포츠가 영국에 기여할 기회를 장려하고 향상할 것이다. 우리는 ‘창조적 경제(creative economy)’에 대한 새롭고 역동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국가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는 영국의 예술, 미디어, 문화산업의 진정한 힘과 에너지에 부응하는 전략적 비전을 개발할 것이다.

환경보호

우리세대와 미래세대는 환경보전에 의존한다. 어떤 사람도 비위생적인 식수, 오염된 공기, 부정적 기후변화를 회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는 이 문제들을 대처하는 것에도 함께해야 한다. 어떤 책임 있는 정부도 미래의 이 위험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비용이 너무 크고 따라서 지금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노동당의 환경에 대한 접근방식의 토대는 환경보호가 국가 일개부서의 단독

책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는 환경에 대한 범정부적인 높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 audit committee)를 설치해야 한다.

이 매니페스토 전체에 걸쳐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결합하는 정책들이 있다. 이 정책들은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지방수준의 공약에서 모든 나라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제수준의 이니셔티브까지 포괄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교통필요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선택을 제공하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정책을 요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확립하고 개발할 것이다.

철도

철도 민영화 과정은 지금 대개 완수되었다. 이것은 소수에게 부를 가져다주었지만 납세자에게는 잘못된 거래였다. 이것은 철도 네트워크를 파편화시켰고 지금 철도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현재의 상황을 향상하는 것이다. 우리의 우선적인 목적은 철도로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더 많은 투자와 철도운행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철도체계는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승객의 이익을 위해 편리한 환승, 매표, 정확한 여행정보가 필요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규제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는 공적 보조가 공익에 기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승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철도의 발전을 위한 명백하고 통합된 전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철도회사들과 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철도공사(rail authority)를 설립할 것이다.

런던지하철을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려는 보수당의 계획은 해답이 아니다. 이 민영화는 납세자와 승객 모두에게 잘못된 거래이다. 그러나 다시 공공자산을 저평가된 값으로 매각하려고 한다. 정말 필요한 투자는 지체되고 있다. 지하철의 핵심적인 공적 책임이 위협받고 있다.

노동당은 런던지하철을 향상하고 그 공익성을 보호하고 납세자와 승객의 돈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계획한다.

도로교통

균형 잡힌 교통정책은 자동차, 택시, 버스,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친밀한 운송양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운송계획에는 모든 운송형식의 최선의 혼합을 보장하고 최대한 양질의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버스 서비스의 핵심은 지방의회와 버스사업자간의 파트너십을 본질적 요소로 함으로써 지방수준에서 적합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버스전용차선을 시행하고 향상해야 한다. 더 좋은 주차장은 도심지의 편리한 버스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한다.

도로의 안전이 최우선순위이다. 자전거와 도보가, 특히 학교주변에서 더 안전해야 한다. 우리는 보수당이 44톤 이상의 트럭에 대해 미적대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트럭이 환경에 위협적이고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염을 줄이는 우리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미래를 위한 효율적이고 깨끗한 '스마트'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자동차산업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저배출 자동차를 장려하는 자동차 소비세에 대한 검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접근가능성, 안전, 경제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도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전략적 재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 유지를 향상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사용하고 여행정보를 향상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해운과 항공

보수당 집권 시기에 영국의 해운은 거의 전멸 당했다. 노동당은 해운회사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운과 항만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의 항공 전략의 목표는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국의 모든 항공사가 소비자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원한다.

농촌의 삶

노동당은 농촌지역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한다. 보수당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와 교통서비스는 악화돼서는 안 된다. 보수당은 우체국을 민영화하려고 했다. 우리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우체국을 위하여 이에 반대했다. 보수당의 계획은 우편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고 농촌 우체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산림청(Forestry Commission)의 땅을 대규모로 파는 것을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는 농촌이 거대한 자연적 자산, 신중한 보호가 필요한 우리 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조화되어야 한다. 보수당이 광우병 파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축산업과 낙농업은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부담은 35억 파운드에 달한다.

노동당은 돈을 절약하고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개혁하려 한다. 모든 학교를 정보고속도로에 연결하려는 우리의 이니셔티브는 농촌지역 어린이들이 최선의 교육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사람들이 열린 농촌을 더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접근에 대한 권리가 남용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야생동물을 더 잘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사냥개를 이용한 사냥을 금지하는 법안의 의회통과를 포함한 동물복지(animal welfare)를 장려하는 새로운 조치를 옹호해왔다. 낚시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노동당의 낚시꾼 헌장(anglers' charter)은 낚시와 수중환경 보호에 대한 노동당의 오랜 공약을 확인한다.

예술과 문화

예술, 문화, 스포츠는 영국을 규정하는 공동체 감각, 정체성, 시민적 긍지를 재창조하는 일에 중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사회의 창출을 돕는 예술과 과

학, 즉 아마추어 극장, 예술 갤러리 등의 역할을 일관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술, 스포츠, 레저는 삶의 질과 경제혁신에 결정적이다. 이 부문은 영국을 위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 부문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부문은 매년 영국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고 새로운 양질의 호텔숙박을 위한 노동당의 계획에 의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재능 있는 청년을 후원하는 국립과학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and the Arts)의 설립을 제안한다. 국립과학예술기금은 건물이 아니라 재능을 후원하는 21세기를 위한 국립기금이다. 이 기금은 복권을 부분적 재원으로 가질 것이다. 그리고 재능 있는 청년을 지원하고 싶은 유명 예술가들이 특허와 로열티를 이 기금에 기부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스포츠

노동당 정부는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학교 스포츠는 그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학교 운동장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정부정책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잉글랜드의 2006년 월드컵 유치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또한 영국에서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국민복권(people's lottery)

복권은 돈을 크게 벌었다. 그러나 돈의 분배에 대한 전반적 전략은 없었고 복권기금의 혜택을 받을 프로젝트를 정하는데 다섯 분배단체들 간에 어떤 조정도 없었다. 가령 처칠 문서(Churchill papers)에 대한 수백만 파운드의 지원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노동당 정부는 복권수익이 최대한 영국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복권수익 분배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다.

노동당은 이미 현재 복권수익 지원에서 배제된 어린이 연극을 포함한 일련의 교육, 환경, 공중보건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위해 새천년 전람회

(Millennium Exhibition)를 폐지하고 새천년위원회(new millennium commission)의 설치를 제안했다.

복권은 공익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의 계약이 끝나면 노동당은 가장 많은 돈이 좋는데 쓰이도록 보장하는 효율적인 비영리 관리자를 찾을 것이다.

미디어와 방송

노동당은 상업적 성공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번영하는 다양한 미디어 산업을 지향한다. 우리는 BBC가 영국의 창의성과 공공서비스 방송의 대표로 계속 남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결합이 혁신과 수준을 높이는 핵심 자극이라고 믿는다. 미디어와 방송의 규제제도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경제와 엄청난 기술진보, 가령 디지털 텔레비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노동당은 시청자의 이익을 위해 방송의 질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분별 있는 규칙, 공정한 규제, 국가적, 국제적 경쟁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시민서비스(citizens' service)

시민권의 표현으로써 자발적 활동을 하는 독립적, 창의적 자원봉사 부문은 우리의 이해관계자 사회(stakeholder society) 비전에 중심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하고 싶어 하는 많은 청년의 열정과 헌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시민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킬 것을 공약한다. 새천년에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할 것이 많은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이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위로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들에 의해 고안되고 발전된 광범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치를 깨끗이 할 것이다

- 상원의 세습원칙 종식
- 부패를 끝내는 정치자금 개혁
-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분권화
- 런던 등의 시장 선출
- 더 독립적이지만 책임 있는 지방정부
- 정보의 자유와 인권 보장

보수당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보수당은 세습귀족, 무책임한 특수법인(quangos), 비밀주의 정부를 지지한다. 보수당 의원은 하원에서 질의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민주주의의 품위를 실추시켰다. 보수당은 정부의 분권화 발전을 반대했다. 이전에 보통선거권과 여성선거권을 반대했던 보수당이 지금은 우리 헌법이 너무 완벽하여 개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적 상원

상원은 개혁되어야 한다. 미래에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 없는 초기의 자기완결적 개혁으로서 상원에 출석하고 투표할 세습귀족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종식될 것이다. 이것은 상원을 더 민주적이고 대의적으로 만드는 개혁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상원의 입법권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상원의 평생귀족 지명제도는 재검토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평생귀족으로서 정당 지명자가 이전 총선의 득표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귀족의 독립적인 초당적 위치가 보장되는 것을 공약한다. 어떤 정당도 상원의 다수당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상하 양원 위원회는 가일층의 변화에 대한 광범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군주제를 대체할 계획이 전혀 없다.

효과적인 하원

우리는 하원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하원의 의사진행을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최근의 권력남용을 없애기 위해 장관의 책임이 재검토될 것이다. 유럽연합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 정비될 것이다.

놀란 위원회의 권고(Nolan recommendations)가 완전히 시행되고 모든 공공단체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최소금액 이상의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를 공표할 것을 정당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노동당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고 모든 정당들도 해야 한다. 외국의 정치자금은 금지될 것이다. 우리는 놀란 위원회(Nolan Committee)가 정치자금의 규제와 개혁방법을 연구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하원의원선거제도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약한다. 선거제도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는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 system)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를 권고하기 위해 조기에 구성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은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과소대표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정부의 불필요한 비밀주의는 오만한 정부와 불완전한 정책입안을 초래했다. 이라크로의 무기반출에 대한 스코트 보고서(Scott Report)는 보수당의 권력남용을 폭로했다. 우리는 더 열린 정부를 만들고 독립적 국가통계서비스(National Statistical Service)를 제공하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공약한다.

지방분권: 연합의 강화

연합왕국(United Kingdom)은 독특한 민족정체성들과 전통들에 의해 풍성해지는 파트너십이다. 스코틀랜드는 자신의 교육, 법,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다. 웨

일즈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권력 분권화에 대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보조(subsidiarity)는 유럽에서처럼 영국에서도 적절한 원칙이다. 우리의 제안은 연방(federation)이 아니라 분권(devolution)이다. 주권적 웨스트민스터 의회(Westminster Parliament)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로 권력을 분권할 것이다. 연합은 강화되고 분리주의의 위협은 없어질 것이다.

총선 이후 가능한 빨리, 우리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사람들이 백서로 발간될 우리의 제안에 별도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이 국민투표를 1997년 가을까지 실시할 것이다. 각 국민투표는 단순다수제로 결정할 것이다. 국민투표에서의 통과는 우리 제안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의회통과를 신속히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를 위해 우리는 스코틀랜드 헌법대회(Scottish Constitutional Convention)의 합의에 기반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와 제한된 조세권 등의 입법권을 가진 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스코틀랜드 국민투표에 우리는 의회를 신설하는 안과 제한된 조세권을 부여하는 안을 별도로 부칠 것이다.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는 현재 스코틀랜드청(Scottish Office)이 행사하는 행정 책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할 것이다. 연합왕국 의회의 책임은 연합왕국 정책, 가령 경제, 국방,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웨일즈 의회(Welsh assembly)는 기존 웨일즈청(Welsh Office)의 기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웨일즈 의회는 2차적 입법권을 갖고 개혁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갖고 특수법인 국가(quango state)를 민주화할 것이다. 이 의회는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될 것이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우리는 백서에서 개괄된 실질적 지방분권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좋은 지방정부

지방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덜 제한받고 또한 지방민에 더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지를 촉진하는 새로운 임무를 지방의회에 부여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민, 지방 기업, 지방 자원봉사단체와 파트너십으로 일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권력을 가질 것이다. 더 큰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지방의원 일정 부분이 매년 선출될 것이다. 우리는 도시의 행정권을 가진 시장 선출을 시범운영하면서 지방정부의 민주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조잡하고 보편적인 지방의회세(council tax)부과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과도한 지방의회세 인상을 통제하는 권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방기업의 관심은 좋은 지방정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영업세율(business rate)을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결정해야 할 적절한 민주적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과의 완전한 협의 없이 현재의 영업세율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보수당이 통제하는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은 현 보조금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 노동당은 정부 보조금의 공정한 분배를 공약한다. 지방 서비스 제공의 상세한 항목이 아니라 기본적 틀은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서비스를 매각하도록 강제되지 않지만 최선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서비스가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교조적 견해를 거부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서비스가 직접 전달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비용은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다.

모든 지방의회는 서비스 향상 목표를 제시하는 지방성과 계획(local performance plan)의 발행이 요구되고 이의 달성이 기대된다. 감사원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효율성을 촉진하는 부가적 권력을 가질 것이다. 감사원의 자문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실패를 고칠 완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팀을 파견할 것이다.

노동당 지방의회는 1992년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의 지방행동 국제틀인 지방 어젠더 21(Local Agenda)의 환경 이니셔티브에서 선두에 있었다. 노동당 정부는 모든 지자체가 자신의 지방 환경수준을 보호하고 제고하는 계획을 채택할 것을 장려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박탈에 대한 전쟁에서 맨 선두에 있다. 도심지 빈민가 개선을 약속한 보수당이 집권한 10년 동안 마을과 교외지역은 빈곤과 사회적 분열로 고통 받았다. 노동당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쇠퇴의 다중적 원인, 즉 실업, 열악한 주택, 범죄, 건강악화, 환경오염을 해결할 것이다.

런던

런던은 선출직 시정부가 없는 유일한 서방 수도이다.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런던은 직접 선출되는 전략사업기관(strategic authority)과 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전략사업기관과 시장은 시가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책임질 것이다. 전략사업기관과 시장은 자치구(boroughs)의 반복이 아니라 전체 런던의 이슈들, 즉 경제부흥, 계획, 치안, 교통,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질 것이다. 런던 전체를 포괄하는 자치정부의 책임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이를 실현할 것이다.

잉글랜드 지역

보수당은 특수법인과 정부지역청(government regional offices)을 통해 잉글랜드에 지역정부를 신설했다. 그 동안 지자체들은 함께 더 조화된 지역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노동당은 교통, 계획, 경제발전, 유럽기금신청, 토지사용계획을 조정하는 지역의회(regional chambers)를 창설하여 이 성과를 발전시킬 것이다.

직선 지역정부에 대한 요구는 잉글랜드 전체에서 너무 달라서 단일한 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만간 우리는 주민들이 직선 지역정부를 원하는가에 대한 지방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분명한 주민의 동의가 있는 곳에서만 직선지역의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현재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것과 같은 단일 지방정부체계를 요구하고 부가적 공적 지출이 없다는 것을 독립적 회계감사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의 계획은 현재의 잉글랜드 체계에 새로운 정부를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진정한 인권

시민은 영국법원에서 자신의 인권을 집행할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의 권리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민들이 국내법원에서 그 권리에 접근하도록 법률로 유럽인권협약을 영국법에 통합할 것이다. 유럽협약의 통합은 인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의회는 가령 정보공개법에 의해 이 권리들을 강화하는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차별을 최대한 종식시킬 것이다. 가령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사회 또는 작업장에서의 차별에 대해 장애인의 시행가능한 포괄적 시민권을 지지한다.

노동당은 민법재판 체계(civil justice system)와 법률 구조(Legal Aid)의 개혁에 대한 광범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다. 우리는 납세자와 소비자를 위해 돈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지역사회 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는 지역과 지방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법률구조의 발전을 위한 지방, 지역, 국가적 계획을 개발할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자원봉사 부문, 법조계, 법률구조단(Legal Aid Board)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는 이민에 대해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고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이민신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당하게 남편 또는 부인과 합치기 위해 이 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준이 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적절하게 집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 ‘일차목적(primary purpose)’ 규칙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결과를 없애기 위해 현재의 체계를 개혁할 것이다. 비자를 거부당한 방문자의 이의제도를 간소화할 것이다.

망명 신청자 처리제도는 비싸고 느리다. 미결 신청건이 1993년도 건까지 있다. 우리는 이민과 망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고 사악한 이민 브로커를 통제하고 출생증명서의 부정사용을 단속할 것이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노동당의 접근방식은 초당적이었다. 우리는 최근 영국정부와 에이레 정부 간의 협정(Anglo-Irish Agreement), 다우닝 스트리트 선언(Downing Street Declaration), 기본문서(Framework Document)를 지지했다. 정부는 국경 협력, 양정부의 대화 계속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권 입권기구를 포함한 제안을 제시했다.

에이레 정부와 북아일랜드 정당들과의 협력에서 보수당 정부처럼 노동당 정부도 평화프로세스를 중시할 것이다. 우리는 야당이 된 보수당으로부터 동일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현재, 북아일랜드의 미래가 다우닝 스트리트 선언에서 제시된,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합의가 있다. 노동당은 북아일랜드의 에이레와의 통일은 친영 전통(Unionist tradition)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기존의 북아일랜드 지위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전통(Nationalist tradition)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전통간의 화해와 양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공약한다. 노동당은 인권을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직장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시위행진에 대한 긴장을 줄임으로써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와 친영론자 모두의 신뢰와 확신을 구축할 것이다. 노동당은 또한 실업을 줄이기 위해 북아일랜드에서 경제적 진보와 경쟁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영국이 유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 단일화폐에 대한 국민투표
- 유럽연합의 개혁 지도
- 트라이던트(Trident) 핵미사일 유지: 나토를 통한 강력한 안보
- 국제연합의 개혁
- 세계적 빈곤퇴치 지원

영국은 제한된 자연자원을 가진 섬나라로서 수세기동안 세계의 지도국가였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쇠퇴했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에서 영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것이다. 즉 국익을 지키는데 결연하고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기구에서 신뢰받고 강력한 회원국이 되고 유럽의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의 유럽비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독립국가들의 동맹이다. 우리는 유럽연방 슈퍼국가(European federal superstate)를 반대한다.

유럽에서 영국은 세 가지 선택만을 할 수 있다. 첫째는 탈퇴이다. 둘째는 회원국이지만 방관하는 것이다. 셋째는 회원국이지만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많은 보수당 의원들은 분명하게 또는 은밀하게 첫 번째를 지지한다. 그러나 탈퇴는 영국에게 재앙이다. 탈퇴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에 처하게 할 것이다. 탈퇴는 유치된 투자를 증발시킬 것이다. 탈퇴는 국제무역협정에서 영국의 힘을 파괴할 것이다. 탈퇴는 유럽에서 영국을 추방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확히 오늘날 보수당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은 유럽에서 보수당의 실패를 상징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가야할 길이다. 이것은 개혁을 할 수 있는 신뢰를 얻음으로써 유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1998년 상반기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될 때 실시할 상세한 개혁 어젠더를 제시했다.

- 영국이 유럽의장국이 될 때 최우선순위로 단일시장을 완성할 것이다. 우리는 불공정한 국가지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단일시장규칙을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시장을 경쟁에 개방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국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 할 것이다.
- 중·동부유럽과 키프로스를 포함하도록 유럽연합을 확대하고 확대된 유럽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도개혁을 실시할 것이다.
- 공동농업정책을 긴급하게 개혁할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은 비싸고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환경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 1999년 유럽연합확대와 세계무역회담(Enlargement and the World Trade talks)에서 개혁은 훨씬 더 본

질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국수산업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어자원을 보호하도록 공동수산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을 정비할 것이다.

- 유럽연합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투표를 공개하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집행위원회(Commission)를 더 효율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를 더 개방하고 민주화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럽의회의 비례대표제를 지지해왔다.
- 조세, 국방, 안보, 이민, 예산과 조약변경에 대한 결정 등의 국익이 걸린 핵심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비토권을 유지하고 영국의 국익이 걸린 제한된 분야에서 질적 다수제(Qualified Majority Voting)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 영국은 사회현장에 조인할 것이다. 사회현장 협상에 영국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재앙이다. 사회현장은 입법조치들이 합의될 수 있는 기본 틀이다. 범유럽 대기업 종업원의 협의권, 무급육아휴직의 두 조치만이 합의되었다. 성공한 기업은 이미 자기 종업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사회현장은 사회보장 또는 세법의 조화를 강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고 일자리를 비싸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높은 사회비용이 아니라 고용가능성과 유연성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다.

단일화폐

영국의 단일화폐 참여는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오직 노동당만이 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보수당은 분열되었다. 유럽통화연합(EMU)이 1999년 1월 1일 결성되면 영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장애가 있을 것이다. 유럽통화연합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규칙을 날조하지 않고 회원국 경제가 진정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화연합에 영국이 영원히 가입하지 않으면 영국은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국의 국익을 위해 이 논쟁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 어쨌든 다음 의회임기 동안 영국이 가입하기 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세 가지 사전조건들이 있다. 첫째, 내각의 동의, 그 후 의회의 동의,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의 통과이다.

나토를 통한 강력한 안보

탈냉전의 세계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민족주의와 극단주의의 성장, 국제적 테러리즘, 범죄, 마약밀매와 같은 일련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이 위협에 대해 강력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계속해서 나토에 기반을 둘 것이다.

영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대에 속한다. 영국은 군인들의 직업정신과 용기에 긍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안보는 안전한 세계에서 더 잘 지켜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나토와 유럽연합의 동맹을 통해 그리고 국제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영국의 본질적 안보이익과 방위필요를 재평가하기 위한 전략적 방위와 안보 재검토(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를 수행할 것이다. 이 재검토는 영국군의 역할, 임무, 능력을 새로운 전략적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재검토는 외교정책의 지침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의 해외공약과 국익을 평가하고 그 다음 이에 부응하기 위한 영국군의 전개방법을 확립할 것이다.

무기통제

새로운 노동당은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주의, 균형, 검증의 원칙하에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촉구할 것이다. 핵무기를 보편적으로 감축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검증가능한 진보가 있을 때, 우리는 영국 핵무기를 다자간 협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노동당은 화학무기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생물학무기협정(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당은 모든 형태의 대인지뢰 수입, 수출, 이전, 생산을 금지할 것이다. 우리는 대인지뢰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이다. 노동당은 국내적으로 억압

적이고 국제적으로 침략적인 정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기 수출의 허가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기판매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약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영국방위산업을 지지한다. 방위산업은 영국의 방위력만이 아니라 산업기반의 전략적 구성요소이다. 우리는 방위다변화청(defence diversification agency)을 통해 방위산업의 일부 전문적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제공동체에서의 리더십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영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의 지위를 사용할 것이다. 국제연합의 개혁을 통해 국제연합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해결하고 국제연합이 평화유지, 갈등예방, 인권보호, 지구환경보호에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영연방(Commonwealth)은 역사, 언어, 법체제로 연결된 독특한 네트워크를 영국에게 제공한다. 노동당은 영국의 외교관계에서 영연방을 새롭게 중시할 것을 공약한다. 우리는 무역과 경제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또한 국제연합의 개혁과 지구환경에 대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연방 가입국과 동맹을 구축할 것이다. 영국은 1997년 말, 영국에서 개최되는 영연방 정상회담에서 영연방에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촉진

노동당은 또한 지구적 빈곤과 저발전을 퇴치하는 것에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하루 1달러로 생계를 영위하는 절대빈곤층이 전 세계에 13억 명이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매일 3만5천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다. 노동당은 영국이 지구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도와야 할 분명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집권하면 노동당은 영국의 원조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구성할 것이고 발전 이슈를 정부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삼을 것

이다. 국제개발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새로운 내각부서로 신설할 것이다. 우리는 극빈국의 극빈층을 도울 프로그램에 원조자원을 재배분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연합의 0.7% 원조목표에 대한 영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집권하면 노동당은 영국의 원조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원조, 무역, 농업, 경제개혁정책 간의 일관성을 높일 것이다. 우리는 로모 협정(Lomo Convention)의 재협상 기간 동안에 극빈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극빈국이 짊어진 외채 부담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을 지지한다. 유네스코(UNESCO)에 재가입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다른 곳에서 절약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인권

노동당은 외교관계의 성실성 때문에 영국이 세계에서 존경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인권 보호와 촉진을 영국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 국제주의 (new environmental internationalism)

노동당은 지구기후에 대한 위협 때문에 국제어젠더에서 환경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당 정부는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를 포함한 환경 이슈들에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지도할 것이다.

노동당은 국제무역에 대한 협상에서 국제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1997년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립이 아닌 리더십

지구적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고립주의 또는 보호주의로 후퇴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국제주의와 개입을 믿는 사람들 간에 첨예한 분열이 있다.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국제주의 정당(party of internationalism)이었다. 영국은 해외에서 약하면 국내에서 강할 수 없다. 보수당 집권시기의 비극은 영국의 자산을 탕진하고 영국의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세계의 이익을 위한 지도적 힘으로서 영국의 자긍심과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해 이 자산을 완전히 이용할 것이다. 효과적인 리더십과 분명한 비전을 가진다면 영국은 다시 한 번 국제적 의사결정의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이 될 수 있다.

이 매니페스토에 상세한 노동당의 공약이 담겨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했다. 영국은 더 잘 할 수 있고 다음 다섯 가지 공약은 더 좋은 영국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당신이 더 좋은 영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를 도와 주고 싶다면 0990-300-900의 전화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 보조교실제도(assisted places scheme)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5-7세아의 교실 인원을 30명 이하로 줄인다.
- 체포에서 판결까지 시간을 반으로 줄임으로써 청소년 상습범에 대해 신속하게 처벌한다.
- 국가보건서비스의 관료제에서 1억 파운드를 절감함으로써 첫 조치로 10만 명의 환자를 추가로 치료하여 국가보건서비스의 대기자를 줄인다.
- 민영화 기업에 대한 초과이득세의 돈을 이용함으로써 25만 명의 청년이 복지급여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얻게 한다.
- 소득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연료부가가치세를 5%로 낮추며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최대한 낮춘다.

3 새로운 영국

- 1998. 3. 1. 『신민주당(The New Democrat)』, 토니 블레어

나는 새로운 영국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오랫동안 영국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으로 더 알려졌다. 오랫동안 영국은 현재의 업적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에 만족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 영국은 “고풍스럽고” 약간 “구식”이라는 것이다. 즉 화려한 격식의 나라로 알려졌다. 지금도 나는 영국의 격식과 냉담한 국민성을 사랑한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은 그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영국인은 구식의 계급 장벽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강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인은 창의성, 독창력, 상상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영국에는 새로운 역동성이 있다.

영국은 잘 운영되는 다문화사회이다. 영국은 원조 국가이고 열정과 온정의 나라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이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고 진취적이다.

영국은 이전처럼 군사적 의미에서 확실히 강대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은 현대국가들이 동경하는 빛나는 모범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세계제일의 약학과 정보통신의 고향이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다. 항공과 신기술에서 영국은 최첨단이다. 영국은 국제직접투자에서 유럽에서 제일이고 미국 다음의 두 번째이다. 영국은 76 개국이 런던에 520개의 은행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금융서비스에서 유럽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의 1/3이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과학부문에서 9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이다. 자동차 속도에서 신기록을 세울 때, 영국팀이 우승팀이었다. 창의적 디자이너, 건축가, 영화 제작자, 음악가를 원할 때 사람들은 영국으로 온다.

새로운 정치가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영국은 아직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이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유산에 대해 분명히 하자.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또한 제도적 인플레이션, 기록을 경신하는 구조적인 공공적 자, 영국의 필요에 부응하지 않는 교육과 복지체계가 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힘든 2년이 될 것이다. 선거승리에 도취하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좌절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할 것이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장기주의자(long-termist)이다. 이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통일적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변화를 관통하고 있다. 새로운 근본중도 정치(new radical-center politics)가 탄생하고 있다. 내가 영국정부의 핵심 테마들을 설명할 때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서방세계 전체에서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크게 이 동일한 유사성을 볼 수 있다.

첫째, 신노동당은 신중한 재정, 재무의 당(party of fiscal and financial prudence)이다. 우리는 구조적 적자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조만간

균형예산도 실현할 것이다. 이것은 몇 년 전만해도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6.5%에 달했던 영국에서는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이자율 설정 권한을 잉글랜드 은행에 부여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국에서 비정상적 벼락경기(boom-or-bust)를 영원히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세금과 지출(tax-and-spend)의 정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아닐 것이다.

비정상적 벼락경기를 방지하는 것은 장기적 투자와 경제력을 위한 필수적 사전 조건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국내정책이다. 이것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정의의 열쇠이다. 우리는 대규모 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조기 어린이 교육, 더 높은 수준의 초등학교, 불량학교를 접수하여 변화시키는 교육청, 교사 훈련의 개혁, 더 작은 교실규모 등이 그것이다.

셋째,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는 복지국가를 개혁할 것이다. 의존을 줄이고 진정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고 노년보장 제도를 실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출과 빈곤이 상승하는 체계는 잘못된 것이다. 교육, 근로, 복지개혁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정책은 건전한 시민사회를 재구축하는데 핵심적이다. 건전한 시민사회에서 범죄는 줄어들고 최하층(underclass)은 더 이상 사회의 주류와 분리되어 표류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유럽에서 개입적이고 건설적이며 그 전망에서 고립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적인 나라로 돌아오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고립주의는 미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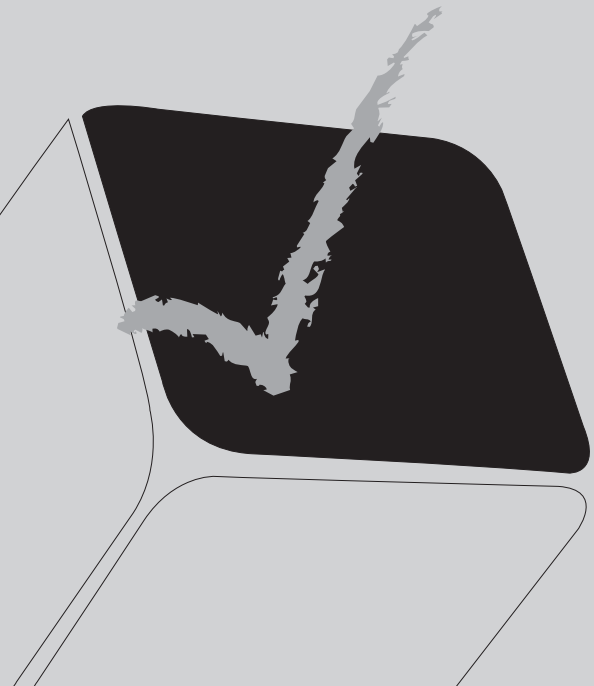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과 정부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 정부 혁신(reinventing government),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진정한 제3의 길

이것은 구좌파와 신우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신중도와 신중도좌파의 통치철학, 진정한 제3의 길(third way)이다. 제3의 길은 자유(freedom), 진보(progress), 정의(justice)의 가치에 기반한다. 제3의 길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영국의 현대화를 추구한다. 그 목적은 소수 특권자가 아니라 만인이 국가의 번영을 공유하는 영국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당을 변화시켰다.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는 영국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새롭고 더 확신에 찬 영국은 더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로 동맹국들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록 | 영어원문자료





Contents

1.

• Keynote Address of Gov.	203
Bill Clinton to the DLC's Cleveland Convention	
• 1992 Democratic Party Platform	209
• 1993 Inaugural Addresses of the Presidents	227
of the United States (Bill Clinton)	
• The Third Way(DLC)	230
• It's Values And The Economy(AI From)	231
• The Right Fight(AI From and Bruce Reed)	233
• What We Stand For(AI From and Bruce Reed)	238

2.

• New Labour, New Britain(Tony Blair)	243
• New Labour because Britain deserves better	258
• The New Britain(Tony Blair)	295

1

Keynote Address of Gov. Bill Clinton to the DLC's Cleveland Convention

DLC | Speech | May 6, 1991

Thank you very much. Mary Rose, thank you for that introduction. I loved listening to it, but all the while I knew that the better politician was speaking first. It is a great honor for us to be in your district and to be in Mayor White's city.

I want to again welcome all of you to this convention. The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has had a very good year, but in a real sense, we are just beginning, for it is here with you that we are being given the chance to shape a new message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to chart a new course for our country.

I have read, and you have read, all the people who say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dead. I read the New Republic with the cover, Democratic Coma.

Well, I want you to know that I respectfully disagree. Our DLC has over 600 Federal, State, and local elected officials, people who are brimming with ideas and energy, people who are out there on the firing line every day, actually solving problems, and somehow getting the electoral support they need to go forward.

I disagree because, even though our President is very, very popular, and we all pray for his speedy recovery, all is not well in America. We should all be justly proud of our magnificent victory in the Gulf, and we can honestly say that only America, of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ould have put together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alitions that made it possible.

So in that sense we are still the world's number one country. But if you look at the whole picture, it is very different, for today, as we begin another work week in America, 18 other nations will do a better job than we do of the simple task of bringing babies into the world alive.

And a dozen will do a better job of preparing their children to perform on international tests in science and math that are so critical to our future.

At least 10 will send their working men and women out to their jobs with better reading skills that are so necessary to compete in a world where what you can earn depends largely on what you can learn.

Of all th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we will be the only one that sends our working men and women to their jobs today with the gnawing insecurity that millions of them feel still that, if they get sick or their children get sick, they do not know how they will pay the bills, or whether they will get the care.

Of all the major industrial countries in the world, we are the only country that has no system for moving the kids who do not want to go to college into good jobs with high wages and a good future instead of dead-end jobs.

Regrettably, last year we did become number one in another category: we passed the Soviet Union and South Africa, and now we are the number one nation in the world in the percentage of people we put in prison.

Our competitors for the future are Germany and Japan. Last year they had productivity growth rates three and four times ours, because they educate their people better, they invest more in their future, and they organize their economies for global competition, and we do not.

These are facts that we have to face, but for more than a decade we have lived in a fantasy world in which it was bad form and terrible politics to admit that we had problems of this magnitude, and it was certainly out of the question for anyone in national political leadership to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doing something about them.

I hope that the number one consequence of our victory in the Persian Gulf, is that at long last we will have the national self-confidence to face up to our real problems here at home, for they are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of the future.

More important than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is what is preoccupying so much of the press coverage, is the future of America. If these conditions continue, can we preserve America's leadership in the world we have done so much to make? Can we keep the American dream alive here at home? I joined the DLC to help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e 1980's glorified the pursuit of greed and self-interest, and we saw the explosion in the number of poor women and their little children. In the 1980's our competitive position eroded, but the CEO's of this country gave themselves pay raises that were four times as much as they gave their employees and three times as much as their corporate profits increased.

Middle income families' earning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in our memory, and not because we are a lazy people. Working class families put in more hours at work and less time with their children in 1989 than they did in 1979.

And it is not because we are overpaid. German factory workers on the average make over 20 percent more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You may say, well if all these things are out there, why in the wide world haven't the Democrats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se conditions?

I'll tell you why: because too many of the people that used to vote for us, the very burdened middle class we are talking about, have not trusted us in national elections to defend our national interests abroad, to put their values into our social policy at home, or to take their tax money and spend it with discipline.

We have got to turn these perceptions around, or we cannot continue as a national party. But that is not the most important issu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United States of America needs at least one political party that is not afraid to tell the people the truth and address the real needs of real human beings.

We need one political party that does not want to be the hunter or the hunted on those 30-second negative ads that have turned so many people off.

I applaud the changes of the Democratic national party in the last couple of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Ron Brown. He has made a real effort to reach out to the middle class.

He has made a real effort to unify all of our party, to talk to all of its people, with all of their different views, and to help people like me and our Members of Congress to get elected, often in very tough circumstances, and we have held up pretty well. But if we want to be a national party, we have a lot more to do.

We have got to have a message that touches everybody, that makes sense to everybody, that goes beyond the stale orthodoxies of left and right, one that resonates with the real concerns of ordinary Americans, with their hopes and their fears. That is what we are here in Cleveland to do.

The Republican burden is their record of denial, evasion, and neglect. But our burden is to give the people a new choice, rooted in old values, a new choice that is simple, that offers opportunity, demands responsibility, gives citizens more say, provides them responsive government -- all because we recognize that we are a community,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we are going up or down together.

Opportunity for all means first and foremost a commitment to economic growth. To do it we have to expand world trade, but we ought to demand that when we expand it, our workers get treated fairly and the global environment is enhanced, not torn apart.

Opportunity for all means more investment in emerging technologies, and more incentives to invest by U.S. companies in their own country.

Opportunity for all means, more than anything else, world-class skills, for people who live here while money and management may fly away.

Opportunity for all also means that the government ought to help the middle class as well as the poor when they need it. That is why we favored increases i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s for hard-pressed working Americans who are overtaxed, largely because of the \$65 billion surplus in the regressive Social Security tax.

That is why we favor preschool for all children, as an opportunity for all children, as an opportunity, not a mandate. That is why we favor a national system of apprenticeships for non-college-bound young people,

and national service so that everybody who wants to can get the money to go to college, if they will in turn give something back to their country, as teachers or police officers.

But opportunity for all is not enough, for if you give opportunity without insisting on responsibility, much of the money can be wasted, and the country's strength can still be sapped. So we favor responsibility for all. That is the idea behind national service. It is the idea behind welfare reform, and we urge every State to vigorously pursue it.

We should invest more money in people on welfare to give them the skills they need to succeed, and to help them with child care and with medical care for their children, but we should demand that everybody who can go to work do it, for work is the best social program this country has ever devised.

The Democrats should be the party which demands the toughest possible child support enforcement. Forty percent, 40 percent of our welfare dollars would not have to come out of the taxpayers' hides if the men who owe child support and can pay it, did it.

There is an idea abroad in the land that if you abandon your children the government will raise them. Well, I will tell you something. For 11 years now I have been providing budgets for the division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for every conceivable program. I have done everything I could to get more money, but I will let you in on a secret -- governments do not raise children, people do, and it is time they were asked to assume their responsibilities and forced to do it if they refuse.

Responsibility for all means that students ought not to get or keep their drivers license unless they stay in school, and parents ought to have to keep them in school and ought to show up at school if the kids are in trouble. It means there is something for everybody to do, and that we Democrats recognize that we cannot move forward without investing more money in our future. But we can invest all the money in the world, and if people will not do right, it will not do what it is supposed to do.

So the Democrats should be for responsibility for all. And I believe we should be for more choices. Choice is not a code word for elitism or racism. We are living in a world, after all, when all of us want 50 or 60 channels on cable television, when people in Eastern Europe tore down the Berlin Wall because they got sick and tired of some government monopoly telling them what to do and how to live, and they knew it did not work.

In the information age, monopoly decisions handed down on high by government bureaucracies are not always the best way to go. With appropriate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or income, we can provide our people more choices: child care vouchers, public school choice options, job training programs, choices for the elderly who used to be required, when they got a little frail, in order to get government money, to go to nursing homes, to let them have more choices, to stay independent and to stay at home.

We believe in the obligation of Democrats who believe in government to reinvent government, to make it work. We believe that we should follow the successes of our greatest corporations in eliminating middle levels of bureaucracy, pushing decisions down to the lowest possible level, empowering people, increasing accountability, and treating our citizens like they were our customers and our bosses -- because they are.

That is why we favor tenant management of housing projects, and giving principals and teachers more say in how schools are run, and neighborhood policing, where the same police ride the streets or walk the blocks day in and day out and know their neighbors and treat them like partners in the fight for safe streets.

We believe we ought to have a Federal budget which spends more money on the future and less on the present and the past, a Federal budget which ties current increases in consumption to the money that American people can afford to pay because of how much their own income increases.

And finally, let me say again, we believe in community, in repairing a torn fabric of our country at its most fragile point,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children who are being robbed of their childhoods, because we really are all in this together. This is a new choice Democrats can ride to victory on: opportunity, responsibility, choice, a government that works, a belief in community.

Now our new choice plainly rejects the old categories and false alternatives they impose. Is what I just said to you liberal or conservative? The truth is, it is both, and it is different. It rejects the Republicans' attacks and the Democrats' previous unwillingness to consider new alternatives.

Let us just take two examples. Take this fight about civil rights. The Republicans have set it up so that, if you are for the civil rights bill, you have got to be for quotas, so that if you are not for quotas we have to say you are for discrimination. It is a bogus debate. And the White House ought to be ashamed of itself for breaking up the honest attempt of the Business Roundtable and the civil rights groups in this country to have a new choice, where you can have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vitality, you do not wake up every day being scared to death of a lawsuit, but we protect women and minorities and people who deserve it from unfair discrimination on the job, which we all know still exists in this country.

Take the debate about poor children. The way the Republicans set the debate up, they say, well the Democrats are for throwing more money at these problems, and we know you cannot throw money at them. We just said that, and we are for family values.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Family values will not feed a hungry child, but you cannot raise that hungry child very well without them. We need both.

When I was a little boy, I was raised by my grandparents, with a lot of help from my great-grandparents. My great-grandparents lived out in the country in about a two-room shack up on stilts. The best room on the place was the storm cellar, which was a hole in the ground, where I used to spend the night with a coal oil lantern and snakes. And they got government commodities -- that is what we called it back then -- help from the government.

They did a heck of a job with what they had. My granddaddy ran a country store in a black neighborhood in a little town called Hope, Arkansas, and there were no food stamps, so when his black customers, who worked hard for a living, came in with no money, he gave them food anyway and just made a note of it. He knew that he was part of a community. They believed in family values. They believed in personal responsibility. But they also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had an obligation to help people who were doing the best they can.

And we made it. If you contrast that to the situation that exists in so much of America today, it is truly shocking. My wife and I were in Los Angeles a year and a half ago, in south-central L.A. in one of the drug-dominated areas, and we spent an hour and a half with a dozen sixth-graders, most of whom had never met their grandparents, could only imagine what a great-grandparent was, and one of them even told me he thought he may have to turn his own parents in for drug abuse.

And do you know what those kids were worried about? They were worried first about getting shot going to and from school, and second, they were most worried that when they turned 13 they would have to join a gang and do crack or they would get the living daylight beat out of them.

Now let me tell you something, friends. Those people do not care about the rhetoric of left and right and liberal and conservative and who is up and who is down and how we are positioned. They are real people, they have real problems, and they are crying desperately for someone who believes the purpose of government is to solve their problems and make progress, instead of posturing around and waiting for the next election.

And there are people like them all over America: A working man at home who asked me in the election, he said, Governor I believe in your education program, and I support raising taxes to pay for it, but I am doing the best I can. When will I ever do better?

A widow with four children I met in the cafe who said, I know I could go on welfare and get medical coverage for my kids, but I think it is immoral if I can work, so I come here and work every day. But what am I going to do if my children get sick?

Those people do not care about the idle rhetoric that has paralyzed American politics. They want a new choice, and they deserve a new choice, and we ought to give it to them.

Do you really believe that if we permit these conditions to go on for 10, or 20, or 30 years and we permit national politics to continue in its present irrelevant track for 10, or 20, or 30 years that America will lead the world we have made, that you can keep the American Dream alive for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s?

I want my child to grow up in the America I did; I do not want her to be part of the first generation of Americans to do worse than their parents did. I do not want her to be a part of a country that is coming apart instead of coming together.

Over 25 years ago, I had a professor of western civilization who told me our country was the greatest country in human history because our people had always believed in two simple things. One is that the present does not have to be as good as the future. The future can always be better. And two, that every one of us has a personal, moral responsibility to make it so. That is what the new choice is all about. That is what we are here in Cleveland to do.

We are not here to save the Democratic Party. We are here to sa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very much, and God bless you.

1992 Democratic Party Platform

Table of Contents:

Preamble	Restoring Community
Opportunity - The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batting Crime and Drugs • Community Policing • Firearms • Pursuing ALL Crime Aggressively • Further Initiatives • Empowering the Poor • Immigration • Housing • National Service • The Arts • Preserving Our National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sting in America • Support for Innovation • The Deficit • Defense Conversion • The Cities • Agriculture and the Rural Community • Workers' Rights • Life Long Learning • Domestic GI Bill • Affordable Health Care • Fairness • Energy • Civil and Equal Rights 	Restructuring Our Military Forces
Respon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itary Strength • Use of Force • Preventing and Combatting Conflict • Restoring America's Economic Leadership • Trade and Trade Agreements • Promoting Democracy • Emerging Democracies • Human Rights • Human Needs • Preserving the Global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y • Welfare • Choice • Education • Labor-Management • The Environment • Responsible Government • Officials 	Conclusion

Preamble

Two hundred summers ago, this Democratic Party was founded by the man whose burning pen fired the spirit of the American Revolution -- who once argued we should overthrow our own government every 20 years to renew our freedom and keep pace with a changing world. In 1992, the party Thomas Jefferson founded invokes his spirit of revolution anew.

Our land reverberates with a battle cry of frustration that emanates from America's very soul -- from the families in our bedrock neighborhoods, from the unsung, workaday heroes of the world's greatest democracy and economy. America is on the wrong track. The American people are hurting. The American Dream of expanding opportunity has faded. Middle class families are working hard, playing by the rules, but still falling behind. Poverty has exploded. Our people are torn by divisions.

The last 12 years have been a nightmare of Republican irresponsibility and neglect. America's leadership is indifferent at home and uncertain in the world. Republican mismanagement has disarmed government as an instrument to make our economy work and support the people's most basic values, needs and hopes. The Republicans brought America a false and fragile prosperity based on borrowing, not income, and so will leave behind a mountain of public debt and a backbreaking annual burden in interest. It is wrong to borrow to spend on ourselves, leaving our children to pay our debts.

We hear the anguish and the anger of the American people. We know it is directed not just at the Republican administrations that have had power, but at government itself.

Their anger is justified. We can no longer afford business as usual -- neither the policies of the last 12 years of tax breaks for the rich, mismanagement, lack of leadership and cuts in services for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nor the adoption of new programs and new spending without new thinking. It is time to listen to the grassroots of America, time to renew the spirit of citizen activism that has always been the touchstone of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we call for a revolution in government -- to take power away from entrenched bureaucracies and narrow interests in Washington and put it back in the hands of ordinary people. We vow to make government more decentralized, more flexible, and more accountable -- to reform public institutions and replace public officials who aren't leading with ones who will.

The Revolution of 1992 is about restoring America's economic greatness. We need to rebuild America by abandoning the something-for-nothing ethic of the last decade and putting people first for a change. Only a thriving economy, a strong manufacturing base, and growth in creative new enterprise can generate the resources to meet the nation's pressing human and social needs. An expanding, entrepreneurial economy of high- skill, high-wage jobs is the most important family policy, urban policy, labor policy, minority policy and foreign policy America can have.

The Revolution of 1992 is about putting government back on the side of working men and women -- to help those who work hard, pay their bills, play by the rules, don't lobby for tax breaks, do their best to give their kids a good education and to keep them away from drugs, who want a safe neighborhood for their families, the security of decent, productive jobs for themselves, and a dignified life for their parents.

The Revolution of 1992 is about a radical change in the way government operates -- not the Republican proposition that government has no role, nor the old notion that there's a program for every problem, but a shift to a more efficient, flexible and results-oriented government that improves services, expands choices, and empowers citizens and communities to change our country from the bottom up. We believe in an activist government, but it must work in a different, more responsive way.

The Revolution of 1992 is about facing up to tough choices. There is no relief for America's frustration in the politics of diversion and evasion, of false choices or of no choices at all. Instead of everyone in Washington blaming one another for inaction, we will act decisively -- and ask to be held accountable if we don't.

Above all the Revolution of 1992 is about restoring the basic American values that built this country and will always make it great: personal responsibility, individual liberty, tolerance, faith, family and hard work. We offer the American people not only new ideas, a new course, and a new President, but a return to the enduring principles that set our nation apart: the promise of opportunity, the strength of community, the dignity of work, and a decent life for senior citizens.

To make this revolution, we seek a New Covenant to repair the damaged bond between the American people and their government, that will expand opportunity, insist upon greater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return, restore community, and ensure national security in a profoundly new era.

We welcome the close scrutiny of the American people, including Americans who may have thought the Democratic Party had forgotten its way, as well as all who know us as the champions of those who have been denied a chance. With this platform we take our case for change to the American people.

I. OPPORTUNITY

Our Party's first priority is opportunity -- broad-based, non-inflationary economic growth and the opportunity that flows from it. Democrats in 1992 hold nothing more important for America than an economy that offers growth and jobs for all.

President Bush, with no interest in domestic policy, has given America the slowest economic growth, the slowest income growth, and the slowest jobs growth since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American people know the long Bush recession reflects not just a business cycle, but a long-term slide, so that even in a fragile recovery we're sinking. The ballooning Bush deficits hijacked capital from productive investments. Savings and loan sharks enriched themselves at their country's expense. The stock market tripled, but average incomes stalled, and poverty claimed more of our children.

We reject both the do-nothing government of the last twelve years and the big government theory that says we can hamstring business and tax and spend our way to prosperity. Instead we offer a third way. Just as we have always viewed working men and women as the bedrock of our economy, we honor business as a noble endeavor, and vow to create a far better climate for firm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of all sizes that empower their workers, revolutionize their workplaces, respect the environment, and serve their communities well.

We believe in free enterprise and the power of market forces. But economic growth will not come without a national economic strategy to invest in people. For twelve years our country has had no economic vision, leadership or strategy. It is time to put our people and our country first.

Investing In America.

The only way to lay the foundation for renewed American prosperity is to spur both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We must strive to close both the budget deficit and the investment gap. Our major competitors invest far more than we do in roads, bridges, and the information networks and technologies of the future. We will rebuild America by investing more in transportation, environmental technologies, defense conversion, and a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To begin making our economy grow, the President and Congress should agree that savings from defense must be reinvested productively at home, including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and other productive investments. This will sharply increase the meager nine percent of the national budget now devoted to the future. We will create a "future budget" for investments that make us richer, to be kept separate from those parts of the budget that pay for the past and present. For the private sector, instead of a sweeping capital gains windfall to the wealthy and those who speculate, we will create an investment tax credit and a capital gains reduction for patient investors in emerging technologies and new businesses.

Support for Innovation.

We will take back the advantage now ceded to Japan and Germany, which invest in new technologies at higher rates than the U.S. and have the growth to show for it. We will make the R&D tax credit permanent, double basic research in the key technologies for our future, and create a civilian research agency to fast-forward their development.

The Deficit.

Addressing the deficit requires fair and shared sacrifice of all Americans for the common good. In 12 Republican years a national debt that took 200 years to accumulate has been quadrupled. Rising interest on that debt now swallows one tax dollar in seven. In place of the Republican supply-side disaster, the Democratic investment, economic conversion and growth strategy will generate more revenues from a growing economy. We must also tackle spending, by putting everything on the table; eliminate nonproductive programs; achieve defense savings; reform entitlement programs to control soaring health care costs; cut federal administrative costs by 3 percent annually for four years; limit increases in the "present budget" to the rate of growth in the average American's paycheck; apply a strict "pay as you go" rule to new non-investment spending; and make the rich pay their fair share in taxes. These choices will be made while protecting senior citizens and without further victimizing the poor. This deficit reduction effort will encourage private savings, eliminate the budget deficit over time, and permit fiscal policies that can restore America's economic health.

Defense Conversion.

Our economy needs both the people and the funds released from defense at the Cold War's end. We will help the stalwarts of that struggle -- the men and women who served in our armed forces and who work in our defense industries -- make the most of a new era. We will provide early notice of program changes to give communities, businesses and workers enough time to plan. We will honor and support our veterans. Departing military personnel, defense workers, and defense support personnel will have access to job

retraining, continuing education, placement and relocation assistance, early retirement benefits for military personnel, and incentives to enter teaching, law enforcement and other vital civilian fields. Redirected national laboratories and a new civilian research agency will put defense scientists, engineers and technicians to work in critical civilian technologies. Small business defense firms will have technical assistance and transition grants and loans to help convert to civilian markets, and defense dependent communities will have similar aid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conversion. We will strongly support our civilian space program, particularly environmental missions.

The Cities.

Only a robust economy will revitalize our cities. It is in all Americans' interest that the cities once again be places where hard-working families can put down roots and find good jobs, quality health care, affordable housing, and decent schools. Democrats will create a new partnership to rebuild America's cities after 12 years of Republican neglect. This partnership with the mayors will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seven economic growth initiatives set forth by our nation's mayors. We will create jobs by investing significant resources to put people back to work, beginning with a summer jobs initiative and training programs for inner-city youth. We support a stronger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and targeted fiscal assistance to cities that need it most. A national public works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program will provide jobs and strengthen our cities, suburbs, rural communities and country. We will encourage the flow of investment to inner city development and housing through targeted enterprise zones and incentives for private and public pension funds to invest in urban and rural projects. While cracking down on redlining and housing discrimination, we also support and will enforce a revitalized Community Reinvestment Act that challenges banks to lend to entrepreneurs and development projects; a national network of Community Development Banks to invest in urban and rural small businesses; and microenterprise lending for poor people seeking self-employment as an alternative to welfare.

Agriculture and the Rural Community.

All Americans, producers and consumers alike, benefit when our food and fiber are produced by hundreds of thousands of family farmers receiving fair prices for their products. The abundance of our nation's food and fiber system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The revolution that lifted America to the forefront of world agriculture was achieved through a unique partnership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e inattention and hostility that has characterized Republican food,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past twelve years have caused a crisis in rural America. The cost of Republican farm policy has been staggering and its total failure is demonstrated by the record number of rural bankruptcies.

A suffic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economy can be achieved through fiscally responsible programs. It is time to reestablish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to ensure that family farmers get a fair return for their labor and investment, so that consumers receive safe and nutritious foods, and that needed investments are made in basic research, education, rural business development, market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to sustain rural communities.

Workers' Rights.

Our workplaces must be revolutionized to make them more flexible and productive. We will reform the

job safety laws to empower workers with greater rights and to hold employers accountable for dangers on the job. We will act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e will honor the work ethic -- by expanding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so no one with children at home who works full-time is still in poverty; by fighting on the side of family farmers to ensure they get a fair price for their hard work; by working to sustain rural communities; by making work more valuable than welfare; and by supporting the right of workers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without fear of intimidation or permanent replacement during labor disputes.

Lifelong Learning.

A competitive American economy requires the global market's best educated, best trained, most flexible workforce. It's not enough to spend more on our schools; we must insist on results. We oppose the Bush Administration's efforts to bankrupt the public school system -- the bedrock of democracy -- through private school vouchers. To help children reach school ready to learn, we will expand child health and nutrition programs and extend Head Start to all eligible children, and guarantee all children access to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We deplore the savage inequalities among public schools across the land, and believe every child deserves an equal chance to a world class education. Reallocating resources toward this goal must be a priority. We support education reforms such as site-based decision-making and public school choice, with strong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We support the goal of a 90 percent graduation rate, and programs to end dropouts. We will invest in educational technology, and establish world-class standards in math, science and other core subjects and support effective tests of progress to meet them. In areas where there are no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s, we will adopt a national apprenticeship-style program to ease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for non-college bound students so they can acquire skills that lead to high-wage jobs. In the new economy, opportunity will depend on lifelong learning. We will support the goal of literacy for all Americans. We will ask firms to invest in the training of all workers, not just corporate management.

A Domestic GI Bill.

Over the past twelve years skyrocketing costs and declining middle class incomes have placed higher education out of reach for millions of Americans. It is time to revolutionize the way student loan programs are run. We will make college affordable to all students who are qualified to attend, regardless of family income. A Domestic G.I. Bill will enable all Americans to borrow money for college, so long as they are willing to pay it back as a percentage of their income over time or through national service addressing unmet community needs.

Affordable Health Care.

All Americans should have universal access to quality, affordable health care -- not as a privilege, but as a right. That requires tough controls on health costs, which are rising at two to three times the rate of inflation, terrorizing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and depriving millions of the care they need. We will enact a uniquely American reform of the health care system to control costs and make health care affordable; ensure quality and choice of health care providers; cover all Americans regardless of preexisting conditions; squeeze out waste, bureaucracy and abuse; improve primary and preventive care including child immunization and prevention of diseases like Tuberculosis now becoming rampant in our cities; provide

expanded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 and health; expand access to mental health treatment services; provide a safety net through support of public hospitals; provide for the full range of reproductive choice -- education, counseling, access to contraceptives, and the right to a safe, legal abortion; expand medical research; and provide more long term care, including home health care. We will make ending the epidemic in breast cancer a major priority, and expand research on breast, cervical and ovarian cancer, infertility,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other special health needs of women. We must be united in declaring war on AIDS and HIV disease,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AIDS and fully fund the Ryan White Care Act; provide targeted and honest prevention campaigns; combat HIV-related discrimination; make drug treatment available for all addicts who seek it; guarantee access to quality care; expand clinical trials for treatments and vaccines; and speed up the FDA drug approval process.

Fairness.

Growth and equity work in tandem. People should share in society's common costs according to their ability to pay. In the last decade, mounting payroll and other taxes have fallen disproportionately on the middle class. We will relieve the tax burden on middle class Americans by forcing the rich to pay their fair share. We will provide long-overdue tax relief to families with children. To broaden opportunity, we will support fair lending practices.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reject the Republican myth that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enemies of economic growth. We will make our economy more efficient, by using less energy, reducing our dependence on foreign oil, and producing less solid and toxic waste. We will adopt a coordinated transportation policy, with a strong commitment to mass transit; encourage efficient alternative-fueled vehicles; increase our reliance on clean natural gas; promote clean coal technology; invest in R&D on renewable energy sources; strengthen efforts to prevent air and water pollution; support incentives for domestic oil and gas operations; and push for revenue-neutral incentives that reward conservation, prevent pollution and encourage recycling.

Civil and Equal Rights.

We don't have an American to waste. Democrats will continue to lead the fight to ensure that no Americans suffer discrimination or deprivation of rights on the basis of race, gender, language, national origin, religion, age,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irrelevant to ability. We support the ratification of the Equal Rights Amendment; affirmative action; stronger protection of voting rights for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including language access to voting; and continued resistance to discriminatory English-only pressure groups. We will reverse the Bush Administration's assault on civil rights enforcement, and instead work to rebuild and vigorously use machinery for civil rights enforcement; support comparable remedies for women; aggressively prosecute hate crimes; strengthen legal services for the poor; deal with other nations in such a way that Americans of any origin do not become scapegoats or victims of foreign policy disputes; provide civil rights protection for gay men and lesbians and an end to Defense Department discrimination; respect Native American culture and our treaty commitments; requir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recognize its trustee obligations to the inhabitants of Hawaii generally, and to Native

Hawaiians in particular; and fully enforce 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to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achieve independence and function at their highest possible level.

Commonwealths and Territories.

We recognize the existing status of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the strong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of Puerto Rico and the United States. We pledge to support the right of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to choose freely, and in concert with the U.S. Congress,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either as an enhanced commonwealth, a state or an independent nation. We support fair participation for Puerto Rico in federal programs. We pledge to the people of American Samoa, Guam,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Virgin Islands just and fair treatment under federal policies, assisting thei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e respect their right and that of the people of Palau to decide freely their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be consulted on issues and policies that directly affect them.

II. RESPONSIBILITY

Sixty years ago, Franklin Roosevelt gave hope to a nation mired in the Great Depression. While government should promise every American the opportunity to get ahead, it was the people's responsibility, he said, to make the most of that opportunity: "Faith in America demands that we recognize the new terms of the old social contract. In the strength of great hope we must all shoulder our common load."

For twelve years, the Republicans have expected too little of our public institutions and placed too little faith in our people. We offer a new social contract based neither on callous, do-nothing Republican neglect, nor on an outdated faith in programs as the solution to every problem. We favor a third way beyond the old approaches -- to put government back on the side of citizens who play by the rules. We believe that by what it says and how it conducts its business, government must once again make responsibility an instrument of national purpose. Our future as a nation depends upon the daily assumption of personal responsibility by millions of Americans from all walks of life -- for the religious faiths they follow, the ethics they practice, the values they instill, and the pride they take in their work.

Strengthening The Family.

Governments don't raise children, people do. People who bring children into this world have a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em and give them values, motivation and discipline. Children should not have children. We need a national crackdown on deadbeat parents, an effective system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nationwide, and a systematic effort to establish paternity for every child. We must also make it easier for parents to build strong families through pay equity. Family and medical leave will ensure that workers don't have to choose between family and work. We support a family preservation program to reduce child and spousal abuse by providing preventive services and foster care to families in crisis. We favor ensuring quality and affordable child care opportunities for working parents, and a fair and healthy start for every child, including essential pre-natal and well baby care. We support the needs of our senior citizens for productive and healthy lives, including hunger prevention, income adequacy, transportation access and abuse prevention.

Welfare Reform.

Welfare should be a second chance, not a way of life. We want to break the cycle of welfare by adhering to two simple principles: no one who is able to work can stay on welfare forever, and no one who works should live in poverty. We will continue to help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We will offer people on welfare a new social contract. We'll invest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and provide the child care and health care they need to go to work and achieve long-term self-sufficiency. We will give them the help they need to make the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and require people who can work to go to work within two years in available jobs either in the private sector or in community service to meet unmet needs. This will restore the covenant that welfare was meant to be: a promise of temporary help for people who have fallen on hard times.

Choice.

Democrats stand behind the right of every woman to choose, consistent with *Roe v. Wade*, regardless of ability to pay, and support a national law to protect that right.

It i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liberty that individual Americans -- not government -- can best take responsibility for making the most difficult and intensely personal decisions regarding reproduction. The goal of our nation must be to make abortion less necessary, not more difficult or more dangerous. We pledge to support contraceptive research, family planning, comprehensive family life education, and policies that support healthy childbearing and enable parents to care most effectively for their children.

Making Schools Work.

Education is a cooperative enterprise that can only succeed if everyone accepts and exercises personal responsibility. Students must stay in school and do their best; parents must get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eachers must attain, maintain, and demonstrate classroom competency; school administrators must enforce discipline and high standards of educational attainment; governments must end the inequalities that create educational ghettos among school districts and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and ensure that teachers' pay measures up to their decisive role in children's lives; and the American people should recognize education as the core of our economy, democracy and society. Labor-Management Responsibilities.

The private sector is the engine of our economy and the main source of national wealth. But it is not enough for those in the private sector just to make as much money as they can. The most irresponsible people in all of the 1980s were those at the top of the ladder: the inside traders, quick buck artists, and S&L kingpins who looked out for themselves and not for the country. America's corporate leaders have a responsibility to invest in their country. CEOs, who pay themselves 100 times what they pay the average worker, shouldn't get big raises unrelated to performance. If a company wants to overpay its executives and underinvest in the future or transfer jobs overseas, it shouldn't get special treatment and tax breaks from the Treasury. Managers must work with employees to make the workplace safer, more satisfying and more efficient.

Workers must also accept added responsibilities in the new economy. In return for an increased voice and a greater stake in the success of their enterprises, workers should be prepared to join in cooperative efforts to

increase productivity, flexibility and quality. Government's neutr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annot mean neutrality about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which has been purposely crippled by Republican administrations. Our economic growth depends on processes, including collective bargaining, that permit labor and management to work together on their common interests, even as they work out their conflicts.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For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we must protect our environment. We will protect our old growth forests, preserve critical habitats, provide a genuine "no net loss" policy on wetlands, reduce our dependence on toxic chemicals, conserve the critical resources of soil, water and air, oppose new offshore oil drilling and miner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in our nation's many environmentally critical areas, and address ocean pollution by reducing oil and toxic waste spills at sea. We believe America's youth can serve its country well through a civilian conservation corps.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we will clean up the environmental horrors at federal facilities, insist that private polluters clean up their toxic and hazardous wastes, and vigorously prosecute environmental criminals. We will oppose Republican efforts to gut the Clean Air Act in the guise of competitiveness.

We will reduce the volume of solid waste and encourage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while discouraging excess packaging. To avoid the mistakes of the past, we will actively support energy- efficiency, recycling, and pollution prevention strategies.

Responsible Government.

Democrats in 1992 intend to lead a revolution in government, challenging it to act responsibly and be accountable, starting with the hardest and most urgent problems of the deficit and economic growth. Rather than throw money at obsolete programs, we will eliminate unnecessary layers of management, cut administrative costs, give people more choices in the service they get, and empower them to make those choices. To foster greater responsibility in government at every level, we support giving greater flexibility to our cities, counties and states in achieving Federal mandates and carrying out existing programs.

Responsible Officials.

All branches of government must live by the laws the rest of us obey, determine their pay in an open manner that builds public trust, and eliminate special privileges. People in public office need to be accessible to the people they represent. It's time to reform the campaign finance system, to get big money out of our politics and let the people back in. We must limit overall campaign spending and limit the disproportionate and excessive role of PACs. We need new voter registration laws that expand the electorate, such as universal same-day registration, along with full political rights and protections for public employees and new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airwaves truly help citizens make informed choices among candidates and policies. And we need fair political representation for all sectors of our country -- including the District of Columbia, which deserves and must get statehood status.

III. RESTORING COMMUNITY

The success of democracy in America depends substantially on the strength of our community institutions: families and neighborhoods, public schools, religious institutions, charitable organizations, civic groups and other voluntary organizations. In these social networks, the values and character of our citizens are formed, as we learn the habits and skills of self-government, and acquire an understanding of our comm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citizens.

Twelve years of Republican rule have undermined the spirit of mutual dependence and obligation that binds us together. Republican leaders have urged Americans to turn inward, to pursue private interests without regard to public responsibilities. By playing racial, ethnic and gender-based politics they have divided us against each other, created an atmosphere of blame, denial and fear, and undone the hard-fought battles for equality and fairness.

Our communities form a vital "third sector" that lies between government and the marketplace. The wisdom, energy and resources required to solve our problems are not concentrated in Washington, but can be found throughout our communities, including America's non-profit sector, which has grown rapidly over the last decade. Government's best role is to enable people and communities to solve their own problems.

America's special genius has been to forge a community of shared values from people of remarkable and diverse backgrounds. As the party of inclusion, we take special pride in our country's emergence as the world's largest and most successful multiethnic, multiracial republic. We condemn antisemitism, racism, homophobia, bigotry and negative stereotyping of all kinds. We must help all Americans understand the diversity of our cultural heritage. But it is also essential that we preserve and pass on to our children the common elements that hold this mosaic together as we work to make our country a land of freedom and opportunity for all.

Both Republican neglect and traditional spending programs have proven unequal to these challenges. Democrats will pursue a new course that stresses work, family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that empowers Americans to liberate themselves from poverty and dependence. We pledge to bolster the institutions of civil society and place a new emphasis on civic enterprises that seek solutions to our nation's problems. Through common, cooperative efforts we can rebuild our communities and transform our nation.

Combatting Crime and Drugs. Crime is a relentless danger to our communities. Over the last decade, crime has swept through our country at an alarming rate. During the 1980s, more than 200,000 Americans were murdered, four times the number who died in Vietnam. Violent crimes rose by more than 16 percent since 1988 and nearly doubled since 1975. In our country today, a murder is committed every 25 minutes, a rape every six minutes, a burglary every 10 seconds. The pervasive fear of crime disfigures our public life and diminishes our freedom.

None suffer more than the poor: an explosive mixture of blighted prospects, drugs and exotic weaponry has turned many of our inner city communities into combat zones. As a result, crime is not only a symptom but also a major cause of the worsening poverty and demoralization that afflicts inner city communities.

To empower America's communities, Democrats pledge to restore government as the upholder of basic

law and order for crime-ravaged communities. The simplest and most direct way to restore order in our cities is to put more police on the streets.

America's police are locked in an unequal struggle with crime: since 1951 the ratio of police officers to reported crimes has reversed, from three-to-one to one-to-three. We will create a Police Corps, in which participants would receive college aid in return for several years of service after graduation in a state or local police department. As we shift people and resources from defense to the civilian economy, we will create new jobs in law enforcement for those leaving the military.

We will expand drug counselling and treatment for those who need it, intensify efforts to educate our children at the earliest ages to the dangers of drug and alcohol abuse, and curb demand from the street corner to the penthouse suite, so that the U.S., with five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no longer consumes 50 percent of the world's illegal drugs.

Community Policing.

Neighborhoods and police should be partners in the war on crime. Democrats support more community policing, which uses foot patrols and storefront offices to make police officers visible fixtures in urban neighborhoods. We will combat street violence and emphasize building trust and solving the problems that breed crime.

Firearms.

It is time to shut down the weapons bazaars in our cities. We support a reasonable waiting period to permit background checks for purchases of handguns, as well as assault weapons controls to ban the possession, sale, importation and manufacture of the most deadly assault weapons. We do not support efforts to restrict weapons used for legitimate hunting and sporting purposes. We will work for swift and certain punishment of all people who violate the country's gun laws and for stronger sentences for criminals who use guns. We will also seek to shut down the black market for guns and impose severe penalties on people who sell guns to children.

Pursuing All Crime Aggressively.

In contrast to the Republican policy of leniency toward white collar crime -- which breeds cynicism in poor communities about the impartiality of our justice system -- Democrats will redouble efforts to ferret out and punish those who betray the public trust, rig financial markets, misuse their depositors' money or swindle their customers.

Further Initiatives.

Democrats also favor innovative sentencing and punishment options, including community service and boot camps for first time offenders; tougher penalties for rapists; victim-impact statements and restitution to ensure that crime victims will not be lost in the complexitie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itiatives to make our schools safe, including alternative schools for disruptive children.

Empowering The Poor and Expanding The Middle Class.

We must further the new direction set in the Family Support Act of 1988, away from subsistence and dependence and toward work, family and personal initiative and responsibility. We advocate slower phasing out of Medicaid and other benefits to encourage work; special savings accounts to help low-income families build assets; fair lending; an indexed minimum wage; an expanded Job Corps; and an end to welfare rules that encourage family breakup and penalize individual initiative, such as the \$1,000 limit on personal savings.

Immigration.

Our nation of immigrants has been invigorated repeatedly as new people, ideas and ways of life have become part of the American tapestry. Democrats support immigration policies that promote fairness, non-discrimina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and that reflect our constitutional freedoms of speech, association and travel.

Housing. Safe, secure housing is essential to the institutions of community and family. We support homeownership for working families and will honor that commitment through policies that encourage affordable mortgage credit. We must also confront homelessness by renovating, preserving and expanding the stock of affordable low-income housing. We support tenant management and ownership, so public housing residents can manage their own affairs and acquire property worth protecting.

National Service.

We will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serve each other, their communities and their country. By mobilizing hundreds of thousands of volunteers, national service will enhance the role of ordinary citizens in solving unresolved community problems.

The Arts.

We believe in public support for the Arts, including 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at is free from political manipulation and firmly rooted in the First Amendment's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

IV. PRESERVING OUR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past four years, we have seen the corrosive effect of foreign policies that are rooted in the past, divorced from our values, fearful of change and unable to meet its challenges. Under President Bush, crises have been managed, rather than prevented; dictators like Saddam Hussein have been wooed, rather than deterred; aggression by the Serbian regime against its neighbors in what was Yugoslavia has been met by American timidity rather than toughness; human rights abusers have been rewarded, not challenged; the environment has been neglected, not protected; and America's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economy has been dulled, not honed. It is time for new American leadership that can meet the challenges of a changing world.

At the end of World War II, American strength had defeated tyranny and American ingenuity had overcome the Depression. Under President Truman, the United States led the world into a new era, redefining global security with bold approaches to tough challenges: containing communism with the NATO alliance and in Korea; building the peace through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advancing global economic security through new multilateral institutions.

Nearly a half century later, we stand at another pivotal point in history. The collapse of communism does not mean the end of danger or threats to our interests. But it does pos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make our future more secure and prosperous. Once again, we must define a compelling vision for global leadership at the dawn of a new era.

Restructuring Our Military Forces.

We have not seen the end of violence, aggression and the conflicts that can threaten American interests and our hopes for a more peaceful world.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is not the Bush Administration's Cold War thinking on a smaller scale, but a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the American military enterprise to meet the threats that remain.

Military Strength.

America is the world's strongest military power and we must remain so. A post-Cold War restructuring of American forces will produce substantial savings beyond those promi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but that restructuring must be achieved without undermining our ability to meet future threats to our security. A military structure for the 1990's and beyond must be built on four pillars: First, a survivable nuclear force to deter any conceivable threat, as we reduce our nuclear arsenals through arms control negotiations and other reciprocal action. Second, conventional forces shifted toward projecting power wherever our vital national interests are threatened. This means reducing the size of our forces in Europe, while meeting our obligations to NATO, and strengthening our rapid deployment capabilities to deal with new threats to our security posed by renegade dictators, terrorists, international drug traffickers, and the local armed conflicts that can threaten the peace of entire regions. Third, maintenance of the two qualities that make America's military the best in the world -- the superiority of our military personnel and of our technology. These qualities are vital to shortening any conflict and saving American lives. Fourth, intelligence capabilities redirected to develop far more sophisticated, timely and accurate analyses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that can fuel new conflicts.

Use Of Force.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to use military force decisively when necessary to defend our vital interests. The burdens of collective security in a new era must be shared fairly, and we should encourage multilateral peacekeeping through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efforts.

Preventing And Containing Conflict.

American policy must be focused on averting military threats as well as meeting them. To halt the spread of nuclear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must lead a renewed international effort to get tough

with companies that peddle nuclear and chemical warfare technologies,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enforce strong sanctions against governments that violate international restraints. A Comprehensive Test Ban would strengthen our ability to stop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 other countries, which may be our greatest future security threat. We must press for strong international limits on the dangerous and wasteful flow of conventional arms to troubled regions. A U.S. troop presence should be maintained in South Korea as long as North Korea presents a threat to South Korea.

Restoring America's Economic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cannot be strong abroad if it is weak at home. Restoring America's global economic leadership must become a central element of our national security policies. The strength of nations, once defined in military terms, now is measured also by the skills of their workers, the imagination of their managers and the power of their technologies.

Either we develop and pursue a national plan for restoring our economy through a partnership of government, labor and business, or we slip behind the nations that are competing with us and growing. At stake are American jobs, our standard of living and the quality of life for ourselves and our children.

Economic strength -- indeed our national security -- is grounded on a healthy domestic economy. But we cannot be strong at home unless we are part of a vibrant and expanding global economy that recognizes human rights and seeks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all the world's people. This is vital to achieving good quality, high paying jobs for Americans.

Trade. Our government must work to expand trade, while insisting that the conduct of world trade is fair. It must fight to uphold American interests -- promoting exports, expanding trade in agricultural and other products, opening markets in major product and service sectors with our principal competitors, and achieving reciprocal access. This should include renewed authority to use America's trading leverage against the most serious problems. The U.S. government also must firmly enforce U.S. laws against unfair trade.

Trade Agreements.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can advance our economic interests by expanding the global economy. Whether negotiating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NAFTA) or completing the GATT negotiations, our government must assure that our legitimate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nd labor standards are included. Those American workers whose jobs are affected must have the benefit of effective adjustment assistance.

Promoting Democracy.

Brave men and women -- like the hero who stood in front of a tank in Beijing and the leader who stood on a tank in Moscow -- are putting their lives on the line for democracy around the world. But as the tide of democracy ros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China, in the Baltics and South Africa, only reluctantly did this Administration abandon the status quo and embrace the fight for freedom.

Support for democracy serves our ideals and our interests. A more democratic world is a world that is more peaceful and more stable. An American foreign policy of engagement for democracy must effectively address:

Emerging Democracies.

Helping to lead an international effort to assist the emerging -- and still fragile -- democracies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build democratic institutions in free market settings, demilitarize their societies and integrate their economies into the world trading system. Unlike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waited too long to recognize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s in the Baltic countries and the nations of the former Soviet Union, we must act decisively with our European allies to support freedom, diminish ethnic tensions, and oppose aggression in the form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Bosnia-Herzegovina, which are struggling to make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democracy. As change sweeps through the Balkans, the United States must be sensitive to the concerns of Greece regarding the use of the name Macedonia. And in the post-Cold War era, our foreign assistance programs in Africa, the Caribbean, Latin America and elsewhere should be targeted at helping democracies rather than tyrants.

Democracy Corps.

Promoting democratic institutions by creating a Democracy Corps to send American volunteers to countries that seek legal, financial and political expertise to buil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support groups like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the Asia Foundation, and others.

China Trade Terms.

Conditioning of favorable trade terms for China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hina and Tibet, greater market access for U.S. goods, and responsible conduct on weapons proliferation.

South Africa.

Maintenance of state and local sanctions against South Africa in support of an investment code of conduct, existing limits on deductibility of taxes paid to South Africa, and diplomatic pressure until there is an irreversible, full and fair accommodation with the black majority to create a democratic government with full rights for all its citizens. We deplore the continuing violence, especially in Boipatong Township, and are concerned about the collapse of the negotiations. The U.S. Government should consider reimposing Federal sanctions. The Democratic Party supports the creation of a South African/American Enterprise Fund that will provide a new interim government with public and private funds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outh Africa.

Middle East Peace.

Support for the peace process now underway in the Middle East, rooted in the tradition of the Camp David accords. Direct negotiations between Israel, her Arab neighbors and Palestinians, with no imposed solutions, are the only way to achieve enduring security for Israel and full peace for all parties in the region. The end of the Cold War does not alter America's deep interest in our longstanding special relationship with

Israel, based on shared values, a mutual commitment to democracy, and a strategic alliance that benefits both nations. The United States must act effectively as an honest broker in the peace process. It must not, as has been the case with this Administration, encourage one side to believe that it will deliver unilateral concessions from the other. Jerusalem is the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and should remain an undivided city accessible to people of all faiths.

Human Rights.

Standing everywhere for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respect for ethnic minorities against the repressive acts of governments -- against torture, political imprisonment, and all attacks on civilized standards of human freedom. This is a proud tradition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s stood for freedom in South Africa and continues to resist oppression in Cuba. Our nation should once again promote the principle of sanctuary for politically oppressed people everywhere, be they Haitian refugees, Soviet Jews seeking U.S. help in their successful absorption into Israeli society, or Vietnamese fleeing communism. Forcible return of anyone fleeing political repression is a betrayal of American values.

Human Needs.

Support for the struggle against poverty and disease in the developing world, including the heartbreaking famine in Africa. We must not replace the East-West conflict with one between North and South, a growing divide between the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world. Our development programs must be reexamined and restructured to assure that their benefits truly help those most in need to help themselves. At stake are the lives of millions of human beings who live in hunger, uprooted from their homes, too often without hope. The United States should work to establish a specific plan and timetable for the elimination of world hunger.

Cyprus.

A renewed commitment to achieve a Cyprus settlement pursuant to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This goal must now be restored to the diplomatic agenda of the United States.

Northern Ireland.

In light of America's historic ties to the peopl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consistent with our country's commitment to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a more active United States role in promoting peace and political dialogue to bring an end to the violence and achieve a negotiated solution in Northern Ireland.

Preserving The Global Environment.

As the threat of nuclear holocaust recedes, the future of the earth is challenged by gathering environmental crises.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sought the path to concerted action, the Bush Administration -- despite its alleged foreign policy expertise -- has been more of an obstacle to progress than a leader for change, practicing isolationism on an issue that affects us all. Democrats know we must act now to save the health of the earth, and the health of our children, for generations to come.

Addressing Global Warming.

The United States must become a leader, not an impediment, in the fight against global warming. We should join our European allies in agreeing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to 1990 levels by the year 2000.

Ozone Depletion.

The United States must be a world leader in finding replacements for CFCs and other ozone depleting substances.

Biodiversity. We must work actively to protect the planet's biodiversity and preserve its forests. At the Rio Earth Summit, the Bush Administration's failure to negotiate a biodiversity treaty it could sign was an abdication of international leadership.

Developing Nations.

We must fashion imaginative ways of engaging governments and business in the effort to encourage developing nations to preserve their environmental heritage.

Population Growth.

Explosive population growth must be controlled by working closely with other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n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fund greater family planning efforts.

As a nation and as a people, we have entered into a new era. The Republican President and his advisors are rooted in Cold War precepts and cannot think or act anew. Through almost a half century of sacrifice, constancy and strength, the American people advanced democracy's triumph in the Cold War. Only new leadership that restores our nation's greatness at home can successfully draw upon these same strengths of the American people to lead the world into a new era of peace and freedom.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brave people abroad face down tanks, defy coups, and risk exodus by boat on the high seas for a chance at freedom and the kind of opportunities we call the American Dream. It is time for Americans to fight against the decline of those same opportunities here at home.

Americans know that, in the end, we will all rise or fall together. To make our society one again, Democrats will restore America's founding values of family, community and common purpose.

We believe in the American people. We will challenge all Americans to give something back to their country. And they will be enriched in return, for when individuals assume responsibility, they acquire dignity. When people go to work, they rediscover a pride that was lost. When absent parents pay child support, they restore a connection they and their children need. When students work harder, they discover they can learn as well as any on earth. When corporate managers put their workers and long-term success ahead of short-term gain, their companies do well and so do they. When the leaders we elect assume responsibility for America's problems, we will do what is right to move America forward together.

Inaugural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Bill Clinton
First Inaugural Address
Wednesday, January 21, 1993

My fellow citizens, today we celebrate the mystery of American renewal. This ceremony is held in the depth of winter, but by the words we speak and the faces we show the world, we force the spring. A spring reborn in the world's oldest democracy, that brings forth the vision and courage to reinvent America. When our founders boldly declared America's independence to the world, and our purposes to the Almighty, they knew that America, to endure, would have to change. Not change for change sake, but change to preserve America's ideals: life, liberty, the pursuit of happiness.

Though we march to the music of our time, our mission is timeless. Each generation of American's must define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On behalf of our nation, I salute my predecessor, President Bush, for his half-century of service to America ... and I thank the millions of men and women whose steadfastness and sacrifice triumphed over depression, fascism and communism.

Today, a generation raised in the shadows of the Cold War assumes new responsibilities in a world warmed by the sunshine of freedom, but threatened still by ancient hatreds and new plagues. Raised in unrivalled prosperity, we inherit an economy that is still the world's strongest, but is weakened by business failures, stagnant wages, increasing inequality, and deep divisions among OUR OWN people.

When George Washington first took the oath I have just sworn to uphold, news travelled slowly across the land by horseback, and across the ocean by boat. Now the sights and sounds of this ceremony are broadcast instantaneously to billions around the world. Communications and commerce are global. Investment is mobile. Technology is almost magical, and ambition for a better life is now universal.

We earn our livelihood in America today in peaceful competition with people all across the Earth. Profound and powerful forces are shaking and remaking our world, and the URGENT question of our time is whether we can make change our friend and not our enemy. This new world has already enriched the lives of MILLIONS of Americans who are able to compete and win in it. But when most people are working harder for less, when others cannot work at all, when the cost of health care devastates families and threatens to bankrupt our enterprises, great and small; when the fear of crime robs law abiding citizens of their freedom; and when millions of poor children cannot even imagine the lives we are calling them to lead, we have not made change our friend.

We know we have to face hard truths and take strong steps, but we have not done so. Instead we have drifted, and that drifting has eroded our resources, fractured our economy, and shaken our confidence.

Though our challenges are fearsome, so are our strengths. Americans have ever been a restless, questing, hopeful people, and we must bring to our task today the vision and will of those who came before us. From our Revolution to the Civil War, to the Great Depression,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our people have always mustered the determination to construct from these crises the pillars of our history. Thomas Jefferson believed that to preserv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nation we would need dramatic change from time to time. Well, my fellow Americans, this is OUR time. Let us embrace it

Our democracy must be not only the envy of the world but the engine of our OWN renewal. There is nothing WRONG with America that cannot be cured by what is RIGHT with America.

And so today we pledge an end to the era of deadlock and drift, and a new season of American renewal has begun.

To renew America we must be bold. We must do what no generation has had to do before. We must invest more in our own people, in their jobs, and in their future, and at the same time cut our massive debt ... and we must do so in a world in which we must compete for every opportunity. It will not be easy. It will require sacrifice, but it can be done, and done fairly. Not choosing sacrifice for its own sake, but for OUR own sake. We must provide for our nation the way a family provides for its children. Our founders saw themselves in the light of posterity. We can do no less. Anyone who has ever watched a child's eyes wander into sleep knows what posterity is. Posterity is the world to come, the world for whom we hold our ideals, from whom we have borrowed our planet, and to whom we bear sacred responsibilities. We must do what America does best, offer more opportunity TO all and demand more responsibility FROM all.

It is time to break the bad habit of expecting something for nothing: from our government, or from each other. Let us all take more responsibility, not only for ourselves and our families, but for our communities and our country. To renew America we must revitalize our democracy. This beautiful capitol, like every capitol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is often a place of intrigue and calculation. Powerful people maneuver for position and worry endlessly about who is IN and who is OUT, who is UP and who is DOWN, forgetting those people whose toil and sweat sends us here and paves our way.

Americans deserve better, and in this city today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do better, and so I say to all of you here, let us resolve to reform our politics, so that power and privilege no longer shout down the voice of the people. Let us put aside personal advantage, so that we can feel the pain and see the promise of America. Let us resolve to make our government a place for what Franklin Roosevelt called "bold, persistent experimentation, a government for our tomorrows, not our yesterdays." Let us give this capitol back to the people to whom it belongs.

To renew America we must meet challenges abroad, as well as at home. There is no longer a clear division between what is foreign and what is domestic. The world economy, the world environment, the world AIDS crisis, the world arms race: they affect us all. Today as an old order passes, the new world is more free, but less stable. Communism's collapse has called forth old animosities, and new dangers. Clearly, America must continue to lead the world we did so much to make. While America rebuilds at home, we will not shrink from the challenges nor fail to seize the opportunities of this new world. Together with our friends and allies, we will work together to shape change, lest it engulf us. When our vital interests are challenged, or the will and consc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fied, we will act; with peaceful

diplomacy whenever possible, with force when necessary. The brave Americans serving our nation today in the Persian Gulf, in Somalia, and wherever else they stand, are testament to our resolve, but our greatest strength is the power of our ideas, which are still new in many lands. Across the world, we see them embraced and we rejoice. Our hopes, our hearts, our hands, are with those on every continent, who are building democracy and freedom. Their cause is America's cause. The American people have summoned the change we celebrate today. You have raised your voices in an unmistakable chorus, you have cast your votes in historic numbers, you have changed the face of congress, the presidency, and the political process itself. Yes, YOU, my fellow Americans, have forced the spring. Now WE must do the work the season demands. To that work I now turn with ALL the authority of my office. I ask the congress to join with me; but no president, no congress, no government can undertake THIS mission alone.

My fellow Americans, you, too, must play your part in our renewal. I challenge a new generation of YOUNG Americans to a season of service, to act on your idealism, by helping troubled children, keeping company with those in need, reconnecting our torn communities. There is so much to be done. Enough, indeed, for millions of others who are still young in spirit, to give of themselves in service, too. In serving we recognize a simple, but powerful, truth: we need each other, and we must care for one another. Today we do more than celebrate America, we rededicate ourselves to the very idea of America, an idea born in revolution, and renewed through two centuries of challenge, an idea tempered by the knowledge that but for fate, we, the fortunate and the unfortunate, might have been each other; an idea ennobled by the faith that our nation can summon from its myriad diversity, the deepest measure of unity; an idea infused with the conviction that America's journey long, heroic journey must go forever upward.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 we stand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let us begin anew, with energy and hope, with faith and discipline, and let us work until our work is done. The Scripture says: "And let us not be weary in well-doing,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From this joyful mountaintop of celebration we hear a call to service in the valley. We have heard the trumpets, we have changed the guard, and now each in our own way, and with God's help, we must answer the call.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The Third Way

DLC | Talking Points | June 13, 2000

The Third Way is a governing philosophy and a political strategy that is taking root in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throughout the world. It is leading them to success in facing the policy challenges of the Information Age and the political challenge of conservatism.

It is called "the Third Way" because it rejects both the big-government paternalism of the traditional left and the abandonment of public responsibilities by the contemporary right.

Instead of telling people "government will take care of you," or "you're on your own," the Third Way seeks to give people opportunity in exchange for the exercise of responsibility. The Third Way also seeks to create a public policy debate that transcends the stale left-right argument over the size and cost of government. It focuses on what government can actually do to help Americans solve their own problems.

The Third Way's first principle is equal opportunity for all and special privileges for none.

Its public ethic is mutual responsibility. Its core value is community. Its outlook is global. It embraces market means for pursuing public goals, and promotes empowering government that equips citizens with the tools they need to succeed. It aims at fostering private-sector growth--today's prerequisite for equal opportunity. It seek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mperatives of economic dynamism and social justice.

The purpose of the Third Way movement is to promote enduring progressive values through modern means.

It is rapidly becoming the most successful and influential political movement in the world, beginning with New Democrats in the U.S., extending to Prime Minister Tony Blair's New Labour in the United Kingdom, and now helping progressive parties win power and govern in Germany, the Netherlands, Italy, and Canada. Third Way ideas are becoming influential in Latin America, Australia, and New Zealand as well.

Led by New Democrats, the Third Way is helping prepare the Western world and its people for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a global Information Age. It promotes the enduring values of the progressive political tradition through new ideas for solving common problems.

It's Values And The Economy

DLC | Blueprint Magazine | July 12, 2001
Al From

In 1992, James Carville posted a sign in Bill Clinton's campaign headquarters that read: "It's the economy, stupid."

Three years later, the political commentator Ben Wattenberg wrote a book entitled Values Matter Most.

Economic priorities or cultural values -- who's right? After examining presidential elections over the past 20 years, I've concluded that the correct answer is both. Without winning on economic issues, Democrats aren't even competitive -- and without remaining competitive on values issues, they don't win.

Two decades ago, class divisions in voting were stark. Democrats won low-income voters -- Jimmy Carter in 1980 and Walter Mondale in 1984 won only the 15 percent of voters with the lowest incomes. Republicans won everyone else, including the decisive middle class.

In the 1990s, that changed. Bill Clinton's growth-oriented New Democrat economic policies made Americans more affluent -- nearly three in four voters today identify themselves as middle or upper middle class and seven in 10 own stock -- and convinced more affluent Americans to vote Democratic.

In 1996, Clinton won the middle and the upper middle class, losing only among the 18 percent of the voters with the highest incomes. In 2000, Al Gore split the middle class and ran competitively among the upper middle class, losing only the 15 percent with the highest incomes by a double-digit margin.

As long as we Democrats remain credible on economic growth with middle-class voters, the sharp class divisions that spelled doom for us in the 1980s are not likely to reappear.

But to build a durable majority, we need to close a large cultural gap. Gore lost big among married people with children, gun owners, regular churchgoers, pro-lifers, and advocates of limited government. He won among singles, non-gun owners, infrequent churchgoers, pro-choice voters, and advocates of bigger government. He won high school dropouts and voters with post-graduate degrees. But he lost the equivalent of the educational middle class -- high school graduates, voters with some college, and college grads.

That gap is most evident among white voters -- white men, in particular. And closing it is very complicated. While our pro-choice and pro-gun-safety positions work against us in rural areas, for example, they work for us in the growing suburban areas that are increasingly the key battlegrounds in American politics. A retreat to more conservative positions would be both morally wrong and politically counterproductive.

Nonetheless, I'm convinced that Democrats can successfully traverse this treacherous cultural terrain. In 1996, Clinton won among married people with kids, and he cut his losses among gun owners, pro-lifers, and advocates of limited government. He won high school graduates and voters with some college, and barely lost college grads.

Democrats can learn important lessons from the Clinton experience.

First, we need to promote growth and opportunity, not redistribution. With fiscal discipline, investment in people and technology, and expanded trade, Democrats can hold on to the gains we made in the 1990s among middle- and upper- middle-class voters. We simply can't let the class-oriented voting patterns of the 1980s re-emerge.

Second, by emphasizing New Democrat positions on cultural issues like crime and welfare, we can reinforce our belief in core values like work and family and in the ethic of reciprocal responsibility. With opportunity comes responsibility -- and by asking voters to give something back to their country, we can send a powerful values message to middle-class voters.

Third, we need to stand for big ideas, not big government. As President Clinton said, "The era of big government is over." We believe in activist government. But activist government can be empowering and catalytic, not bureaucratic and sclerotic. Democrats always do well among advocates of bigger government, but like Clinton we need to cut our losses among the majority of voters who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do less.

Fourth, we need to support family-friendly policies that help parents raise kids. As Clinton said, "Governments don't raise kids, parents do." The elites ridiculed him in 1996 for small-bore ideas like the V-chip, school uniforms, and keeping kids from smoking. But he connected with beleaguered parents. It is no coincidence that he is the only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past quarter-century to win married voters with kids.

Finally, we need to avoid polarizing language on divisive values issues like abortion and guns. Clinton never wavered on his pro-choice stance, but when he said that abortion should be "legal, safe, and rare," he limited his losses among pro-life voters, whose strength increased in the last decade.

Both Carville and Wattenberg are right. Without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ies, Democrats can't win the increasingly affluent voters who are the key to victory. And, unless they avoid polarizing positions on cultural issues and the size and role of government, Democrats will face a steep climb in an electorate that is half moderate but includes three conservatives for every two liberals.

Al From is founder and CEO of the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The Right Fight

DLC | Blueprint Magazine | January 8, 2004
Al From and Bruce Reed

Democrats can't beat Bush just by being mad at him. They have to offer something better. Now's the time for a new Democratic contract with the middle class.

DLC MEMO

TO: The Democratic Nominee
(Whoever That Turns Out to Be)
FROM: Al From and Bruce Reed
SUBJECT: The Middle-Class Bargain

Democrats won't help a single person find work, get health care, or afford college if they don't win the White House in 2004. The stakes are particularly high. If Democrats lose this time,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on the path toward destroying the country's finances for a generation, shifting the tax burden away from wealth to work, and losing ground in the war on terror. Over the next several weeks, Democrats would be foolish indeed to choose a nominee who makes a tough election even tougher.

But, as we've said in our previous memos, we won't beat Bush simply because we're mad at him or by hoping that things will go badly for the country. We will beat him only if we offer a compelling vision and agenda.

That's as it should be -- because what we'll do in office is what really matters to voters. Presidential elections should be fought over principle and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Everything else is just politics.

We believe our vision ought to be a new bargain with the middle class and those aspiring to get there -- a bargain that puts the needs of the majority ahead of the narrow interests of the few.

Putting Country First:
Our New Bargain With America's Forgotten Middle Class

In the sterile national debate between Republicans who only seem to care about the rich and some Democrats who only seem to care about the war, America's middle class has been forgotten. Bush has failed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most Americans face: getting good jobs with a future, paying the soaring costs of health care and college, saving for retirement, and balancing work and family. Instead of answers, he has offered the middle class more burdens.

Middle-class families don't need a political party that undermines their values, ignores their interests, and saddles them with debt, as Bush's Republicans have done. Democrats need to show the middle class that we will honor their values, defend their country, and think twice before spending the tax dollars they worked so hard to earn.

Most important, we need to give the middle class hope again -- to allay their fears and to assure them that their future can be better than the past.

For more than two centuries, America has been guided by a simple, profound principle: Hard work and responsibility are the ticket to a better life and a stronger country. Today, that principle is under attack here at home, at the very time our nation's enemies are out to destroy our way of life.

Under Bush, our political system has become nothing more than a selfish clash of narrow and moneyed interests. Our middle class -- the greatest engine of social and economic progress the world has ever known -- has been burdened, betrayed, and abandoned by those at the top. On Bush's watch, our private sector has been shaken by the worst corporate scandals in a century. Too many of our leaders have forgotten their highest responsibility: to put their country first.

If we continue on the present course, the promise of America will never be the same. We will not remain the strongest nation on earth if we forget the values that made us strongest, at home and abroad. America was not created to be a nation of privilege. We must be a land of opportunity again. Our mission in the world is to be a beacon of hope, freedom, and respect.

Democrats want more for America. We will ensure that the values, security, and aspirations of the middle class are forgotten no more. Bush and his allies have a plan that threatens America's future and is breaking the backs of the middle class. The party that helped build the middle class now must offer a plan to save it.

We propose a 10-point Contract with America's Forgotten Middle Class:

1. We pledge to make America safe.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we have seen the greatest intelligence lapses since Pearl Harbor. We will strengthen our domestic defenses by reforming the security and intelligence agenci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been too timid to fix. We will reform the FBI, by creating a new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that can detect and prevent terrorist plots on our soil. Instead of cutting law enforcement assistance and driving up state and local taxes, as this administration has done, we'll give communities the resources to keep their citizens safe, so they can hire more police to reduce crime and prevent terrorism, and more firefighters and first responders to answer the call in the event of an attack.

2. We will win the war on terror and the causes of terror and earn America the respect and allies we need to succeed.

By steering a unilateral course, the Bush administration has isolated the United States, breeding global mistrust of our motives and leaving us to bear the lion's share of the costs and risks of policies that benefit other countries, as well as our own. We will pursue a strategy of tough-minded internationalism that puts America's enormous power to work in ways that enhance our security and respect, not in ways that give our allies and enemies alike the dangerous excuse of anti-American resentment. We will drain the swamp that

produces terrorists by supporting democracy, not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We will seed the garden with a Middle East trade initiative to help bring the region into the modern world. We will reward reform by making our foreign aid more strategic, more generous, and more selective. We will transform our military for the 21st century with the personnel, weapons, and doctrine to win conflicts quickly, decisively, and with lasting results.

3. We will ask all Americans to give something back to their country.

Instead of challenging America, the Bush administration has embraced an ethic of every man for himself. We will expand AmeriCorps tenfold to give every young American the chance to serve. We will enlist Americans in a national effort to make America safe, with a civil defense corps that makes sure every citizen and community is ready for emergencies in a time of terror. If you're willing to serve your country, we'll guarantee you the chance to go to college and make sure you will never be denied that chance because you can't afford it.

4. We will expand prosperity for all Americans, not just the few, and reform the tax system to increase middle-class incomes, not stick the middle class with a higher share of the tax burden.

The Bush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prosperity is something the wealthy share with the rest of us, and that jobs don't matter as long as the GDP is going up. We'll grow the economy and restart the great American job machine by harnessing the high-paying jobs of the future in emerging industries like clean energy technology and energy conservation.

The Bush administration's war on work has shifted the tax burden from the wealthy onto the middle class. It's wrong to burden the middle class to make the rich richer. We won't raise middle-class incomes by raising middle-class taxes. Instead, we propose sweeping tax reform to give middle-class and working Americans the opportunity to own a home, save and invest for college or retirement, and support their families. Every poor and middle-class American should be able to save and invest as much as he or she can, tax-free. For the middle class and working poor, we will reduce the capital gains rate or eliminate it altogether.

We will consolidate the confusing array of tax-favored savings programs into a single, universal pension that every American can take from job to job. We will strengthen Social Security by expanding retirement savings, making the necessary reforms to modernize benefits and keep costs from exploding, and putting the nation's fiscal house in order. We will offer tax credits for first-time homebuyers so that every American willing to work for it can get the help he needs to own a home. We will replace the array of child tax credits with a single Simplified Family Tax Credit so that anyone willing to work full time to support a family can be part of the middle class.

5. We won't let government spending go up faster than your paycheck does.

Bush has abandoned the ethic of fiscal integrity and brought the era of big government back. We will stop giving tax cuts we can't afford to those who don't need them, and stop paying back narrow interests with pork and corporate welfare. Instead, we will restore annual spending caps and pay-as-you-go rules so Washington can't enact new spending or tax cuts without offsetting savings. We will create an independent commission to end corporate welfare as we know it. And we will cancel the tax-cut windfall for the very wealthy, and cut taxes instead for the middle class.

6. We will ensure a strong economic climate so the private sector can succeed, but we'll make corporations live up to their responsibility to play by the rules and do right by their employees.

Bush has delivered neither responsibility nor reform at a time when Washington and Wall Street cry out for both. Sustained economic growth is the prerequisite for opportunity for all. But we will also put economic policy back in line with our values. We will replace crony capitalism with democratic capitalism that gives Americans who do the work and pay the taxes a smaller share of the country's burdens and a greater stake in their companies' success. We will give stockholders more say over the companies they own, and stop the scandal of excessive CEO pay by making sure firms that give options to their top executives give options to all their workers.

We will help America lead the world in developing new energy technologies that are good for both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We will restart America's growth engine by reducing barriers abroad to American goods and services, and put money in family bank accounts by eliminating regressive import taxes on clothes, shoes, and other goods at home. We will also make sure that workers, not just consumers, can join the winners' circle. We will do this by streamlining the overly bureaucratic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providing New Economy Work Scholarships that let dislocated workers choose the training and skills they need.

7. We will give you the opportunity to afford health insurance -- if you take responsibility to make sure your children get it.

While rising health costs are crippling businesses and worker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done nothing to make health care more affordable. We will ensure that all Americans have access to affordable health insurance, but with the requirement that parents take responsibility for covering their families. We will allow Americans to buy into the same plan that members of Congress have, offer tax credits to make coverage more affordable, and create a National Cure Center to help find cures for major chronic diseases.

8. We will demand more from our public schools, and invest more in them.

Bush has broken his promise to invest in reform, and shortchanged states and communities when they need help most. By refusing to fund federal mandates for school reform, the Bush administration is leaving too many children behind. We will make public schools the pride of every community by keeping Washington's pledge to provide the resources to make reform work. We will help schools rise to the challenge of reform. We will put a qualified teacher in every classroom by paying teachers better and asking more of them in return. We will let parents choose which public schools their children attend. We will make sure they have good schools to choose from, by improving or closing schools that fail and by creating more charter schools and smaller schools that work.

9. We will give young people the chance to work or serve their way through college without the crushing burden of debt.

Bush has presided over the steepest rise in public college tuition in a quarter-century -- at a time when a college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We will simplify the bewildering array of education tax credits and replace them with a single education credit and a single set of definitions that every family can use and understand. And we will make it easier to go to college, not harder, by dramatically expanding AmeriCorps and work-study programs so that any American who is willing to work or perform community service can earn his or her way through college and graduate without plunging into debt.

10. We will give parents more opportunity to live up to their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 their families.

Instead of helping Americans balance work and famil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put new burdens on families by cutting after-school programs and denying states the chance to offer paid parental leave. We will offer tax credits and a system of paid leave that enable new parents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newborn children. We will provide after-school care for every child who needs it. And we will end the motherhood penalty in Social Security by allowing parents who take time off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of their child's life to make up the tax-free retirement contributions they missed.

We pledge these steps to save and expand America's middle class, because our spirit and our future depend on it. The promise of American life cannot be the province of the privileged few. Our nation serves a higher purpose: to make sure all our citizens have the chance to rise as far and as high as their hard work and God-given potential will take them.

Al From is founder and CEO of the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Bruce Reed is president of the DLC and was President Clinton's domestic policy adviser.

What We Stand For: Americans don't know what Democrats believe in. It's time to tell them.

DLC | Blueprint Magazine | March 16, 2005
Al From and Bruce Reed

Here are some simple truths every Democrat needs to hear. To win back the White House in 2008, our party must change. We must be willing to discard political strategies that may make us feel good but that keep falling short. We must finally reject the false choice between exciting our base and expanding our appeal, because unless we both motivate and persuade, we'll lose every time.

But above all, Democrats must be bold and clear about what we stand for. It's time to show the millions of people who can't tell what Democrats stand for that any American who believes in security,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has a home in the Democratic Party.

As Bill Clinton told us many times in 1992, change is never easy. Our party's greatest challenge is to offer new, innovative, and progressive ways to expand opportunity, demand responsibility, and defend freedom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world. That will require challenging party orthodoxy and, from time to time, making some in our party uncomfortable. But during the next four years, we have to be willing to surprise people once again. If we do that, we will earn the chance to put our ideas into action; if we don't, we will not win, no matter how much money we raise or how good our party machinery may be.

We congratulate Gov. Howard Dean on his new job as chairman of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 needs to rais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hone the party's political machinery to rival the Republican juggernaut, and rebuild state parties, particularly in red states. That's a tall order, even for someone with Dean's energy and tenacity. We've had differences with Governor Dean in the past, but we wish him well in this endeavor. If he succeeds in building and funding our party, all Democrats will benefit.

In the end, the success of any national party chairman depends not on how well he does his job, but on whether his party wins the White House on his watch. The chairman's role is to be chief cheerleader for the party. But if Democrats are to win in 2008, we must be willing to take on a few basic problems that party headquarters is in no position to fix. A party gets only one chance every four years to define itself for the voters. That comes in the presidential nominating process, and that definition is determined by the party's presidential nominee and what he or she stands for. Ironically, the best thing a party chairman can do is to keep his head down and his nose to the grindstone, and give potential candidates a clear field to have that debate. Dean will do fine as long as he remembers the Hippocratic Oath: First, do no harm.

Since Roosevelt, only two Democratic candidates in 15 elections -- Johnson in 1964 and Carter in 1976 -- have won a majority of the popular vote for president. In that six-decade period, only one Democrat -- Clinton in 1992 and 1996 -- has won election and re-election to the White House.

If we're going to improve on that track record, we need to discard failed strategies, not return to them.

For example, it's a delusion to think that if we just turned out our voters, we could win national elections. The 2004 election should have dispelled that myth, once and for all. With an unprecedented effort to get out our vote, Democrats far exceeded all expectations -- and we still lost. Next time, we need to mount an unprecedented effort in persuasion, not just turnout. A party that has averaged 44.5 percent of the vote in the last 10 presidential elections and has only won a majority of the popular vote for president twice in six decades needs to start winning over some of the voters it's losing.

The argument about base versus swing voters is the longest running false choice in Washington. We simply need both to win. If we only win our base vote, we'll lose every time. If our base doesn't come out to vote in large numbers, we won't win, even if we do well with swing voters. But if we offer a clear, progressive approach for tackling the big challenges facing America, we'll do well every time, and so will the country.

Democrats like to believe that we have the right message and our problem is one of communication -- of getting our message out more effectively. The Republicans, we like to argue, win with an inferior message, because they're better at getting it out. But after losing two presidential and three congressional elections in a row -- all of which Democrats thought they would win -- maybe it's time to think hard about what we say, not just how loudly we say it.

Finally, Democrats like to feel that if we just pull together and sharpen our differences with the Republicans, we'll win. We're all for Democrats standing our ground to defend what we believe in -- and no one has opposed President Bush's corporate conservatism more sharply than we have. But at the same time, we couldn't disagree more with those in our party who are so green with Karl Rove envy that they want to try to out-smashmouth the Republicans. If Democrats want to make a lasting difference in American life, we have to define ourselves by what we're for, not simply what we're against.

Let's not kid ourselves: Americans didn't have any trouble telling the difference between John Kerry and George W. Bush. The trouble they had was figuring out what our side stood for.

We faced a similar problem after the 1988 election. Then, as now, many Democrats argued that the party's troubles were all about mechanics -- that we had a communications problem, a turnout problem. Clinton realized that all those troubles would take care of themselves as soon as he solved the root one -- Democrats' vision problem.

A recent Democracy Corps survey found that twice as many voters say Republicans know what they stand for. The two biggest Democratic weaknesses identified in the survey -- support for gay marriage and offering no strong direction for the country -- bracket the party's twin problems: Voters don't know what we stand for, and have grave doubts about what they think we stand for.

Shoring up our weaknesses will not come without real debate -- even real fights over 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priorities. We should not shy away from them. It's far less important that Democrats come together now than on Election Day. And we are far more likely to be together on Election Day if we battle out our differences now -- so we can decide the direction of our party and rally an actual majority of the voters around the choices we make.

If we want voters, especially those in America's heartland, to take a new look at the Democratic Party, we must have the courage to take on the great challenges of our time: making America safe; building an opportunity society; standing up for core values of responsibility and family; and reforming a political system that is broken and corrupt.

Closing the national security gap.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Democrats, and the country, is security. It cost Democrats the Senate in 2002. It cost us the White House in 2004. In the next decade, it will determine whether we can recapture the glory days of FDR, JFK, and Clinton, or whether we will go the way of the Whigs and the Know-Nothings. Fair or not, too many voters doubted our party's toughness and resolve in the face of new dangers. Until we recapture the muscular, progressive internationalism of Roosevelt, Truman, and Kennedy -- and convince voters that national security is our first priority, not just something we talk about until we can change the subject to more comfortable domestic issues -- we'll have a hard time convincing them to return us to national power.

That is why a distinguished group of Democratic elected officials and thinkers has signed an open letter urging Democrats to put security first, because the "American people will not trust leaders who will not vigorously defend their ideals."

Our challenge is to articulate our own set of national security ideas on a scale that matches the size of today's problems, the way the United Nations, the Marshall Plan, containment, and the Peace Corps did in theirs. For example, Will Marshall, president of the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and others have suggested that NATO be given an entirely new mission, to win the war on terror. We should think just as big here at home. If we truly believe that the poor and minorities shouldn't bear the brunt of keeping America safe in this new era, why don't we propose a system of voluntary universal service that asks all to do their part?

After the last disappointing election, in 2002, President Clinton gave a speech to the DLC warning Democrats not to underestimate the potency of security as an issue. In uncertain times, he said famously, "strong and wrong beats weak and right." Ironically, many Democrats seem to have missed Clinton's point. A few days after becoming party chairman, Dean cited that very Clinton quote to argue that Democrats have a communications problem, not a security problem. "There is no crisis of ideology in the Democratic Party," Dean said, "only a crisis of confidence."

It's easy to warm Democratic hearts by promising "competence, not ideology," as Michael Dukakis did in 1988, or "confidence, not ideology," as Dean has done now. But in the end, ideas and ideology decide elections, and Democrats rise or fall based on whether we get them right. Like it or not, making the world safe from terror will be America's central challenge for the next decade, if not beyond, and voters deserve a better choice that is neither weak nor wrong, but strong and right.

Building an Opportunity Society. At our strongest, Democrats have been the party of the middle class and those who aspire to join its ranks. Opportunity is the value that unites our party like no other. Moreover, we are the party of opportunity in a decade that is likely to produce the greatest concentration of wealth since the 1920s and the greatest erosion of middle-class opportunity since the 1970s.

But Americans will never know we're the opportunity party unless we offer a bold, clear vision of economic growth that will help them get ahead. Our side has been talking about programs for so long, we've

forgotten that it took an overarching vision for Democratic presidents to create them. The New Deal, the Great Society, and the New Covenant came first, and made later victories on Social Security, Head Start, an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possible.

The good news is that we share a common vision of a country that gives every citizen willing to work hard the promise of a better life and the chance to make the most of it. Bush has promised an Ownership Society. John Edwards and others are right to propose an Opportunity Society instead. Once again, our ideas ought to be on the scale of the problem: Demand tax reform that rewards work, not wealth, and gives everyone a chance to own a piece of the rock, not a bigger piece of the debt. Make college free for all who are willing to work or serve. Close corporate loopholes to restore fiscal responsibility and make the market work.

These ideas and others offer an upward mobility strategy for all those who, in Clinton's words, go to work every day and play by the rules, and who see rapid economic change and competition from low-wage nations clouding the future for them and their children. The Republicans have no such strategy; we Democrats need to articulate one.

Standing up for responsibility. We can't let the Republicans set the moral and cultural debate in election after election. If we do, they'll keep using wedge issues to help them, hurt us, and divide the country.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and we don't need to compromise our values to change it. We can win the cultural debate, but only if we offer a values and cultural agenda of our own.

The last two elections were all reflex, all the time -- deflecting Republican charges on same-sex marriage, guns, and abortion. The best way to stop having the same old phony debate on cultural issues is to force a real one on issues that matter: strengthening families, helping parents teach kids right from wrong, coupling rights with responsibilities, and asking all Americans to give something back to their country.

Americans in the heartland will stop thinking Democrats look down on them once we demonstrate that we honestly understand their concerns. Parents are right to worry about the coarsening of the culture, and about needing more time with their children. Sen. Hillary Clinton is right to make clear that our goal should be fewer unwanted pregnancies and fewer abortions. Sen. Barack Obama is right that there's a limit to what government can achieve if we forget about personal responsibility. Republicans will never step up as the responsibility party. Why can't we?

Reforming a broken system to bring democracy back. In order to restore these great values, Democrats need to remember our calling as the true party of reform. Last time we looked, the Republicans controlled the White House, both houses of Congress, a majority of governorships, and a plurality of state legislatures. Yet the Republicans are the party of fiscal profligacy, special interests, and K Street corruption. Congressional leaders rewrite their rules faster than the old Soviet Union. In a country built on a free press, the administration has admitted putting columnists on the take.

Democrats have a duty to blow the whistle and champion radical reform. We need to be willing to take political risks and embrace new ideas: breaking the redistricting racket that leaves most incumbents more likely to die in office than be defeated; ensuring all Americans can vote and have their votes counted; opening primaries to enfranchise independents and break the grip of organized interests on the nominating

process and the parties; restoring spending caps and pay-as-you-go policies to put our fiscal house back in order; promoting family-friendly tax policies that help middle-class families with retirement savings, college costs, homeownership, and raising families; putting a stop to Washington's costly revolving door; and ending corporate welfare that puts the tax code up for sale.

We need to reclaim the mantle of reform and innovation and show the Republicans for what they are -- the party of Washington, corruption, and the status quo. Then we can speak to Americans, as we did in our finest days under Roosevelt, Kennedy, and Clinton, in terms of our vision, our values, and our sense of national purpose, not in the bureaucratic doubletalk of Washington.

The American people deserve a Democratic Party that champions the values, interests, and safety of the broad middle class and all who aspire to join it. We can and will be a majority party again, but only if we do the hard work to earn the majority's trust. When we look at that map from Election Night 2004, it breaks our hearts to see America's heartland covered in red. Only time will tell who our party's Moses will be. In the meantime, we all have a job to do to make that Red Sea part.

Al From is founder and CEO of the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Bruce Reed is president of the DLC.

2

New Labour, New Britain: Tony Blair's New Labour Vision

LABOUR PARTY CONFERENCE 1994
BLACKPOOL, ENGLAND

Today I set out my vision for our party and our country: what we are; where we stand; how we will govern.

We meet in a spirit of hope, hope that change can come.... hope that we can rid our country of this Tory Government, their broken promises, their failed policies, their discredited philosophy and elect in its place, a Labour Government for Britain.

We all remember where we were, and what we were doing, when we heard that John Smith had died. Together, one nation, all parties united in mourning, and in celebration of his integrity, his honesty and his decency. We were proud to know him and proud to be led by him. We will honour his memory best, by ensuring the Party he loved becomes, once again,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he loved.

We have begun our task. The people have already elected us to control 175 councils. In May we won over two and half thousand new seats. We have won 4 by-elections this year, and three of our four new Mps are women.

In the European elections we gained record numbers of seats. These were not opinion polls. They were elections. We are winning them. And we are proud that one of our MEPs, Pauline Green, is the first woman leader of the Socialist Group in Strasbourg. There is one other representative in Europe to whom we pay

tribute...Commissioner Kinnock, a credit to our party here, as he will be to our country in Brussels.

We had our own election too. One million people took part in a leadership contest that was a tribute to our democracy, and from which we emerged with our unity and strength enhanced. I would like to thank John Prescott for his magnificent contribution to our party, and on behalf of all of us pay tribute to Margaret Beckett for the credit she brought to our party in picking up the reins of leadership and leading us with such dignity.

We celebrate too the record growth in our membership. 14,000 members in August alone. I can announce today that by the end of this month, we will have passed the 300,000 mark. And I am glad, too, we have an active young Labour section again, three times as many as members as the Young Conservatives. I am the first leader in a generation who can say with confidence to our youth section: I want to see an increase in your influence.

One other debt of gratitude. Larry Whitty is to leave the post of General Secretary of the Party to take up a new and important job co-ordinating the Party's links with Europe. Larry is one of the most genuine and least self-serving people I know and we thank him for all the loyalty and dedication he has shown us.

We are a Party proud of our international solidarity. I am delighted to welcome representatives here this afterno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new Republic of South Africa. I was 10 years old when Nelson Mandela was imprisoned on Robben Island. Since then, the words Nelson Mandela have been an inspiration. But aren't the words President Mandela even more inspiring?

We welcome too representatives of the Israeli government. We applaud Yitzhak Rabin's Labour government and Yasser Arafat's PLO, for breaking new ground to help the Palestinian people towards self government in the Gaza Strip and Jericho and bring peace to the Middle East.

We also congratulate our sister parties in Sweden, Australia, Denmark and Holland on their recent election successes. And we wish every success to 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Austria and Germany in their forthcoming elections.

Fifty years ago, the British Labour government helped to form the United Nations.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it to be stronger, more cohesive and capable of bringing new order to a world no longer dominated by the Cold War.

In particular, in Bosnia, we urge acceptance of the peace plan now on the table to avoid further brutality and bloodshed. We live in a world where a quarter of its population lack drinking water and a fifth starve; where civil war in Rwanda and elsewhere is rife. We should not forget those people. I can tell you overseas aid and development will always be a central part of the Labour Party I lead. We should show courage too, over a quite different sphe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

Britain's interests demand that this country is at the forefront of the development of the new Europe. Of course Europe should change. Of course we should stand up for British interests, as others stand up for theirs. Indeed we should be taking o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osting the average British family 20 pounds a week and about which the Tories do nothing. But, the Tories are playing politics with Europe and

the future of this country. Let them. Under my leadership, I will never allow this country to be isolated or left behind in Europe.

The tide of ideas in British politics is at last on the turn. For the first time in a generation, it is the right-wing that appears lost and disillusioned. No longer believing in their own language, they turn to ours. Some are trying out "community". "Partnership". Even "fairness." Some are now talking of Civic Conservatism. A contradiction in terms. Most absurd, "full employment" was tried out by desperate David Hunt at the TUC. His reward - the most humiliating demotion imaginable: one day, counting the unemployed...the next, he's counting traffic cones.

Today politics is moving to our ground. Across the nation, across class, across political boundaries, the Labour Party is once again able to represent all the British people. We are the mainstream voice in politics today. Back on the side of the vast majority... to speak out for them and against the entrenched interests that hold them back. To parents wanting their children to be taught in classrooms that are not crumbling, to students with qualifications but no university place, let us say, the Tories have failed you, we are on your side, your ambitions are our ambitions.

To men and women who get up in the morning, and find the kitchen door smashed in, again...the video gone, again... to the pensioners who fear to go out of their homes, let us say the Tories have abused your trust, we are on your side - your concerns are our concerns. To the small businesses, pushed to the wall by greedy banks, employers burdened by government failure, to employees living in fear of the P45...and above all to the men in their 40s, shamefully laid off at Swan Hunter, the thousands others insecure in their jobs in every part of this county... let us say the Tories have forgotten you, but we will not - your anxieties are our anxieties. To middle and lower income Britain, suffering the biggest tax rises in peacetime history, the Tories have betrayed you,

We are back as the Party of the majority in British politics. Back to speak up for Britain. Back as the people's party. Look at Britain 15 years after Mrs Thatcher stood on the steps of Downing Street.

Where there was discord, is there harmony? Where there was error, is there truth? Where there was doubt, is there faith? Where there was despair, is there hope? Harmony? When crime has more than doubled. Truth? When they won an election on lies about us and lies about what they would do? Faith? When politics is debased by their betrayal. Hope? When three million people are jobless, nearly 6 million on income support... and one in three children grow up in poverty?

They have brought us injustice and division but these have not been the price of economic efficiency. Because tax is also up - 800 pounds a year extra for the average family. Spending is up and growth over the last 15 years is down. And look at what they wasted on the way. Billions of pounds gifted by Nature, the God-given blessing of North Sea oil, billions we could have invested in our future. Billions they squandered. One hundred and eighteen billion pounds - five thousand pounds for every family in this country - gone, wasted, vanished. And to hide the truth of the nation's problems they have sold our nation's capital assets, built up over many years and used the proceeds not to invest, but to cover current spending. Seventy billion pounds gone forever.

Its time to take these Tories apart for what they have done to our country. Not because they lack

compassion, though they do. But because they are the most feckless, irresponsible group of incompetents ever let loose in the Government of Britain. Their time is up. Their philosophy is done. Their experiment is over. Their failure is clear. It is time to go.

And why are they incompetent? Not just because of the individuals. It is not this or that Minister that is to blame, it is an entire set of political values that is wrong. They fail because they fail to understand that a nation, like a community, must work together in order for the individuals within it to succeed. It is such a simple failing and yet it is fundamental.

Go and look at a company that is succeeding. It won't treat its workforce as servants but as partners. They will be motivated and trained and given a common purpose. Of course sweatshop conditions in the short-term can make do. But in the end they fail. The quality and commitment isn't there.

Its the same with a country. It can be run on privilege and greed for a time; but in the end it fails. This is not theory. We have living proof of it.

At the end of 15 years, we are taxing and spending more not to invest in future success but to pay for past failure. I don't mind paying taxes for education and health and the police. What I mind is paying them for unemployment, crime and social squalor. After 15 years we spend more of our national income on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less on education. If the share of national wealth invested in housing was the same as in 1979, we would spend 11 billion more; next year we will spend 11 billion on housing benefit. Now they want to cut the benefit.

Instead of cutting benefit, why not cut the homeless queue, cut unemployment, and build the houses. And if it needs an initial capital investment, release the money tied up in local authority bank accounts and put it to work to start the house building programme.

The Tory economics is based on a view of the market that is crude, out of date and inefficient. And their view of society is one of indifference, to shrug their shoulders and walk away. They think we choose between self-interest and the interests of society or the country as a whole. In reality, self interest demands that we work together to achieve what we cannot do on our own.

More and more, I believe that though, of course, ability plays a great part in life, what most distinguishes those at the top from those at the bottom is their life-chances. So much talent is wasted. So much potential underdeveloped. I don't just mean the unemployed. I mean those who just have jobs, when they should have careers with prospects and a hope of advancement.

We can learn from the family. The Tories have posed as the Party of the family for too long. They are no more the Party of the family than they are the Party of law and order. They have done more to undermine stable family life in this country than any other Government in memory. The Tory view of the family is the same as its view of the individual: you are on your own.

But the essence of family life is that you are not on your own. You are in it together. Families work best when the members of it help and sustain each other. The same is true of communities and of nations. Community is not some piece of nostalgia. It means what we share. It means working together, It is about

how we treat each other.

So we teach our children to take pride in their school, their town, their country. We teach them self-respect; and we teach them respect for others too. We teach them self-support and self-improvement; and we teach them mutual support and mutual improvement too. The Tories despise such principles.

Their view is simple: let's just watch as the hospitals spring up, as the schools rise in green and pleasant playing fields. Let's just sit tight on this planet of miracles, where the free market builds business, trains employees, controls inflation, preserves demand, ensures everlasting growth. Let's congratulate ourselves that thanks to our inspiring inaction the elderly live in comfort. The young play in safety. All around, people on this planet sing hymns of gratitude to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as it brings equality and prosperity to all, as 'cascades of wealth' tumble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lcome to Planet Portillo.

It is the theatre of the politically absurd. Market forces cannot educate us or equip us for this world of rapid technological and economic change. We must do it together. We cannot buy our way to a safe society. We must work for it together. We cannot purchase an option on whether we grow old. We must plan for it together. We can't protect the ordinary against the abuse of power by leaving them to it; we must protect each other.

That is our insight. A belief in society. Working together. Solidarity. Cooperation. Partnership. These are our words. This is my socialism. And we should stop apologising for using the word. It is not the socialism of Marx or state control. It is rooted in a straight forward view of society. In the understanding that the individual does best in a strong and decent community of people with principles and standards and common aims and values. We are the party of the individual because we are the Party of community. It is social-ism.

Our task is to apply those values to the modern world. It will change the traditional dividing lines between right and left. And it calls for a new politics. Without dogma and without swopping our prejudices for theirs. It is time to break out of the past and break through with a clear and radical and modern vision for Britain. Today's politics is about the search for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We must build the strong and active society that can provide it. That is our project for Britain.

It will be founded on four pillars:

- opportunity
- responsibility
- fairness.
- trust

A society of opportunity must be built around a strong and stable economy in which all of us have a stake. Mass unemployment is inconsistent with a civilised society.

It is time to state clearly, in the words of the pioneering White Paper of 1944, that it is the duty of government to maintain a high and stable level of employment.

It is a responsibility we share as a society. That commitment - the goal of full employment - I reaffirm today. It will take time.

The means of doing it will change. But it must be done if this is to become a society of which everyone feels a part.

Above all, we must conquer the weaknesses of our economy that hold our country back. It won't be done by state control. But it won't be done by market dogma. It can only be done by a dynamic market economy based on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and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Tak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nly in Tory Britain could the Government have tried to build the Channel Tunnel without public investment. They even passed a law against it. In desperation they had to ask the taxpayer to fork out more than half the cost.

Now it's up and running...trains speed through France at 185 miles per hour, through the tunnel at 85 miles per hour, and then go through Kent - at 47 miles per hour.

The French got the high-speed link. We got the slow coach link. But then we've got the Tories.

Government must take the lead, and a Labour Government would do that. We would get public and private finance working together in transport in housing, in capital projects in health and education.

And if there are Treasury rules or antiquated concepts of public borrowing that hold us back, change them. That is what intelligent Government is for.

In technology, there is an information revolution under way.

- Fifty per cent of employees in Britain now work in information processing.
- In the next century, Seventy per cent of wealth will be created in the information industries.
- And 80 per cent of all the information stored anywhere in the world is in English.

Massive markets. Massive competitive advantage. But massive Tory failure.

We should be investing in the new electronic superhighways - satellite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that is the nerve centre of a new information economy - doing for the next century what roads and railways have done for this one.

The Government failed to see this revolution coming and because of that, a new market is operating under old rules which work against our companies, large and small.

We will set the framework which encourages the new investment so we coordinate a new national effort so that British companies are at the head of the competition not falling behind.

We have to invest for the long term. In the Tory years, dividends have risen by 12 per cent per year in manufacturing, profits by 6 per cent, and investment by only two per cent.

We have to invest in economic regeneration. There are areas of the country laid waste by the shedding of old industry. The market won't rebuild them on its own.

A partnership economy will, and where imaginative Labour authorities have worked with business it is. But we want more of it. That is why we have proposed one stop shop development agencies for our regions to help create the wealth they ne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ll be the driving force of a new economy. The Tories have done nothing for them.

Labour has put forward recently the most comprehensive programme for small business development seen in this country. Welcomed by small business. Active Government working in partnership.

Now, I hear people, some of them in our own party, falling for the Tory attack that we have no policies. What nonsense.

We have a huge body of policy which we are now developing. The difference is that we now have policies that win us votes rather than lose them.

Most of all, we need to train and educate our people. Education will be the passion of my Government. I know how important the education of my children is to me.

I will not tolerate children going to run-down schools, with bad discipline, low standards, mediocre expectation or poor teachers, and nor should anyone else.

If schools are bad, they should be made to be good.
If teachers can't teach properly, they shouldn't be teaching at all.
And if the Government can't see why education matters - then sack the Government and get one that does.

Nowadays, if you want to earn, you have to learn, throughout life.

The University for Industry, the nineties equivalent of the Open University, will use satellite, cable and the new information highways to give every home and workplace access to information, to skills and to teaching, to achieve our objective of permanent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Switching on your computer to link up with work and education opportunities will one day be as natural as switching on your TV to watch a football match.

And education is just one of the public services we provide together to improve the quality of opportunity for each of us. It cannot be left to the market.

Nor can our health service. Or our armed forces. Or our police.
Neither should the railways or the Post Office.

These are public services - they should be run for the public; and they should stay in public ownership for

the people of this country.

And if the Tories say there is no money to fund better public services, then let us tell them the cuts they could make.

They could save 700 million pounds on the costs and fees and city charges of railway privatisation.

700 million could have been used to build a high speed link from London to Manchester and Liverpool, upgrade lines between there and Hull and Middlesborough, and still have enough left over to improve commuter services on Network South East.

While waiting lists are past 1 million, when patients are lying unattended on hospital trolleys, when dentistry has virtually gone out of the NHS, they could save the 1.6 billion they are spending on the NHS changes and spend it on patient care.

Or the 30 million to turn Police Authorities into quangos. Let that money go on putting police on the beat.

And while students scrimp to get through college, a University Vice-Chancellor gets a huge vote of no confidence, and is rewarded with a 500,000 pound pay-off.

We could have bought half a million exercise books with that.

It's their system. Their dogma. Their shambles. But it's our children.

Labour's way is to fund the frontline of the public services. Its time to change.

I want hospital resources released, from the administrative chaos of opting out, so that nurses can nurse again. I want schools released from form filling and red tape, so that teachers can teach again.

And I want our uniformed services, freed from paper pushing. So that we can put police officers on the beat again.

With opportunity must come responsibility.

For the Tories, the language of responsibility is what those at the top preach to the rest, whilst neglecting it themselves. But the left have undervalued the notion of responsibility and duty and it is time we understood how central it is to ourselves.

Parents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 Fathers too. Companies to their employees and their community. Ministers to the truth. Citizens to each other.

It is at the heart of our message about crime.

The Labour Party is now the Party of Law and Order in Britain today. And quite right too.

- 1 in 50 crimes ever goes punished.
- Sentencing is haphazard.
- Victims are given short shrift.

Meanwhile, the Home Secretary protests that he has been attacked, week after week, for being too tough.

He's dreaming. He'd love to be attacked for being tough. He's attacked because he is long on rhetoric and short on policies that work.

Michael Howard, the man in charge of prison catering. Last year he told the Tory conference he was building six tough new prisons.

Butlins wouldn't win the contract, he said. He was right. The Savoy got it. We can all get angry because crime hurts, and it hurts most the people who are least able to fight back.

But it is not enough to get angry, to stamp your feet, and shout from the Tory conference platform. That is the soft option.

We need a new approach. One that is tough on crime, and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Over the past year we have put forward a range of detailed programmes to fight crime.

Tough on crime:

- Measures to tackle juvenile offending
- to crack down on illegal firearms
- to punish properly crimes of violence, including racial violence
- to give victims the right to be consulted before charges are dropped or changed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 a comprehensive crime prevention programme
- an anti-drugs initiative
- long term measures to break the culture of drugs, family instability, high unemployment, and urban squalor in which some of the worst criminals are brought up.

Responsibility means a recognition that there is no divorce from the outside world.

Social responsibility for all.

The unemployed youngster has no right to steal your radio. But let's get just as serious about catching the people in the city with an eye on your pension. This is where the Tories fall down.

Responsibility is a value shared. If it doesn't apply to everyone it ends up applying to no-one.

It applies to those who defraud the state of benefits. It applies to those who evade their taxes. And it also applies to those water, gas, electricity company bosses, running monopoly services at our expense, awarding themselves massive salaries, share options, perks and pay-offs.

They have responsibility too.

It applies in the health service. Remember how the reforms were sold in the name of better, quicker patient care - we'd all be able to get the doctor I want, at the time I want, in the hospital I want.

Who have those reforms benefited? Not the patient but the penpusher, getting the carpet I want, the wallpaper I want, and the nice big company car I want...and can we get the wife on the board too.

It applies in the financial services. The big bang...
their pensions claim lost all sense of their role and responsibility to the nation...

A society without responsibility is the enemy of the society built on merit and hard work. It creates an economy in which enterprise is just another word for the quick buck.

The Thatcherites used to boast they were anti-establishment.
But the trouble with them is that they never wanted to bust the establishment, just buy their way into it.

And the new establishment is not a meritocracy, but a power elite of money-shifters, middle men and speculators... people whose self interest will always come before the national or the public interest.

If they are allowed to go on running the country in their interests, is it any wonder that it is not run in ours.

So it is hardly surprising if after 15 years, sleaze in high places has given birth to the yob culture. Tory philosophy is the most effective yob creation scheme ever devised.

We have one further proposal to make here.

There are nearly one million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who have no work, or training or education. This is not just a waste of talent but the breeding ground for resentment, crime, and drugs.

The Social Justice Commission has called for a new civilian service. A voluntary national task force of young people given constructive tasks to do. I support that. I think they do as well.

Working for the community that is useful, on environmental projects, or caring for the elderly, something useful to the community and personally fulfilling, to instill a sense of responsibility, self-discipline, self respect, a sense of achievement and value.

Responsibility and opportunity require fairness, justice, the right to be treated equally as a citizen. That means a strong stand agains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race, sex, creed, or sexuality.

But, justice is about much more than fighting discrimination.
It is about our lives at work.

The laws we live under, and about the tax we pay.

If you ever want to know whose side the Tories are on, look at the tax system.

Millionaires with the right accountant pay nothing while pensioners pay VAT on fuel. Offshore trusts get tax relief while homeowners pay VAT on insurance premiums. Middle income taxpayers get stung, whilst perks and privileges at the top roll on unstopped. And because the Government changed the rules, two

million more people now pay the top rate of tax.

We will create a tax system that is fair which is related to ability to pay. Where the abuses end, the perks stop, and where ordinary families are not squeezed to pay for the privileged.

It sticks in my gullet when I see Tory Mps, some of whom earn more for a half day's consultancy work than some of my constituents earn in a month, denounce our plans for a minimum wage.

And it is also wrong that the tax payer ends up paying more than a billion pounds on benefits to subsidise poverty pay.

A minimum wage exists in every European country, in America too, for the simple reason that it makes social and economic sense.

Of course the minimum wage should be set sensibly. And it will be, but there will be no retreat from its basic principle because it is right.

And we will sign the Social Chapter because it is right for our country.

And we will give the right to people at work to join a trade union, and where they want it, to have that union recognised. And let one small but significant act be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people at work. That is the restoration to the workers of Cheltenham GCHQ of their trade union rights.

We will make work pay. John Smith put it simply when he set up the Commission on Social Justice: 'People don't want hand-outs; they want a chance to achieve'.

The Tories always complain that the welfare state costs too much.

The answer is not just increasing benefits, adequate though those benefits should be. But the people on benefits need and deserve better. Not more benefits, but help in getting off benefits.

Welfare should be about opportunity and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It is about helping people to move on and move up.

Because the world has changed, the welfare state has to change with it. And we are the only people who can be trusted to change it, because we are the people who believe in it. The Tories will cut benefits and make poverty worse. We will put welfare to work.

A nation at work not on benefit. That is our pledge.

But there is one big obstacle in the way of all our plans for change.
It is the legacy of the Tory years - disillusion with politics itself.

And if we want to remove it, we must show that our politics is not theirs. Not just that our vision for Britain is different, but also our means of achieving it.

A new politics. A politics of courage, honesty and trust.

It means telling it as it is, not opposing everything every other party does for the sake of it.

If the Government are getting it right, as over Northern Ireland, we give credit.

We welcome without reservation new hope beginning there. We pay tribute to our own government, the Irish government, Unionist and Nationalist opinion in the North for their efforts in the peace process.

And let us pay a special word of tribute to John Hume, leader of our sister party, who we welcome tomorrow to address us, for his unceasing commitment to that cause. It means speaking the same language to each other as we know we need to speak to the country.

People look to politicians for leadership. And leadership is about having the courage to say no as well as yes.

Even this week I have heard people saying a Labour government must repeal all the Tory trade union laws. Now there is not a single person in this country who believes that to be realistic, or that we will do it.

No one believes strike ballots should be abandoned. So why do we say it? We shouldn't, and I won't.

I am absolutely committed to the goal of full employment. We will develop the plans to achieve it.

But let's not pretend that we can deliver it overnight.

Let's not seek to fool the unemployed into thinking we will walk into power on Thursday and they will walk into a job on Friday.

Let us be honest. Straight. Realistic.

Those most in need of hope deserve the truth. Hope is not born of false promises; disillusion is.

They are tired of dogma. They are tired of politicians pretending to have a monopoly on the answers. They are tired of glib promises broken as readily in office as they were made on the soap box.

When we make a promise, we must be sure we can keep it. That is page 1, line 1 of a new contra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But we should do more. We have to change the rules of government and we will.

We are putting forward the biggest programme of change to democracy ever proposed by a political party.

- Every citizen to be protected by fundamental rights that cannot be taken away by the state or their fellow citizens enshrined in a Bill of Rights.

- Government will be brought closer to the people. We will legislate for a Scottish Parliament, an Assembly for Wales, in the first year of a Labour government. And the Tory quangos will be brought back under proper democratic control.

- We will enact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to attack secrecy wherever it exists, public or private sector.

- We will reform the House of Commons to make its working practices and its powers to investigate more effective, and to achieve through our Part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MPs that we have talked about for so long.

- We will make history by ending the ancient and indefensible privilege of hereditary peers voting on the law of the land.

- We will tighten the rules of financing of political parties.

And since trade unions are balloted on their political contribution, it is only fair that in this free country shareholders are balloted on theirs.

The people of this country are not looking to us for a revolution. They want us to make a start.

I want you with me in that task. I want you with me. Head and heart.

Because this can only be done together.

Leaders lead, but in the end the people govern.

Some of you will think we are too modest in our aims, too cautious.

Some of you support me because you think I can win. But it is not enough.

We are not going to win despite our beliefs.

We will only win because of our beliefs.

I want to win not because the Tories are despised, but because we are understood, supported, trusted.

There is no choice between being principled and unelectable; and electable and unprincipled. We have tortured ourselves with this foolishness for too long.

We should win because of what we believe.

The task of renewing our nation is not one for the faint hearted, or the world weary, or cynical. It is not a task for those afraid of hard choices, for those with complacent views, or those seeking a comfortable life.

At the next election, the voters will have had this Tory government for 17 or 18 years. They may hate them, but they know them. I want them now to know us.

Our identity. Our character as a party.

And change is an important part of that. We have changed. We were right to change. Parties that do not change die, and this party is a living movement not an historical monument.

If the world changes, and we don't, then we become of no use to the world. Our principles cease being principles and just ossify into dogma. We haven't changed to forget our principles, but to fulfil them. Not to lose our identity but to keep our relevance.

Change is an important part of gaining the nation's trust. We were right to introduce one member one vote last year and that change is done.

And look at how the Regeneration Project being run from Party HQ has begun the task of taking the party closer to those communities.

Are we not right to reach out and touch the people in this way, to show them that politics is not some byzantine game played out over screeds of paper in wintry meeting rooms but a real and meaningful part of their lives.

This week we reach out further. On Friday John Prescott will announce the biggest programme of political education undertaken by any party in Britain for a generation.

John's efforts will be central not just to building our membership but in engaging those members - new and old - to help shape this party's future.

Let us have the confidence once again that we can debate new ideas, new thinking, without forever fearing the taunt of betrayal.

Let us say what we mean and mean what we say.

Not just what we are against.

But what we are for.

No more ditching. No more dumping.

Stop saying what we don't mean. And start saying what we do mean, what we stand by, what we stand for.

Caution will not win us the next election. Courage will.

It is time we had a clear, up-to-date statement of the objects and objectives of our party. John Prescott and I, as leader and deputy leader of our party, will propose such a statement to the NEC.

Let it then be open to debate in the coming months. I want the whole party involved, and I know this party will welcome this debate.

And if that statement is accepted, then let it become the objects of our party for the next election and take its place in our constitution for the next century.

This is a modern party living in an age of change. It requires a modern constitution that says what we are in terms the public cannot misunderstand and the Tories cannot misrepresent.

We are proud of our beliefs. So let's state them. And in terms that people will identify with in every workplace, every home, every family, every community in our country.

And let this party's determination to change be the symbol of the trust they can place in us to change the country.

The British people are a great people.

- We have proud democratic traditions.

- We are a nation of tolerance, innovation and creativity.
- We have an innate sense of fair play.
- We have a great history and culture.
- And when great challenges face us, as they have twice this century, we rise to them.

But if we have a fault, it is that unless roused, we tend to let things be. We say "things could be worse" rather than "things should be better". And the Tories encourage this fault. They thrive on complacency.

I say it is time we were roused.

Let us be blunt.

- Our system of Government has become outdated.
- Our economy has been weakened
- Our people have been under-educated
- Our welfare state and public services have been run down
- and our society has been made more divided than at any time for 100 years,

But our politics need not be like this. Our country need not be like this.

Ours is a project of national renewal, renewing our commitment as a nation, as a community of people in order to prepare and provide for ourselves in the new world we face.

We must build a nation with pride in itself. A thriving community, rich in economic prosperity, secure in social justice, confident in political change. A land in which our children can bring up their children with a future to look forward to.

That is our hope. Not just to promise change - but to achieve it.

Our Party - New Labour.

Our mission - New Britain.

New Labour. New Britain.

New Labour because Britain deserves better Britain will be better with new Labour

'Our case is simple: that Britain can and must be better'

'The vision is one of national renewal, a country with drive, purpose and energy'

'In each area of policy a new and distinctive approach has been mapped out, one that differs from the old left and the Conservative right. This is why new Labour is new'

'New Labour is a party of ideas and ideals but not of outdated ideology. What counts is what works. The objectives are radical. The means will be modern'

'This is our contract with the people'

I believe in Britain. It is a great country with a great history. The British people are a great people. But I believe Britain can and must be better: better schools, better hospitals, better ways of tackling crime, of building a modern welfare state, of equipping ourselves for a new world economy.

I want a Britain that is one nation, with shared values and purpose, where merit comes before privilege, run for the many not the few, strong and sure of itself at home and abroad.

I want a Britain that does not shuffle into the new millennium afraid of the future, but strides into it with confidence.

I want to renew our country's faith in the ability of its government and politics to deliver this new Britain. I want to do it by making a limited set of important promises and achieving them. This is the purpose of the bond of trust I set out at the end of this introduction, in which ten specific commitments are put before you. Hold us to them. They are our covenant with you.

I want to renew faith in politics by being honest about the last 18 years. Some things the Conservatives got right. We will not change them. It is where they got things wrong that we will make change. We have no intention or desire to replace one set of dogmas by another.

I want to renew faith in politics through a government that will govern in the interest of the many, the broad majority of people who work hard, play by the rules, pay their dues and feel let down by a political system that gives the breaks to the few, to an elite at the top increasingly out of touch with the rest of us.

And I want, above all, to govern in a way that brings our country together, that unites our nation in facing the tough and dangerous challenges of the new economy and changed society in which we must live. I want a Britain which we all feel part of, in whose future we all have a stake, in which what I want for my own children I want for yours.

A new politics

The reason for having created new Labour is to meet the challenges of a different world. The millennium symbolises a new era opening up for Britain. I am confident about our future prosperity, even optimistic, if we have the courage to change and use it to build a better Britain.

To accomplish this means more than just a change of government. Our aim is no less than to set British political life on a new course for the future.

People are cynical about politics and distrustful of political promises. That is hardly surprising. There have been few more gross breaches of faith than when the Conservatives under Mr Major promised, before the election of 1992, that they would not raise taxes, but would cut them every year; and then went on to raise them by the largest amount in peacetime history starting in the first Budget after the election. The Exchange Rate Mechanism as the cornerstone of economic policy, Europe, health, crime, schools, sleaze - the broken promises are strewn across the country's memory.

The Conservatives' broken promises taint all politics. That is why we have made it our guiding rule not to promise what we cannot deliver; and to deliver what we promise. What follows is not the politics of a 100 days that dazzles for a time, then fizzles out. It is not the politics of a revolution, but of a fresh start, the patient rebuilding and renewing of this country - renewal that can take root and build over time.

That is one way in which politics in Britain will gain a new lease of life. But there is another. We aim to put behind us the bitter political struggles of left and right that have torn our country apart for too many decades. Many of these conflicts have no relevance whatsoever to the modern world - public versus private, bosses versus workers, middle class versus working class. It is time for this country to move on and move forward. We are proud of our history, proud of what we have achieved - but we must learn from our history, not be chained to it.

New Labour

The purpose of new Labour is to give Britain a different political choice: the choice between a failed Conservative government, exhausted and divided in everything other than its desire to cling on to power, and a new and revitalised Labour Party that has been resolute in transforming itself into a party of the future. We have rewritten our constitution, the new Clause IV, to put a commitment to enterprise alongside the commitment to justice. We have changed the way we make policy, and put our relations with the trade unions on a modern footing where they accept they can get fairness but no favours from a Labour government. Our MPs are all now selected by ordinary party members, not small committees or pressure groups. The membership itself has doubled, to over 400,000, with half the members having joined since the last election.

We submitted our draft manifesto, new Labour new life for Britain, to a ballot of all our members, 95 per cent of whom gave it their express endorsement.

We are a national party, supported today b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from the successful businessman or woman to the pensioner on a council estate. Young people have flooded in to join us in what is the fastest growing youth section of any political party in the western world.

The vision

We are a broad-based movement for progress and justice. New Labour is the political arm of none other than the British people as a whole. Our values are the same: the equal worth of all, with no one cast aside; fairness and justice within strong communities.

But we have liberated these values from outdated dogma or doctrine, and we have applied these values to the modern world.

I want a country in which people get on, do well, make a success of their lives. I have no time for the politics of envy. We need more successful entrepreneurs, not fewer of them. But these life-chances should be for all the people. And I want a society in which ambition and compassion are seen as partners not opposites - where we value public service as well as material wealth.

New Labour believes in a society where we do not simply pursue our own individual aims but where we hold many aims in common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them. How we build the industry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the future; how we tackle the division and inequality in our society; how we care for and enhance our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how we develop modern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how we create communities that are safe, where mutual respect and tolerance are the order of the day. These are things we must achieve together as a country.

The vision is one of national renewal, a country with drive, purpose and energy. A Britain equipped to prosper in a global economy of technological change; with a modern welfare state; its politics more accountable; and confident of its place in the world.

Programme: a new centre and centre-left politics

In each area of policy a new and distinctive approach has been mapped out, one that differs both from the solutions of the old left and those of the Conservative right. This is why new Labour is new. We believe in the strength of our values, but we recognise also that the policies of 1997 cannot be those of 1947 or 1967. More detailed policy has been produced by us than by any opposition in history. Our direction and destination are clear.

The old left would have sought state control of industry. The Conservative right is content to leave all to the market. We reject both approaches. Government and industry must work together to achieve key objectives aimed at enhancing the dynamism of the market, not undermining it.

In industrial relations, we make it clear that there will be no return to flying pickets, secondary action,

strikes with no ballots or the trade union law of the 1970s. There will instead be basic minimum rights for the individual at the workplace, where our aim is partnership not conflict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n economic management, we accept the global economy as a reality and reject the isolationism and 'go-it-alone' policies of the extremes of right or left.

In education, we reject both the idea of a return to the 11-plus and the monolithic comprehensive schools that take no account of children's differing abilities. Instead we favour all-in schooling which identifies the distinct abilities of individual pupils and organises them in classes to maximise their progress in individual subjects. In this way we modernise the comprehensive principle,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its 30 years of application.

In health policy, we will safeguar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NHS, which we founded, but will not return to the top-down management of the 1970s. So we will keep the planning and provision of healthcare separate, but put planning on a longer-term, decentralised and more co-operative basis. The key is to root out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st, and to spend money on the right things - frontline care.

On crime, we believe in personal responsibility and in punishing crime, but also tackling its underlying causes - so, tough on crime,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different from the Labour approach of the past and the Tory policy of today.

Over-centralisation of government and lack of accountability was a problem in governments of both left and right. Labour is committed to the democratic renewal of our country through decentralisation and the elimination of excessive government secrecy.

In addition, we will face up to the new issues that confront us. We will be the party of welfare reform. In consultation and partnership with the people, we will design a modern welfare state based on rights and duties going together, fit for the modern world.

We will stand up for Britain's interests in Europe after the shambles of the last six years, but, more than that, we will lead a campaign for reform in Europe. Europe isn't working in the way this country and Europe need. But to lead means to be involved, to be constructive, to be capable of getting our own way.

We will put concern for the environment at the heart of policy-making, so that it is not an add-on extra, but informs the whole of government, from housing and energy policy through to global warming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We will search out at every turn new ways and new ideas to tackle the new issues: how to encourage more flexible working hours and practices to suit employees and employers alike; how to harness the huge potential of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how to simplify the processes of the government machine; how to put public and private sector together in partnership to give us the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ystem we need.

We will be a radical government. But the definition of radicalism will not be that of doctrine, whether of left or right, but of achievement. New Labour is a party of ideas and ideals but not of outdated ideology. What counts is what works. The objectives are radical. The means will be modern.

So the party is transformed. The vision is clear. And from that vision stems a modern programme of change and renewal for Britain. We understand that after 18 years of one-party rule, people want chang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country and for democracy, but require faith to make the change.

We therefore set out in the manifesto that follows ten commitments, commitments that form our bond of trust with the people. They are specific. They are real. Judge us on them. Have trust in us and we will repay that trust.

Our mission in politics is to rebuild this bond of trust between government and the people. That is the only way democracy can flourish. I pledge to Britain a government which shares their hopes, which understands their fears, and which will work as partners with and for all our people, not just the privileged few. This is our contract with the people.

Over the five years of a Labour government:

1 Education will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we will increase the share of national income spent on education as we decrease it on the bills of economic and social failure

2 There will be no increase in the basic or top rates of income tax

3 We will provide stable economic growth with low inflation, and promote dynamic and competitive business and industry at home and abroad

4 We will get 250,000 young unemployed off benefit and into work

5 We will rebuild the NHS, reducing spending on administration and increasing spending on patient care

6 We will be tough on crime and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and halve the time it takes persistent juvenile offenders to come to court

7 We will help build strong families and strong communities, and lay the foundations of a modern welfare state in pensions and community care

8 We will safeguard our environment, and develop an integrated transport policy to fight congestion and pollution

9 We will clean up politics, decentralise political power throughout the United Kingdom and put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on a proper and accountable basis

10 We will give Britain the leadership in Europe which Britain and Europe need

We have modernised the Labour Party and we will modernise Britain. This means knowing where we want to go; being clear-headed about the country's future; telling the truth; making tough choices; insisting that all parts of the public sector live within their means; taking on vested interests that hold people back; standing up to unreasonable demands from any quarter; and being prepared to give a moral lead where government has responsibilities it should not avoid.

Britain does deserve better. And new Labour will be better for Britain.

Tony Blair

We will make education our number one priority

- Cut class sizes to 30 or under for 5, 6 and 7 year-olds
- Nursery places for all four year-olds
- Attack low standards in schools
- Access to computer technology
- Lifelong learning through a new University for Industry
- More spending on education as the cost of unemployment falls

Education has been the Tories' biggest failure. It is Labour's number one priority.

It is not just good for the individual. It is an economic necessity for the nation. We will compete successfully on the basis of quality or not at all. And quality comes from developing the potential of all our people. It is the people who are our greatest natural asset. We will ensure they can fulfil their potential.

Nearly half of 11 year-olds in England and Wales fail to reach expected standards in English and maths. Britain has a smaller share of 17 and 18 year-olds in full-time education than any major industrial nation. Nearly two thirds of the British workforce lack vocational qualifications.

There are excellent schools in Britain's state education system. But far too many children are denied the opportunity to succeed. Our task is to raise the standards of every school.

We will put behind us the old arguments that have bedevilled education in this country. We reject the Tories' obsession with school structures: all parents should be offered real choice through good quality schools, each with its own strengths and individual ethos. There should be no return to the 11-plus. It divides children into successes and failures at far too early an age.

We must modernise comprehensive schools. Children are not all of the same ability, nor do they learn at the same speed. That means 'setting' children in classes to maximise progress, for the benefit of high-fliers and slower learners alike. The focus must be on levelling up, not levelling down.

With Labour,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will become a leading office of state. It will give a strong and consistent lead to help raise standards in every school. Standards, more than structures, are the key to success. Labour will never put dogma before children's education. Our approach will be to intervene where there are problems, not where schools are succeeding.

Labour will never force the abolition of good schools whether in the private or state sector. Any changes in the admissions policies of grammar schools will be decided by local parents. Church schools will retain their distinctive religious ethos.

We wish to build bridges wherever we can across education divides. The educational apartheid created by the public/private divide diminishes the whole education system.

Zero tolerance of underperformance

Every school has the capacity to succeed. All Local Education Authorities (LEAs) must demonstrate that every school is improving. For those failing schools unable to improve, ministers will order a 'fresh start' - close the school and start afresh on the same site. Where good schools and bad schools coexist side by side we will authorise LEAs to allow one school to take over the other to set the underperforming school on a new path.

Quality nursery education guaranteed for all four year-olds

Nursery vouchers have been proven not to work. They are costly and do not generate more quality nursery places. We will use the money saved by scrapping nursery vouchers to guarantee places for four year-olds. We will invite selected local authorities to pilot early excellence centres combining education and care for the under-fives. We will set targets for universal provision for three year-olds whose parents want it.

New focus on standards in primary schools

Primary schools are the key to mastering the basics and developing in every child an eagerness to learn.

Every school needs baseline assessment of pupils when they enter the school, and a year-on-year target for improvement.

We will reduce class sizes for five, six and seven year-olds to 30 or under, by phasing out the assisted places scheme, the cost of which is set to rise to ?180 million per year.

We must recognise the three 'r's for what they are - building blocks of all learning that must be taught better. We will achieve this by improving the skills of the teaching force; ensuring a stronger focus on literacy in the curriculum; and piloting literacy summer schools to meet our new target that within a decade every child leaves primary school with a reading age of at least 11 (barely half do today).

Our numeracy taskforce will develop equally ambitious targets. We will encourage the use of the most effective teaching methods, including phonics for reading and whole class interactive teaching for maths.

Attacking educational disadvantage

No matter where a school is, Labour will not tolerate under-achieve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ll improve the condition of school buildings.

There will be education action zones to attack low standards by recruiting the best teachers and head teachers to under-achieving schools; by supporting voluntary mentoring schemes to provide one-to-one support for disadvantaged pupils; and by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children, after the age of 14, to enhance their studies by acqui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in industry and commerce.

To attack under-achievement in urban areas, we have developed a new scheme with the Premier League. In partnerships betwee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ootball clubs, study support centres will

be set up at Premier League grounds for the benefit of local children. The scheme will be launched on a pilot basis during the 1997/8 season.

We support the greatest possible integration into mainstream education of pupil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while recognising that specialist facilities are essential to meet particular needs.

Realising the potential of new technology

Labour is the pioneer of new thinking. We have agreed with British Telecom and the cable companies that they will wire up schools, libraries, colleges and hospitals to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free of charge. We have also secured agreement to make access charges as low as possible.

For the Internet we plan a National Grid for Learning, franchised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will bring to teachers up-to-date materials to enhance their skills, and to children high-quality educational materials. We will use lottery money to improve the skills of existing teach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In opposition, Labour set up the independent Stevenson Commission to promote access for children to new technology. Its recent report is a challenging programme for the future. We are urgently examining how to implement its plan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oftware through a grading system which will provide schools with guarantees of product quality; and the provision for every child of an individual email address. An independent standing committee will continue to advise us on the implementation of our plans in government.

The role of parents

We will increase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s.

There will be more parent governors and, for the first time, parent representatives on LEAs.

A major objective is to promote a cultur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within the family, through contracts between all schools and parents, defining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National guidelines will establish minimum periods for homework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pupils.

Teachers will be entitled to positive support from parents to promote good attendance and sound discipline. Schools suffer from unruly and disruptive pupils. Exclusion or suspension may sometimes be necessary. We will, however, pilot new pupil referral units so that schools are protected but these pupils are not lost to education or the country.

New job description for LEAs

The judge and jury of LEA performance will be their contribution to raising standards.

LEAs are closer to schools than central government, and have the authority of being locally elected. But they will be required to devolve power, and more of their budgets, to heads and governors. LEA performance will be inspected by Ofsted and the Audit Commission. Where authorities are deemed to be failing, the secretary of state may suspend the relevant powers of the LEA and send in an improvement team.

Grant maintained schools

Schools that are now grant maintained will prosper with Labour's proposals, as will every school.

Tory claims that Labour will close these schools are false. The system of funding will not discriminate unfairly either between schools or between pupils. LEAs will be represented on governing bodies, but will not control them. We support guidelines for open and fair admissions, along the lines of those introduced in 1993; but we will also provide a right of appeal to an independent panel in disputed cases.

Teachers: pressure and support

Schools are critically dependent on the quality of all staff. The majority of teachers are skilful and dedicated, but some fall short. We will improve teacher training, and ensure that all teachers have an induction year when they first qualify, to ensure their suitability for teaching.

There will be a general teaching council to speak for and raise standards in the profession. We will create a new grade of teachers to recognise the best. There will, however, be speedy, but fair, procedures to remove teachers who cannot do the job.

The strength of a school is critically dependent on the quality of its head. We will establish mandatory qualifications for the post. A head teacher will be appointed to a position only when fully trained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Higher education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needed cannot be funded out of general taxation. Our proposals for funding have been made to the Dearing Committee, in line with successful policies abroad.

The costs of student maintenance should be repaid by graduates on an income-related basis, from the career success to which higher education has contributed. The current system is badly administered and payback periods are too short. We will provide efficient administration, with fairness ensured by longer payback periods where required.

Lifelong learning

We must learn throughout life, to retain employment through new and improved skills. We will promote adult learning both at work and in the critical sector of further education.

In schools and colleges, we support broader A-levels and upgraded vocational qualifications, underpinned by rigorous standards and key skills.

Employer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raining their workforces in job-related skills. But individual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invest in training. We will invest public money for training in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which individuals - for example women returning to the labour force - can then use to gain the skills they want. We will kickstart the programme for up to a million people, using 150 million pounds of TEC money which could be better used and which would provide a contribution of 150 pounds, alongside individuals making small investments of their own. Employers will be encouraged to make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se funds. We will also promote the extension of the Investors in People initiative into many more small firms.

Our new University for Industry, collaborating with the Open University, will bring new opportunities to adults seeking to develop their potential. This will bring government, industry and education together to create a new resource whose remit will be to use new technology to enhance skills and education. The University for Industry will b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commissioning software and developing the links to extend lifelong learning.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The Conservatives have cut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as a share of national income by the equivalent of more than 3 billion pounds as spending on the bills of economic and social failure has risen. We are committed to reversing this trend of spending. Over the course of a five-year Parliament, as we cut the costs of economic and social failure we will raise the proportion of national income spent on education.

We will promote personal prosperity for all

- Economic stability to promote investment
- Tough inflation target, mortgage rates as low as possible
- Stick for two years within existing spending limits
- Five-year pledge: no increase in income tax rates
- Long-term objective of ten pence starting rate of income tax
- Early Budget to get people off welfare and into work

The Conservatives have in 18 years created the two longest, deepest recessions this century.

We have experienced the slowest average growth rate of any similar period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failure to tackle the underlying causes of inflation, of low growth and of unemployment. These are:

- too much economic instability, with wild swings from boom to bust
- too little investment in education and skills, and in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 too few opportunities to find jobs, start new businesses or become self-employed
- too narrow an industrial base and too little sense of common purpose in the workplace or across the nation.

Britain can do better. We must build on the British qualities of inventiveness, creativity and adaptability. New Labour's objective is to improve living standards for the many, not just the few. Business can and must succeed in raising productivity. This requires a combination of a skilled and educated workforce with investment in the latest technological innovations, as the route to higher wages and employment.

An explicit objective of a Labour government will be to raise the trend rate of growth by strengthening our wealth-creating base. We will nurture investment in industry, skills, infrastructure and new technologies. And we will attack long-term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Our goal will be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Economic stability is the essential platform for sustained growth. In a global economy the route to growth is stability not inflation. The priority must be stable, low-inflation conditions for long-term growth. The root causes of inflation and low growth are the same - an economic and industrial base that remains weak.

Government cannot solve all economic problems or end the economic cycle. But by spending wisely and taxing fairly, government can help tackle the problems. Our goals are low inflation, rising living standards and high and stable levels of employment.

Spending and tax: new Labour's approach

The myth that the solution to every problem is increased spending has been comprehensively dispelled under the Conservatives. Spending has risen. But more spending has brought neither greater fairness nor less poverty. Quite the reverse - our society is more divided than it has been for generations. The level of public spending is no longer the best measure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action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what money is actually spent on that counts more than how much money is spent.

The national debt has doubled under John Major. The public finances remain weak. A new Labour government will give immediate high priority to seeing how public money can be better used.

New Labour will be wise spenders, not big spenders. We will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to achieve our goals. We will ask about public spending the first question that a manager in any company would ask - can existing resources be used more effectively to meet our priorities? And because efficiency and value for money are central, ministers will be required to save before they spend.

Save to invest is our approach, not tax and spend.

The increase in taxes under the Conservatives is the most dramatic evidence of economic failure. Since 1992 the typical family has paid more than 2,000 pounds in extra taxes - the biggest tax hike in peacetime history, breaking every promise made by John Major at the last election. The tragedy is that those hardest hit are least able to pay. That is why we strongly opposed the imposition of VAT on fuel: it was Labour that stopped the government from increasing VAT on fuel to 17.5 per cent.

Taxation is not neutral in the way it raises revenue. How and what governments tax sends clear signals about the economic activities they believe should be encouraged or discouraged, and the values they wish to entrench in society. Just as, for example, work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the tax system, environmental pollution should be discouraged.

New Labour will establish a new trust on tax with the British people. The promises we make we will keep. The principles that will underpin our tax policy are clear:

- to encourag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 incentives for all
- to promote savings and investment
- and to be fair and be seen to be fair.

New Labour is not about high taxes on ordinary families. It is about social justice and a fair deal.

New Labour therefore makes the following economic pledges.

Fair taxes

There will be no return to the penal tax rates that existed under both Labour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in the 1970s.

To encourage work and reward effort, we are pledged not to raise the basic or top rates of income tax throughout the next Parliament.

Our long-term objective is a lower starting rate of income tax of ten pence in the pound. Reducing the high marginal rates at the bottom end of the earning scale - often 70 or 80 per cent - is not only fair but desirable to encourage employment.

This goal will benefit the many, not the few. It is in sharp contrast to the Tory goal of abolishing capital gains and inheritance tax, at least half the benefit of which will go to the richest 5,000 families in the country.

We will cut VAT on fuel to five per cent, the lowest level allowed.

We renew our pledge not to extend VAT to food, children's clothes, books and newspapers and public transport fares.

We will also examine the interaction of the tax and benefits systems so that they can be streamlined and modernised, so as to fulfil our objectives of promoting work incentives, reducing poverty and welfare dependency, and strengthening community and family life.

No risks with inflation

We will match the current target for low and stable inflation of 2.5 per cent or less. We will reform the Bank of England to ensure that decision-making on monetary policy is more effective, open, accountable and free from short-term political manipulation.

Strict rules for government borrowing

We will enforce the 'golden rule' of public spending - over the economic cycle, we will only borrow to invest and not to fund current expenditure.

We will ensure that - over the economic cycle - public debt as a proportion of national income is at a stable and prudent level.

Stick to planned public spending allocations for the first two years of office

Our decisions have not been taken lightly. They are a recognition of Conservative mismanagement of the public finances. For the next two years Labour will work within the departmental ceilings for spending already announced. We will resist unreasonable demands on the public purse, including any unreasonable public sector pay demands.

Switch spending from economic failure to investment

We will conduct a central spending review and departmental reviews to assess how to use resources better, while rooting out waste and inefficiency in public spending.

Labour priorities in public spending are different from Tory priorities.

Tax reform to promote saving and investment

We will introduce a new individual savings account and extend the principle of TESSAs and PEPs to promote long-term saving. We will review the corporate and capital gains tax regimes to see how the tax system can promote greater long-term investment.

Labour's welfare-to-work Budget

We will introduce a Budget within two months after the election to begin the task of equipping the British economy and reforming the welfare state to get young people and the long-term unemployed back to work. This welfare-to-work programme will be funded by a windfall levy on the excess profits of the privatised utilities, introduced in this Budget after we have consulted the regulators.

We will help create successful and profitable businesses

- Backing business: skills, infrastructure, new markets
- Gains for consumers with tough competition law
- New measures to help small businesses
- National minimum wage to tackle low pay
- Boost local economic growth with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A strong and effective voice in Europe

New Labour offers business a new deal for the future. We will leave intact the main changes of the 1980s in industrial relations and enterprise. We see healthy profits as an essential motor of a dynamic market economy, and believe they depend on quality products, innovative entrepreneurs and skilled employees. We will build a new partnership with busines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British industry for the 21st century, leading to faster growth.

Many of the fundamentals of the British economy are still weak. Low pay and low skills go together: insecurity is the consequence of economic instability; the absence of quality jobs is a product of the weakness of our industrial base; we suffer from both high unemployment and skills shortages. There is no future for Britain as a low wage economy: we cannot compete on wages with countries paying a tenth or a hundredth of British wages.

We need to win on higher quality, skill, innovation and reliability. With Labour, British and inward investors will find this country an attractive and profitable place to do business.

New Labour believes in a flexible labour market that serves employers and employees alike. But flexibility alone is not enough. We need 'flexibility plus':

- plus higher skills and higher standards in our schools and colleges
- plus policies to ensure economic stability
- plus partnership with business to rais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cience and research and to back small firms
- plus new leadership from Britain to reform Europe, in place of the current policy of drift and disengagement from our largest market
- plus guaranteeing Britain's membership of the single market - indeed opening up further markets inside and outside the EU - helping make Britain an attractive place to do business

- plus minimum standards of fair treatment, including a national minimum wage plus an imaginative welfare-to-work programme to put the long-term unemployed back to work and to cut social security costs.

A reformed and tougher competition law

Competitiveness abroad must begin with competition at home. Effective competition can bring value and quality to consumers. As an early priority we will reform Britain's competition law. We will adopt a tough 'prohibitive' approach to deter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abuses of market power.

In the utility industries we will promote competition wherever possible. Where competition is not an effective discipline, for example in the water industry which has a poor environmental record and has in most cases been a tax-free zone, we will pursue tough, efficient regulation in the interests of customers, and, in the case of water, i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as well. We recognise the need for open and predictable regulation which is fair both to consumers and to shareholders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incentives for managers to innovate and improve efficiency.

Reinvigorate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Britain's infrastructure is dangerously run down: parts of our road and rail network are seriously neglected, and all too often our urban environment has been allowed to deteriorate.

Labour pioneered the idea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t is Labour local authorities which have done most to create these partnerships at local level.

A Labour government will overcome the problems that have plagued the PFI at a national level. We will set priorities between projects, saving time and expense; we will seek a realistic allocation of risk between the partners to a project; and we will ensure that best practice is spread throughout government. We will aim to simplify and speed up the planning process for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of vital national interest.

We will ensure that self-financing commercial organisations within the public sector - the Post Office is a prime example - are given greater commercial freedom to make the most of new opportunities.

Backing small business

The number of small employers has declined by half a million since 1990.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will have a major role in our plans for economic growth. We will cut unnecessary red tape; provide for statutory interest on late payment of debts; improve support for high-tech start-ups; improve the quality and relevance of advice and training through a reformed Business Links network and the University for Industry; and assist firms to enter overseas markets more effectively.

Local economic growth

Prosperity needs to be built from the bottom up. We will establish one-stop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to co-ordina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help small business and encourage inward investment. Many regions are already taking informal steps to this end and they will be supported.

Strengthen our capability in science, technology and design

The UK must be positively committed to the global pursuit of new knowledge, with a strong science base

in our universities and centres of excellence leading the world. The Dearing Committee represent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promote high-quality standards in science teaching and research throughout UK higher education. We support a collaborative approach between researchers and business, spreading the use of new technology and good design, and exploiting our own inventions to boost business in the UK.

Promoting new green technologies and businesses

There is huge potential to develop Britain's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ies to create jobs, win exports and protect the environment.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onent of modern business practice. We support a major push to promote energy conservation - particularly by the promotion of home energy efficiency schemes, linked to our environment taskforce for the under-25s. We are committed to an energy policy designed to promote cleaner, more efficient energy use and production, including a new and strong drive to develop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and wind energy, and combined heat and power. We see no economic case for the building of any new nuclear power stations.

Key elements of the 1980s trade union reforms to stay

There must be minimum standards for the individual at work, including a minimum wage, within a flexible labour market. We need a sensible balance in industrial relations law - rights and duties go together.

The key elements of the trade union legislation of the 1980s will stay - on ballots, picketing and industrial action. People should be free to join or not to join a union. Where they do decide to join, and where a majority of the relevant workforce vote in a ballot for the union to represent them, the union should be recognised. This promotes stable and orderly industrial relations. There will be full consultation on the most effective means of implementing this proposal.

Partnership at work

The best companies recognise their employees as partners in the enterprise. Employees whose conditions are good are more committed to their companies and are more productive. Many unions and employers are embracing partnership in place of conflict. Government should welcome this.

We are keen to encourage a variety of forms of partnership and enterprise, spreading ownership and encouraging more employees to become owners through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s and co-operatives. We support too the Social Chapter of the EU, but will deploy our influence in Europe to ensure that it develops so as to promote employability and competitiveness, not inflexibility.

A sensibly set national minimum wage

There should be a statutory level beneath which pay should not fall - with the minimum wage decided not on the basis of a rigid formula but according to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time and with the advice of an independent low pay commission, whose membership will include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including small business, and employees.

Every modern industrial country has a minimum wage, including the US and Japan. Britain used to have minimum wages through the Wages Councils. Introduced sensibly, the minimum wage will remove the worst excesses of low pay (and be of particular benefit to women), while cutting some of the massive 4 billion pounds benefits bill by which the taxpayer subsidises companies that pay very low wages.

We will get the unemployed from welfare to work

- Stop the growth of an 'underclass' in Britain
- 250,000 young unemployed off benefit and into work
- Tax cuts for employers who create new jobs for the long-term unemployed
- Effective help for lone parents

There are over one million fewer jobs in Britain than in 1990. One in five families has no one working. One million single mothers are trapped on benefits. There is a wider gap between rich and poor than for generations.

We are determined not to continue down the road of a permanent have-not class, unemployed and disaffected from society. Our long-term objective is high and stable levels of employment. This is the true meaning of a stakeholder economy - where everyone has a stake in society and owes responsibilities to it.

The best way to tackle poverty is to help people into jobs - real jobs. The unemployed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up the opportunity of training places or work, but these must be real opportunities. The government's workfare proposals - with a success rate of one in ten - fail this test.

Labour's welfare-to-work programme will attack unemployment and break the spiral of escalating spending on social security. A one-off windfall levy on the excess profits of the privatised utilities will fund our ambitious programme.

Every young person unemployed for more than six months in a job or training

We will give 250,000 under-25s opportunities for work, education and training. Four options will be on offer, each involving day-release education or training leading to a qualification: private-sector job: employers will be offered a 60 pound-a-week rebate for six months work with a non-profit voluntary sector employer, paying a weekly wage, equivalent to benefit plus a fixed sum for six months full-time study for young people without qualifications on an approved course a job with the environment taskforce, linked to Labour's citizens' service program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ust go hand in hand, without a fifth option of life on full benefit.

Every 16 and 17 year-old on the road to a proper qualification by the year 2000

Nearly a third of young people do not achieve an NVQ level two qualification by age 19. All young people will be offered part-time or full-time education after the age of 16. Any under-18 year-old in a job will have the right to study on an approved course for qualifications at college. We will replace the failed Youth Training scheme with our new Target 2000 programme, offering young people high-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Action on long-term unemployment

New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fully involving local authorities and the voluntary sector, will attack long-term joblessness. We will encourage employers to take on those who have suffered unemployment for more than two years with a 75 pound-a-week tax rebate paid for six months, financed by the windfall levy. Our programme for the phased release of past receipts from council house sales will provide new job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Lone parents into work

Today the main connection between unemployed lone parents and the state is their benefits. Most lone parents want to work, but are given no help to find it. New Labour has a positive policy. Once the youngest child is in the second term of full-time school, lone parents will be offered advice by a proactive Employment Service to develop a package of job search, training and after-school care to help them off benefit.

Customised, personalised services

We favour initiatives with new combinations of available benefits to suit individual circumstances. In new and innovative 'Employment Zones', personal job accounts will combine money currently available for benefits and training, to offer the unemployed new options - leading to work and independence. We will co-ordinate benefits, employment and career services, and utilise new technology to improve their quality and efficiency.

Fraud

Just as we owe it to the taxpayer to crack down on tax avoidance, so we must crack down on dishonesty in the benefit system. We will start with a clampdown on Housing Benefit fraud, estimated to cost 2 billion pounds a year, and will maintain action against benefit fraud of all kinds.

We will save the NHS

- 100,000 people off waiting lists
- End the Tory internal market
- End waiting for cancer surgery
- Tough quality targets for hospitals
- Independent food standards agency
- New public health drive
- Raise spending in real terms every year - and spend the money on patients not bureaucracy

Labour created the NHS 50 years ago. It is under threat from the Conservatives. We want to save and modernise the NHS.

But if the Conservatives are elected again there may well not be an NHS in five years' time - neither national nor comprehensive. Labour commits itself anew to the historic principle: that if you are ill or injured there will be a national health service there to help; and access to it will be based on need and need alone - not on your ability to pay, or on who your GP happens to be or on where you live.

In 1990 the Conservatives imposed on the NHS a complex internal market of hospitals competing to win contracts from health authorities and fundholding GPs. The result is an NHS strangled by costly red tape, with every individual transaction the subject of a separate invoice. After six years, bureaucracy swallows an extra 1.5 billion pounds per year; there are 20,000 more managers and 50,000 fewer nurses on the wards; and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are on waiting lists.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failed to meet even its own health targets.

There can be no return to top-down management, but Labour will end the Conservatives' internal market

in healthcare. The planning and provision of care are necessary and distinct functions, and will remain so. But under the Tories, the administrative costs of purchasing care have undermined provision and the market system has distorted clinical priorities. Labour will cut costs by removing the bureaucratic processes of the internal market.

The savings achieved will go on direct care for patients. As a start, the first 100 million pounds saved will treat an extra 100,000 patients. We will end waiting for cancer surgery, thereby helping thousands of women waiting for breast cancer treatment.

Primary care will play a lead role

In recent years, GPs have gained power on behalf of their patients in a changed relationship with consultants, and we support this. But the development of GP fundholding has also brought disadvantages. Decision-making has been fragmented. Administrative costs have grown. And a two-tier service has resulted.

Labour will retain the lead role for primary care but remove the disadvantages that have come from the present system. GPs and nurses will take the lead in combining together locally to plan local health services more efficiently for all the patients in their area. This will enable all GPs in an area to bring their combined strength to bear upon individual hospitals to secure higher standards of patient provision. In making this change, we will build on the existing collaborative schemes which already serve 14 million people.

The current system of year-on-year contracts is costly and unstable. We will introduce three- to five-year agreements between the local primary care teams and hospitals. Hospitals will then be better able to plan work at full capacity and co-operate to enhance patient services.

Higher-quality services for patients

Hospitals will retain their autonomy over day-to-day administrative functions, but, as part of the NHS, they will be required to meet high-quality standards in the provision of care. Management will be held to account for performance levels. Boards will become more representative of the local communities they serve. A new patients' charter will concentrate on the quality and success of treatment. The Tories' so-called 'Efficiency Index' counts the number of patient 'episodes', not the quality or success of treatment. With Labour, the measure will be quality of outcome, itself an incentive for effectiveness. As part of our concern to ensure quality, we will work towards the elimination of mixed-sex wards.

Health authorities will become the guardians of high standards. They will monitor services, spread best practice and ensure rising standards of care.

The Tory attempt to use private money to build hospitals has failed to deliver. Labour will overcome the problems that have plagued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end the delays, sort out the confusion and develop new form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work better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NHS. Labour is opposed to the privatisation of clinical services which is being actively promoted by the Conservatives.

Labour will promote new developments in telemedicine - bringing expert advice from regional centres of excellence to neighbourhood level using new technology.

Good health

A new minister for public health will attack the root causes of ill health, and so improve lives and save the NHS money. Labour will set new goals for improving the overall health of the nation which recognise the impact that poverty, poor housing, unemployment and a polluted environment have on health.

Smoking is the greatest single cause of preventable illness and premature death in the UK. We will therefore ban tobacco advertising.

Labour will establish an independent food standards agency. The 3.5 billion pounds BSE crisis and the E. coli outbreak which resulted in serious loss of life, have made unanswerable the case for the independent agency we have proposed.

NHS spending

The Conservatives have wasted spending on the NHS. We will do better. We will raise spending on the NHS in real terms every year and put the money towards patient care. And a greater proportion of every pound spent will go on patient care not bureaucracy.

An NHS for the future

The NHS requires continuity as well as change, or the system cannot cope. There must be pilots to ensure that change works. And there must be flexibility, not rigid prescription, if innovation is to flourish.

Our fundamental purpose is simple but hugely important: to restore the NHS as a public service working co-operatively for patients, not a commercial business driven by competition.

We will be tough on crime and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 Fast-track punishment for persistent young offenders
- Reform Crown Prosecution Service to convict more criminals
- Police on the beat not pushing paper
- Crackdown on petty crimes and neighbourhood disorder
- Fresh parliamentary vote to ban all handguns

Under the Conservatives, crime has doubled and many more criminals get away with their crimes: the number of people convicted has fallen by a third, with only one crime in 50 leading to a conviction. This is the worst record of any governme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 and for England and Wales the worst record of any major industrialised country. Last year alone violent crime rose 11 per cent.

We propose a new approach to law and order: tough on crime and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We insist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crime, and will attack the causes of crime by our measures to relieve social deprivation.

The police have our strong support. They are in the front line of the fight against crime and disorder. The Conservatives have broken their 1992 general election pledge to provide an extra 1,000 police officers. We will relieve the police of unnecessary bureaucratic burdens to get more officers back on the beat.

Youth crime

Youth crime and disorder have risen sharply, but very few young offenders end up in court, and when they do half are let off with another warning. Young offenders account for seven million crimes a year.

Far too often young criminals offend again and again while waiting months for a court hearing. We will halve the time it takes to get persistent young offenders from arrest to sentencing; replace widespread repeat cautions with a single final warning; bring together Youth Offender Teams in every area; and streamline the system of youth courts to make it far more effective.

New parental responsibility orders will make parents face up to their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s misbehaviour.

Conviction and sentencing

The job of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is to prosecute criminals effectively.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the CPS is over-centralised, bureaucratic and inefficient, with cases too often dropped, delayed, or downgraded to lesser offences.

Labour will decentralise the CPS, with local crown prosecutors co-operating more effectively with local police forces.

We will implement an effective sentencing system for all the main offences to ensure greater consistency and stricter punishment for serious repeat offenders. The courts will have to spell out what each sentence really means in practice. The Court of Appeal will have a duty to lay down sentencing guidelines for all the main offences. The attorney general's power to appeal unduly lenient sentences will be extended.

The prison service now faces serious financial problems. We will audit the resources available, take proper ministerial responsibility for the service, and seek to ensure that prison regimes are constructive and require inmates to face up to their offending behaviour.

Disorder

The Conservatives have forgotten the 'order' part of 'law and order'. We will tackle the unacceptable level of anti-social behaviour and crime on our streets. Our 'zero tolerance' approach will ensure that petty criminality among young offenders is seriously addressed.

Community safety orders will deal with threatening and disruptive criminal neighbours. Labour has taken the lead in proposing action to tackle the problems of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Child protection orders will deal with young children suffering neglect by parents because they are left out on their own far too late at night.

Britain is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ll its members must have the protection of the law. We will create a new offence of racial harassment and a new crime of racially motivated violence to protect ethnic minorities from intimidation.

Drugs

The vicious circle of drugs and crime wrecks lives and threatens communities. Labour will appoint an anti-drugs supremo to co-ordinate our battle against drugs across all government departments. The 'drug czar' will be a symbol of our commitment to tackle the modern menace of drugs in our communities.

We will pilot the use of compulsory drug testing and treatment orders for offenders to ensure that the link between drug addiction and crime is broken. This will be paid for by bringing remand delays down to the national targets.

We will attack the drug problem in prisons. In addition to random drug testing of all prisoners we will aim for a voluntary testing unit in every prison for prisoners ready to prove they are drug-free.

Victims

Victims of crime are too often neglect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e will ensure that victims are kept fully informed of the progress of their case, and why charges may have been downgraded or dropped.

Greater protection will be provided for victims in rape and serious sexual offence trials and for those subject to intimidation, including witnesses.

Prevention

We will place a new responsibility on local authorities to develop statutory partnerships to help prevent crime. Local councils will then be required to set targets for the reduction of crime and disorder in their area.

Gun control

In the wake of Dunblane and Hungerford, it is clear that only the strictest firearms laws can provide maximum safety. The Conservatives failed to offer the protection required. Labour led the call for an outright ban on all handguns in general civilian use. There will be legislation to allow individual MPs a free vote for a complete ban on handguns.

Labour is the party of law and order in Britain today.

We will strengthen family life

- Help parents balance work and family
- Security in housing and help for homeowners
- Tackle homelessness using receipts from council house sales
- Dignity and security in retirement
- Protect the basic state pension and promote secure second pensions

We will uphold family life as the most secure means of bringing up our children. Families are the core of our society. They should teach right from wrong. They should be the first defence against anti-social behaviour. The breakdown of family life damages the fabric of our society.

Labour does not see families and the state as rival providers for the needs of our citizens. Families should provide the day-to-day support for children to be brought up in a stable and loving environment. But

families cannot flourish unless government plays its distinctive role: in education; where necessary, in caring for the young; in making adequate provision for illness and old age; in supporting good parenting; and in protecting families from lawlessness and abuse of power. Society, through government, must assist families to achieve collectively what no family can achieve alone.

Yet families in Britain today are under strain as never before. The security once offered by the health service has been undermined. Streets are not safe. Housing insecurity grows. One in five non-pensioner families has no one working; and British men work the longest hours in Europe.

The clock should not be turned back. As many women who want to work should be able to do so. More equal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have transformed our lives. Equally, our attitudes to race, sex and sexuality have changed fundamentally. Our task is to combine change and social stability.

Work and family

Families without work are without independence. This is why we give so much emphasis to our welfare-to-work policies.

Labour's national childcare strategy will plan provision to match the requirements of the modern labour market and help parents, especially women, to balance family and working life.

There must be a sound balance between support for family life and the protection of business from undue burdens - a balance which some of the most successful businesses already strike. The current government has shown itself wholly insensitive to the need to help develop family-friendly working practices. While recognising the need for flexibility in implementation and for certain exemptions, we support the right of employees not to be forced to work more than 48 hours a week; to an annual holiday entitlement; and to limited unpaid parental leave. These measures will provide a valuable underpinning to family life.

The rights of part-time workers have been clarified by recent court judgements which we welcome.

We will keep under continuous review all aspects of the tax and benefits systems to ensure that they are supportive of families and children. We are committed to retain universal Child Benefit where it is universal today - from birth to age 16 - and to uprate it at least in line with prices. We are reviewing educational finance and maintenance for those older than 16 to ensure higher staying-on rates at school and college, and that resources are used to support those in most need. This review will continue in government on the guidelines we have already laid down.

Security in housing

Most families want to own their own homes. We will also support efficiently run social and private rented sectors offering quality and choice.

The Conservatives' failure on housing has been twofold. The two thirds of families who own their homes have suffered a massive increase in insecurity over the last decade, with record mortgage arrears, record negative equity and record repossessions. And the Conservatives' lack of a housing strategy has led to the virtual abandonment of social housing, the growth of homelessness, and a failure to address fully leaseholder reform. All these are the Tory legacy.

Labour's housing strategy will address the needs of homeowners and tenants alike.

We will reject the boom and bust policies which caused the collapse of the housing market.

We will work with mortgage providers to encourage greater provision of more flexible mortgages to protect families in a world of increased job insecurity.

Mortgage buyers also require stronger consumer protection, for example by exten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Act, against the sale of disadvantageous mortgage packages.

The problems of gazumping have reappeared. Those who break their bargains should be liable to pay the costs inflicted on others, in particular legal and survey costs. We are consulting on the best way of tackling the problems of gazumping in the interests of responsible home buyers and sellers.

The rented housing sector

We support a three-way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housing association sectors to promote good social housing. With Labour, capital receipts from the sale of council houses, received but not spent by local councils, will be re-invested in building new houses and rehabilitating old ones. This will be phased to match the capacity of the building industry an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rudent economic management.

We also support effective schemes to deploy private finance to improve the public housing stock and to introduce greater diversity and choice. Such schemes should only go ahead with the support of the tenants concerned: we oppose the government's threat to hand over council housing to private landlords without the consent of tenants and with no guarantees on rents or security of tenure.

We value a revived private rented sector. We will provide protection where most needed: for tenants in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There will be a proper system of licensing by local authorities which will benefit tenants and responsible landlords alike.

We will introduce 'commonhold', a new form of tenure enabling people living in flats to own their homes individually and to own the whole property collectively. We will simplify the current rules restricting the purchase of freeholds by leaseholders.

Homelessness

Homelessness has more than doubled under the Conservatives. Today more than 40,000 families in England are in expensive temporary accommodation. The government, in the face of Labour opposition, has removed the duty on local authorities to find permanent housing for homeless families. We will impose a new duty on local authorities to protect those who are homeless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and are in priority need.

There is no more powerful symbol of Tory neglect in our society today than young people without homes living rough on the streets. Young people emerging from care without any family suppor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We will attack the problem in two principal ways: the phased release of capital receipts from council house sales will increase the stock of housing for rent; and our welfare-to-work programme will lead the young unemployed into work and financial independence.

Older citizens

We value the positive contribution that older people make to our society, through their families, voluntary activities and work. Their skills and experience should be utilised within their communities. That is why, for example, we support the proposal to involve older people as volunteers to help children learn in pre-school and after-school clubs. In work, they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their age.

The provision of adequate pensions in old age is a major challenge for the future. For today's pensioners Conservative policies have created real poverty, growing inequality and widespread insecurity.

The Conservatives would abolish the state-financed basic retirement pension and replace it with a privatised scheme, with a vague promise of a means-tested state guarantee if pensions fall beneath a minimum level. Their proposals mean there will be no savings on welfare spending for half a century; and taxes will have to rise to make provision for new privately funded pensions. Their plans require an additional 312 billion pounds now and 2040 through increased taxes or borrowing, against the hope of savings later, with no certainty of security in retirement at the end.

We believe that all pensioners should share fairly in the increasing prosperity of the nation. Instead of privatisation, we propose a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provision, and a balance between income sourced from tax and invested savings. The basic state pension will be retained as the foundation of pension provision. It will be increased at least in line with prices. We will examine means of delivering more automatic help to the poorest pensioners - one million of whom do not even receive the Income Support which is their present entitlement.

We will encourage saving for retirement, with proper protection for savings. We will reform the Financial Services Act so that the scandal of pension mis-selling - 600,000 pensions mis-sold and only 7,000 people compensated to date - will not happen again.

Too many people in work, particularly those on low and modest incomes and with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cannot join good-value second pension schemes. Labour will create a new framework - stakeholder pensions - to meet this need. We will encourage new partnerships between financial service companies, employers and employees to develop these pension schemes. They will be approved to receive people's savings only if they meet high standards of value for money, flexibility and security.

Labour will promote choice in pension provision. We will support and strengthen the framework for occupational pensions. Personal pensions, appropriately regulated, will remain a good option for many. Labour will retain SERPS as an option for those who wish to remain within it. We will also seek to develop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SERPS so as to create a 'citizenship pension' for those who assume responsibility as carers, as a result lose out on the pension entitlements they would otherwise acquire, and currently end up on means-tested benefits.

We overcame government opposition to pension splitting between women and men on divorce. We will implement this in government.

We aim to provide real security for families through a modern system of community care. As people grow older, their need for care increases. The Conservative approach is to promote private insurance and

privatisation of care homes. But private insurance will be inaccessible to most people. And their policy for residential homes is dogmatic and will not work. We believe that local authorities should be free to develop a mix of public and private care.

We recognise the immense amount of care provision undertaken by family members, neighbours and friends. It was a Labour MP who piloted the 1995 Carers Act through Parliament. We will establish a Royal Commission to work out a fair system for funding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We will introduce a 'long-term care charter' defining the standard of services which people are entitled to expect from health, housing and social services. We are committed to an independent inspection and regulation service for residential homes, and domiciliary care.

Everyone is entitled to dignity in retirement. Under the Tories, the earnings link for state pensions has been ended, VAT on fuel has been imposed, SERPS has been undermined and community care is in tatters. We will set up a review of the central areas of insecurity for elderly people: all aspects of the basic pension and its value, second pensions including SERPS, and community care. The review will ensure that the views of pensioners are heard. Our watchword in developing policy for pensions and long-term care will be to build consensus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We will help you get more out of life

- Every government department a 'green' department
- Efficient and clean transport for all
- New arts and science talent fund for young people
- Reform the lottery
- Improve life in rural areas
- Back World Cup bid

The millennium is the time to reaffirm our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enhance our environment so that the country we hand on to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is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It also provides a natural opportunity to celebrate and improve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arts, culture and sport to our nation. We need a new and dynamic approach to the 'creative economy'. The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will develop a strategic vision that matches the real power and energy of British arts, media and cultural industries.

Protecting the environment

Our generation, and generations yet to come, are dependent on the integrity of the environment. No one can escape unhealthy water, polluted air or adverse climate change. And just as these problems affect us all, so we must act together to tackle them. No responsible government can afford to take risks with the future: the cost is too high. So it is our duty to act now.

The foundation of Labour's environmental approach is that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cannot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any one department of state. All departments must promote policies to sustain the environment. And Parliament should have an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to ensure high standards across government.

Throughout this manifesto, there are policies designed to combin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They extend from commitments at local level to give communities enhanced control over their environments, to initiatives at international level to ensure that all countries are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 sustainable environment requires above all an effective and integrated transport policy a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 that will provide genuine choice to meet people's transport needs. That is what we will establish and develop.

Railways

The process of rail privatisation is now largely complete. It has made fortunes for a few, but has been a poor deal for the taxpayer. It has fragmented the network and now threatens services. Our task will be to improve the situation as we find it, not as we wish it to be. Our overriding goal must be to win more passengers and freight on to rail. The system must be run in the public interest with higher levels of investment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train operators' service commitments. There must be convenient connections, through-ticketing and accurate travel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all passengers.

To achieve these aims, we will establish more effective and accountable regulation by the rail regulator; we will ensure that the public subsidy serves the public interest; and we will establish a new rail authority, combining functions currently carried out by the rail franchiser and the Department of Transport, to provide a clear, coherent and strategic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the railways so that passenger expectations are met.

The Conservative plan for the wholesale privatisation of London Underground is not the answer. It would be a poor deal for the taxpayer and passenger alike. Yet again, public assets would be sold off at an undervalued rate. Much-needed investment would be delayed. The core public responsibilities of the Underground would be threatened.

Labour plans a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improve the Underground, safeguard its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and guarantee value for money to taxpayers and passengers.

Road transport

A balanced transport system must cater for all the familiar modes of transport: cars - whether owned, leased or shared; taxis; buses; bicycles and motorcycles. All needs must be addressed in transport planning to ensure the best mix of all types of transport, offer quality public transport wherever possible and help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key to efficient bus services is proper regulation at local level, with partnerships between local councils and bus operators an essential component. There must be improved provision and enforcement of bus lanes. Better parking facilities for cars must be linked to convenient bus services to town centres.

Road safety is a high priority. Cycling and walking must be made safer, especially around schools.

We remain unpersuaded by the case for heavier, 44-tonne lorries mooted by the Conservatives. Our concern is that they would prove dangerous and damaging to the environment.

Our plans to reduce pollution include working with the automotive industry to develop 'smart', efficient and clean cars for the future, with substantially reduced emission levels. The review of vehicle excise duty to promote low-emission vehicles will be continued.

We will conduct an overall strategic review of the roads programme against the criteria of accessibility, safety, economy and environmental impact, us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improve road maintenance and exploiting new technology to improve journey information.

Shipping and aviation

The Tory years have seen the near-extinction of Britain's merchant fleet. Labour will work with all concerned in shipping and ports to help develop their economic potential to the full.

The guiding objectives of our aviation strategy will be fair competition, safet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We want all British carriers to be able to compete fairly in the interests of consumers.

Life in our countryside

Labour recognises the special needs of people who live and work in rural areas. The Conservatives do not. Public services and transport services in rural areas must not be allowed to deteriorate. The Conservatives have tried to privatise the Post Office. We opposed that, in favour of a public Post Office providing a comprehensive service. Conservative plans would mean higher charges for letters and put rural post offices under threat.

We favour a moratorium on large-scale sales of Forestry Commission land. We recognise that the countryside is a great natural asset, a part of our heritage which calls for careful stewardship. This must be balanced, however, with the needs of people who live and work in rural areas.

The total failure of the Conservatives to manage the BSE crisis effectively and to secure any raising of the ban on British beef has wreaked havoc on the beef and dairy industries. The cost to the taxpayer so far is 3.5 billion pounds.

Labour aims to reform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to save money, to support the rural economy and enhance the environment.

Our initiatives to link all schools to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will ensure that children in rural areas have access to the best educational resources.

Our policies include greater freedom for people to explore our open countryside. We will not, however, permit any abuse of a right to greater access.

We will ensure greater protection for wildlife. We have advocated new measures to promote animal welfare, including a free vote in Parliament on whether hunting with hounds should be banned by legislation.

Angling is Britain's most popular sport. Labour's anglers' charter affirms our long-standing commitment to angling and to the objective of protecting the aquatic environment.

Arts and culture

The arts, culture and sport are central to the task of recreating the sense of community, identity and civic pride that should define our country. Yet we consistently undervalue the role of the arts and culture in helping to create a civic society - from amateur theatre to our art galleries.

Art, sport and leisure are vital to our quality of life and the renewal of our economy. They are significant earners for Britain. They employ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ey bring millions of tourists to Britain every year, who will also be helped by Labour's plans for new quality assurance in hotel accommodation.

We propose to set up a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and the Arts to sponsor young talent. NESTA will be a national trust - for talent rather than buildings - for the 21st century. NESTA will be partly funded by the lottery; and artists who have gained high rewards from their excellence in the arts and wish to support young talent will be encouraged to donate copyright and royalties to NESTA.

Sport

A Labour government will take the lead in extend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sports; and in identifying sporting excellence and supporting it.

School sports must be the foundation. We will bring the government's policy of forcing schools to sell off playing fields to an end. We will provide full backing to the bid to host the 2006 football World Cup in England. A Labour government will also work to bring the Olympics and other major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o Britain.

A people's lottery

The lottery has been a financial success. But there has been no overall strategy for the allocation of monies; and no co-ordination among the five distributor bodies about the projects deserving to benefit from lottery funding. For example, the multi-million-pound expenditure on the Churchill papers caused national outrage. A Labour government will review the distribution of lottery proceeds to ensure that there is the widest possible access to the benefits of lottery revenues throughout the UK.

Labour has already proposed a new millennium commission to commence after the closure of the Millennium Exhibition, to provide direct support for a range of education,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projects, including those directed at children's play, a project currently excluded from lottery benefit.

Because the lottery is a monopoly intended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it must be administered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When the current contract runs out, Labour will seek an efficient not-for-profit operator to ensure that the maximum sums go to good causes.

Media and broadcasting

Labour aims for a thriving, diverse media industry, combining commercial success and public service. We will ensure that the BBC continues to be a flagship for British creativity and public service broadcasting, but we believe that the combin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competition is a key spur to innovation and high standards.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media and broadcasting should reflect the realities of a far more open and competitive economy, and enormous technological advance, for example with digital television. Labour will balance sensible rules, fair regulation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so maintaining quality and diversity for the benefit of viewers.

Citizens' service for a new millennium

An independent and creative voluntary sector, committed to voluntary activity as an expression of citizenship, is central to our vision of a stakeholder society. We are committed to developing plans for a national citizens' service programme, to tap the enthusiasm and commitment of the many young people who want to make voluntary contributions in service of their communities. The millennium should harness the imagination of all those people who have so much to offer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We do not believe programmes should be imposed from the top down, but on the contrary wish to encourage a broad range of voluntary initiatives devised and developed by people within their own communities.

We will clean up politics

- End the hereditary principle in the House of Lords
- Reform of party funding to end sleaze
- Devolved power in Scotland and Wales
- Elected mayors for London and other cities
- More independent but accountable local government
- Freedom of information and guaranteed human rights

The Conservatives seem opposed to the very idea of democracy. They support hereditary peers, unaccountable quangos and secretive government. They have debased democracy through their MPs who have taken cash for asking questions in the House of Commons. They are opposed to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sed government. The party which once opposed universal suffrage and votes for women now says our constitution is so perfect that it cannot be improved.

Our system of government is centralised, inefficient and bureaucratic. Our citizens cannot assert their basic rights in our own courts. The Conservatives are afflicted by sleaze and prosper from secret funds from foreign supporters. There is unquestionably a national crisis of confidence in our political system, to which Labour will respond in a measured and sensible way.

A modern House of Lords

The House of Lords must be reformed. As an initial, self-contained reform, not dependent on further reform in the future, the right of hereditary peers to sit and vote in the House of Lords will be ended by statute. This will be the first stage in a process of reform to make the House of Lords more democratic and representative.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House of Lords will remain unaltered.

The system of appointment of life peers to the House of Lords will be reviewed. Our objective will be to ensure that over time party appointees as life peers more accurately reflect the proportion of votes cast at the previous general election. We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an independent cross-bench presence of life peers. No one political party should seek a majority in the House of Lords.

A committee of both Houses of Parliament will be appointed to undertake a wide-ranging review of possible further change and then to bring forward proposals for reform.

We have no plans to replace the monarchy.

An effective House of Commons

We believe the House of Commons is in need of modernisation and we will ask the House to establish a special Select Committee to review its procedures. Prime Minister's Questions will be made more effective. Ministerial accountability will be reviewed so as to remove recent abuses. The process for scrutinising European legislation will be overhauled.

The Nolan recommendations will be fully implemented and extended to all public bodies. We will oblige parties to declare the source of all donations above a minimum figure: Labour does this voluntarily and all parties should do so. Foreign funding will be banned. We will ask the Nolan Committee to consider how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regulated and reformed.

We are committed to a referendum on the voting system for the House of Commons. An independent commission on voting systems will be appointed early to recommend a proportional alternative to the first-past-the-post system.

At this election, Labour is proud to be making major strides to rectify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public life.

Open government

Unnecessary secrecy in government leads to arrogance in government and defective policy decisions. The Scott Report on arms to Iraq revealed Conservative abuses of power. We are pledged to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leading to more open government, and an independent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Devolution: strengthening the Union

The United Kingdom is a partnership enriched by distinct national identities and traditions. Scotland has its own systems of education, law and local government. Wales has its language and cultural traditions. We will meet the demand for decentralisation of power to Scotland and Wales, once established in referendums.

Subsidiarity is as sound a principle in Britain as it is in Europe. Our proposal is for devolution not federation. A sovereign Westminster Parliament will devolve power to Scotland and Wales. The Union will be strengthened and the threat of separatism remov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lection, we will enact legislation to allow the people of Scotland and Wales to vote in separate referendums on our proposals, which will be set out in white papers. These referendums will take place not later than the autumn of 1997. A simple majority of those voting in each referendum will be the majority required. Popular endorsement will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our proposals and speed their passage through Parliament.

For Scotland we propose the creation of a parliament with law-making powers, firmly based on the agreement reached in the Scottish Constitutional Convention, including defined and limited financial powers to vary revenue and elected by an additional member system. In the Scottish referendum we will seek separate endorsement of the proposal to create a parliament, and of the proposal to give it defined and limited financial powers to vary revenue. The Scottish parliament will extend democratic control over the responsibilities currently exercised administratively by the Scottish Offi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K Parliament will remain unchanged over UK policy, for example economic, defence and foreign policy.

The Welsh assembly will provide democratic control of the existing Welsh Office functions. It will have secondary legislative powers and will be specifically empowered to reform and democratise the quango state. It will be elected by an additional member system.

Following majorities in the referendums, we will introduce in the first year of the Parliament legislation on the substantive devolution proposals outlined in our white papers.

Good local government

Local decision-making should be less constrained by central government, and also more accountable to local people. We will place on councils a new duty to promote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of their area. They should work in partnership with local people, local business and local voluntary organisations. They will have the powers necessary to develop these partnerships. To ensure greater accountability, a proportion of councillors in each locality will be elected annually. We will encourage democratic innovations in local government, including pilots of the idea of elected mayors with executive powers in cities.

Although crude and universal council tax capping should go, we will retain reserve powers to control excessive council tax rises.

Local business concerns are critical to good local government. There are sound democratic reasons why, in principle, the business rate should be set locally, not nationally. But we will make no change to the present system for determining the business rate without full consultation with business.

The funnelling of government grant to Conservative-controlled Westminster speaks volumes about the unfairness of the current grant system. Labour is committed to a fair distribution of government grant. The basic framework, not every detail, of local service provision must be for central government. Councils should not be forced to put their services out to tender, but will be required to obtain best value. We reject the dogmatic view that services must be privatised to be of high quality, but equally we see no reason why a service should be delivered directly if other more efficient means are available. Cost counts but so does quality.

Every council will be required to publish a local performance plan with targets for service improvement, and be expected to achieve them. The Audit Commission will be given additional powers to monitor performance and promote efficiency. On its advice, government will where necessary send in a management team with full powers to remedy failure.

Labour councils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environmental initiatives under Local Agenda 21,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ocal action arising from the 1992 Earth Summit. A Labour government will encourage all local authorities to adopt plans to protect and enhance their local environment.

Local government is at the sharp end of the fight against deprivation. Ten years after the Conservatives promised to improve the inner cities, poverty and social division afflict towns and outer estates alike. A Labour government will join with local government in a concerted attack against the multiple causes of social and economic decline - unemployment, bad housing, crime, poor health and a degraded environment.

London

London is the only Western capital without an elected city government. Following a referendum to confirm popular demand, there will be a new deal for London, with a strategic authority and a mayor, each directly elected. Both will speak up for the needs of the city and plan its future. They will not duplicate the work of the boroughs, but take responsibility for London-wide issues - economic regeneration, planning, policing, transpor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London-wide responsibility for its own government is urgently required. We will make it happen.

The regions of England

The Conservatives have created a tier of regional government in England through quangos and government regional offices. Meanwhile local authorities have come together to create a more co-ordinated regional voice. Labour will build on these developm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hambers to co-ordinate transport, planning, economic development, bids for European funding and land use planning.

Demand for directly elected regional government so varies across England that it would be wrong to impose a uniform system. In time we will introduce legislation to allow the people, region by region, to decide in a referendum whether they want directly elected regional government. Only where clear popular consent is established will arrangements be made for elected regional assemblies. This would require a predominantly unitary system of local government, as presently exists in Scotland and Wales, and confirmation by independent auditors that no additional public expenditure overall would be involved. Our plans will not mean adding a new tier of government to the existing English system.

Real rights for citizens

Citizens should have statutory rights to enforce their human rights in the UK courts. We will by statute incorporat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to UK law to bring these rights home and allow our people access to them in their national courts. The incorpor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will establish a floor, not a ceiling, for human rights. Parliament will remain free to enhance these rights, for example by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We will seek to end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wherever it exists. For example, we support comprehensive, enforceable civil rights for disabled people against discrimination in society or at work, developed in partnership with all interested parties.

Labour will undertake a wide-ranging review both of the reform of the civil justice system and Legal Aid. We will achieve value for money for the taxpayer and the consumer. A community legal service will develop local, regional and national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Aid according to the needs and priorities of regions and areas. The key to success will be to promote a partnership between the voluntary sector,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Legal Aid Board.

Every country must have firm control over immigration and Britain is no exception. All applications, however, should be dealt with speedily and fairly. There are, rightly, criteria for those who want to enter this country to join husband or wife. We will ensure that these are properly enforced. We will, however, reform the system in current use to remove the arbitrary and unfair results that can follow from the existing 'primary purpose' rule. There will be a streamlined system of appeals for visitors denied a visa.

The system for dealing with asylum seekers is expensive and slow - there are many undecided cases dating back beyond 1993. We will ensure swift and fair decisions on whether someone can stay or go, control unscrupulous immigration advisors and crack down on the fraudulent use of birth certificates.

Northern Ireland

Labour's approach to the peace process has been bipartisan. We have supported the recent agreemen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 the Anglo-Irish Agreement, the Downing Street Declaration and the Framework Document. The government has tabled proposals which include a new devolved legislative body, as well as cross-border co-operation and continued dialogue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re will be as great a priority attached to seeing that process through with Labour as under the Conservatives, in co-operation with the Irish government and the Northern Ireland parties. We will expect the same bipartisan approach from a Conservative opposition.

We wi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the terrorist threat.

There is now general acceptance that the future of Northern Ireland must be determined by the consent of the people as set out in the Downing Street Declaration. Labour recognises that the option of a united Ireland does not command the consent of the Unionist tradition, nor does the existing status of Northern Ireland command the consent of the Nationalist tradition. We are therefore committed to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traditions and to a new political settlement which can command the support of both. Labour will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among both Nationalist and Unionist traditions in Northern Ireland by acting to guarantee human rights, strengthen confidence in policing, combat discrimination at work and reduce tensions over parades. Labour will also foster economic progress and competitiveness in Northern Ireland, so as to reduce unemployment.

We will give Britain leadership in Europe

- Referendum on single currency
- Lead reform of the EU
- Retain Trident: strong defence through NATO
- A reformed United Nations
- Helping to tackle global poverty

Britain, though an island nation with limited natural resources, has for centuries been a leader of nations. But under the Conservatives Britain's influence has waned.

With a new Labour government, Britain will be strong in defence; resolute in standing up for its own interests; an advocate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world over; a reliable and powerful ally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we are a member; and will be a leader in Europe.

Our vision of Europe is of an alliance of independent nations choosing to co-operate to achieve the goals they cannot achieve alone. We oppose a European federal superstate.

There are only three options for Britain in Europe. The first is to come out. The second is to stay in, but on the sidelines. The third is to stay in, but in a leading role.

An increasing number of Conservatives, overtly or covertly, favour the first. But withdrawal would be disastrous for Britain. It would put millions of jobs at risk. It would dry up inward investment. It would destroy our clout i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It would relegate Britain from the premier division of nations.

The second is exactly where we are today under the Conservatives. The BSE fiasco symbolises their failures in Europe.

The third is the path a new Labour government will take. A fresh start in Europe, with the credibility to achieve reform. We have set out a detailed agenda for reform, leading from the front during the UK presidency in the first half of 1998:

- Rapid completion of the single market: a top priority for the British presidency. We will open up markets to competition; pursue tough action against unfair state aids; and ensure proper enforcement of single market rules. This will strengthen Europe's competitiveness and open up new opportunities for British firms.
- High priority for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to include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Cyprus, and the institutional reforms necessary to make an enlarged Europe work more efficiently.
- Urgent reform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It is costly, vulnerable to fraud and not gear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Enlargement and the World Trade talks in 1999 will make reform even more essential. We will seek a thorough overhaul of the Common Fisheries Policy to conserve our fish stocks in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UK fishing industry.
- Greater openness and democracy in EU institutions with open voting in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more effective scrutiny of the Commission by the European Parliament. We have long supported a proportional voting system for elec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 Retention of the national veto over key matters of national interest, such as taxation, defence and security, immigration, decisions over the budget and treaty changes, while considering the extension of Qualified Majority Voting in limited areas where that is in Britain's interests.
- Britain to sign the Social Chapter. An 'empty chair' at the negotiating table is disastrous for Britain. The Social Chapter is a framework under which legislative measures can be agreed. Only two measures have been agreed - consultation for employees of large Europe-wide companies and entitlement to unpaid parental leave. Successful companies already work closely with their workforces. The Social Chapter cannot be used to force the harmonisation of social security or tax legislation and it does not cost jobs. We will use our participation to promote employability and flexibility, not high social costs.

The single currency

Any decision about Britain joining the single currency must be determined by a hard-headed assessment of Britain's economic interests. Only Labour can be trusted to do this: the Tories are riven by faction. But there are formidable obstacles in the way of Britain being in the first wave of membership, if EMU takes place on 1 January 1999. What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EMU is genuine convergence among the

economies that take part, without any fudging of the rules. However, to exclude British membership of EMU forever would be to destroy any influence we have over a process which will affect us whether we are in or out. We must therefore play a full part in the debate to influence it in Britain's interests.

In any event, there are three pre-conditions which would have to be satisfied before Britain could join during the next Parliament: first, the Cabinet would have to agree; then Parliament; and finally the people would have to say 'Yes' in a referendum.

Strong defence through NATO

The post-Cold War world faces a range of new security challenges -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growth of ethnic nationalism and extremism, international terrorism, and crime and drug trafficking. A new Labour government will build a strong defence against these threats. Our security will continue to be based on NATO.

Our armed forces are among the most effective in the world. The country takes pride in their professionalism and courage. We will ensure that they remain strong to defend Britain. But the security of Britain is best served in a secure world, so we should be willing to contribute to wid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oth through the alliances to which we belong, in particular NATO and the Western European Union, and through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UN and th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Labour will conduct a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to reassess our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nd defence needs. It will consider how the roles, missions and capabilities of our armed forces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new strategic realities. The review we propose will be foreign policy led, first assessing our likely overseas commitments and interests and then establishing how our forces should be deployed to meet them.

Arms control

A new Labour government will retain Trident. We will press for multilateral negotiations towards mutual, balanced and verifiable reductions in nuclear weapons. When satisfied with verified progress towards our goal of th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we will ensure that British nuclear weapons are included in multilateral negotiations.

Labour will work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d for a strengthening of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Labour will ban the import, export, transfer and manufacture of all forms of anti-personnel landmines. We will introduce an immediate moratorium on their use. Labour will not permit the sale of arms to regimes that might use them for internal repression or international aggression. We will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decisions on export licences for arms. And we will support an EU code of conduct governing arms sales.

We support a strong UK defence industry, which is a strategic part of our industrial base as well as our defence effort. We believe that part of its expertise can be extended to civilian use through a defence diversification agency.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new Labour government will use Britain's permanent seat on the Security Council to press for

substantial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n early resolution of its funding crisis, and a more effective role in peacekeeping, conflict preventi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safeguarding the global environment.

The Commonwealth provides Britain with a unique network of contacts linked by history, language and legal systems. Labour is committed to giving renewed priority to the Commonwealth in our foreign relations. We will seize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will also build alliances with our Commonwealth partners to promote reform at the UN and common action on the global environment. Britain has a real opportunity to provide leadership to the Commonwealth when we host the heads of government meeting in Britain at the end of 1997.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Labour will also attach much higher priority to combating global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ere are 1.3 billion people in the world who live in absolute poverty, subsisting on less than US\$1 a day, while 35,000 children die each day from readily preventable diseases.

Labour believes that we have a clear moral responsibility to help combat global poverty. In government we will strengthen and restructure the British aid programme and bring development issues back into the mainstream of government decision-making. A Cabinet minister will lead a new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We will shift aid resources towards programmes that help the poorest people in the poorest countries. We reaffirm the UK's commitment to the 0.7 per cent UN aid target and in government Labour will start to reverse the decline in UK aid spending.

We will work for greater consistency between the aid, trade, agriculture and economic reform policies of the EU. We will use our leadership position in the EU to maintain and enhance the position of the poorest countries during the renegotiation of the Lomo Convention.

We will support further measures to reduce the debt burden borne by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d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given a fair deal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our aim to rejoin UNESCO. We will consider how this can be done most effectively and will ensure that the cost is met from savings elsewhere.

Human rights

Labour wants Britain to be respected in the world for the integrity with which it conducts its foreign relations. We will mak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 central part of our foreign policy. We will work for the creation of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investigate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 new environmental internationalism

Labour believes that the threats to the global climate should push environmental concerns higher up the international agenda. A Labour government will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on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ozone depletion. We will lead the fight against global warming, through our target of a 20 per cent reduction in carbon dioxide emissions by the year 2010.

Labour believ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safeguarded in negotiations over international trade. We will also work for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a new protocol on climate change to be completed in Japan in 1997.

Leadership, not isolation

There is a sharp division between those who believe the way to cope with global change is for nations to retreat into isolationism and protectionism, and those who believe in internationalism and engagement. Labour has traditionally been the party of internationalism. Britain cannot be strong at home if it is weak abroad. The tragedy of the Conservative years has been the squandering of Britain's assets and the loss of Britain's influence.

A new Labour government will use those assets to the full to restore Britain's pride and influence as a leading force for good in the world. With effective leadership and clear vision, Britain could once again be at the centre of international decision-making instead of at its margins.

This manifesto contains the detail of our plans. We have promised only what we know we can deliver. Britain deserves better and the following five election pledges will be the first steps towards a better Britain. If you would like to help us build that better Britain, join us by calling 0990 300 900.

- cut class sizes to 30 or under for 5, 6 and 7 year-olds by using money from the assisted places scheme
- fast-track punishment for persistent young offenders by halving the time from arrest to sentencing
- cut NHS waiting lists by treating an extra 100,000 patients as a first step by releasing 100 million pounds saved from NHS red tape
- get 250,000 under-25 year-olds off benefit and into work by using money from a windfall levy on the privatised utilities
- no rise in income tax rates, cut VAT on heating to 5 per cent and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as low as possible

The New Britain

DLC | The New Democrat | March 1, 1998

Tony Blair

I want to tell the American people about a new Britain. For years, we were known more for what we once were than what we could be. For years we were content to rest on former glories rather than the self-confidence of present-day achievement.

I know what many used to think of us: We were "quaint" and a little "old-fashioned"; a country of pageantry and ceremony, bowler hats and stiff upper lips. Now, I love British pageantry and the phlegmatic strength of the British character. But Britain today is defined by much more than its history. Today, the British people are breaking down old-fashioned class barriers, seizing new opportunities, creating new products, and building strong communities.

Today the British people are characterized by creativity, ingenuity, and imagination. There is a new dynamism in our country.

Britain is a multiracial society that works. Britain is a giving country, a country of passion and compassion, a nation unafraid of change. We are confident and forward-looking.

We are never going to be as powerful, certainly in military terms, as we once were. But we can be a shining example to all of what a modern state aspires to.

Britain is home to world-beating pharmaceuticals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It has the most competitive car industry in Europe. In aerospace and new technology, we are at the cutting edge. We are first in Europe and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for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We lead Europe in financial services with 520 overseas banks in London from 76 countries. A third of the world's foreign-exchange business comes through London. We are a nation of 90 Nobel prize winners in science. When the land speed record was broken recently, it was a British team that triumphed. When people want creative designers, architects, film makers, and musicians, they turn to Britain.

A New Politics Being Born

Yet there is still much more to do. We can still do a lot better, and it will be tough while doing it. Let us be clear about our inheritance. Yes, there was some good in it. But there was also inflation in the system, a structural public deficit that had hit record debts, and an education and welfare system incapable of matching Britain's needs.

To turn it around takes time. There will be two tough years. And while we are in what I call the post-euphoria, pre-delivery stage, it will be frustrating. But do it we will. I am an unashamed long-termist. It is the only sort of politics that's worth it.

A unifying thread of ideology runs throughout the changes we are making. There is a new radical-center politics being born. When I spell out the key themes of the British government, there will be familiar echoes to much of what you are doing here. And these same echoes can be heard, sometimes faint, sometimes louder, around the Western world.

First, New Labour is the party of fiscal and financial prudence. We are set to cut out our structural deficit completely. In time, we too will balance the budget, no mean achievement for a country that a few years ago was running a deficit at 6.5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We have given over the setting of interest rates to the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has been tightened to squeeze out inflation. But we are going to end boom-or-bust in Britain for good. We are not a tax-and-spend government and never will be.

Beating boom-or-bust is the essential precondition for long-term investment and economic strength. It has been hard for our people, but it will work.

Second, education is our No. 1 domestic priority. That is the key to economic success and social justice. We have launched a huge reform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higher standards in primary schools; education authorities that take over and change failing schools; teacher training reformed; smaller class sizes; and more.

Third, painful and difficult though it is, we are going to reform the welfare state: cutting dependence, getting help to those who really need it, promoting work and a viable system of security for old age. A system where spending is up and poverty is up is a system that is not working. Education, work, and reformed welfare as well as a tough policy on crime are the keys to rebuilding decent civic society, where crime is reduced and an under-class of people no longer drift apart from society's mainstream.

Fourth, we are back as a country engaged and constructive in Europe, internationalist not isolationist in perspective. There is no future in isolationism in today's world.

Finally, we are refashioning our constitution and system of government. We are decentralizing power, reinventing government, and promoting a new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deed a Third Way

It is indeed a third way, not old left nor new right but a new center and center-left governing philosophy for the future. It is based on the values of freedom, progress, and justice. It seeks to modernize Britain but for a purpose; to create a Britain where all share in our country's prosperity, not a privileged few.

We have changed the Labour Party. Now, step by step, we are changing Britain for the better. And a new and more confident Britain will play our part, along with our allies, friends, and 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in shaping a better world.

The Right Honorable Tony Blair is Prime Minister of Britain. This article is adapted from a speech he delivered at the State Department on Feb. 6. For more information on Blair's efforts to modernize his party and the British government, visit the Labour Party web site at <http://www.labour.org.uk/>